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목차	4	역대 비엔날레
	6	인사말
	10	서문
	32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45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311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73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547	특별전 2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562	프로그램
	580	디자인
	586	후원 및 협찬, 크레딧

Contents	4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6	Greetings
	10	Preface
	32	Floor Plan & Artist
	45	Main Exhibition 1 <i>I am Everywhere but Nowhere</i>
	311	Main Exhibition 2 <i>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i>
	473	Special Exhibition 1 <i>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i>
	547	Special Exhibition 2 <i>Art Salon without Borders</i>
	562	Program
	580	Design
	586	Sponsors, Credit

역대 비엔날레	2010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자연과 생명의 시메트리-에시메트리» 김영호 커미셔너 2010. 9. 8. — 10. 29.
	2012 1회	창원조각비엔날레 «꿈꾸는 섬» 서성록 총감독 2012. 10. 26. — 11. 25.
	2014 2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달 그림자» 최태만 예술감독 2014. 9. 25. — 11. 9.
	2016 3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억조창생» 윤진섭 총감독 2016. 9. 22. — 10. 23.
	2018 4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불각의 균형» 윤범모 총감독 2018. 9. 4. — 10. 14.
	2020 5회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 김성호 총감독 2020. 9. 17. — 11. 1.
	2022 6회	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조관용 총감독 2022. 10. 07. — 11. 20.

History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0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i>Symmetry-Asymmetry in The Nature</i> Youngho KIM, Commissioner 2010. 9. 8. — 10. 29.
	2012 1st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Dreaming Island</i> Seongrok SEO, Artistic Director 2012. 10. 26. — 11. 25.
	2014 2n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The Shade of the Moon</i> Taeman CHOI, Artistic Director 2014. 9. 25. — 11. 9.
	2016 3rd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Eok-Jo-Chang-Saeng</i> Jinsup YOON, Artistic Director 2016. 9. 22. — 10. 23.
	2018 4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The Balance of Non Sculpting</i> Bummo YOUN, Artistic Director 2018. 9. 4. — 10. 14.
	2020 5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Non-Sculpture: Light or Flexible</i> Sungho KIM, Artistic Director 2020. 9. 17. — 11. 1.
	2022 6th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Channel: Wave-Particle Duality</i>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2022. 10. 07. — 11. 20.

창원의 가을을
조각예술로 물들이는 축제!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 조관용 총감독님과 추진위원님들,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을 환영하며, 이번 조각비엔날레에서 창원의 예술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원은 균형의 조각가 문신을 필두로 김종영,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과 같은 세계적인 조각가들을 배출한 조각의 도시이며, ‘가고파’의 이은상, ‘고향의 봄’ 이원수 등 걸출한 문학인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문학예술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0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으로 시작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창원특례시 전체를 무대로 하여 순환과 소통, 그리고 나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고 합니다. 옛 창원, 마산, 진해 권역을 대표하는 명소들은 조각 전시장이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창원의 예술을 담담히 이어가고 있는 지역 작가들과의 만남을 마련하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서도 축제와 같은 조각비엔날레의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조각이 곳곳에 어우러진 창원을 상상하니 다가오는 10월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보다 즐겁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부디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참여자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축제이자, 2022년 가을의 소중한 추억 한 조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Immerse Yourself in Sculpture This Fal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rtistic Director Kwanyong CHO,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all thos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t the same time, a warm welcome to our citizens and visitors from home and abroad to the creative, vibrant city of Changwon.

Changwon has produced many legendary sculptors, including Shin Moon who mastered the art of symmetry, and Chongyung KIM, Chongbae PARK, Sukwon PARK, and Youngwon KIM. It is also the hometown of Korea's greatest literary figures, such as Eunsang LEE, who wrote I Want to Go Home and Wonsu LEE, who wrote lyrics to the children's song Spring of My Hometown. The Biennale which began as the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2010 to elevate the city's artistic reputation worldwide, celebrates its sixth edition this year.

In particular, this year's event will bring the work of artists to several venues across the city and into dialogue with the public. Sculpture works will be displayed in key attractions in the old Changwon, Masan, and Jinhae areas to bring art closer to everyday life. The Open Studios program, which offers visitors the chance to meet local artists and watch them in action, is a testament to the Biennale's vision to create a joyful visual experience.

I look forward to the month of October and the clear sky and crisp air it brings. Hopefully, enjoying the works of sculpture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in the beautiful weather will leave a lasting memory in the minds of visitors.

Nampyo HONG
Mayor of Changwon City

예향의 도시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

예향의 도시 창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축제의 장인 이번 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창원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각을 특화한 국내 유일의 비엔날레 개최로 조형예술의 도시 창원특례시의 국내외 위상을 드높여 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관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창원시 전역에서 전시·학술·부대행사가 열리는 만큼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감상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관계자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실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가 조각 예술에 대한 대중의 애정과 관심으로 한층 더 높아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현대의 미와 조형예술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창원시만의 도시 브랜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The Only Sculpture Biennale in the City of Ar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t the height of autumn. I extend my special thanks to the staff of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for sparing no efforts to make this gathering of the local art community a success.

Changwon has cemented its position as the host of Korea's only biennale focused exclusively on sculpture. Its reputation as the city of sculptur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time, support, and dedication of the organizers.

For this year's event, key locations across the city will turn into venues for exhibitions, academic programs and sideline events, giving visitors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 city.

Hopefully, the organizers' efforts will bear fruit and lead to an increase in public interest in art.

Lastly, I hope the exhibitions featuring the best of local and international sculpture will provide the people of Changwon with a chanc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contemporary art, and expect the Biennale to remain as the iconic event of the city.

Thank you.

Leekeun KIM
Chairperson, Changwon City Council

조각도시 창원을 널리 알리는 대표 예술축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대한민국 유일의 조각비엔날레로 조각 도시 창원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 예술축제입니다. 2010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필두로 2012창원조각비엔날레에 이은 12년의 시간이 오늘의 ‘조각 대표 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창원이 낳은 조각계의 거장들이 공업도시에서 조각 예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마다 독자적인 예술세계와 가치를 남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예술자산의 가치를 드높여 나가기 위해 우리는 또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가을의 문을 활짝 엽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초청작가들의 작품 14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장소를 창원, 마산, 진해로 확장시켜 창원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비엔날레를 통해 벗어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게 될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는 조각이라는 통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즐기고 예술이 일상에 녹아드는 예술축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창원을 세계적인 조각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신 창원시장님과 창원예총회장단 및 회원, 추진위원님 및 조관용 총감독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Changwon’s Landmark Celebration of Sculpture is Back!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is Korea’s one and only biennale dedicated to sculpture and a standout event on Changwon’s cultural calendar. Twelve years of history spanning from the Moonshin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 2010 and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12 to this year’s Biennale has made the city what it is today: “the city of sculpture.”

Changwon is home to some of the most iconic sculptors in Korean art history, such as Chongyung KIM, Shin MOON, Chongbae PARK, Sukwon PARK, and Youngwon KIM. The artistic achievements and cultural imprints they left behind have transformed the industrial town into a hub of sculpture art.

To carry on their legacy,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once again returns to the coastal city from October 7 to November 20, 2022. It will feature approximately 140 works by artists from home and abroad at different locations across Changwon, including Masan and Jinhae.

This year’s event will help reinforce the Biennale’s identity as a genuine celebration of art and creativity that brings together the public and the art community and integrate art into everyday life.

The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the Biennale a success and Changwon an international hub of sculpture.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convey my gratitude to the Mayor of Changwon City, the board and members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s of Changwon, members of the Biennale’s Steering Committee, Biennale Artistic Director Kwanyong CHO, and staff members for putting together the wonderful exhibitions, as well as the people of Changwon for their support.

Ungkyun YIM
CEO,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문명사적 전환기’를 선도하는
창원조각비엔날레 비전

21세기를 지배하는 디지털 기술과 자연재해(natural disaster)로 세상이 변하고 세계관이 바뀌면서 시대를 담아내는 예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격변의 시대를 ‘4차산업혁명’이라 선포하고 지식사회에서는 ‘문명사적 전환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에 없는 변화는 인공지능과 로보테크놀로지 분야의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연 환경 생명 생태의 바이오 개념을 예술계의 이슈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는 변화하는 세상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주제를 내놓은 총감독을 과감히 모셨습니다. 예술이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면 비엔날레는 그릇들을 모아 이념과 사상의 체계로 다듬어가는 실험실임을 예의 주시한 결정입니다. 조관용 총감독이 내세운 주제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현대 양자물리학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현실의 시대상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로 준비된 전시와 프로그램들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한층 더 높이고 문화도시 창원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팬데믹 시기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속적이고 특화된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으로 비엔날레를 아껴주시는 창원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비엔날레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들과, 관객들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2022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김영호

Biennale at a Turning Point in
Civilization’s History

As advances in 21st century digital technologies and natural disasters continue to shape the world and our views of the world, art, as a reflection of its time, is also changing. This turbulent time is describ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economists or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by scholars. This unprecedented wave of changes is driving innovation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while triggering renewed interest among the art community in the concept of “bio” associated with nature, the environment, life, and ecology.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is delighted to welcome aboard an Artistic Director who proposed a theme that reflects the changing world and our response to it. This decision is in line with a belief that if art is a mirror of reality, the Biennale is a lab that where we put together different pieces of a mirror to create a refined system of ideas and thoughts. Director Kwanyong Cho’s theme –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 embraces the reality of the times we are living in, based on the concept of quantum mechanics. I believe the exhibitions and programs organized under the timely theme will help reinforce the Biennale’s identity and establish Changwon’s vision as the city of culture.

I am grateful to the Mayor of Changwon City, members of the Changwon City Council, and Changwon citizens for their support to ensure the event’s success,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andemic.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warmly welcome participating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visitors. The Steering Committee will stay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the Biennale consolidates its position as the most prestigious cultural event in the region.

Youngho KIM
Chairperson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Steering Committee

서문

조관용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Preface

I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린 시절 밤하늘에 무수하게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다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생각으로 몸서리쳐 보았을 것이다. 무한한 우주에서 ‘나’란 존재는 먼지 한 톨 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죽은 뒤에 나란 존재는 조그마한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질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2022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인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Channel: Wave-Particle Duality)’이다.

전시 주제인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채널’과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널(channel)’은 주파수 대역이나 방송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란 실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시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에 따라 주파수를 수신하여 펼쳐놓은 방송국의 영상이미지의 세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의 시각은 ‘나’란 실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입자’의 근원적 실체에 대한 탐구이지만 또한 매스(mass)를 통해 생명의 실체를 표현한다는 조각이론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매스는 생명의 실체를 표현하는 최적의 용어가 될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E=mc^2$ 이며, 입자는 양자역학에 의하면 입자이자 파동이기에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대 물리학은 나의 개체(영혼)가 입자 알맹이에 담겨 사후에도 우주의 어딘가에 독립적으로 위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은

I
Where did I originate?

We all had a moment as a child when we looked up at the countless stars dotting the night sky and shuddered at the thought that we were just an unimpressive speck of dust in the infinite universe. Then we would realize that when we die, we would be gone without leaving so much as a trace behind us. The theme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or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is a journey to find answers to these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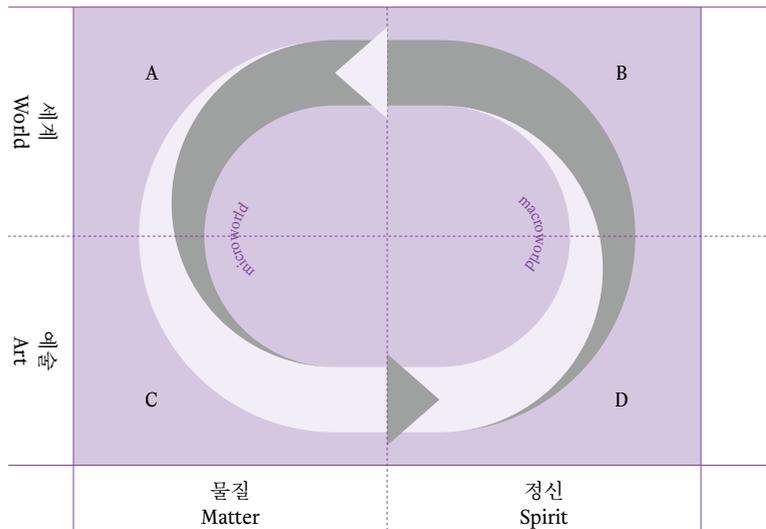
The theme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 “Channel,” and “Wave-Particle Duality.”¹⁾ The former, by definition, means a band of frequencies or a broadcasting station. It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I” as substance. The perspective of the “I” is not fixed. Instead, it resembles the world of broadcast video images created by receiving a preferred frequency. Therefore, the view of the “I” represents the “I” as substance.

“Wave-Particle Duality”¹⁾ is an exploration into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a particle. At the same time, it challenges the sculpture theory where the substance of life is expressed in the form of mass. Is the word “mass” best fit to portray the substance of life? According to EINSTEIN and quantum mechanics, the answer is no. EINSTEIN suggests $E=mc^2$ instead, and quantum mechanics says every particle is both a particle and a wave. This explains why modern physics considers it delusional to believe that one’s entity (soul) exists independently somewhere in the universe after death, contained in a particle.²⁾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¹⁾

그러면 ‘채널-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세계로 한걸음 더 다가가 보자.

Let's take a step closer to the symbolic meaning of the Biennale's theme this year.



- A. 입자와 파동
- B.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의 전일성과 생명의 순환
- C. 조각적인 매스에서 개념적인 매스로 - 융복합적인 입체, 설치, 영상
- D. 창작 과정 중심의 교류와 체험 - 작품제작워크숍, 오픈스튜디오

- A. Particle and wave
- B. Wholeness of man and other forms of life in nature, and circulation of life
- C. From sculptural mass to conceptual mass: Convergent 3D forms, installations, and videos
- D. Process-centered creative exchanges and experiences: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and Open Studio

II 나는 어디에 있을까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양자역학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의 개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정신’과 ‘물질’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자 ‘정신’이라는 것, 달리 말해 모든 것들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합일되며, 순환하는 실체임을 의미한다. 즉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이라는 전시 제목은 ‘나’를 비롯하여 개별체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채널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의 개념을 대비시켜 해석해 본 것이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물질의 개념을 정신이자 물질의 개념으로 전회시킴으로써 예술, 현대 조각, 그리고 인간과 생명의 개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조각의 분야에 있어서 매스 중심의 개별적 입체 조형에서 융복합 관점의 탈장르적 입체조형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확장된 영역에서 조각(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에서 건축이나 풍경의 개념을 부정(not)하는 방법을 통해 조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근원적인 실체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조각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매스(덩어리)’라는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지만, 그러한 질문은 조각

II Where am I?

“Wave-Particle Duality”¹⁾ is a poetic expression of wave-particle duality in quantum mechanics. The duality does not highlight the disparity between “spirit” and “matter.” Rather, it shows that an entity can be both “spirit” and “matter.” In other words, everything is united as one, instead of existing independently, and is a circulating substance. Therefore, “Channel: Wave-Particle Duality”¹⁾ is an interpretation of a channel which symbolizes every individual entity including the “I,” based on the dualism of particle and wave.

The theme of the Biennale offers a new perspective on art and contemporary sculpture, as well as the concept of man and life by transforming the concept of matter into the concept of both spirit and matter. This has three key takeaways.

Firstly, wave-particle duality signals an expansion from mass-based, three-dimensional individual sculpture to anti-genre, three-dimensional fusion sculpture. It expands the concept of sculpture by questioning the fundamental substance of matter, instead of defining it by what it is not (not-architecture or not-landscape) as Rosalind KRAUSS did in *Sculpture in the Expanded Field*. The dualit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mass” as a substance can exist independently. In fact, this question is not limited to sculpture, but applies to physics, biology, and humanities. Thus, the duality of particle and wave represents an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culpture by questioning its content (physics, biology,

분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인문학 전체에 걸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조형의 형태(건축, 풍경 등)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조형의 내용(물리학, 생물학, 인문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한 조형 개념에 대한 확장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창작 결과만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 중심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개체가 전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창작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블라파츠키가 『비경』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간의 관심과 교류를 통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의 유기적인 관계와 생태계의 순환의 관점, 즉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순환의 관점으로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대한다고 할 수 있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Channel: Wave-Particle Duality)»은 동양의 일원론적인 생명의 개념을 양자역학의 관점을 차용하여 재해석한 것이며, 학제 간의 이론적인 논의들을²⁾ 예술가의 입체적 시각이미지로 펼쳐보아 탐험해보는 하나의 장(場, field), 즉 자연의 생명체들을 물건과 같이 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생명체들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색해보는 자리이다.

and humanities), rather than its form (architecture and landscape).

Secondly, the duality focuses on not only the result of creation, but also its process. Under the duality, an individual is not separated from the whole, so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hat can be owned individually. Then,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creation?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knowledge, it is to gain experience through interest and exchange between man and man and between man and object, as H.P. BLAVATSKY notes in *The Secret Doctrine*.

Lastly, the duality denies the separation of “spirit” from “matter.” Instead, it stress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the cyclic nature of ecosystems – that is, the circulation of the micro and macro worlds – in addressing man and every living being in nature. The Biennale is a quantum mechanical take on the Eastern monistic view of life and a venue to translate interdisciplinary academic dialogue³⁾ into three-dimensional visual language. All things considered, it presents an opportunity to break away from the notion of treating living organisms as an inanimate object and contemplate on how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How much does light weigh? Jinyo MOK’s question challenges the physical hypothesis that if light particles that have weight rush toward the Earth, the Earth will collapse. MOK takes a step further to ask whether a physical particle containing my being (soul) can exist individually in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빛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목진요의 질문은 빛이 입자적인 무게를 지니고 지상으로 직진하면, 지구는 붕괴될 것이라는 물리학적 가설과 우주에는 나의 개체(영혼)를 담은 물리적 입자 알맹이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이다. 김윤철과 마이클 위틀은 그러한 질문에 태양을 가리키며 답한다.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는 불꽃에서 개별적 물리적 입자들은 모두 하나로 융합한다. 그 속에서 나의 개체(영혼)를 담은 물리적 입자 알맹이는 찾을 수 없다고.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블라파츠키의 『비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공간은 존재한다고. 나는 어떻게 생성되어 나왔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우주의 모든 것들은 블라파츠키에 의하면 최수환의 <무중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반대의 두 개의 음과 사이의 힘으로 생성된 진공의 상태에서 생성된 독립된 알맹이들이 무수히 조합한 실체들로 만들어 놓은 세계와 같다.

영원한 것 같은 고체덩어리도 한진수의 <우연한 꽃>에서 보게 되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의 <In Winter I Will Fly>의 공중에 떠 있는 비닐과 같이 공기 중에 있는 바람에 의해 부풀려진 허상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우주는 김근재의 <보여지는 바람>이나, 또는 이원우의 <바람둥이 X>, 정아사란의 <떨림의

the universe. Yunchul KIM and Michael WHITTLE respond to him, pointing to the sun. They argue that in the scorching flames, all individual physical particles fuse together as one. It would be impossible to find a physical particle containing my being (soul) from there.

Where did I originate? Where did everything in the universe come from? BLAVATSKY notes in *The Secret Doctrine* that space exists where there is nothing else. How did I come into being? How did the universe come into existence? BLAVATSKY suggests that all things contained in the universe are infinite combinations of independent particles created in a vacuum, the state Suwhan CHOI achieves in *Zero* by placing two speakers emitting sound waves facing each other.

Seemingly eternal solid matters eventually disappear as time passes, much like the floating bubbles in Jinsu HAN’s *Uncertain Flower*. They may be an overblown illusion like the plastic balloon in the air in Alistair McClymont’s *In Winter I Will Fly*. In the universe, perhaps the seen and the unseen coexist, as shown in Guenjae KIM’s *Wind to Show*, Wonwoo LEE’s *The Windy X*, and Asaran JEONG’s *Trace of Tremor*, The lines are often blurry between what is real and what is not, as Alicja KWADÉ’s *Hemmungsloser Widerstand* suggests. Perhaps the unseen world is underpinning the seen world,

Hearing, smell, and touch are the media through which we explore the unseen world. Radio waves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but they do travel in the air. *Memorial Antenna* by Jungki BEAK highlights the visual elements of

흔적>과 같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공존하며, 알리시아 크바데의 <Hemmungsloser Widerstand>의 조각과 같이 실재와 가상의 세계가 모호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들을 지탱시켜주고 있는지 모른다.

청각과 후각, 촉각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는 전파들이 퍼져 있다. 백정기의 <메모리얼 안테나>는 동상이 지니고 있는 시각적 조형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흐르는 전파를 동상을 안테나로 이용해서 그 수신음을 들려주고 있다. 일상의 사물들도 사람들마다 각각의 이야기를 내재하고 있다.

배성미의 <침묵 속에도 소리가 있다>는 일상의 것들-돈, 기름, 쌀, 철조망, 기계의 부속-을 수십여 개의 네모난 상자에 담아 관객들로 하여금 마주하게 한다.

악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유한 음률을 연상시킨다. 임형준의 <소리-Bruit>는 바이올린의 형상을 통해 소리의 정서적 울림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생명체들에도 소리가 있다. 각각의 생명체들의 소리에도 자연의 모든 것들을 내재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3·15 해양누리 공원의 전경을 담아내며, 잠자리의 날개 짓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표현해낸 조각이 이성욱의 <자연의 소리>이다.

강은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근원으로 인간과 자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크리스 마이어의 <Sounding Waters: Nakdong River, South Korea>는 한국의

a statue, while using it as an antenna to receive radio signals in the air. Everyday objects can evoke different stories depending on the beholder. In Sungmi BAE's *There is a Sound in Silence*, visitors are faced with dozens of boxes containing daily objects, including money, oil, rice, barbed wire, and a mechanical part.

Every musical instrument has a unique quality of tone. Hyoungjun LIM's *Sounds-Bruit* uses the shape of a violin to deliver the emotional reverberations of its sound. All living creatures have a sound that represents different aspects of nature. Sungok LEE's stainless steel sculpture, *Sound of Nature*, features a set of fluttering dragonfly wings to reflect the landscape of 3·15 Nuri Marine Park and the sound of nature.

Rivers are the cradle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source of life that connects man and nature. In *Sounding Waters: Nakdong River, South Korea*, Chris MYHR followed the bike trail along the banks of Nakdong River to collect underwater recordings of the river that has been central in shaping Korea's industry, culture, and history. Another work, Marco BAROTTI's *CLAMS* is a collection of kinetic sound sculptures which convert data from water quality sensors into sounds and movement. Made of recycled plastic waste, BAROTTI's clams illustrate the harmonious symbiosis between man and nature.

Junseub SIM's *Noise of Circulation* and Hyunsook HONG LEE's *12m Down, in the Dark* allow viewers to experience another dimension of space through sound, smell, and touch. The former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tinnitus, or the

산업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준 낙동강의 자전거 길을 따라 다니며, 낙동강의 수중 세계 소리를 녹음하여 들려주고 있다. 마르코 바로티의 <CLAMS>는 마산 서항의 수질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개 작업을 통해 소리와 움직임으로 전환한 키네틱 사운드 조각 작품이다. 바로티의 조개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 들 간의 공존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심준섭의 <순환의 소음>과 홍이현숙의 <12m 아래, 어둠 속>은 소리와 후각, 촉감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심준섭의 <순환의 소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을 소리의 증폭과 불빛의 변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홍이현숙의 <12m 아래, 어둠 속>은 퍼포먼스 참여자들이 작가가 제안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공간에서 안내자와 함께 연출한 영상 작품과 후각을 자극하는 설치작품으로 연출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강인해 보이는 고인돌도 김진희의 <오솔길 - 내적 갈등>에서 보듯이 시간이 흐르면 먼지로 사라진다. 나는 누구일까? 오정선의 <담을 수 있다면... 담을 수 있겠지>, 김혜경×진케이×최재필의 <시간과 공간을 잇다>는 유리 캐스팅과 픽셀 형태의 브릭으로 시간을 가로지르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 '나'란 실체가 무엇인지를 사색하게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질 존재, 우리는 왜 이 지상에 왔을까? 우리는 카토 츠바사의 <Anthem while Bound>의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음률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마법적인 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원택의 <미스터 몽키씨의 일기>나, 또는

perception of sound with no external source, in the form of amplified sound and irregular flashes of light. The latter is a group performance piece where participants navigate the pitch black space while relying on smell, touch, and sound, with the help of a guide.

Jinhui KIM reminds us of the transience of life in *Path - Inner Conflict*, as robust dolmens will someday turn into dust. *If It Can Hold It... It Shall Be Contained* by Jungsun OH and *Pixel: Bridging Time and Space* by Hyegyounng KIM×Jin Kei×Jaepil CHOI use glass casting and pixelated bricks to invite us to reflect on our memories that transcend time and consider who we really are. We are all destined to vanish as time goes by. Then why did we come to Earth in the first place? As Tsubasa KATO warns in *Anthem while Bound*, no song is a magic bullet for making us become a member of a certain community. Wontaek KANG's *A Diary of MR. YELLOW MONKEY* and Fahrettin ÖRENLI's *The Gene of Cities* imply that we are not meant to live trapped in a skyscraper all day for someone else. Even the act of walking which we often take for granted is one of the achievements of long-term human evolution, as seen in the kinetic installation in *The Walking Man II* by Earl PARK. After all, we are here on Earth to experience life, as Joocho KIM's *Shout with no Hesitation* and Soonmi OH's *Sealed Eternity_Life* indicate.

NEWTON's concept of time is different from EINSTEIN's. NEWTON argued time was absolute regardless of context, while EINSTEIN established that it was relative. In *Proper Time*, Wan LEE takes the theory of relativity a step further by

파렌틴 오렌리의 <The Gene of Cities>에서 보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하루 종일 고층 빌딩에 갇혀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걷는 행위도 박얼의 <The Walking Man II>의 키네틱 장치를 통해 보는 것처럼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것처럼 우리는 김주호의 <거침없이 외쳐라>나, 또는 오순미의 <봉인된 시간, 삶>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상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 것이다.

뉴턴의 시간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뉴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시간은 불변하나 아인슈타인의 시간은 시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다. 그러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시간 개념을 각 개인이 타고난 신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상의 삶에서 느끼는 시간 개념을 해석하면 어떻게 다가올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 각 개인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받는 임금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이 이완의 <고유시>의 작업이다. 유화수x이지양의 <그린 스테이지> 속의 인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시간은 어떠할까?

원관에 닿을 듯 말듯 깃털들이 돌아가고 있는 작업이 신승연의 <구름의 흔적>이다. 깃털들은 조금이라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엉클어진다. 마치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를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처럼. 양정옥의 <대화의 풍경>은 그러한 맥락을 심화시켜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치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한 차이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examining how time passes at different rates in everyday life for different people, depending on the physical and contextual circumstances, including wage. The clocks were made to run at different speeds that were calculated based on a survey of people around the world. How will time pass for the person in *Green Stage*, an installation by Hwasoo YOOxJeeyang LEE?

Seungyun SHIN's *Clouds: Leave a Trace* features feathers vibrating and rotating as they are about to touch a round disc. If they fail to maintain the exact distance from each other, they will easily get tangled in the air. The delicate balance hints at how our relationship with others should look like. Junguk YANG develops this context further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rried couple in his installation piece *Scenery of Dialogue #10.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Version 3)* by Bernhard DRAZ and *DISPUT* by Juergen STAACK are an extension of this idea beyond individuals to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Money is merely a socially agreed upon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uy physical or mental labor. But it is useless without the people who can guarantee its value. The idea that you can measure the worth of everything with money may be a delusion that is completely divorced from everyday reality, as Yongbaek LEE depicts in *NFT Museum: The Thinker*. Perhaps we are blindly clinging to the delusion and driving people away from their homes, as seen in *You Are Now Leaving...* by Olia FEDOROVA. Soonho JEONG's *Empty Gestures and Performatives* reinforces

작품이 벤하드 드라츠의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Version 3>나, 또는 유르겐 스타크의 <Disput>이다.

돈의 가치는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담보하는 약속 기호에 불과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할 때 돈의 가치를 담보할 사람들이 없다면, 돈은 그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원하는 생각은 이용백의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에서 보듯이 일상의 실체들과 실제로 조우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망상을 쫓아 올리바 페도로바의 <You Are Now Leaving...>의 작품에서 보듯이 사람들을 자신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용성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정순호의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제스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물조차도 라캉의 말처럼 사물 안에 있는 무언가, 그 무언가가 실재하는 신비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시간이 생애 마지막의 순간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문호의 <마지막>의 의미와 같이. 그 순간에 우리는 차주만의 <믿음만 있으면 건널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지 못한 것을 실행하고 있을까. 아니 그때에야 이준의 <맹목(1)>과 같이 타인도 자신의 일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정혜경x키토 사길데벗의 <현실 위의 인위_공생양육>의 이야기와 같이 타인의 아이도 자신의 아이와 같이 키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 성황당의 오색천, 어선의 만선기, 장례

Jacques LACAN's notion that something in the Thing is an existential mystery, the moment it breaks away from the world of usefulness.

Moonho LEE's *THE LAST* questions, "What would you do if this were the last moment of your life?" Would you be trying new things that you have not done before, with the conviction displayed in Jooman CHA's *I Can Cross If I Have Faith?* Would you realize at last that the other is in fact part of you, as June LEE points out in *Unconditionally (1)*? Would you finally have the peace of mind enough to nurture other people's children with your own – the idea represented in *Artificiality above Reality_Symbiosis Nurture* by Hyekyung JUNGxKito SAGILDEBEOT? Inspired by colored strips of cloth in a village shrine, a "good haul" flag on a fishing boat, and an elegy banner carried in a funeral procession, Juyen GANG's *Space of Thought* introduces the idea of spending time ardently praying for others, instead of spending it for oneself. In this aspect, it circles back to the last moment of life in LEE's *THE LAST*.

Living in the asphalt-covered city, we are often under the mistaken impression that nature is somewhere far away. But in reality, it is everywhere. If you tear down your house and leave it for a while, the plot of land will soon turn into a forest. Sukwon HA's *Drawing a House*, Sookyun YANG's *In the Forest of Speculation*, and Eddi PRABANDONO's *Green Green Green Go Ahead* challenge whether we could identify the constructed boundary between man and nature. Defining such boundary may be a good starting point in discussing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행렬의 만장기에서 영감을 얻은 강주연의 <사유의 공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문호의 <마지막>의 시간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아스팔트로 깔려 있는 도시, 우리는 자연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먼 곳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곳은 바로 숲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석원의 <집을 그리다>와 양숙현의 <사변의 숲에서>, 그리고 에디 프라반도노의 <Green Green Green Go Ahead>는 그러한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으며, 안씨 타올루의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들 간의 긴장 관계는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들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인간과 자연의 생명체는 우리와는 다른 창조자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공간에서 생성되어 나온 실체들로서 김진우의 <진화의 비밀 J-7>에서와 같이 함께 공존하며 진화하는 존재들이며, 호이팅이 <Sewing Fields: Anthropoid Bee>에서 이야기하듯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진화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이나 자연의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고, 연구소의 실험체와 같이 대하는 순간 김범수의 <무엇임>의 생명체는 작품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존재하는 생명체가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생명체들 정상에

which are evident in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by Anssi TAULU.

According to BLAVATSKY, humans and other living beings in nature are entities generated from space, rather than God's creation. They evolve in coexistence, as shown in Jinwoo KIM's *The Secret of Evolution J-7*. HOU I Ting's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reveals the collaborative evolution of different species through interaction. When humans no longer respect life and living creatures and start treating them as lab subjects, Beomsoo KIM's imaginary figure in ti may come to life.

Humans are not at the top of the ecological pyramid. Instead, all living organisms are interconnected, as highlighted in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_2022* by Yeonsook LEE, *Lux Fish* by Hyunsuk OK, and *Comus Controversa 1298-1* by Kiil LEE. Just as a flower blooms and fades, all life undergoes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This phenomenon is mysterious and holy in itself, as Simone HOOYMANS notes in *The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In quantum mechanics, the micro- and macro-worlds are closely interconnected, as revealed in Jinah ROH's *The Velocity of Hyperion* and Michal GAVISH's *From Synapses to Free Will. Parallel World* by Changwon LEE demonstrates the causality between two worlds that are "the other" to each other. By doing so, it allows viewers to embark on a journey to find themselves in quantum mechanics and suggests that "the common division of the world into subject and object, inner world and outer world, body and soul, is no longer adequate. It is

위치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호주 중앙 사막의 여행을 소환하는 이연숙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_2022>나, 또는 옥현숙의 <은빛 물고기>와 이기일의 <층층나무 1298-1>에서 보듯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인 것이다. 꽃이 피어나고 지는 것과 같이 자연의 생명체들의 탄생과 소멸은 시모나 호이먼스가 <The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그 자체로 신비로우며, 교회당의 예배소와 같이 성스러운 순간이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는 양자 역학의 세계에서 노진아의 <히페리온의 속도>와 미칼 가비쉬의 <From Synapses to Free Will>에서 보듯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창원의 <평행세계>는 서로가 타자인 두 세계의 인과성을 통해 "세계가 주체와 객체,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계는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 그 자체이다."3)라는 양자 역학 안에 있는 '나'의 실체를 찾아 떠나게 한다.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마음의 세계이다. 그 마음의 세계는 생경함, 하이브리드, 오딧세이, 현현, 연속성, 현존재, 세계깃기, 상호작용, 편해공생, 들여다보기, 얽힘, 파편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곳에서

not divided into the observer and the observed. The world, in itself, is a web of relations, rather than a group of objects.⁴⁾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is not a reality, but the world of virtually-connected minds. One can access this world through the doors (keywords) called "uncharted", "hybrid", "odyssey", "epiphany", "continuity", "dasein", "worlding", "interaction", "amensalism", "peeking through", "entanglement", and "fragment". The doors lead to famous landmarks across Changwon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Seongsan Art Hall, Dotseom, Changwon Arboretum, Masan Fish Market, Jinhae Black & White,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Junam Reservoir, Gwangam Beach, Jinhae Dream Park, March 15th National Cemetery, Jinhae Jungwon Rotary, Jinhae Post Office, Changwon Rose Park, Changwon Science Center, Yongji Lake Park, and 3-15 Art Center). But the places depicted in the works appear different from the Changwon we used to know.

They may be the future of Changwon - the city with a thriving art scene facilitating global art exchanges - seen through the eyes of 35 individual artists and groups from 21 countries (Guatemala, Italy, USA, Switzerland, Malaysia, Ireland, Türkiye, Brazil, the Netherlands, Spain, Nepal, UK, Norway, Canada, Germany, Japan, France, Australia, Greece, Taiwan,

처음으로 보는 풍경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창원시의 다양한 장소(창동예술촌 아트센터, 성산아트홀, 돌섬, 창원수목원, 마산어시장, 진해흑백다방,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주남저수지, 광암해수욕장, 진해드림파크, 마산 국립 3·15 민주묘지, 진해중원로터리, 진해우체국, 창원장미공원, 창원과학체험관, 용지호수공원, 마산 3·15아트센터)이지만, 작품을 통해 펼쳐진 그곳의 파노라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창원시와는 다른 낯선 광경들이었다.

그 낯선 광경들은 21개국(과테말라,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튀르키예, 브라질, 네덜란드, 스페인, 네팔,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그리스, 대만, 가나)의 35명(팀)이 만들어 놓은 창원시의 미래의 청사진일지도 모른다. 국제적인 미술 교류로 인해 세계의 모든 미술 문화가 꽃피어 나는 곳.

마음은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육체적인 시각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물질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 세계는 스웨덴의 신비주의자인 스웨덴보르그에 의하면 육체와는 달리 사람들의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마음의 세계는 양자 역학의 공명의 세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세계일지도 모른다.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생각을 발산하면, 그러한 생각들은 물리적인 진폭과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수만큼 증폭되며, 그러한 에너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and Ghana).

BLAVATSKY argues that while the mind is invisible to physical eyes, it has material substance. The world of minds, according to Swedish mystic Emanuel SWEDENBORG, is where people can clearly see through others' thoughts, unlike that of bodies. After all, it may be a place where the concept of resonance in quantum mechanics can be best realized.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tems from the idea that when a group of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expresses the same thought, such thought amplifies by the number of people gathered, and the resulting energy could make a difference in this world. Viewers are invited to click one of the keywords on the screen to navigate the world of resonance.

In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Stephanie ROTHENBERG & Suzanne THORPE present a speculative operetta about the listening body of the oyster set against Dotseom. Known as Wolyeongdo in the late Joseon period, Dotseom in Masan made its name in the 1980s as Korea's first amusement park built on an island. Other works showcas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island include Alper AYDIN's *Breath Project*, an installation toying with the idea of growing edible plants with human breaths; Vanessa ALBURY's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that supports oyster and mussels populations, which are water purifiers and homes for other sea life; and Theun KARELSE's *Future of the Delta*, a video capturing seaweed's ability to adapt to any movement of water.

의미에서 전시를 출발하고 있다. 이제 인트로 키워드들을 터치하면서 공명으로 펼쳐놓은 세계로 나아가보자.

스테파니 로텐버그 & 수잔소프는 마산 돌섬에서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ing>의 영상 작품을 통해 굴의 청각 기관에 대한 사색적인 오페라타를 들려준다. 마산 돌섬은 구한말의 월영도로 불리는 작은 섬으로 1980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해상유원지로서 유명하였다. 이외에도 돌섬은 인간의 숨으로 식용식물을 키우는 설치작품을 영상으로 담은 알퍼 아이딘의 <Breath Project>,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굴과 홍합 개체군을 지원하는 바네사 알버리의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해류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해조류의 특성을 담아내는 영상인 시온 칼헤스의 <Future of the Delta>의 작품이 있다.

마산과 진해를 통합한 창원의 해안선 길이는 무려 324km이지만, 마산의 하나뿐인 해수욕장이 광암해수욕장이다. 광암해수욕장은 진동만의 수질 악화로 2002년 폐쇄되었다가, 2018년 다시 재개장하였다. 그곳에 설치한 작품은 아감 슈레사의 <Beyond the Horizon>,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의 <Respiration>, 첸한성의 <Thwack Thwack Thud>이다. 아감 슈레사의 <Beyond the Horizon>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지를,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의 <Respiration>는 무생물인 금속 블록 또한 숨 쉬는 존재라는 것을, 첸한성의 <Thwack Thwack Thud>는 센서로 작동하는 벌목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대한

Changwon merged with the neighboring cities of Masan and Jinhae, and together their coastline spans 324 kilometers. But Gwangam Beach is the only beach in the Masan area. It was temporarily shut down in 2002 due to the deteriorating water quality of Jindong Bay, but reopened in 2018. Among the works installed in this picturesque beach are *Beyond the Horizon* by Agam SHRESTHA, *Respiration* by Kerem Ozan BAYRAKTAR, and *Thwack Thwack Thud* by Han Sheng CHEN. SHRESTHA challenges us to prioritize what is important in life, while BAYRAKTAR shows that metal cubes, too, can breathe, and CHEN raises awareness of indiscriminat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with sensor-activated tree choppers.

Located at the heart of the Changwon city, the Yongji Lake Park hosts Despina CHARITONIDI's *To Fall with Grace* and Ivan HENRIQUES's *Microscope Light Machine*. The former depicts a dehydrated future where humans have depleted all natural resources. The latter is a reminder that we are surrounded by millions of living entities without knowing it. The artist demonstrates how a droplet of water functions as a lens magnifying the microorganism inside it, inviting viewers to observe the rich biodiversity of the Yongji Lake.

Junam Reservoir is Korea's largest seasonal habitat for migratory birds, with a warm climate, abundant food resources, and a constant volume of water throughout the year. The artworks featured in the reservoir are Pól McLERNON's *ANU* which reveals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용지호수공원은 창원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데스피나 차리토니디의 <To Fall with Grace>와 이반 헤이케스의 <Microscope Light Machine>의 작품을 설치하였다. 데스피나 차리토니디의 <To Fall with Grace>는 인간으로 인해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메마르고 황폐한 미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수백만 종의 생물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를 지각하지 못한다. 이반 헤이케스의 <Microscope Light Machine>는 어떤 장소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을 광학적인 확대경으로 비추어 미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작가는 용지 호수 안에 물방울을 확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주남저수지는 1년 내내 저수량이 일정하며, 기후가 따뜻해 각종 먹이가 풍부하여 한국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주남저수지에 설치해 보여주는 작품은 인간도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체라는 폴 맥레논의 <Anu>와 물도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존 멜빈의 <The Water is Life> 이다. 주남저수지와 같이 창원의 생태적인 장소가 진해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이다. 진해 생태공원에는 네덜란드 호르닝언의 전원지역의 수중경관의 모습을 마치 지구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것 같이 보여주고 있는 쿠스 부이스트의 <SLOOT>와 인간과 자연의 생존 기반을 이루고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한 종들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이아 린드라의 <Necrobiopsi 11-2022>이 있다.

마산어시장은 조선시대에 해상 교통의

that humans are one of the entities constituting the universe, and John MELVIN's *Water is Life*, a metaphorical representation of its namesake. Another well-known ecological spot in Changwon is the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which hosts Koos BUIST's *SLOOT*. BUIST explores the underwater landscapes of ditches in the countryside of Groningen in the Netherlands in a manner that follows the evolution of the Earth. Gaia LEANDRA's *Necrobiopsi 11-2021* is also featured in this site, as it captures the fascinating world of microorganisms that constitute the foundation of human survival.

The Masan Fish Market was formerly known as the Masan Market. It opened in Masanpo Port, the hub of maritime transport during the Joseon period. Situated next to the market is the Chang-dong Art Village which was built in May 2012 as par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imed at reviving the old city center and promoting the local art community. The fish market serves as the backdrop to *The Farm Fountain 4* where Ken RINALDO & Amy YOUNGS experiment with growing ornamental fish and plants in an indoor ecosystem based on aquaponics. In the art center inside the Chang-dong Art Village, visitors can view *Give Water to Life*, a video by Frédéric KRAUKE documenting how a sapling planted in a kimchi pot grows and eventually causes a piece of Berlin Wall to crack; *Tierra* by Regina José GALINDO which tells a story of the 36 years of civil war and genocide in Guatemala that involved arson, rape, torture, and murder and claimed over 200,000 lives; and

중심지인 마산포에 개설되었던 마산장의 명맥을 잇는 전통시장으로 창동에술촌의 바로 옆에 있다. 창동에술촌은 옛 마산 원도심권의 잃어버린 상권 기능 회복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5월에 조성되었다. 마산어시장은 아쿠아포닉스를 기반으로 하여 실내 생태계를 통해 관상류 어류와 식물을 키우는 설치물을 영상으로 담은 켄 리날도 & 에이미 영의 <The Farm Fountain 4>가 있다. 창동에술촌 안에 있는 창동에술촌 아트센터에는 김치독에 심은 나무가 자라 베를린 장벽 조각에 금을 가게 하는 영상 작업인 프레데릭 크라우케의 <Give Water to Life>와 과테말라의 36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인해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방화, 강간, 고문, 살인 등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레히나 호세 갈린도의 <Tierra>와 물방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작가의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켄 스크의 <Inner Horizons>이 있다.

창원 도심 속에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창원수목원과 창원장미공원은, 링크에 접속하여 화면을 탭하면 주변 환경을 코스모스로 꾸미는 AR 작품인 크리스틴 루카스의 <Cosmic WildflowAR>과 작가 가리넨에 수놓은 문양과⁴⁾ 그 문양을 통해 특정 식물에 대한 이야기나 움직임을 탐구하는 영상 작업인 레이첼 핼의 <The Garden of the Net-work of 2020>, 그리고 기존의 육체를 벗어던지고 인간, 동식물, 기계를 상호 보완하여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몸체에 대한 탐구를 하는 존재에 대한 3D 영상 작업인 나오 우사미의

Inner Horizons by Cat SCOTT that envisions what it would sound and feel like to be inside of a bubble.

The Changwon Arboretum and the Changwon Rose Park offer visitors a chance to experience nature in urban settings. Besides the plants and flowers, they can also enjoy Kristin LUCAS's *Cosmic WildflowAR*, an AR project where users can tap the screen to place Cosmos flowers in their surroundings; Rachel PIMM's *The Garden of The Net-work of 2020* that focuses on a motif embroidered on linen⁵⁾ to explore the stories of specific plants and their movement; and Nao USAMI's *Ambiguous Lucy*, a 3D video project about Lucy who sheds her skin and searches for a new body in a world where humans, animals, plants, and machines fuse into one an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The area surrounding Jinhae Station is Changwon's old downtown and is home to building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se buildings are reminiscent of the country's modernization period in the 1950s and 60s. Just a block away from the station are Jinhae Jungwon Rotary, Jinhae Black & White, and the Jinhae Post Office. The works placed in this area include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by Laura ACOSTA & Santiago TAVERA that uses grotesque, amorphous bodies to represent lived experiences and memories; *Untitled (Mammoth Video)* where Don EDLER digitally removes mammoths from the landscape using Runway ML⁶⁾; *Animal Crossing BLM Protest* by Adelle LIN that documents a protest and a fundraiser organized in the game Animal Crossing

〈Ambiguous Lucy〉가 있다.

창원의 구도심의 하나인 진해역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건축물이 남아 있어 50년대와 60년대의 근대화 시기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진해역의 한 블록을 가로지르면 위치해 있는 진해 중원로터리와 진해 흑백다방, 그리고 진해우체국에는 흔적과 기억을 그로테스크하고 무정형의 신체로 표현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 로라 어코스타 & 산티아고 타베라의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와 RunwayML⁵⁾을 이용하여 메머드가 지구상에서 감춰버린 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한 돈 에들러의 〈Untitled, Mammoth Video〉, 코로나로 인해 봉쇄조치로 집에 머물면서 『동물의 숲』 게임 속에서 인종차별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을 기리는 추모관을 만들어 가상시위와 기금 모금 행사를 주도한 영상 작업을 보여주는 아델 린의 〈Animal Crossing BLM Protest〉, 디지털 세계에서 시적 형식으로 예술 교류를 촉진시키는 웹 퍼포먼스 작품인 엘리사 스토크의 〈vorstellen.network〉, 독일 정부가 사용하는 방언인식 소프트웨어의 인터랙티브 사운드 에세이 작품인 페드로 올리베이라의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가 있다.

진해드림파크에는 피비우스의 띠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사유하는 참여형 온라인 게임을 영상으로 담은 마사 바이츠만의 〈Game of Six Senses〉와 2016년부터 시작된 생명시스템과 자가실험 기반의 초학문적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7년 카펠리카 갤러리에서 염록소 주사를 인체에 최초로 투여하는

in honor of black lives lost,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vorstellen.network* by Elisa STORELLI, a web performance designed to promote artistic exchanges in poetic forms in the digital realm; and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 by Pedro OLIVEIRA, a binaural sound essay about a “dialect recognition software” used by the German government.

In the Jinhae Dream Park, visitors have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Marcia VAITSMAN’s *Game of Six Senses*, a participatory online game shedding light on the symbology surrounding the Möbius strip, and Quimera Rosa’s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a video chronicling a transdisciplinary project launched in 2016 based on living systems and self-experimentation and the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injection into the human body in Kapelica Gallery in 2017.

The March 15th National Cemetery and the 3-15 Art Center play host to Damir AVDAGIC’s *Prolazi Izmedju 1980-2021* where five people who fled Yugoslavia during the civil war read testimonies about pre- and post-war developments given by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generation; and *Holier-Than-Thou* where Va-Bene Elikem FIATSI reenacts a crucifixion in remembrance of blacks and LGBT people who suffered persecution and death.

The Changwon Science Center and the Seongsan Art Hall feature several artworks. These include Claire WILLIAMS’s *ZORYAS* that experiments with plasma which comprises 99% of the universe; Paolo RADI’s *Entanglement*,

행위예술의 영상 작품인 키메라 로사의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이 있다.

마산 국립 3·15 민주묘지와 마산 3·15아트센터에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한 5명의 인물들이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의 전후 상황을 낭독하는 영상 작품인 다미르 아브다지의 〈Prolazi Izmedju 1980-2021〉과 흑인과 성소수자를 기리며 책형을 재현하는 영상인 바비네 엘리캠 피앗시의 〈Holier-Than-Thou〉가 있다.

창원 과학체험관과 창원 성산아트홀에는 우주의 99%를 이루고 있는 플라즈마의 상태를 유리로 된 실험관에서 재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클레어 윌리엄스의 〈ZORYAS〉와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지닌 오팔색 소재로 만들어진 두 개의 타원형 조각 작품을 거울 표면에 놓아 서로 관통하게 하는 설치 작품인 파올로 라디의 〈Entanglement〉, 7개의 운석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강타한다는 내용의 몰입형 증강현실 작품인 빅토리아 베스나의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속이고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마크 리의 〈Friends〉,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중에게 파는 행위 예술을 선보이는 케이스 젠킨스의 〈Body of Work〉가 있다.

an installation consisting of two interpenetrating oval shapes made of opalescent material placed on a mirrored surface; Victoria VESNA’s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an immersive AR artwork centering on seven meteorites falling on every continent on the Earth; Marc LEE’s *Friends* that proposes ways to manipulate social media’s algorithms; and *Body of Work*, a documentation of performance art where Casey JENKINS offers her labor and body for hire to the general public.

III. 결과에서 과정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전시는 전시 주제인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의 미학적 개념에 입각하여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한 체험(국내작가와 해외작가, 작가와 관람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비엔날레의 전시와 연계한 국내외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본전시는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의 개념들이 조각의 조형 형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마련하였다.

본전시1은 국내외 55명의 작가들이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는 처음으로 창원의 성산아트홀 실내 및 야외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산의 3·15 해양누리공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진해 흑백다방과 진해 중원로터리로 확장하여 전시를 진행하였다. 본전시 1의 해외 참여작가들은 비엔날레가 개최되기 3주전부터 창원성산아트홀 지하 1층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해외작가 작품제작워크숍을 진행하며, 작품을 설치하였다.

본전시 1의 해외작가 작품제작워크숍은 11개국 13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참여 작가들은 유럽 및 미주, 아시아의 각국의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해외작가들은 작품제작워크숍의 참여 작가들 간에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각자의 작업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시간을 가졌으며, 창작 과정 동안에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관계자들 및 창원 조각비엔날레의 추진위원, 참여

III. From result to process and ownership to sharing

The Biennale builds on the aesthetic concept of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to focus on experience through process (by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artists and visitors), rather than the end result. It also places a strong emphasis on establishing a platform of exchang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he exhibitions – both offline and online – look at whether the elements of the Biennale theme can be translated into sculptural forms.

Venues for Main Exhibition 1 extend beyond the premises of Seongsan Art Hall in Changwon, a first in the Biennale’s history, to include 3·15 Nuri Marine Park and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in Masan, and Black & White and Jungwon Rotary in Jinhae. Out of the 55 artists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international artists were invited to Korea 3 weeks prior to the opening of the Biennale to create artworks for installation in a production workshop in the first basement level of Seongsan Art Hall.

The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by international artists linked to Main Exhibition 1 brought together 13 artists from 11 countries across Europe, the Americas, and Asia. They were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works to fellow participants and interact with members of the Biennale’s staff and Steering Committee.

During the workshop, the artists used locally-sourced materials and

작가들과도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본전시 1의 해외 작가들의 작품은 작품제작워크숍을 통해 작품의 재료들을 창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제작함으로써 창원의 작품 제작 환경을 인지하였으며, 전시 주제를 자국의 문화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창원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작품에 가미함으로써 교류와 체험, 인식 지평의 확장의 의미를 작가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통해 반영하였다.

본전시 2는 해외 참여작가들이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창원시 일원에 다양한 작품을 구현한다. 본전시 2의 해외참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창원의 다양한 장소들을 선택하고, 그 장소에 자신의 작품을 매치하여 보여줌으로써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교류는 하지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 국내의 관람자는 물론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주제로 하여 24개국의 35명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는 본전시 1, 2외에 특별전 1, 2를 마련하였다. 특별전1의 오픈스튜디오는 국내 비엔날레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전시로서 본전시 1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시이다. 특별전 1은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계기로 하여 창원의 작가들의 작업실을 오픈하여 보여줌으로써 국내외에 창원의 미술 문화를 널리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관람자는 성산아트홀에서 마산과

learned firsthand about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the city’s art community. They incorporate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Changwon into their works to reinforce the concept of exchange and experience and expand the horizon of knowledge.

Main Exhibition 2 is the first of its kind for Korean biennales. The exhibits are virtual in nature, as works from 35 international artists from 24 countries are hypothetically placed in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Each artist selected the venue that could serve as a backdrop to their work. The unique format allowed the artist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as well as visitors in a virtual space, without person-to-person contact.

This year’s Biennale presents Special Exhibitions 1 and 2, in addition to Main Exhibitions 1 and 2. Special Exhibition 1’s Open Studio program, another first in the history of Korean biennales, is closely linked to Main Exhibition 1. While visitors enjoy works of art for Main Exhibition 1 in different venues of the city,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local artist studios nearby to meet them in person, learn more about their processes, and get immersed in the local culture.

Special Exhibition 2, also a first in Korean biennale history, is connected to Special Exhibition 1’s Open Studio program. It studies experimental web-based, virtual, and online residency programs around the worl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whether an individual artist’s studio can serve as a hub of artistic creation and exchanges.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s, several

진해로 전시 장소가 확장된 본전시 1의 작품들을 구경하며, 마산, 창원, 진해의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할 수 있다. 마산, 창원, 진해에 펼쳐져 있는 작가들의 작업실을 통해 작가들의 창작 과정과 작가들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며, 마산, 창원, 진해의 문화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별전 2 또한 국내 비엔날레에서 처음 도입하는 전시로서 특별전1의 오픈스튜디오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시이다. 특별전 2는 해외 레지던시들이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웹, 가상, 온라인 레지던시들을 통해 스튜디오와 레지던시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새롭게 부각된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개인 작가 스튜디오를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본다.

이뿐만 아니라 이론적, 실천적, 참여적 측면에서 더욱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시민강좌, 아티스트워크숍, 시민체험프로그램, 국내 학술 심포지엄과 국제 학술 심포지엄 등을 기획하였으며, 비엔날레 본 행사기간 전부터 시민강좌, 국내 학술 심포지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관람의 이해를 도왔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개인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와 하나가 되는 ‘나’에게로 떠나는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programs have been made available to engage the public and the art community. These include public seminars, artist workshops, hands-on activities, and local and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s. The seminars and local academic symposium were held prior to the opening of the Biennale to help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exhibitions. “Channel: Wave-Particle Duality”¹⁾ will be a journey toward the “I” that is no longer an independent entity, but part of the whole.

1) 입자 알맹이는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인간과 우주의 생명체를 설명하는 이론은 블라바츠키(H.P. BLAVATSKY)의 『비경(The Secret Doctrine)』과 김선근의 『베단타 철학』을 참조할 수 있다.

2) 캐린 배러드(Karen BARAD)의 상호 얽힘, 짐 알칼릴리(Jim AL-KHALILI)의 양자생물학

3) 폴 데이비스,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류시화 옮김, 정신세계사, 2020, pp. 171-172.

4) X자 및 격자디자인과 함께 다섯 눈 모양(quincunx)의 패턴은 예술과 자연의 상호 연결에 대한 신플라톤주의 및 신피타고라스적인 비전이다.

5) AI 머신비전 기반 영상편집 툴

1) The litera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Korean theme is “Channel: The Moment a Particle Turns into a Wave.”

2) As a particle ultimately turns into energy, all beings do not exist independently. See *The Secret Doctrine* by H.P. BLAVATSKY and *Philosophy of Vedānta* by Sunkeun KIM for theories that explain humans and other living things in the u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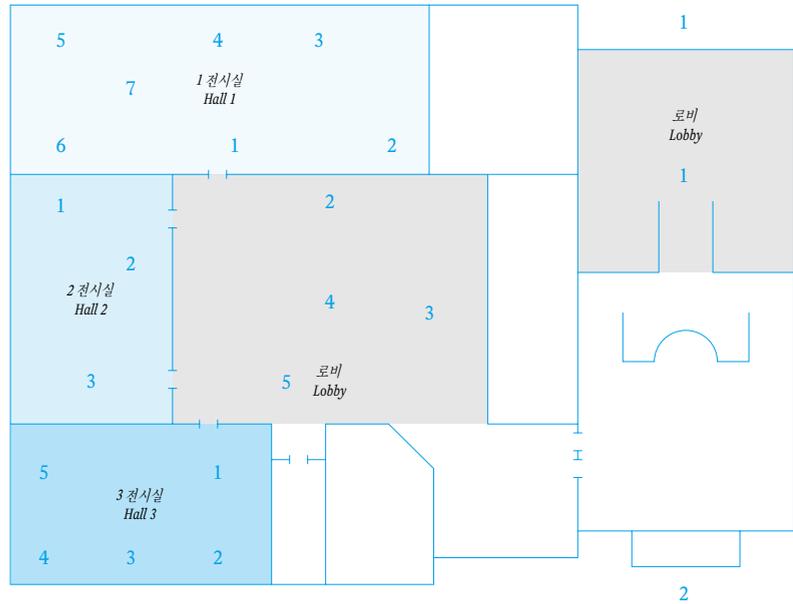
3) Karen BARAD on quantum entanglement and Jim AL-KHALILI on quantum biology

4) Davies, P. (2020). *God and the New Physics*. (S. H. RYU, Trans.). Inner World Publishing. pp. 171-172.

5) The X lattice pattern with a quincunx represents a Neoplatonic and Neopythagorean vision on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art and nature.

6) AI machine learning-based video editing tool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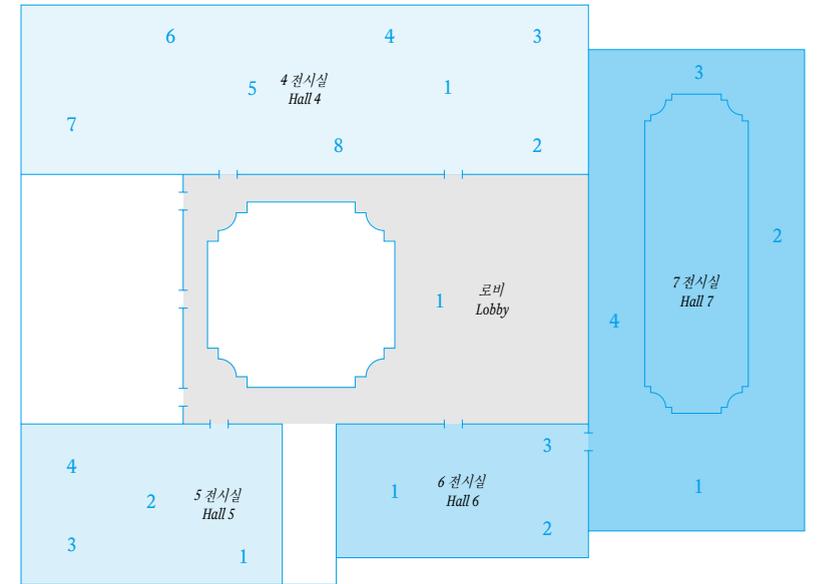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1층		Seongsan Art Hall 1F	
로비	1 전시실	Lobby	Hall 1
1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	1 알리시아 크바테	1 Alistair McClymont	1 Alicja KWADE
2 마이클 위틀	2 노진아	2 Michael Whittle	2 Jinah ROH
3 김진우	3 목진요	3 Jinwoo KIM	3 Jin-Yo MOK
4 이기일	4 벤하드 드라즈	4 Kiil LEE	4 Bernhard DRAZ
5 최수환	5 이완	5 Suhwan CHOI	5 Wan LEE
	6 배성미		6 Sungmi BAE
	7 김윤철		7 Yunchul KIM
2 전시실	3 전시실	Hall 2	Hall 3
1 한진수	1 호이팅	1 Jinsu HAN	1 Hou I Ting
2 박얼	2 카토 츠바사	2 Earl PARK	2 Tsubasa KATO
3 이용백	3 오정선	3 Yongbaek LEE	3 Jungsun OH
	4 오순미		4 Soonmi OH
	5 김혜경×진케이×최재필		5 Hyegyong KIM×Jin Kei×Jaepil CHOI
야외	Outdoor		
1 차주만	1 Jooman CHA		
2 강원택	2 Wontaek KANG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Floor Plan &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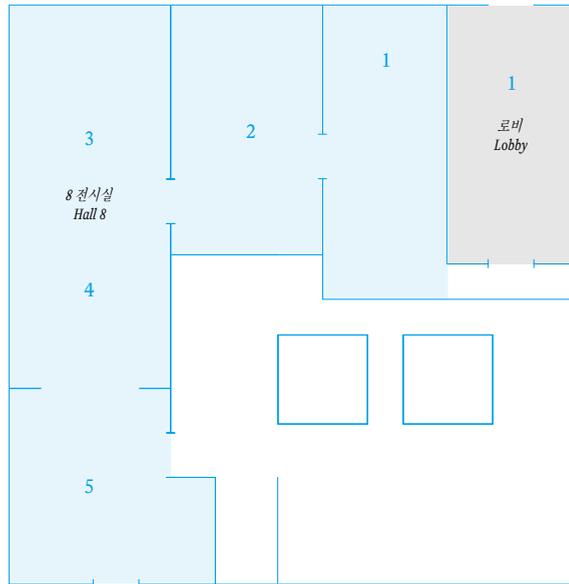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성산아트홀 2층		Seongsan Art Hall 2F	
로비	4 전시실	Lobby	Hall 4
1 백정기	1 에디 프라반도노	1 Jungki BEAK	1 Eddi PRABANDONO
	2 홍이현숙	2 Hyunsook HONG LEE	2 Hyunsook HONG LEE
	3 시모나 호이먼스	3 Simone HOOYMANS	3 Simone HOOYMANS
	4 정아사란	4 Asaran JEONG	4 Asaran JEONG
	5 이연숙	5 Yeonsook LEE	5 Yeonsook LEE
	6 양정욱	6 Junguk YANG	6 Junguk YANG
	7 안씨 타올루	7 Anssi TAULU	7 Anssi TAULU
	8 이준	8 June LEE	8 June LEE
5 전시실	6 전시실	Hall 5	Hall 6
1 백정기	1 미칼 가비쉬	1 Jungki BEAK	1 Michal GAVISH
2 신승연	2 김범수	2 Seungyun SHIN	2 Beomsoo KIM
3 파레틴 오렌리	3 크리스 마이어	3 Fahrettin ÖRENLI	3 Chris MYHR
4 이창원		4 Changwon LEE	
7 전시실	Hall 7		
1 정순호	1 Soonho JEONG		
2 차주만	2 Jooman CHA		
3 김진희	3 Jinhui KIM		
4 강주연	4 Juyen GANG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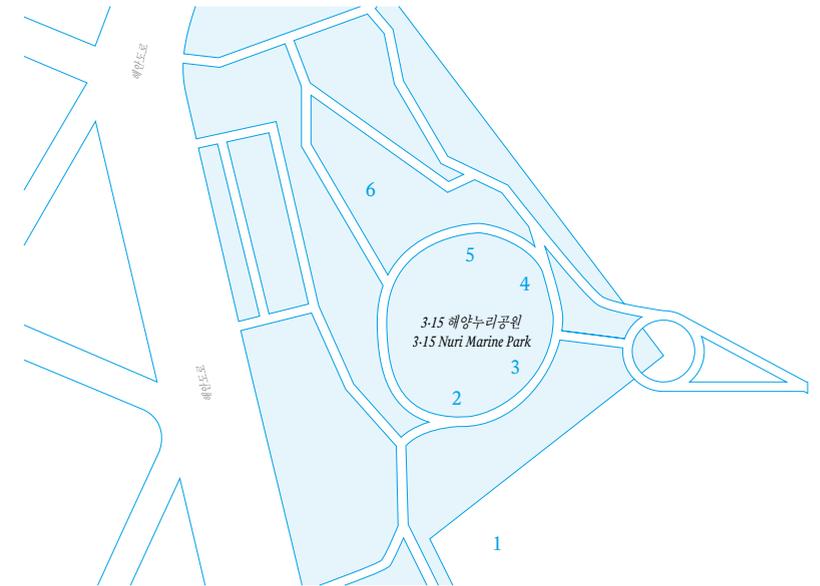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로비	8 전시실	Lobby	Hall 8
1 올리아 페도로바	1 심준섭 2 유르겐 스타크 3 정혜경×키토 사길데벗 4 김진우 5 마르코 바로티	1 OIia FEDOROVA	1 Junseub SIM 2 Juergen STAACK 3 Hyekyung JUNG× Kito SAGILDEBEOT 4 Jinwoo KIM 5 Marco BAROTTI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Floor Plan &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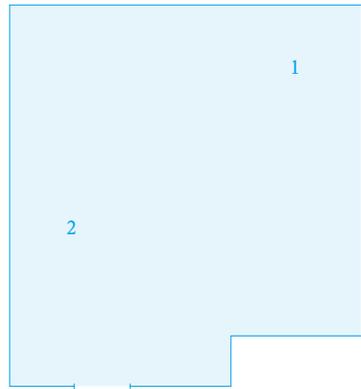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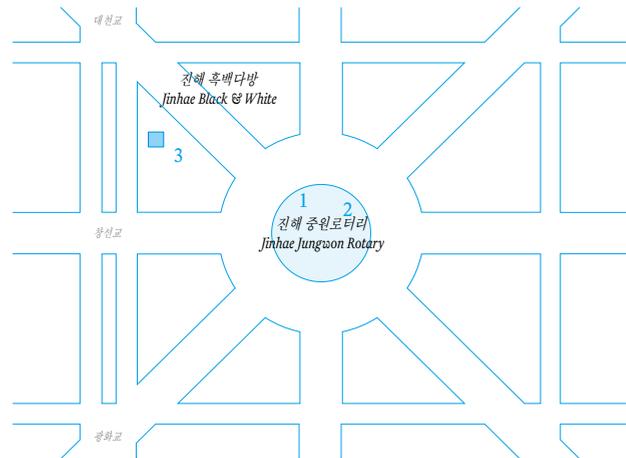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1 김진우	2 임형준	1 Jinwoo KIM	1 Hyoungjun LIM
3 유화수×이지양	4 이성욱	3 Hwasoo YOO×Jeeyang LEE	4 Sungok LEE
5 이문호	6 하석원	5 Moonho LEE	6 Sukwon HA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본전시 1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창동에술촌아트센터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1 옥현숙	1 Hyunsuk OK
2 양숙현	2 Sookyun 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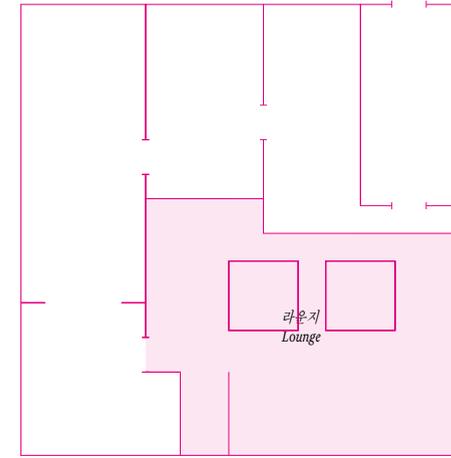
진해 중원로터리	진해 흑백다방	Jinhae Jungwon Rotary	Jinhae Black & White
1 김근재	3 김주호	1 Guenjae KIM	3 Jooho KIM
2 이원우		2 Wonwoo LEE	

Main Exhibition 1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Floor Plan & Artist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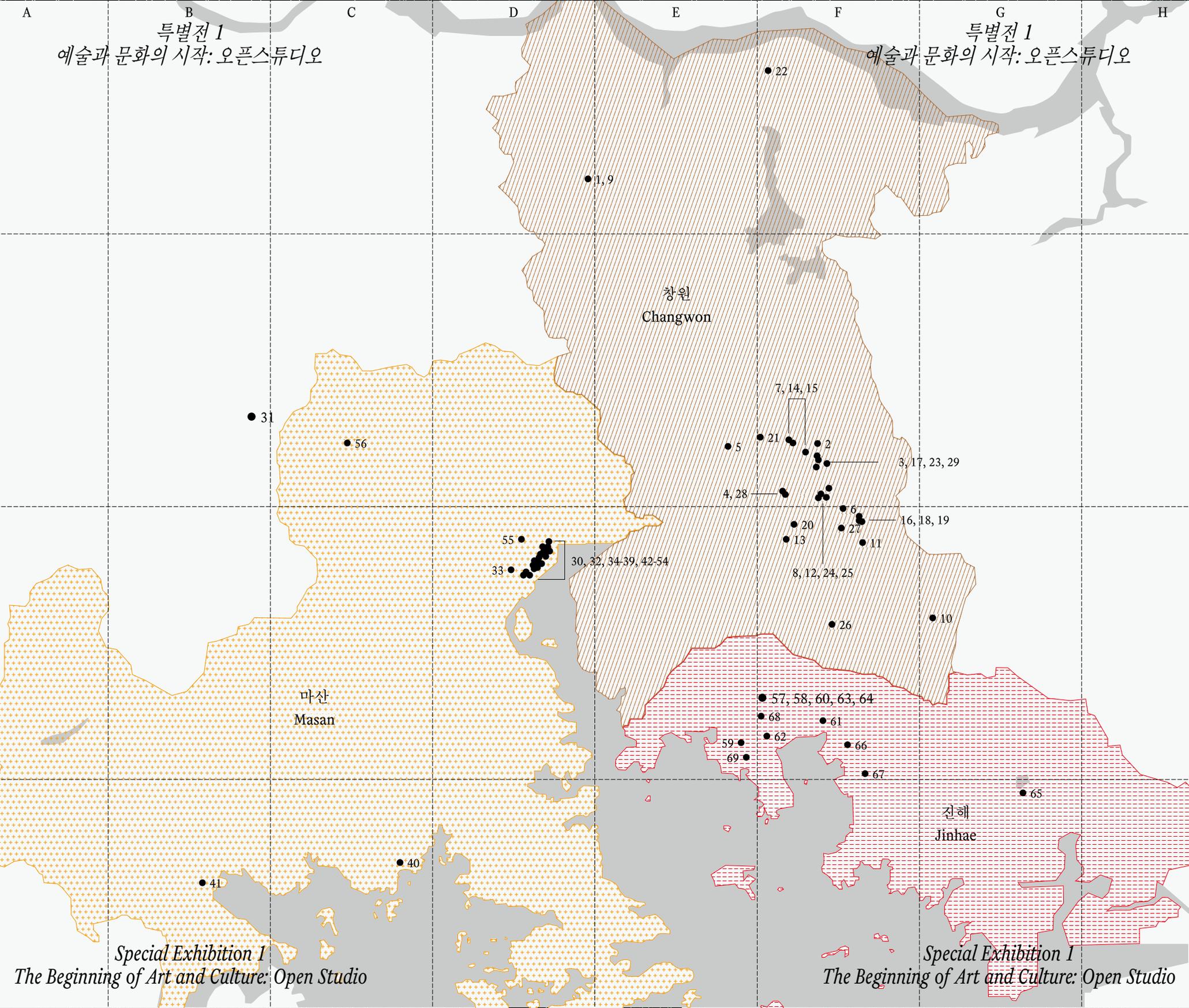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라운지	Lounge		
레히나 호세 갈린도	알페 아이딘	Regina José GALINDO	Alper AYDIN
파올로 라디	바네사 알버리	Paolo RADİ	Vanessa ALBURY
스테파니 로텐버그 & 수잔 소프	로라 어코스타 & 산티아고 타베라	Stephanie ROTHENBERG & Suzanne THORPE	Laura ACOSTA & Santiago TAVERA
크리스틴 루카스	돈 에들러	Kristin LUCAS	Don EDLER
마크 리	캐트 오스틴	Marc LEE	Kat AUSTEN
켄 리날도 & 에이미 영	페드로 올리베이라	Ken RINALDO & Amy YOUNGS	Pedro OLIVEIRA
아델 린	나오 우사미	Adelle LIN	Nao USAMI
가이아 린드라	클레어 윌리엄스	Gaia LEANDRA	Claire WILLIAMS
폴 맥레논	케시 켈킨스	Pól McLERNON	Casey JENKINS
존 멜빈	데스피나 차리토니디	John MELVIN	Despina CHARITONIDI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	첸한성	Kerem Ozan BAYRAKTAR	Han Sheng CHEN
마샤 바이즈만	시온 칼헤스	Marcia VAITSMAN	Theun KARELSE
빅토리아 베스나	프레데릭 크라우케	Victoria VESNA	Frédéric KRAUKE
쿠스 부이스트	키메라 로사	Koos BUIST	Quimera Rosa
아감 슈레사	바비네 엘리켄 피앗시	Agam SHRESTHA	Va-Bene Elikem FIATSI
갯 스콧	레이첼 펴	Cat SCOTT	[crazinisT artisT]
엘리사 스토렐리	이반 헤이케스	Elisa STORELLI	Rachel PIMM
다미르 아브다직		Damir AVDAGIC	Ivan HENRIQUES

Main Exhibition 2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1
2
3
4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Special Exhibition 1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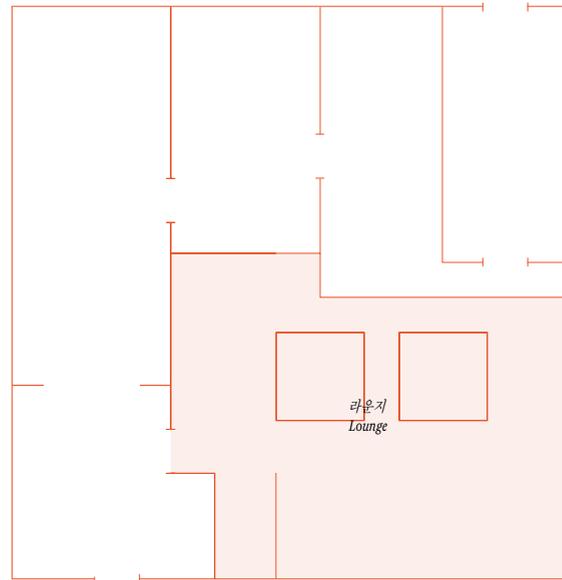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위치	이름	분야	위치	이름	분야
창원 Changwon					
D1	1	감라영 Rayoung KAM	F1	22	이현동 Hyundong LEE
F2	2	강나현 Nahyun KANG	F2	23	임덕현 Deokhyun LIM
F2	3	강천석 Cheonseok KANG	F2	24	임채섭 Chaeseop IM
F2	4	강화자 Hwaja KANG	F2	25	장선자 Seunja JANG
E2	5	권순화 Soonhwa KWON	F3	26	장인석 Inseok JANG
F3	6	김기주 Giju KIM	F2	27	정혜연 Hyelyun JUNG
F2	7	김덕천 Dukchun KIM	F2	28	최미정 Mijung CHOI
F2	8	김미경 Mikyeong KIM	F2	29	최선희 Seonhui CHOI
D1	9	김민성 Minsung KIM	마산 Masan		
G3	10	김성희 Sunghee KIM	D3	30	김명련 Myeongryeon KIM
F3	11	김은주 Eunju KIM	B2	31	김영관 Younggwon KIM
F2	12	김재호 Jaeho KIM	D3	32	김옥숙 Oksuk KIM
F3	13	김화문 Whamoon KIM	D3	33	김옥자 Okja KIM
F2	14	김희곤 Heegon KIM	D3	34	김은진 Eunjin KIM
F2	15	박유종 Youjong PARK			
F3	16	송광옥 Kwangok SONG	D3	35	김준희 Junhee KIM
F2	17	송명주 Myeongjoo SONG	D3	36	김현숙 Hyeonsook KIM
F3	18	신은순 Eunsoon SHIN	D3	37	남동화 Donghwa NAM
F3	19	안령희 Yeonghee AN	D3	38	라상호 Sangho RA
F3	20	이소정 Sojung LEE	D3	39	류정림 Jeongrim RYU
F2	21	이정희 Jeonghee LEE	C4	40	박순훈 Soonheun PARK

특별전 1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위치	이름	분야	위치	이름	분야
B4	41	박재철 Jeachul PARK	F3	61	김정희 Jungheui KIM
D3	42	서지희 Jihoe SEO	F3	62	김형집 Hyeongjip KIM
D3	43	송창수 Changsoo SONG	E3	63	문현주 Hyunju MUN
D3	44	안옥희 Okhee AN	E3	64	박남순 Namsoun PARK
D3	45	윤복희 Bockhee YOUN	G4	65	박배덕 Baedeog PARK
D3	46	이혜경 Hyeokyung LEE	F3	66	박선동 Sundong PARK
D3	47	전귀련 Gwilyeon JUN	F3	67	이지영 Jiyoung LEE
D3	48	전창환 Changhwan JEON	F3	68	이태호 Taeho LEE
D3	49	정순옥 Soonok JEONG	E3	69	최대식 Daesig CHOI
D3	50	정재훈 Jaehoon JEONG			
D3	51	정현숙 Hyunsook JUNG	진해 Jinhae		
D3	52	조영희 Yeonghui CHO	E3	57	곽순희 Soonhee KWAK
D3	53	조은교 Eungyo JO	E3	58	김미성 Miseong KIM
D3	54	조지은 Jieun CHO	E3	59	김시윤 Siyun KIM
D3	55	주상완 Sangwan JOO	E3	60	김임숙 Imsuk KIM
C2	56	허은주 Eunju HEO			

특별전 2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전시장 및 참여작가 정보

성산아트홀 지하 1층	Seongsan Art Hall B1
라운지	Lounge
아니타 린드 (ZK/U 레지던시 코디네이터)	Anita RIND (Residency Coordinator, ZK/U)
박순영 (2022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	Soonyoung PARK (Artistic Director,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쥬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레지던시 큐레이터)	Giulio VERAGO (Curator, Viafarini Residency)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	Jinsuk SUH (Director, Ulsan Art Museum)
파트리샤 쿠버 (슬라브스 앤 타타르스 공동 디렉터)	Patricia COUVET (Co-Director, Slavs and Tatars)
크리스토프 탄너트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예술감독)	Christoph TANNERT (Artistic Director, Künstlerhaus Bethanien)
파울루스 푸저스 (소모스 아트 예술감독)	Paulus FUGERS (Director, SomoS Art)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본전시 1은 입자, 즉 매스와 볼륨으로 이루어진 개체적인 생명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입자이자 파동, 즉 물질의 근원인 빛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사이의 순환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의 실체를 탐구한다. 전시는 성산아트홀을 비롯하여 창원특례시의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다양한 명소를 전시장소로 선정하여 창원 일원을 여행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한다.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3·15 해양누리공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Where did we originate? Main Exhibition 1 sheds light on the substance of life as a circulating being bridging the micro and macro worlds, comprised of light and energy which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that make up matter, rather than an individual life form consisting of particles with mass and volume. The exhibition extends beyond the walls of Seongsan Art Hall. Several historical and cultural attractions in Changwon were selected as venues to showcase the works. It is meant to offer viewers the chance to experience different corners of the city.

Exhibition Venue:

Seongsan Art Hall,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3·15 Nuri Marine
Park,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2022
창원 조각
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2022
창원 조각
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Particle
Becomes a
Wave-Paradigm
Duality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Paradigm
Duality

Exhibition Hall 전시동 소극장 Small Theater

성산아트홀 및 장영희미술관
Geongju Art Hall
Changwon City District
2022. 10. 7 - 11. 20

부산국제비엔날레
부산국제비엔날레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차주만 Jooman CHA

(1965, 한국)
한국 익산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Iksan, Korea
Lives and works in Paju, Korea

차주만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장벽에 주목한다. 성산아트홀 야외에 설치된 <믿음만 있다면 건널 수 있다>는 기둥을 가로지르는 견고한 철조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무로 제작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건널 수 있다. 작가는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통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장벽을 재고하고자 한다. 성산아트홀 내부에 설치된 <탈-경계 프로젝트: 너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전 세계 미술가들과 진행하는 릴레이 프로젝트로 물리적 장벽을 넘어 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CHA delves into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barriers. Installed outside the Seongsan Art Hall, *I Can Cross If I Have Faith* displays a solid barbed wire fence across pillars. But the metal fence is actually made of rubber, and anyone can pass through it. The artist emphasizes the line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real, calling for a rethink of barriers that lie ahead of us. *Your Faith Frees Us* is an ongoing project participated by artists across the globe. The indoor installation is a collaborative effort to facilitate a global communication beyond physical barriers.

1
<믿음만 있다면 건널 수 있다>, 2022
고무, 플라스틱
가변설치

2
<탈-경계 프로젝트:
너의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2022
디지털 프린팅
가변설치

1
I Can Cross If I Have Faith, 2022
Rubber, Plastic
Variable installation

2
Your Faith Frees Us, 2022
Digital Printing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야외

Seongsan Art Hall 1F Outdoor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58

59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성산아트홀 1F 야외

Seongsan Art Hall 1F Out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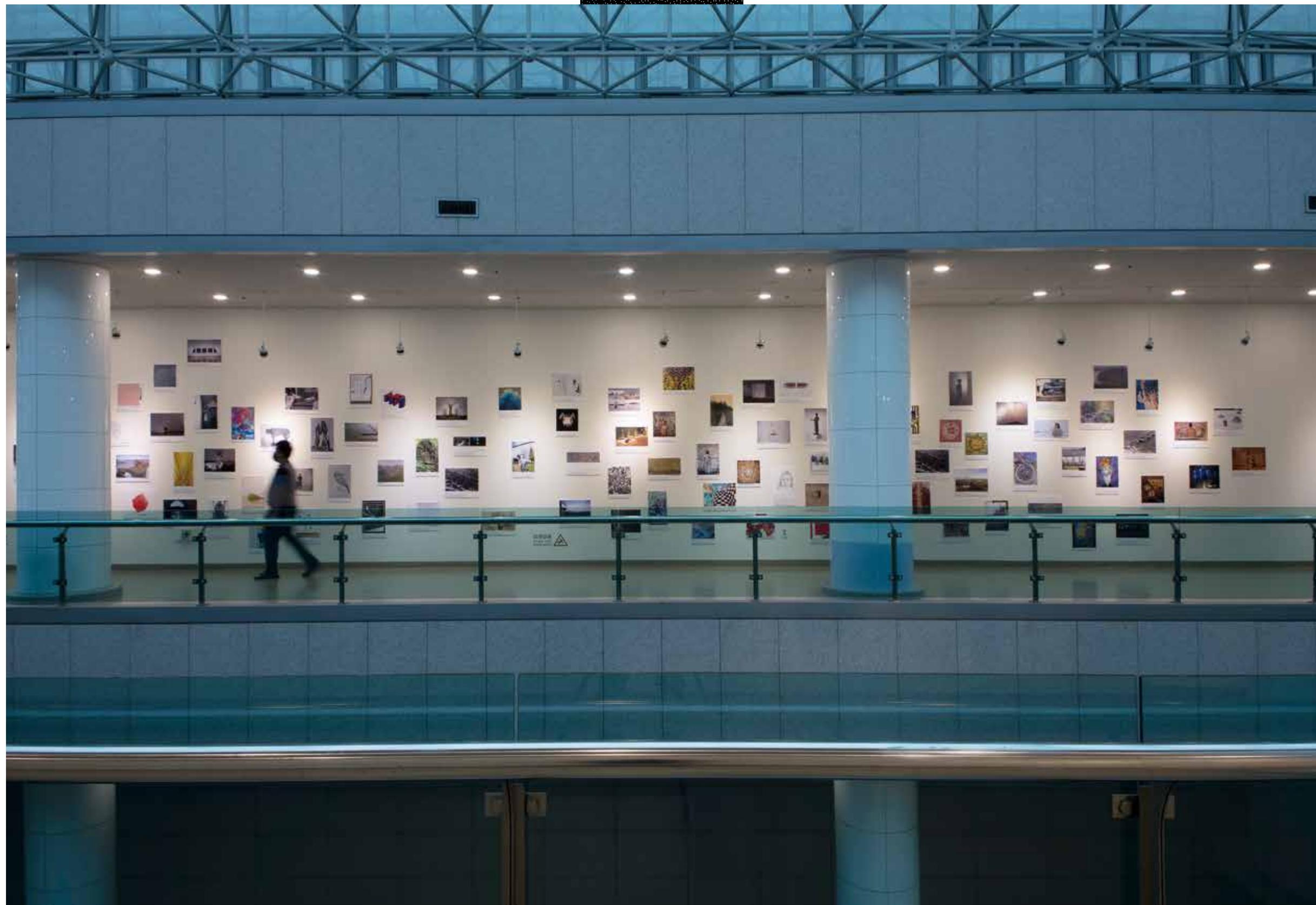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60

61





탈-경계 프로젝트 참여작가

미국

캐서린 켈링스
도리스 클로스터
더글러스 지 캠벨
신민식
한행길

중국

리 웨이
선유
엔칭
런 이홍

독일

안드레아 실버혼
어셉셉타 부디그
번트 할베어
케린 셔프
케린 엘릭 소이커
올리버 그렘
잉고 바움가르텐

영국

다니엘 스티기스
켓 스콧
시몬 모얼리

프랑스

알린 다라스
아멜리 아스투리아스

일본

하루키 오우키
하루나 스키사키
준 이즈카
가즈노리 기타자와
젠지 마키조노
나기사 히라카와
시오리 스즈키
타카시 소노다
김용석
유타로 다케모토
사토코 나가시마
야마모토 나오키
이순려
하전남

호주

프랭크 노드만
최미리
샘 니콜슨
페린 밀라드
멜로니 카라 스미르니오티스

한국

차주만
김은하
손민형
오완석
오정현
이말용
이현정
장진경
추유선

캐나다

앤 오칼라한
코올렛 랄리버트
에릭 가소니
제니스 살룸
민지희
낸시 토빈
피에르 트렘블레이
레베카 개럿
키무라 바울 리모인
린다 듀발
타아라밧 켈릴리
지넷 레거
루이즈 노구치
마이크 홀봄

러시아

알레나 코롤레바

벨기에

애닐리즈 슬래빙크
리시아네 부르돈
오드 레스파나르

스페인

로우저 피스커

인도

알록 발
아비세크 나라얀 베르마
김예경

인도네시아

로비 패더니
어왕 버하아 타완
다디 세티야디
이반 사기타
루디 아스타기스

네팔

맨 구롱
무케쉬 슈레스타
사우르강가 다르산하리
크리쉬너 고팔 슈레스타
샘자너 라즈반다리

대만

야오 주청
장 첸선
이사 호
첸 자우휴어
첸 웨이 첸

태국

크라이앵크라이 콩커눈
노파클라오 스리마티아쿤

콜롬비아

조르지 로자노
알렉산드라 젤리스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야외

Seongsan Art Hall 1F Outdoor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64

65

Participating Artists of Your Faith Frees Us

USA

Catharine Gellings
Doris Kloster
Douglas G Campbell
Shin Minsik
Han Haenggil

China

Li Wei
Sun Yu
Anqing
Ren Yihong

Germany

Andrea Silberhorn
Assumpta Budig
Bernd Halbherr
Karin Schuff
Karin Ulrike Soika
Oliver Griem
Ingo Baumgarten

UK

Daniel Sturgis
Cat Scott
Simon Morley

France

Aline Darras
Amélie Asturias

Japan

Haruka Ochi
Haruna Sugisaki
Jun Iizuka
Kazunori Kitazawa
Kenji Makizono
Nagisa Hirakawa
Shiori Suzuki
Takashi Sonoda
Youngsuk KIM
Yutaro Takemoto
Satoko Nagashima
Yamamoto Naoki
Lee Soonryeo
Jhonnann Ha

Australia

Frank Nordmann
Milee Choi
Sam Nicholson
Perrin Millard
Melony Kara Smirniotis

Korea

Jooman CHA
Kim Eunha
Son Minhyung
Oh Wanseok
Oh Junghyun
Lee Malyong
Lee Hyunjung
Jang Jinkyun
Choo Yousun

Canada

Anne O'Callaghan
Colette Laliberté
Eric Garsonni
Jayce Salloum
Jihee Min
Nancy Tobin
Pierre Tremblay
Rebecca Garrett
Kimura Byol Lemoine
Linda Duvall
Taravat Khalili
Ginette Legaré
Louise Noguchi
Mike Hoolboom

Russia

Alëna Korolëva

Belgium

Annelies Slabbynck
Lysiane Bourdon
Aude Lespagnard

Spain

Roser Pesquer

India

Alok Bal
Abhishek Narayan Verma
Kim Kyoungae

Indonesia

Robi Fathoni
Awang Berhartawan
Dadi Setiyadi
Ivan Sagita
Luddy Astaghis

Nepal

Mann Gurung
Mukesh Shrestha
Sauganga Darshandhari
Krishna Gopal Shrestha
Samjhana Rajbhandari

Taiwan

Yao Juichung
Chang ChenShen
Isa Ho
Chen Zhaohua
Chen Wei Chen

Thailand

Kriangkrai Kongkhanun
Nophaklao Srimatyakun

Colombia

Jorge Lozano
Alexandra Gelis

강원택 Wontaek KANG

(1968,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8,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미스터 몽키씨의 일기〉는 우편봉투, 서랍, 탁자가 결합된 사물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영장류 동물이 바라보는 모습을 재현한 야외 조각 작품이다. 흰색으로 덧칠된 사물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외부의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의미하고,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존재는 전방위적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투영한다. 작가는 눈앞에 있는 걱정요소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 그 대상과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기를 제안한다.

A Diary of MR. YELLOW MONKEY is an outdoor sculpture depicting a primate staring at spaced-out objects comprised of an envelop, a drawer, and a table. The white coated objects represent the external material and psychological pressures placed on individuals, while the endangered mammal symbolizes a modern man living in the era of incessant, multi-faceted crises. The artist suggests rather than emotionally reacting to imminent issues facing us, we should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hem from a distance, in hopes that tomorrow will be a better day.

〈미스터 몽키씨의 일기〉, 2022
철, 파라핀
가변설치

A Diary of MR. YELLOW MONKEY, 2022
Steel, Paraffin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야외

Seongsan Art Hall 1F Outdoor



68

성산아트홀 1F 야외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69

Seongsan Art Hall 1F Outdoor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 Alistair McCLYMONT

(1978, 영국)
영국 할로 출생
현, 영국 거주 및 활동

(1978, UK)
Born in Harlow, UK
Lives and works in UK

작가는 비닐 소재의 대형 풍선에 헤어드라이어로 열풍을 가한다. 시원한 바람의 겨울날 풍선 입구에 고정된 드라이어는 풍선이 공중에 뜰 수 있을 충분한 열을 제공하며, 드라이어는 코드 길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중에 고정된다. 작가는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불확실한 원형이라는 이름의 종이모형에 바람을 넣어 원을 왜곡시킨다. 종이 양식의 물리적 과정은 표준 문자열 코드에 반영되며 작가의 홈페이지(standardstrings.alistairmcclymon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A hair dryer heats up a balloon constructed from plastic sheeting. In winter when the air is cool the hair dryer provides just enough heat to lift itself off the ground, its height constrained by the length of its own flex. The same hair dryer has been used to inflate a set of paper forms, titled Uncertain Circles, each with a unique unpredictable topology, distorting circles drawn with a length of string. The physical process of the paper forms is mirrored in code in the work Standard Strings which can be viewed at standardstrings.alistairmcclymont.com.

1

〈In Winter I Will Fly〉, 2022
플라스틱, 헤어드라이기
1000×400×400cm

1

In Winter I Will Fly, 2022
Plastic, Hair dryer
1000×400×400cm

2

〈Standard Strings and Uncertain Circles〉, 2022
종이, 스트링, 레진, 자바스크립트, 컴퓨터, 프로젝터
250×400×700cm

2

Standard Strings and Uncertain Circles, 2022
Paper, String, Resin, Javascript, Computer, Projector
250×400×7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

성산아트홀 1F 로비

Seongsan Art Hall 1F Lobby

70

71



1

성산아트홀 1F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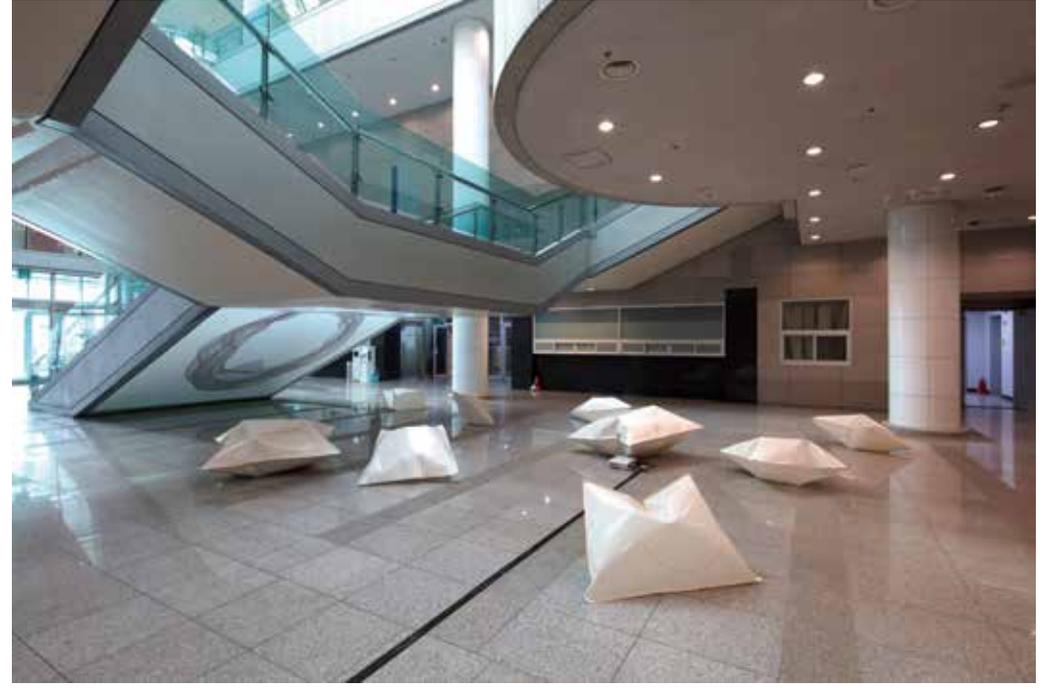
72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Seongsan Art Hall 1F Lobby

73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마이클 위틀 Michael WHITTLE

(1976, 영국)
영국 애셜턴 출생
현 홍콩 거주 및 활동

(1976, UK)
Born in Ashington, UK
Lives and works in Hong kong

지난 150여 년 간 태양표면 흑점의 크기와 움직임은 학계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 표면이 검게 보이는 영역인 흑점은 대개 쌍으로 나타나며 11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한다. 해당 도표를 처음으로 그린 천문학자 에드워드 문더는 1904년 당시 그래프가 나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나비 도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작가는 나비 도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산아트홀 로비 유리천장에 대형 ‘태양 나비’를 만들었다. 나비 형태는 작가의 출생년도가 포함된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총 1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For over 150 years scientists measured the size and movement of sunspots on the surface of the sun. These dark spots usually appear in pairs and are common during maximum solar activity every 11 years. When astronomer Edward MAUNDER first plotted these graphs in 1904, they looked like butterfly wings, hence the name ‘Butterfly Diagrams’.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I used this scientific data to recreate a large ‘Sun Butterfly’ on the glass ceiling of Seongsan Art Hall. In this case, the butterfly wings are made using ten years of data from 1970 – 1980, the decade I was born in.

〈Butterfly on the Sun〉, 2022
자외선방지 시트지
창문에 가변설치

Butterfly on the Sun, 2022
Printed plastic (UV-resistant)
Variable installation on the window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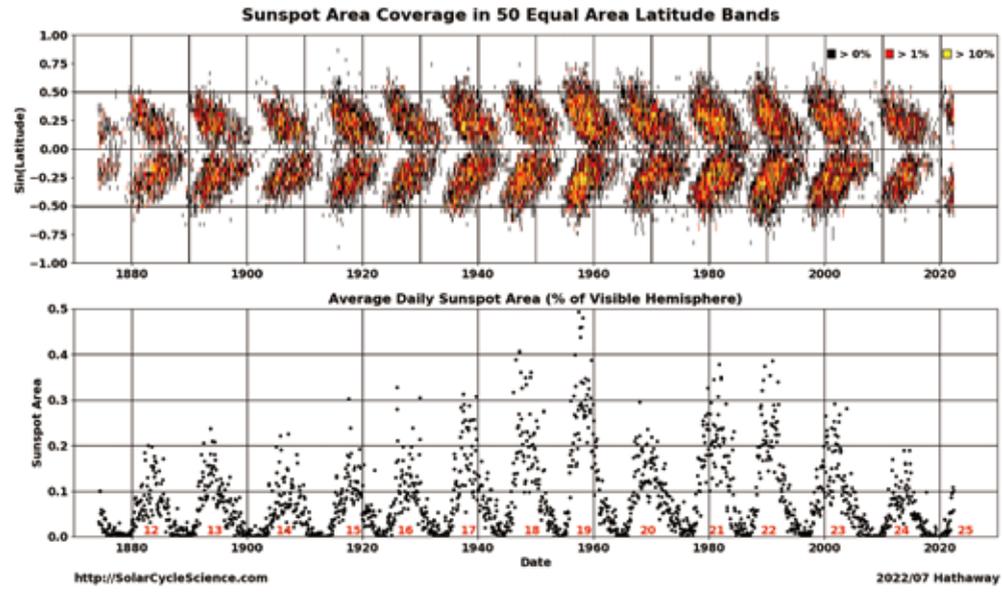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1F 로비

Seongsan Art Hall 1F Lobby

74

75



성산아트홀 1F 로비

76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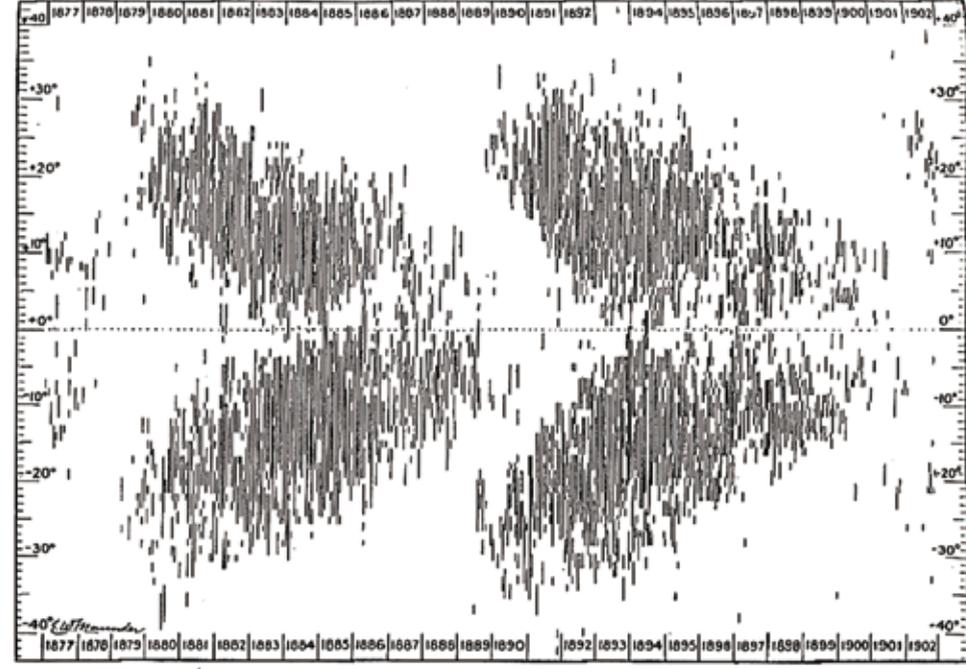
Seongsan Art Hall 1F Lobby

77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이기일 Kiil LEE

(1967, 한국)
한국 곡성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곡성 활동

(1967, Korea)
Born in Gokseong, Korea
Lives in Seoul, Korea
works in Gokseong, Korea

해발 400미터에 위치한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가 작가의 고향이다. 어렴풋한 작가의 유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가족이 서울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도시생활이 길어질수록 논과 밭에는 작물 대신 나무와 풀로 채워졌다. 작가는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작업실 기초공사를 하며 50년간 자란 나무 한 그루를 선택하여 개인의 역사와 시간의 지표로 설정하였고 자연과 인간,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데 활용하기로 하였다.

The artist hails from Yeonban-ri, a small village in Jeollanam-do 400 meters above sea level. The village still reminds him of vague childhood memories. After his family moved to Seoul, rice paddies and dry fields in the area were covered with trees and grasses. He recently returned to his hometown to lay the foundation work for his studio. He decided to use a 50-year-old tree as a symbol of personal history and time, indica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and between creation and extinction.

〈층층나무 1298-1〉, 2022
나무, 볼트
1130×208×160cm

Comus Controversa 1298-1, 2022
Tree, Bolts
1130×208×16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로비

Seongsan Art Hall 1F Lobby

78

79





80

성산아트홀 1F 로비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81

Seongsan Art Hall 1F Lobby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최수환 Suhwan CHOI

(197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밀양 활동

(197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in Changwon, Korea, works in Miryang, Korea

두개의 소형 스피커가 마주 보며 설치되어 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는 서로 부딪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작은 무중력의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 안에 있는 물질들은 공중에 떠있고 외부의 바람과 진동에 반응한다. 작가는 물질 또는 비물질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재구성하여 형태를 만들 듯이 음파를 사용하여 무중력의 공간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형태를 구성하고자 한다.

Two compact speakers are set up to face each other. Sound waves from the speakers create new order by colliding with each other, which results in small and zero-gravity space. Things in the space stay in the air and react to wind and vibrations of outside. As forms are made through processing or restructuring materials or non-materials, invisible forms are designed in the space of zero-gravity by sound waves.

〈무중력〉, 2022
혼합재료
가변크기

Zero, 2022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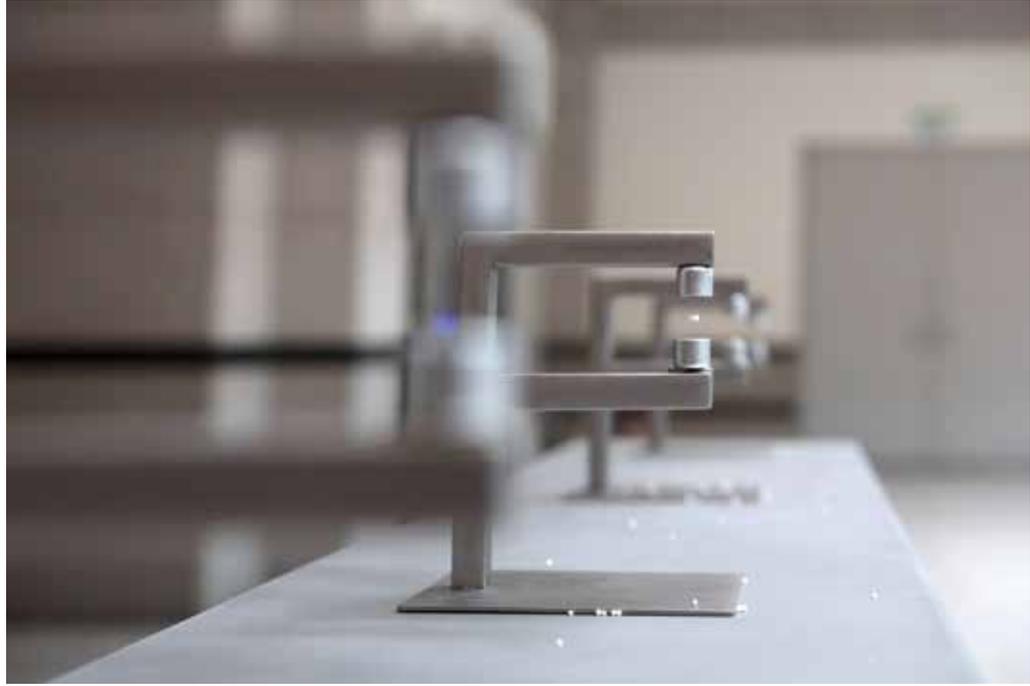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1F 로비

Seongsan Art Hall 1F Lobby

82

83





알리시아 크바데 Alicja KWADE

(1979, 폴란드)
폴란드 카토비체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79, Poland)
Born in Katowice, Poland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억제할 수 없는 저항’을 의미하는
〈Hemmungsloser Widerstand〉는
서로 지탱하고 있는 세 개의 돌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돌은 바닥
프레임에서 대각선으로 뻗은 유리판을
관통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잡기를
완성함으로써 역경을 건디는 힘, 회복력,
지속성을 상징한다.

Hemmungsloser Widerstand (2021),
roughly “Restless Resistance” in English
as suggested by the artist herself, features
three stones suspended against one
another in an impossible balance. They
appear to pass directly through the glass
surfaces that extend diagonally from the
sculpture’s base frame, evoking a sense
of enduring strength, resilience, and
continuity.

Loaned by KÖNIG GALERIE Berlin | London | Seoul |
Vienna

코닉 갤러리 대여

〈Hemmungsloser Widerstand〉, 2020
세운 돌, 유리, 거울, 철
100×69×109cm

Hemmungsloser Widerstand, 2020
Found stones, Glass, Mirror, Corten steel
100×69×109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86

87





88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89

Seongsan Art Hall 1F Hall 1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노진아 Jinah ROH

(1975,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5,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관객은 빛의 입자(Particle)로 이루어진 영상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기계 두상과 마주하게 된다. 기계 두상은 관객이 다가오면 눈을 뜨고 입을 벌려 관객과 대화를 한다. 히페리온은 그리스어로 ‘위에서 보는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에게 보는 능력을 준 빛의 신이다. 히페리온과의 대화를 통해 관객이 미시세계와 닮은 또 다른 우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dience is confronted with a giant mechanical head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image made of particles of light. When the audience approaches, the mechanical head of Hyperion opens its eyes and opens the mouth to talk to the audience. A Greek god of light whose name means “he who watches from above” Hyperion contributed to mankind by giving them the ability to see. The artist hopes that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machine head of Hyperion will offer a chance to experience another universe that resembles the micro world.

<히페리온의 속도>, 2022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틱스 조각, 혼합매체
140×140×180cm의 조각, 가변 크기 영상 설치

The Velocity of Hyperion, 2022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robotics sculpture,
Mixed media
140×140×180cm sculpture,
Variable size video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90

91





목진요 Jin-Yo MOK

(1969, 한국)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빛의 무게〉 프로젝트는 빛이 무게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지는 조명 제작 프로젝트이다. 빛의 무게를 확인하는 일은 미시세계의 차원에서 파악되는 작은 질량이나 사건이겠지만 작가는 이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작가는 빛의 무게를 상상해보았고, 그 상상이 구축한 이상한 가설을 일상의 환경부터 구현해 간다.

The *Heavy Light* series is a light project delving into a hypothesis that light has weight. This is an interesting idea that could be proved at the micro level, but the artist deliberately avoids approaching it from a scientific, logical or philosophical perspective. He simply experiments with the unlikely hypothesis in everyday situations.

1

〈빛의 무게 #1〉, 2022
동, 알루미늄, LED
150×10×10cm

2

〈빛의 무게 #2〉, 2022
동, 알루미늄, LED
160×240×60cm

3

〈빛의 무게 #3〉, 2022
동, 알루미늄, LED
250×300×60cm

1

Heavy Light #1, 2022
Copper, Aluminum, LED
150×10×10cm

2

Heavy Light #2, 2022
Copper, Aluminum, LED
160×240×60cm

3

Heavy Light #3, 2022
Copper, Aluminum, LED
250×300×6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94

95



이미지 제공: 목진오. Courtesy: Jin-Yo MOK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미지 제공: 목진오. Courtesy: Jin-Yo MOK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베하드 드라즈 Bernhard DRAZ

(1970, 독일)

독일 트라운슈타인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70, Germany)

Born in Traunstein, Germany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란 한 사회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대적인 분쟁, 억압, 폭력 및 학대의 과거사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과 기제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는 한국과 독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횡포,’ ‘자유,’ ‘권리,’ ‘통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본 개념미술 작품이다.

“Transitional justice” covers the full range of processes and mechanisms associated with a society’s attempt to come to terms with a legacy of large-scale past conflict, repression, violations and abuses, in order to ensure accountability, serve justi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The conceptual art installation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deals with the similarities and contrasts of Korea and Germany as historically divided nations by means of the thematically concise terms “arbitrariness/despotism”, “freedom”, “law/justice” and “control”, whose meanings are interpreted differently in the two nations as well as in capitalist and socialist systems, takes up the theme in an abstract philosophical context.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Version 3)>, 2022
네온 문자, 강철 문자, 케이블 변압기
185×220×11.2cm

Transitional Justice - Terminology (Version 3), 2022
White neon letters, Steel letters, Transformers
185×220×11.2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98

99





100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0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완 Wan LEE

(1979,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9,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고유시>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고유한 시계를 만든 작품이다. 시계의 속도는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노동시간, 임금, 물가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이를 통해 삶의 질, 경제적 자유도, 자본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시계의 서로 다른 속도로 표현된다. 한편, 수백 개의 시계 초침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아침식사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을 각자의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사운드도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정량화된 삶과 주관적인 삶 사이의 진동을 보여준다.

Proper Time features walls of clocks that represent the proper time experienced by individual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speed of each clock was calculated based on an interview where participants were asked about their occupation, gender, age, residential area, working hours, wage, and local prices among others. Answers were compiled to assess th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the level of economic freedom and the impact of capitalism, which were expressed as varying speeds. The ticking sound of hundreds of clocks is overlapped with the participants' voice recordings recalling their memories of breakfast, calling attention to the gap between a quantified life and a subjective life.

1
<고유시>, 2016
668개의 시계
가변설치

2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2016
플라스틱
60×70×70cm

1
Proper Time, 2016
668 Clocks
Variable installation

2
For a Better Tomorrow, 2016
Plastic
60×70×7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102

103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Seongsan Art Hall 1F Hall 1

배성미 Sungmi BAE

(1971,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파주 활동

(1971,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Seoul, Korea, works in Paju, Korea

<침묵 속에도 소리가 있다>는 수십여 개의 네모난 상자로 이루어진 설치 작업이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돈, 기름, 쌀, 철조망, 기계의 부속, 모호한 풍경의 일부를 확대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평소에 지나치기 쉽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회의 단면이거나 미세한 지점이다. 배성미는 자연의 질감을 흐릿하게 지닌 걸면과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내부의 모습을 통해 간극을 제시하는 한편, 부분을 포착하여 무엇인지 유추하고 관찰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사건과 사물, 자연의 단서들이 나와 어떻게 관계하는지 질문을 제기한다.

There is a Sound in Silence is an installation piece consisting of dozens of boxes. A look inside through a loupe shows an enlarged image of part of money, oil, rice, barbed wire, a mechanical part, and an ambiguous landscape. Each captures a cross-section or moment in busy modern life that we usually pass by without noticing. The box's subtle natural texture draws a contrast with the symbols of modern society found within. BAE encourages viewers to guess the object from the close-up image and explore their personal relationship with a set of incidents, objects, and natural clues.

<침묵 속에도 소리가 있다>, 2022
혼합매체
가변설치

There is a Sound in Silence, 2022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106

107





108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109

Seongsan Art Hall 1F Hall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윤철 Yunchul KIM

(1970,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및 활동

(1970,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Korea

〈태양들의 먼지 II〉(2022)는 키네틱 유체 설치 작품으로, 작품 제목은 프랑스 작가 레이몽 루셀의 동명의 희곡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깊은 대지 속에 있던 광물은 고온의 열과 화학 반응 그리고 음파를 통해 나노 입자로 변환되며, 그로 인해 인공과 자연의 혼합물이 된다. 작품 속에서 여러 기계 장치들이 만들어 내는 압력과 흐름을 통해 빛과 색을 발하는 수행성 물질은 물리적이면서 동시에 미적 사건을 생성하게 하는 트랜스매터로서 유체는 과정의 주체가 되며, 마치 혈관처럼 얽혀 있는 튜브들과 특수하게 제작된 패널에 봉인된 채 끊임없이 순환한다. 영겁의 시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광물은 다채로운 빛을 출렁이게 하는 ‘물질의 은유(matterphoric)’로의 입자이자 유체로서 매순간 새로운 현실로 실현된다. 그 현실은 물질과 기계장치의 징후로써 우리의 상상과 몸과 관계한다.

La Poussière de Soleils II (2022) is a kinetic fluid installation, a nod to French poet Raymond ROUSSEL's the same titled play. The mineral in deep earth is transmattered to nanoparticles by high-temperature heat, chemical reactions and sonic waves, becoming a mixture of nature and artifact. In the artwork, performative material, which manifests light and colors through pressures and flows by various mechanical devices, is a TransMatter that creates physical and aesthetic events simultaneously. The fluid becomes the subject of the process and circulates constantly while being sealed in tubes that are entangled like blood vessels and specially designed panels. Minerals, which had been in the deep darkness for eons of time, actualises new realities every moment as particles and fluid that of matterphoric matter. That reality is related to our imagination and body as a symptom of matter and machinery.

〈태양들의 먼지 II〉, 2022
LPDS 용액, 아크릴, 알루미늄, 모터, 솔레노이드 밸브,
마이크로 컨트롤러
268×205×205cm

La Poussière de Soleils II, 2022
LPDS solution, Acrylic, Aluminum, Motor,
Solenoid valve, Microcontroller
268×205×205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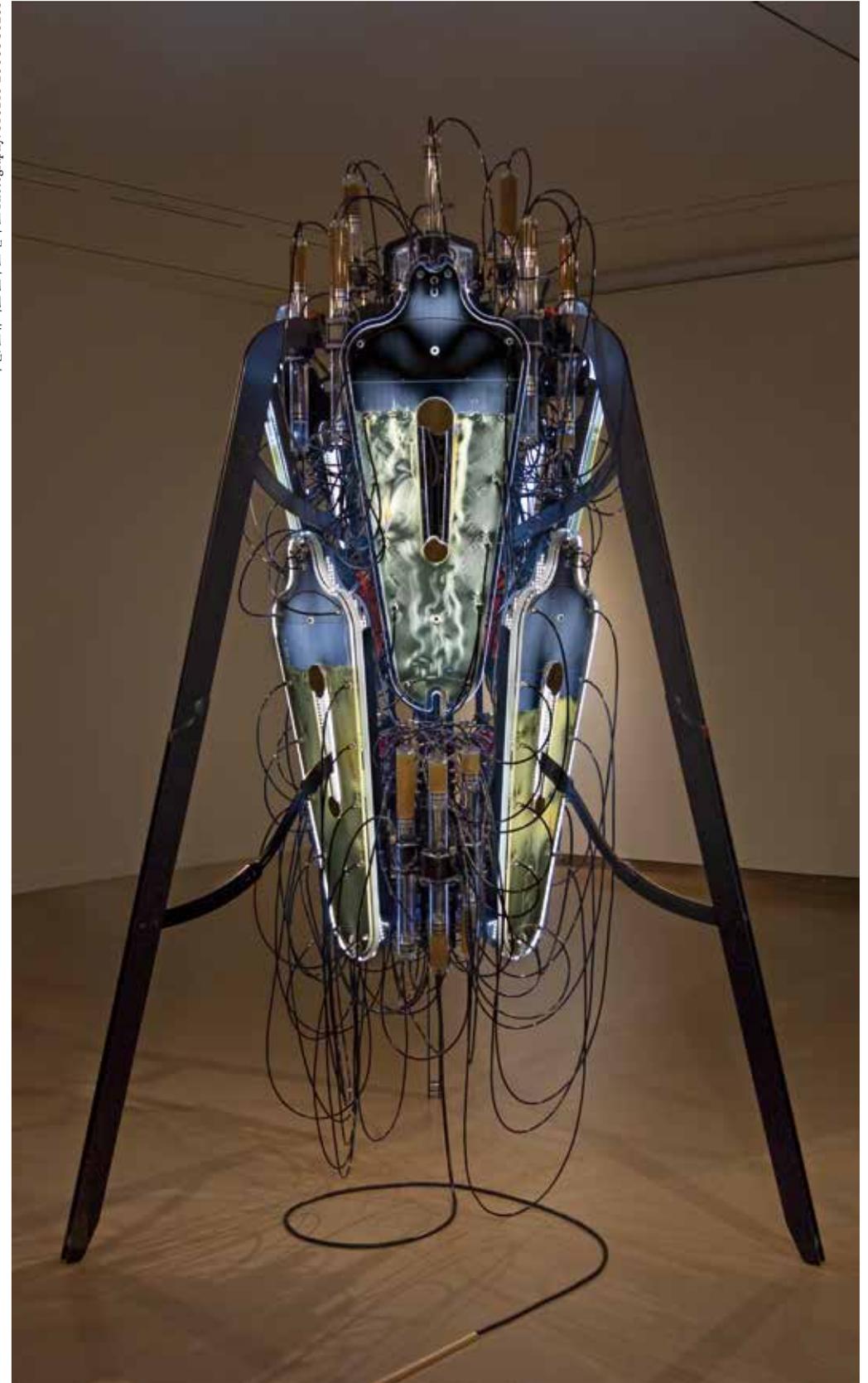
사진: 스튜디오 로쿠스, 로쿠스 스튜디오, Photography: STUDIO LOCUS SO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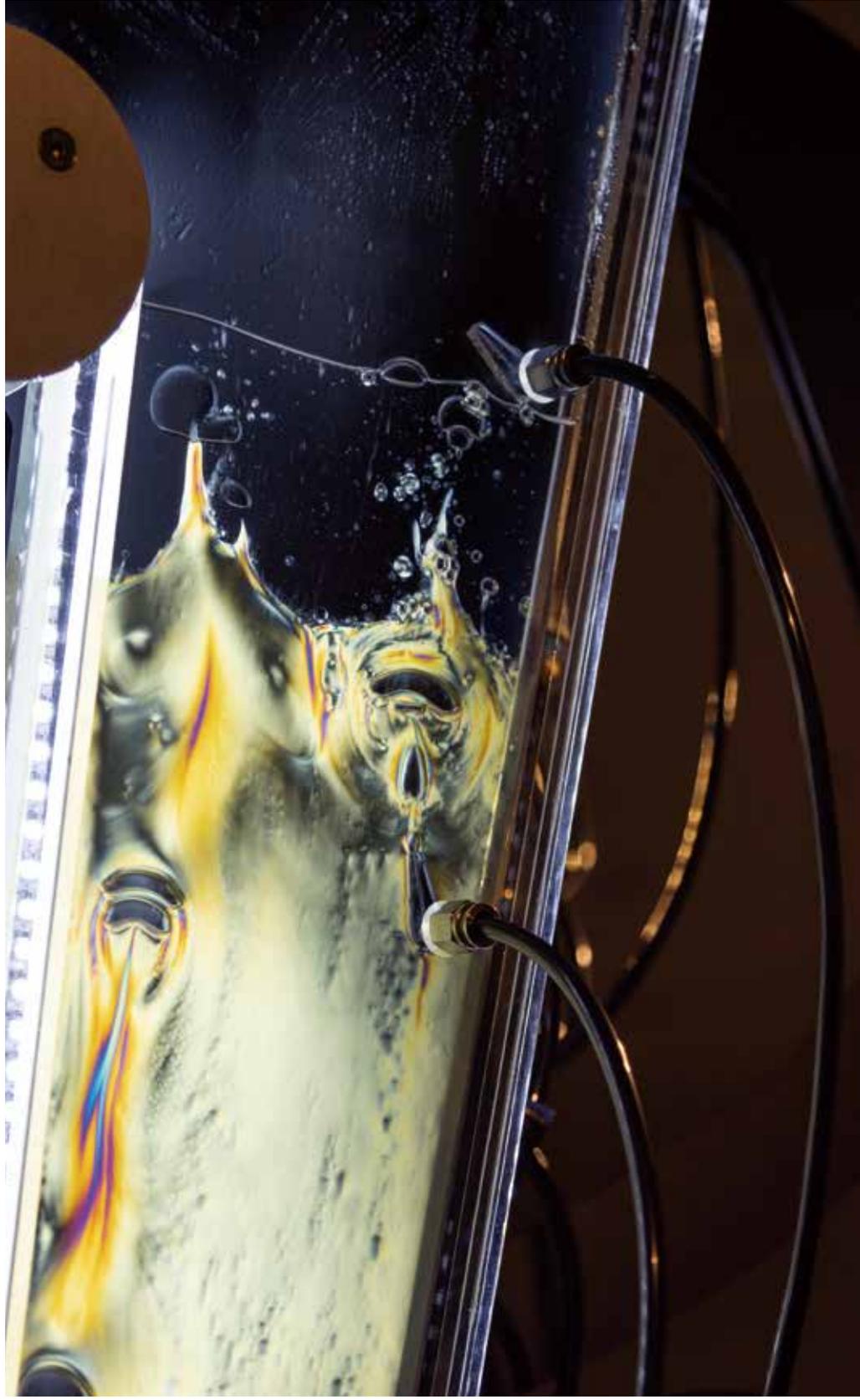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Seongsan Art Hall 1F Hall 1

110

111





112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13

Seongsan Art Hall 1F Hall 1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한진수 Jinsu HAN

(1970,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0,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우연한 꽃>은 오브제 작업이 아닌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설치작품이다. 전시장 바닥에 전시 관람시간 동안 비누방울을 만들어내는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주변에 흔적을 남긴다. 관객은 작은 입구로 들어가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공간적 어긋남을 유도하고 작품 공간을 초현실적이며 미래적인 분위기로 연출한다.

Uncertain Flower is an installation that sheds light on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interaction with space, rather than an object piece. A bubble-producing device is installed on the floor to produce bubbles throughout the opening hours of the exhibition. Viewers pass through a narrow entrance to see the artwork, which results in a spatial distortion, leaving the space of work appear surreal and futuristic.

<우연한 꽃>, 2022
송풍기, 비눗물, 안료, 철, 동, 플라스틱
300×600×500cm

Uncertain Flower, 2022
Blower, Bubble liquid, Pigment, Steel,
Copper, Plastic
300×600×5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2

Seongsan Art Hall 1F Hall 2

114

115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박얼 Earl PARK

(1980, 한국)
한국 광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80, Korea)
Born in Gwa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The Walking Man II〉는 가장 인간다운 ‘걷기’ 행위를 가장 기계적 메커니즘으로 구현한 키네틱 설치 작업이다. 인간이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직립보행’이라는 특별한 보행방식은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다른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보행방식은 인간이 ‘인간적’임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연상 기제로 작용한다. 작품은 크랭크와 모터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계를 통해 ‘인간다움’에 대한 연상과 인식의 경계를 시험하는 시각적 탐색이다.

The Walking Man II is a kinetic installation that embodies the concept of walking - the most human-like behavior - in the most mechanical mechanism. Walking upright is the very symbol of human evolution and involves a delicate balancing act where you need to transfer body weight from one leg to the other. It is also a strong reminder of what makes us human. The simple mechanism consisting of cranks and motors is a visual exploration that tests the boundaries of “humanness.”

〈The Walking Man II〉, 2018(2022)
철 프레임, 알루미늄, 황동,
타이밍 벨트와 풀리, 모터
273×110×110cm

The Walking Man II, 2018(2022)
Steel frame, Anodized aluminum, Brass,
Timing belt & pulley, Motor
273×110×11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2

Seongsan Art Hall 1F Hall 2

118

119





120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2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21

Seongsan Art Hall 1F Hall 2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용백 Yongbaek LEE

(1966, 한국)
한국 김포 출생
현, 한국 김포 거주 서울 활동

(1966, Korea)
Born in Gimpo, Korea
Lives in Gimpo, Korea, works in Seoul, Korea

작가는 최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변화 - 코로나, 섯다운, 전쟁, 메타버스 등 - 에 따라 예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유형이 요청된다고 보고, 원본의 부재와 예술작품의 표현대상의 시물레이션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뉴폴더-드래그>, <피에타>, <NFT 미술관> 시리즈를 선보여 왔다.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은 블루스크린이 미술사적 의의를 지니는 예술작품을 덮었다가 이내 사라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다. 컴퓨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블루스크린은 점차 가속화되는 정보미디어 사회에서는 새로운 공포의 이미지이며, 이는 현대사회와 인류에 대한 경고를 암시하는 듯 하다. 3D로 제작된 이 영상작품의 2700프레임 중 한 프레임을 입체화한 조각은 예술작품 제작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조각과의 차별성을 드러낸다.

LEE believes that recent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COVID-19, lockdowns, war and metaverse, call for a new type of art. In response, he has unveiled *New Folder-Drag*, *Pieta*, and *NFT Museum* series, raising awareness about the absence of the original and the simulation of the subject of art. *NFT Museum: The Thinker* is a video where a blue screen drapes over an iconic sculpture with historic significance and soon disappears altogether. A blue screen, which is displayed in the event of a fatal system terror on a computer, has become the new image of horror in the fast-paced digital information era. It appears to be a warning to modern society and mankind. The sculpture is a 3D representation of one of the 2,700 frames of the 3D-rendered video. It captures changes in the production of art, in a stark contrast to conventional sculptures.

1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_조각〉, 2022
스테인리스 스틸
186×188×168cm

2
〈NFT 미술관: 생각하는 사람〉, 2022
단체널 비디오 4K
1분 30초

1
NFT Museum: The Thinker_Sculpture, 2022
Stainless steel
186×188×168cm

2
NFT Museum: The Thinker, 2022
Single channel video, 4K
1min. 30sec.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2

Seongsan Art Hall 1F Hall 2

122

123



124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2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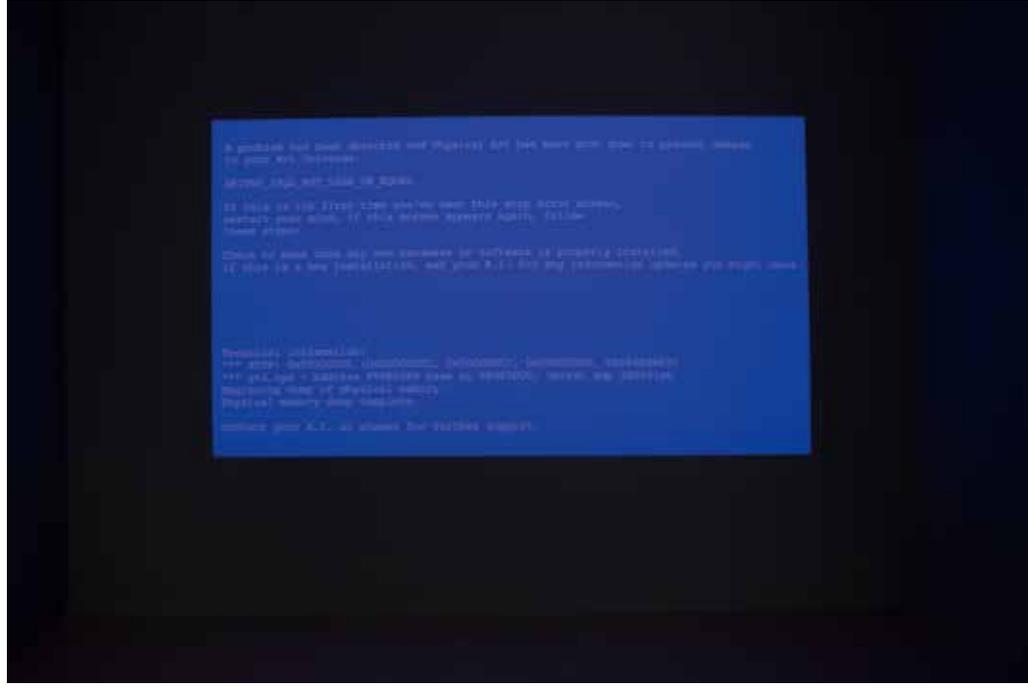
125

Seongsan Art Hall 1F Hall 2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호이팅 HOU I Ting

(1979, 대만)
대만 가오슝 출생
현, 대만 타이베이 거주 및 활동

(1979, Taiwan)
Born in Kaohsiung, Taiwan
Lives and works in Taipei, Taiwan

인간사와 자연사가 맞닿은 진화과정은 두 역사가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각 탐지기를 상징하는 <Sewing Fields: Anthropoid Bee>는 서로 다른 생물종과 공동체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상호협력적인 진화를 조명한다. 작가는 개인의 상상과 내부 경관, 여러 (소우주) 수준의 조사를 기반으로 감지된 시간과 측정된 시간을 병치함으로써 현지에서 발견된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해 탈이분법적·비선형적 접근법을 취하고, 그 속에 흐르는 역사를 이해하며 인류, 자연, 역사의 바람과 힘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 evolutionary progress of imbricating human and natural histories has prompted us to consistently and repeatedly understand how these histories interact and influence each other in this dynamic relationship.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as a metaphor for a sensory detector, points to a collaborative evolution, which aims to foste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species/communities. Through individual imagination, inner landscape, and a survey of different (microcosmic) scales, the project juxtaposes sensed time and measured time to formulate a non-binary, non-linear approach from natural and man-made objects observed locally to understand histories, along with the desires and forces in and of humanity, nature, and histories.

1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1>, 2019-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자수
60×90cm

2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2>, 2019-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자수
40×60cm

1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1, 2019-2022
Digital print on canvas, Embroidery
60×90cm

2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2, 2019-2022
Digital print on canvas, Embroidery
40×6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126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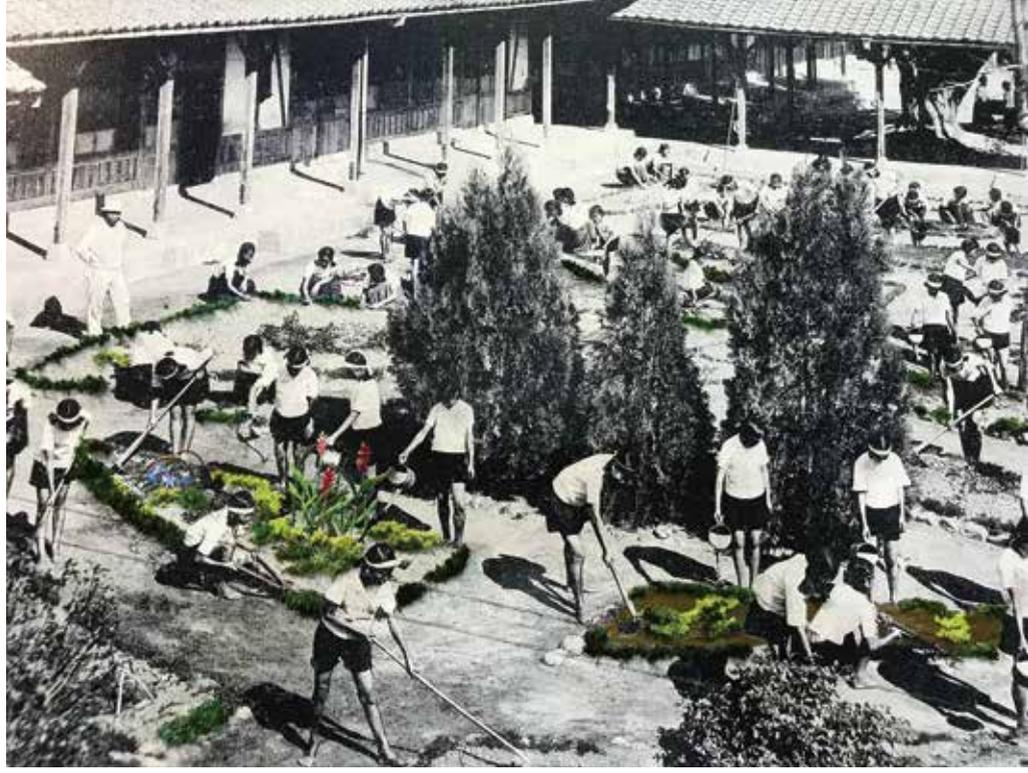


3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5>, 2019-2022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자수
60×90cm

4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2022
움직이는 이미지

3
Sewing Fields: The Woman of Empire NO.5, 2019-2022
Digital print on canvas, Embroidery
60×90cm

4
Sewing Fields: Anthropoid Bee, 2022
Moving Image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



2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28

129



4

카토 츠바사 Tsubasa KATO

(1984, 일본)
일본 사이타마 출생
현, 일본 도쿄 거주 및 활동

(1984, Japan)
Born in Saitama, Japan
Lives and works in Tokyo, Japan

〈Anthem while Bound〉는 국가(國歌)를 매체로 한 집단 행위예술 작품이다. 정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이 강조한 것처럼 국가는 한 나라의 화합과 결속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The medium for the collective action in this performance is the national anthem. As Benedict Anderson has shown, national anthems experientially tie together the nation and its citizens.

“(국가) 제창은 개성을 드러내고 상상의 공동체가 물리적으로 현실화되어 메아리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얼마나 사심없어 보이는 동조(同調)인가! 우리가 국가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이들이 함께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심지어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상상의 노래가 서로를 연결할 뿐이다.”

“Singing (the national anthem) provides occasions for personality, for the echoed physical realization of the imagined community. [...] How selfless this unisonance feels! If we know that others are singing these songs precisely when and as we are, we have no idea who they may be, or even where, out of earshot, they are singing / Nothing connects us all but imagined sound.”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베네딕트 앤더슨 작 『상상된 공동체』에서 발췌

We—who live simultaneously across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must recognize that these online bonds are a form of constriction. Isn't the image/information-saturated environment around us turning us into even greater onlookers?

작가는 여러 공동체를 넘나들며 구축해 온 온라인 유대가 일종의 속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지나 정보의 포화 상태가 우리를 구경꾼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30

131



〈Anthem while Bound〉, 2022
단체널 비디오, 스테레오
가변설치

Anthem while Bound, 2022
Single channel video, Stereo
Variable installation

퍼포먼스
팽과리, 북: 손마희
징, 장구: 오현수
태평소: 김지영
아쟁: 윤성임
고마운 분: 임명희

Performance
Kkwaenggwari, Korean Drum: Mahoe SON
Zing, Janggu: Hyunsu OH
Taepyeongso: Jiyoung KIM
Ajaeng: Sungim YOON
Special thanks to Myunghee IM



132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3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오정선 Jungsun OH

(1973,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3,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푸른 기억의 잔상을 파도의 물결에 비유하여 표현한 설치 작업이다. 유리 캐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하나의 유기적 형태의 덩어리에서 두께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색의 깊이에는 기억너머 나에게 스며들던 푸르름의 순간이 그 깊이 안 어딘가에 각인된 채 빛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관객은 푸른 물결에 담겨진 순간의 조각들 사이에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f It Can Hold It... It Shall Be Contained is an installation art in which the afterimage of the memory of all that is blue is metaphorically depicted as the waves of the sea. From one organic mass created using the glass casting method, the natural depth of colors created by the different thicknesses reveals the moments of the blueness, which permeated me, engraved somewhere beyond the memorie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discover their reflections among the fragments of moments captured within the blue waves.

〈담을 수 있다면... 담을 수 있겠지〉, 2022
유리
가변설치

If It Can Hold It... It Shall Be Contained, 2022
Glass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34

135





136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37

Seongsan Art Hall 1F Hall 3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오순미 Soonmi OH

(1976,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서울 활동

(1976,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Incheon, Korea, works in Seoul, Korea

〈봉인된 시간_삶〉은 창원에서 촬영한 일몰과 일출 영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중앙에 설치된 거울에 의해 양쪽 벽면에 투사되고 반사되는 영상은 탄생과 죽음의 알레고리이다. 생명의 유한함을 상기시켜 주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지표가 된다. 작품은 어둠과 밝음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 영원할 것 같은 삶에 반성적 사고를 유도한다. 작품에서 일몰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밝음이 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자 앞으로의 미래이다.

Sealed Eternity_Life is comprised of video recordings of a sunset and a sunrise in Changwon. The images projected on both walls by the central mirror are an allegory of birth and death. Time reminds us of the finiteness of life, serving as a passage from the past to the future. The endless loop of light and darkness encourages contemplation on seemingly eternal life. The sunset is interpreted as a time we need to wait out for light to come, rather than a time that makes everything disappear.

〈봉인된 시간_삶〉, 2022
거울, 단채널 비디오
각 7분 1초, 가변설치

Sealed Eternity_Life, 2022
Aluminum coating on the Glass,
Single channel video
7min. 1sec. each,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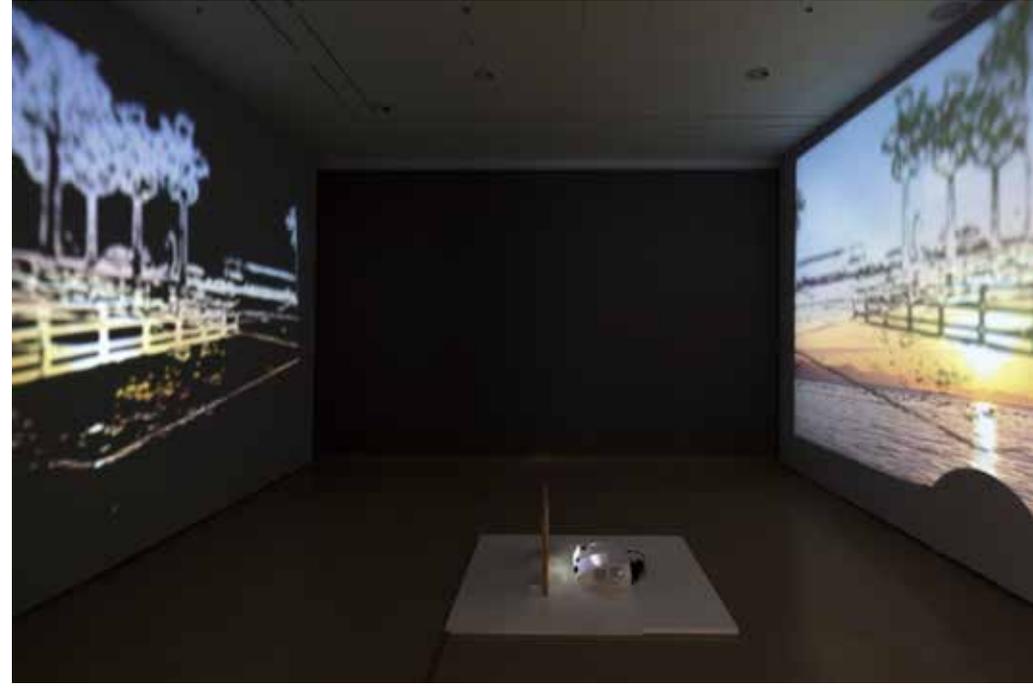
139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김혜경×진케이×최재필 Hyegyoung KIM×Jin Kei×Jaepil CHOI

(1974, 한국 / 1975, 한국 / 1976, 한국)

한국 김포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성남 거주 및 활동
한국 정읍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4, Korea / 1975, Korea / 1976, Korea)

Born in Gimpo,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ngnam, Korea
Born in Jeongeup,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픽셀: 시간과 공간을 잇다〉는 전통예술 문화와 미디어 아트의 접목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지닌 현대적 요소를 디지털의 가장 작은 단위인 픽셀 형태의 브릭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새로운 미디어 예술로 재창조한다. 과거 매체와 현재의 뉴미디어를 잇는 프로젝션 매핑,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LED 인터랙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 빛과 사운드, 움직임을 가미해 관객에게 과거와 현재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예술적 소통을 시도하려 한다.

〈픽셀: 시간과 공간을 잇다〉, 2022
브릭, 인터랙티브 미디어, 모션아트웍
가변설치

Pixel: Bridging Time and Space explores the interface between traditional art and media art. Modern elements of beautiful Korean traditions are reinvented as bricks of pixels, which are the smallest digital uni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projection mapping, sound visualization, and LED interaction are combined with light, sound, and movement to facilitate a communication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Pixel: Bridging Time and Space, 2022
Bricks, Interactive media, Motion artwork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Seongsan Art Hall 1F Hall 3

142

143





144

성산아트홀 1F 전시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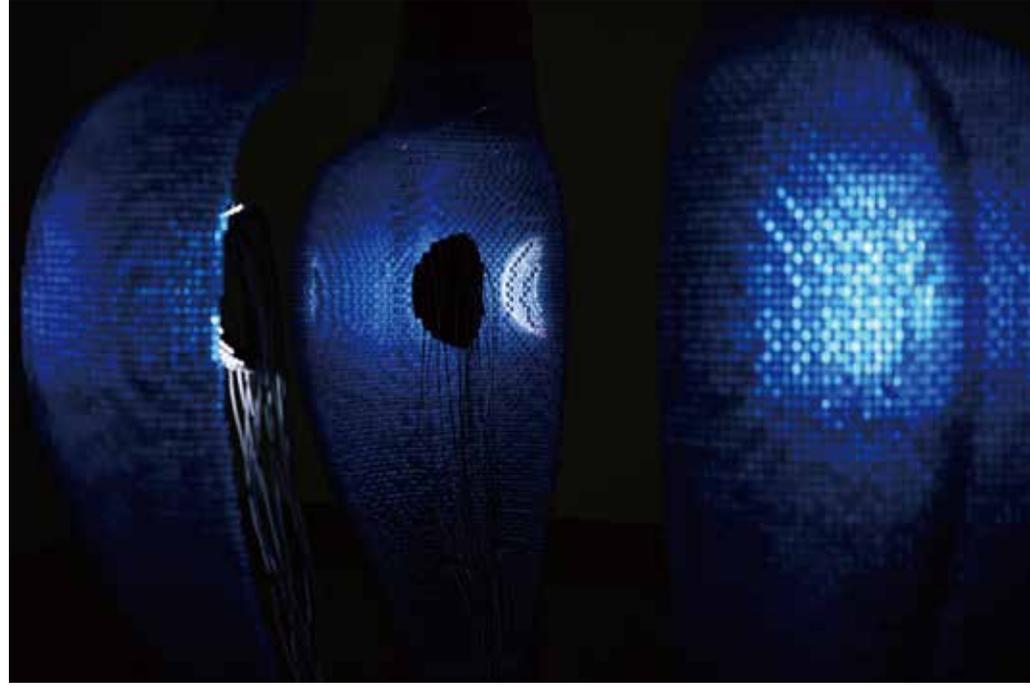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45

Seongsan Art Hall 1F Hall 3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에디 프라반도노 Eddi PRABANDONO

(196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파티 출생
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거주 및 활동

(1964, Indonesia)
Born in Pati, Indonesia
Lives and works in Yogyakarta, Indonesia

이 작품은 도시녹화와 산림보호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작가의 초대이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므로 도시녹화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비해,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도심 속 녹지공간은 토양 보호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토양이 안정화되면 우천 시 빗물이 토양에 충분히 스며들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도심환경을 조성하려면 도심 내 녹지지역과 건축용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This work is about an invitation to greening of the city movement as well as the movement to maintain existing green plants. Greening in cities is needed to reduce global warming because green plants can absorb carbon dioxide(CO₂) and release (O₂) gas through photosynthesis. Carbon dioxide gas is a toxic gas that causes global warming, while oxygen gas produced by plants can increase the supply of oxygen that can be inhaled by our society to be healthier and free from air pollution. Greening in the city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a protector of the soil. If it rains, the soil will absorb the water in the end there will be no flooding — therefore it requires land division between green open land and building land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urban environment.

〈Green Green Green Go Ahead〉, 2022
일륜차, 나무
가변설치

Green Green Green Go Ahead, 2022
Trolley, Tree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46

147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홍이현숙 Hyunsook HONG LEE

(1958, 한국)
한국 문경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58, Korea)
Born in Mung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12m 아래, 어둠 속〉은 비인간 존재와의 연대와 공생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집체 퍼포먼스로 담은 작품이다. 퍼포먼스 참여자는 인간동물로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흑의 공간에서 안내자와 함께 작가가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퍼포먼스에서 관객은 수동적 관람자가 아닌 주체적 수행자가 되어 마치 땅속 생물종처럼,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며 어둠 속의 다른 종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서로의 냄새와 촉감과 소리의 진동을 통해, 나 아닌 존재를 다르게 재인식하고 새롭게 연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입자와 파동의 그 사이 공간과 시간 어디쯤에서 자신의 위치를 몸으로 확인해보는 것이다.

12m Down, in the Dark is a group performance piece that entails an artistic exploration into solidarity and co-existence with non-human beings. The performance proposed by the artist is presented by a human animal, alongside a guide in a pitch black space. During the performance, viewers become active participants rather than passive spectators, relying on senses other than vision to navigate the dark like underground organisms and encounter other species. This enables a special experience to re-perceive and connect with other beings through smells, touches, and the vibration of sounds. Viewers are able to realize their bearings in space and time, somewhere between a wave and a particle.

〈12m 아래, 어둠 속〉, 2022
2채널 비디오
가변설치

12m Down, in the Dark, 2022
2 channel video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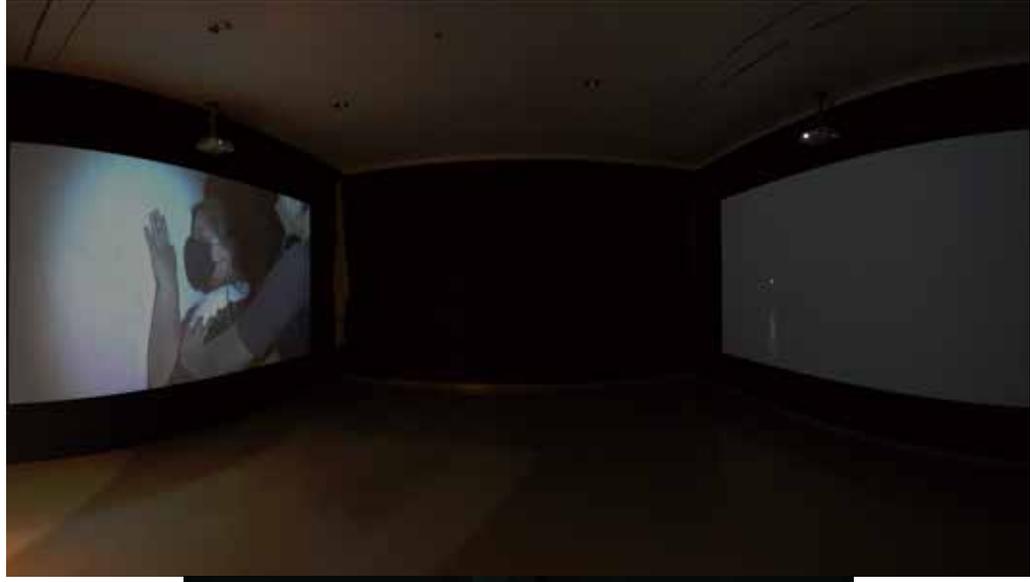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50

151



152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53

Seongsan Art Hall 2F Hall 4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시모나 호이먼스 Simone HOOYMANS

(1974, 네덜란드)
네덜란드 출생
현, 노르웨이 알빅 거주 및 활동

(1974, the Netherlands)
Born in the Netherlands
Lives and works in Ålvik, Norway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는 녹색의 기암괴석이 즐비한 어두운 동굴세계에 사는 반짝이는 생명체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작가는 생물 백과사전의 삽화와 독일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헤켈(1834~1919)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림을 구체화시키고 개성을 부여하여 자신만의 생명체들을 탄생시켰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믿음 하에 전체 생태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을 전달한다. 이 작품은 생명의 그물 속에서 그 신비를 파헤치고,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믿음 하에 믿음에 대한 감정과 모든 생태계의 부분으로써 인간의 갈망을 유발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동시에 승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지, 미생물로부터 신성한 기운을 느낄수 있는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동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2022
비디오 애니메이션, 수채화 드로잉
가변설치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shows an animation of a cave-like universe made out of green soft shaped rock-formations where illuminated creatures are emerging from the darkness.

Life is captured as a symphonic interaction between all these elements. All the creatures are based and inspired on the smallest organism on the planet. To be seen in scientific drawings from biology encyclopedia and from the drawings of Ernst HAECKEL (1834~1919) a scientist who illustrated the smallest lifeforms that we mostly can't see with the naked eye.

The work invites us to delve into the mystery of life, in the web of life and trigger the sensibility for faith and the longing of humans to be part of a whole ecosystem,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organisms have equal value.

Does it matter what form we are worshipping? Can even the smallest life forms give us a divine moment? When do we feel we are part of the natural system again?

Chapel of Very Small Creations, 2022
Digital animation, Watercolor drawings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54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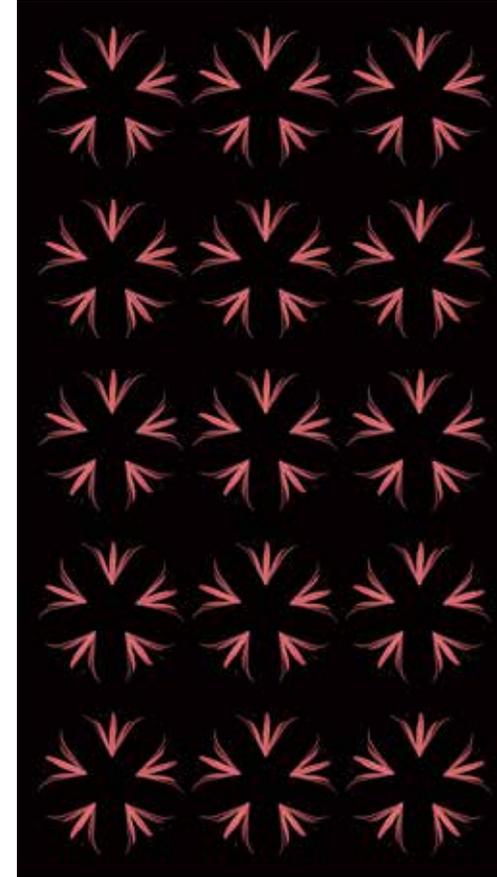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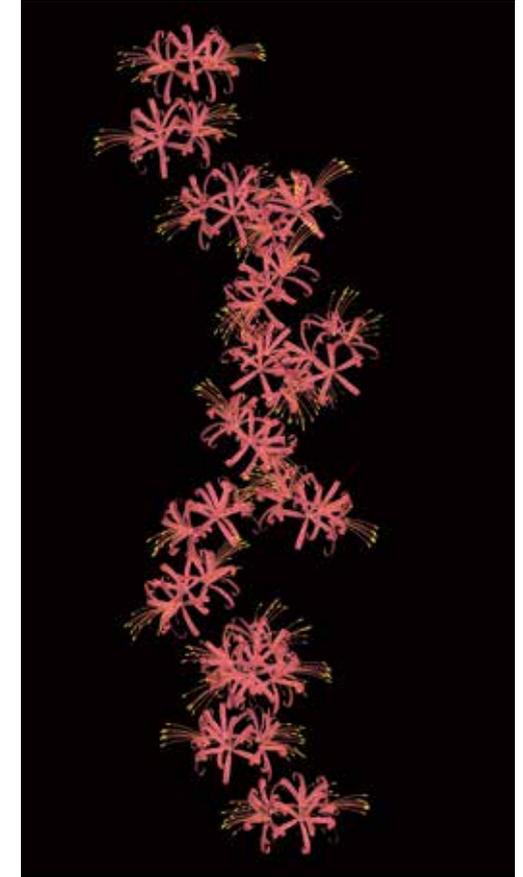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Seongsan Art Hall 2F Hall 4



《Dancing Red Lilies》, 2022
디지털 애니메이션, 프로젝터,
한지 위에 수채화, 나무
가변설치

초자연적인 이 아름다운 꽃들은 연약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흩어졌다가 훨훨 날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정신적 모습을 나타낸다. 그 춤은 모든 요소들 사이의 교향악적 상호작용으로 기록된다. 지상과 외계와의 만남을 여는 보호구 역할을 하며, 정신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과 갈망을 일깨운다.



Dancing Red Lilies, 2022
digital animation, projector,
watercolor on hanji paper, wood
Variable installation

Ephemeral and transcendental, these beautiful flowers refer to spiritual images where fragile, elegant bodies disperse, fly and fall. The dance is recorded as a symphonic interaction between all elements. Acting as protected spheres that open encounters between the earthly and the extraterrestrial, awakening the sensitivity and longing for spirituality.

정아사란 Asaran JEONG

(1992,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92,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떨림의 흔적〉은 인터넷에서 접하는 프리소스 이미지를 가공한 영상과 스티로폼 조각으로 이루어진 설치작품이다. 휘발되는 디지털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 작가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 - 반짝이는 순간을 담은 바다, 호수, 강 등의 자연 이미지 - 를 활용하여 가상의 3D 조형을 만든다. 이는 실제 세계의 조각과 유사해 보이지만 오직 시각적으로 감각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는데 비물질적인 디지털 이미지는 이러한 떨림이 없다. 작가는 떨림이 없는 이미지를 고정시킴으로써 고유한 진동수를 부여하고자 한다.

Trace of Tremor is an installation that combines a video collage of free-source images from the Internet with styrofoam sculptures. In the flood of digital images, JEONG carefully selected the ones that hold personal meaning — those capturing the glistening surface of a body of water, such as sea, lake, and river and recreated them into three-dimensional forms in virtual space. These figures may appear similar to real-world sculptures, but they can be only sensed through vision. In quantum mechanics, every matter has a specific frequency at which it vibrates. But digital images, which are immaterial, don't. The work exemplifies the artist's desire to assign an inherent frequency to these fleeting, non-vibrating images.

〈떨림의 흔적〉, 2022
비디오 설치, 스티로폼, 3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80×483×315cm,
각 5분, 5분, 11분 15초

Trace of Tremor, 2022
Video installation, EPS, 3 channel video, Color, Sound
180×483×315cm,
5min, 5min, 11min. 15sec. each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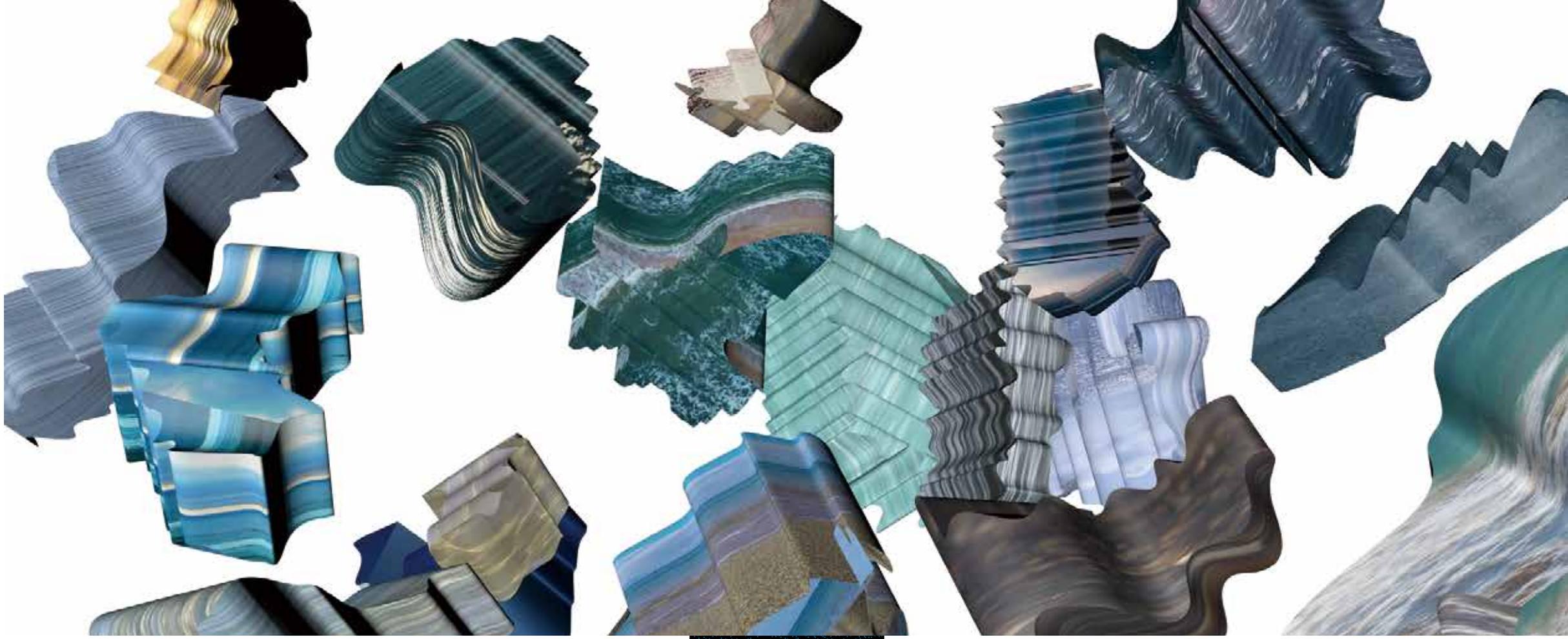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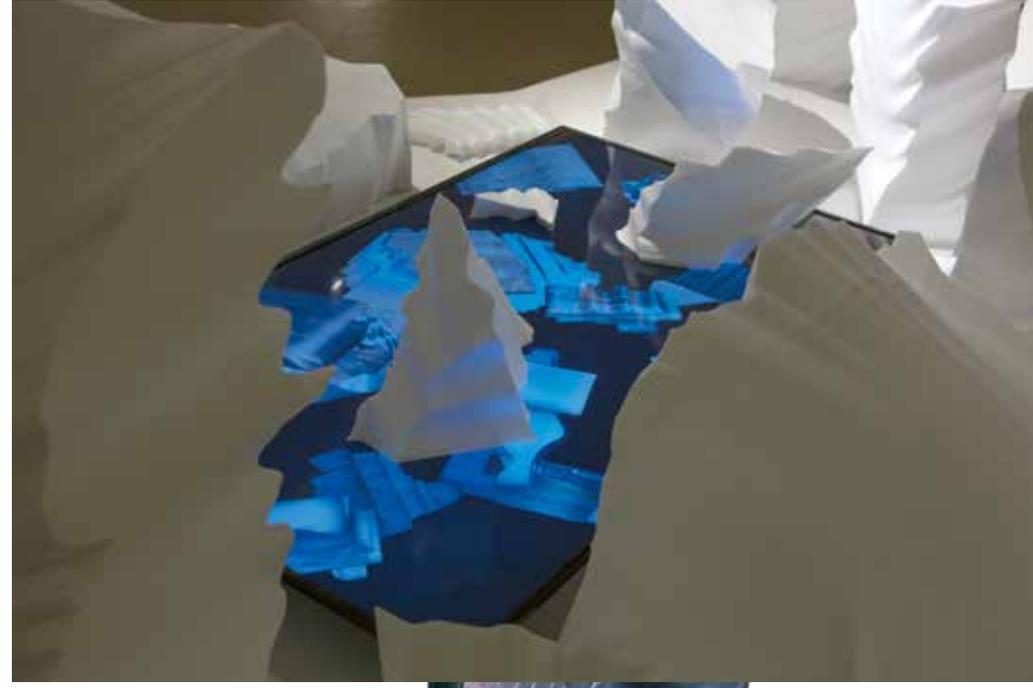
158

159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연숙 Yeonsook LEE

(1976, 한국)
한국 영암 출생
현, 한국 파주 거주 서울 활동

(1976, Korea)
Born in Yeongam, Korea
Lives in Paju, Korea, works in Seoul, Korea

이연숙은 어느 한때 방문한 잊지 못할 장소인 호주 중앙사막을 떠올리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_2022>을 선보인다. 녹이 슨 철처럼 붉고 결이 고운 흙과 각종 허브, 사람의 체취와 같은 냄새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에서의 마들렌처럼, 작가에게 당시의 기억을 소환시킨다. 작가는 그곳에서 발현된 모든 감각을 재료로 삼아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으로 그곳을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붉은 땅과 파란 하늘 아래서 만난 모든 존재가 제각기 의미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 곳을 관객도 함께 느껴보기를 제안한다.

사운드: ATO 남윤식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_2022 is a recollection of LEE's unforgettable experience in the desert in central Australia. The silky texture of rusty sand and the smell of different herbs and body odor conjure memories in the outback for the artist, like the madeleine in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Sensory simulations including visual, olfactory, and tactile sensations are used to recreate the desert. The installation encourages viewers to feel the place where every being standing on the red earth under the blue sky co-exist peacefully.

Sound: ATO Yunsik NAM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_2022>, 2022
깃털, 스테인리스 스틸, 아크릴판, 혼합매체
가변설치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_2022, 2022
Feather, Stainless steel, Acrylic sheet,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62

163





164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65

Seongsan Art Hall 2F Hall 4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양정욱 Junguk YANG

(1982,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및 활동

(1982,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Korea

〈대화의 풍경〉은 작가가 자신의 배우자와 집에 대한 이상적인 풍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이해, 대화의 과정을 설치로 풀어낸 작업이다. 벽지의 색과 가구의 모양, 소품에 대한 서로의 취향은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달랐던 경험이 반영된다. 이렇듯 양정욱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삶의 일화를 작품에 담아냄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킨다.

Scenery of Dialogue is an installation that represents the process of misunderstanding, understanding and dialogue the artist and his spouse underwent as they worked to create an ideal home. The work reflects their seemingly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tastes in wallpapers, furniture and interior accessories. Rooted in YANG's personal everyday story, it gives us a new lens to view life with.

〈대화의 풍경 #10〉, 2022
나무, 철, 모터
230×230×600cm

Scenery of Dialogue #10, 2022
Wood, Steel, Moter
230×230×6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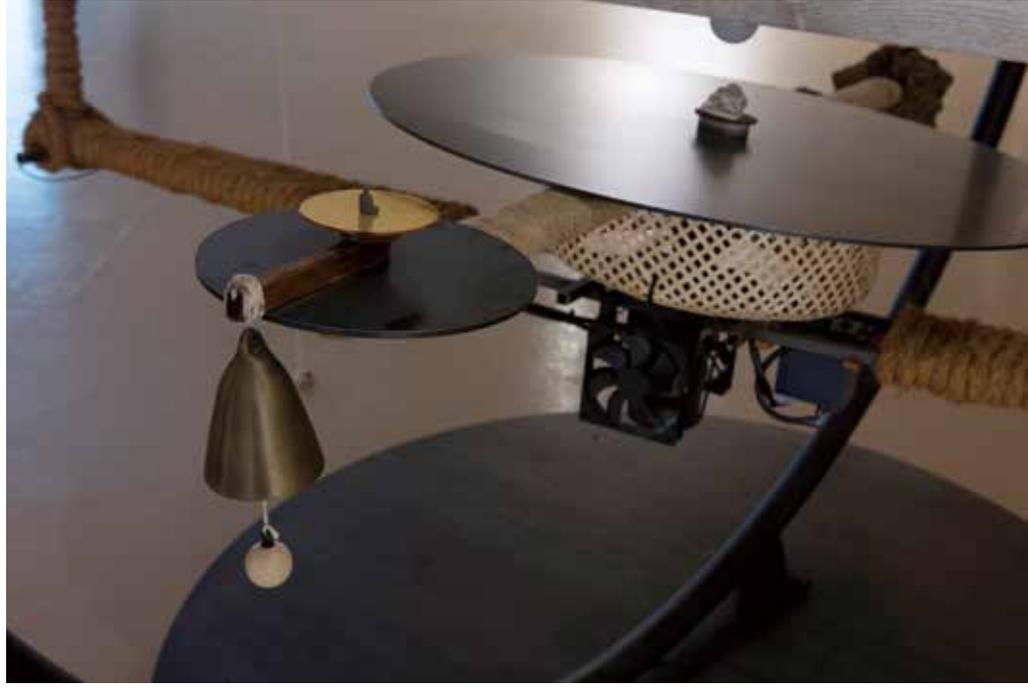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66

167





168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69

Seongsan Art Hall 2F Hall 4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안씨 타울루 Anssi TAULU

(1969, 핀란드)
핀란드 이위베스켈레 출생
현, 핀란드 헤멘린나 거주 및 활동

(1969, Finland)
Born in Jyväskylä, Finland
Lives and works in Hämeenlinna, Finland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그린 설치 작품이다. 작품의 겉모습은 내부의 실상과 시각적이나 경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육면체의 구조물은 흡사 대피소나 해상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데, 둘 다 임시적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작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명과 음향, 촉각의 균형과 거리가 밖과는 달라진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두 개의 대조되는 현실이 결합되는 독특한 경험을 안겨준다. 작품명은 독일의 중국학자 리하르트 빌헬름이 번역한 중국의 도교 경전 『태을금화종지』의 영문 제목을 빌렸다.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environ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The appearance of the installation and the internal reality do not synchronize with each other, they are visually and experientially separate from each other. The appearance is a visual mix of a shelter and a sea container, both of which are temporary spaces. Inside the installation, the light, acoustics, haptic balance and distances feel different. At its best, the work can offer a viewer an experience that creates a unifying synthesis between these two realities. The title of the work is borrowed from the book “Yijing”, Chinese book of life translated (and westernized) by Richard Wilhelm.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2022
재활용 나무, 판지, 카펫, 흙, 벤자민 나무, 식물램프,
콘크리트, 석탄, 빗물떨이 가방, 튜브
300×610×360cm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2022
Recycling wood, Cardboard, Carpet, Soil, Benjamin
tree, Plant lamp, Concrete, Coal,
Rainwater dropper bag and tube
300×610×36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70

171



172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73

Seongsan Art Hall 2F Hall 4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준 June LEE

(1985,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85,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이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맹목적인 사랑의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작업에서 서로 다른 신체의 일부분이 합쳐져 하나의 인체를 형성하거나 인연을 상징하는 실이 신체를 잇는 모습은 부모와 자식, 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징한다. 불완전한 신체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상징하며, 개인은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Drawing from her personal experience, LEE focuses on the need for unconditional love between individuals. Cross-sections of different bodies are combined to form a single body, and figures are interconnected with a thread. These represent the powerful bond seen in various types of relationships, including those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and between lovers. The incomplete bodies stand for room for acceptance, suggesting that one should learn to embrace others to build a community.

1
〈맹목〉, 2022
실, 플라스틱
106×60×47cm

2
〈맹목〉, 2022
실, 플라스틱
85×140×35cm

3
〈맹목〉, 2022
실, 플라스틱
114×40×40cm

4
〈신의〉, 2022
실, 플라스틱
60×75×34cm

1
Unconditionally, 2022
Thread on plastic cast
106×60×47cm

2
Unconditionally, 2022
Thread on plastic cast
85×140×35cm

3
Unconditionally, 2022
Thread on plastic cast
114×40×40cm

4
Loyalty, 2022
Thread on plastic cast
60×75×34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74

175

1



이미지 제공: 이준 Courtesy: June LEE

본질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이미지 제공: 이준 Courtesy: June LE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4

Seongsan Art Hall 2F Hall 4

176

177

3



이미지 제공: 이준 Courtesy: June LEE

4



이미지 제공: 이준 Courtesy: June LEE

백정기 Jungki BEAK

(1981,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양평 거주 및 활동

(1981,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Yangpyeong, Korea

백정기는 이번 전시에서 <메모리얼 안테나>와 신작 <능동적인 조각>을 선보인다. <메모리얼 안테나>는 야외에 놓인 동상을 라디오 주파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안테나로 이용하는 장소 특정적이고 한시적인 프로젝트이다. 동상을 구성하는 주요소로서 상징성(의미)과 물질성(재료)을 설정하고, 안테나로서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여, 동상에 입혀진 강렬한 상징성 뒤편에 침잠되어 있던 물질적인 속성을 표면화시킨다. 이 작품이 동상을 안테나로 이용해서 무작위의 라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작품이라면, <능동적인 조각>은 임의의 동상을 제작하고 이를 안테나로 이용해서 라디오 신호로 '송신'하는 작품이다. 송신되는 라디오 신호의 사운드는 잡음과 오래전에 송신된 듯한 끊기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로 들려주는 정체불명의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다. 두 작품 모두 동상에 내재된 잠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가진다.

BEAK has submitted two pieces for this exhibition - *Memorial Antenna* and *Active Statue*. *Memorial Antenna* is a site-specific, temporary project that uses an outdoor statue as an antenna to receive radio waves. The artist assigns key elements of representation (meaning) and materiality (material) to the statue. By endowing it with a new function as an antenna, he brings to the fore the material properties that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due to the strong representation of the statue. While the former turns a statue into an antenna to 'receive' random radio signals, *Active Statue* is designed to 'transmit' radio signals with a randomly created statue that works as an antenna. Transmitted radio signals feature old voice recordings with static and other background noise, as well as ambiguous words and sentences the voice utters. Both installations reveal the inherent potential of a statu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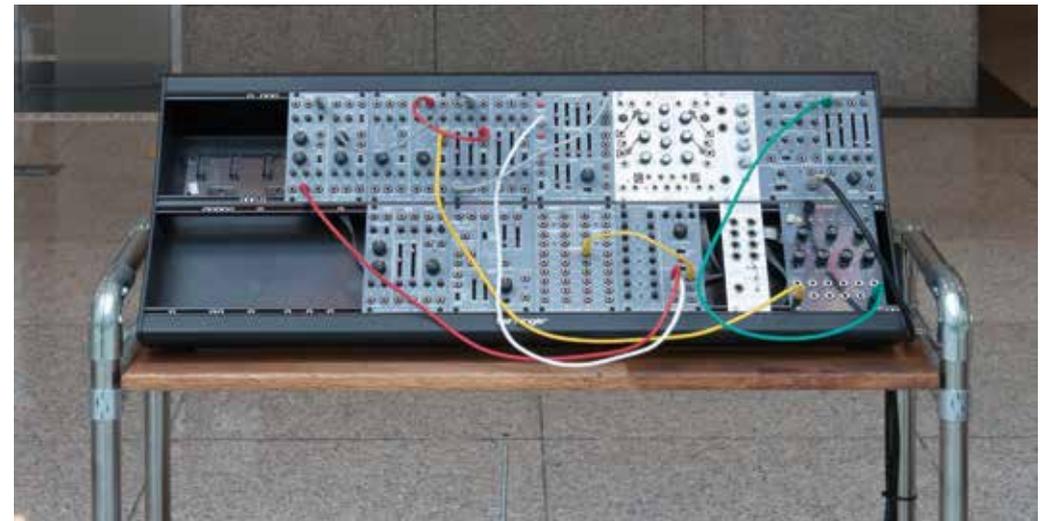
Seongsan Art Hall 2F Lobby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Seongsan Art Hall 2F Hall 5

178

179



<능동적인 조각> 2022
금속분말 캐스팅, 송신기, 라디오, 음원플레이어,
전선, 혼합재료
300×70×70cm

Active Statue, 2022
Cold casting, Transmitter, Radio, Music player,
Cable wire, Mixed media
300×70×70cm



〈메모리얼 안테나〉, 2011~
사진, MP3 플레이어, 헤드폰, 혼합재료
가변설치

Memorial Antenna, 2011~
Photographs, MP3 players, Headphones,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180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성산아트홀 2F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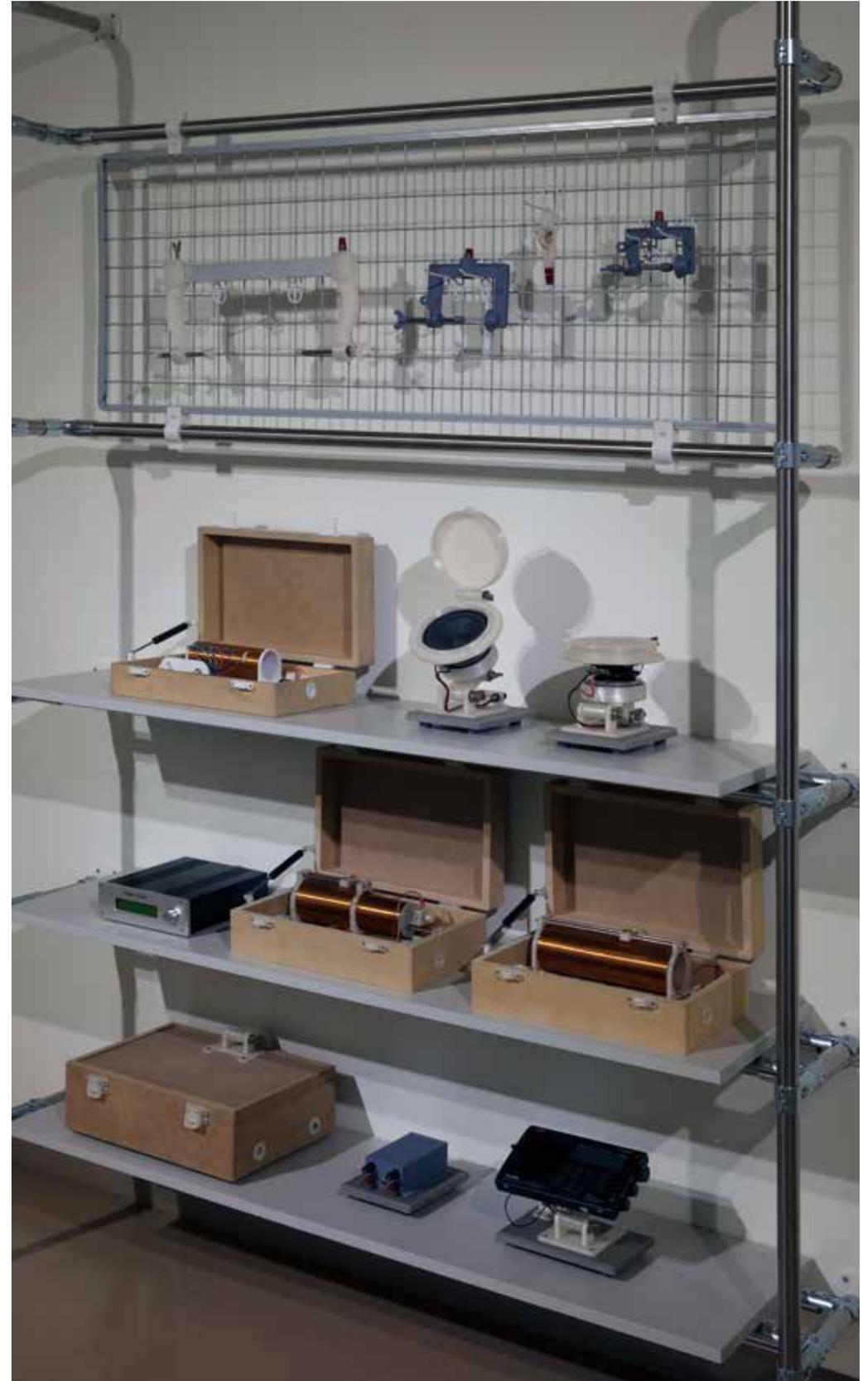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81

Seongsan Art Hall 2F Hall 5

Seongsan Art Hall 2F Lobby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신승연 Seungyun SHIN

(1980,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서울 거주 및 활동

(1980,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신승연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인상적인 찰나의 장면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그것은 신체적이고 촉각적인 경험인데, 특이점으로 남은 기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름의 흔적>은 기억의 지속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줄을 따라 바닥에 놓인 깃털까지 전달된다. 한없이 가벼운 깃털의 진동은 천장에서 바닥에 이르는 높이만큼 흔들림이 커지며 공간 전체에 떨림을 가시화한다.

SHIN focuses on the lasting impact of memorable moments in everyday life. Memories that remain as a physical and tactile experience continue to make impressions. *Clouds: Leave a Trace* highlights the continuity of memory, as small vibrations travel along the string from the top to reach feathers on the floor. The movement of lightweight feathers is amplified to fill the entire space from the ceiling to the floor.

<구름의 흔적>, 2022
깃털, 초크, 끈, 진동모터장치,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공급장치 외 기타
가변설치

Clouds: Leave a Trace, 2022
Feather, Chalk String, Motor, Microcontroller,
Power supply etc.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Seongsan Art Hall 2F Hall 5

182

183





184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85

Seongsan Art Hall 2F Hall 5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파레틴 오렌리 Fahrettin ÖRENLI

(1969, 네덜란드, 튀르키예)
튀르키예 페르테크 출생
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 및 활동

(1969, the Netherlands, Türkiye)
Born in Pertek, Türkiye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도시는 인간의 삶과 환경을 빚는 플랫폼이다.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적 구조로부터 비롯된 도시는 인간만큼이나 복잡해졌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돈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 후기자본주의 사회와 불가분한 관계를 맺는다.

자본 중심적인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이익 추구가 최우선시된다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삶과 가치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될까? 작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현 도시구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탐구한다.

We use cities as platforms that shape our lives and our environment. Growing up as a giant living organic structures, cities became as complex as human themselves. In this complex environment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s inextricable from the dynamics of post capitalistic society, where money is the most important measurement standard.

What would happen to the present and future of 'moneyfold' complex contemporary society if everything become commercialized and the desire to pursue money is put first? Does that mean that rich and diverse ways of life and values are eliminated?

Project is investigating 'How human beings become isolated feeling suffocating by themselves or society for economic reason and pressure from current urban structure into next decades.

1
〈The Gene of Cities〉, 2022
단일채널 비디오
8분 44초

2
〈How do humans build knowledge to refine and merge into the brain, consciousness or artwork?〉, 2022
철판에 벽화
800×200cm

1
The Gene of Cities, 2022
Single channel video
8min. 44sec.

2
How do humans build knowledge to refine and merge into the brain, consciousness or artwork?, 2022
Wall drawing on black board
800×2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Seongsan Art Hall 2F Hall 5

186

187



3
〈The Bubble in the Mind -> in Me - in City <-
Cryptocurrency〉, 2022
비닐, 에어컴프레서
가변설치

4
〈Raining Down on our Genes〉, 2022
비닐 레터링
100×150cm

5
〈Equation = Time and /
of evolution in city〉, 2017
비닐 레터링
100×151cm

6
〈LAST SIGNAL〉, 2015
단일채널 비디오
8분

3
The Bubble in the Mind -> in Me - in City <-
Cryptocurrency, 2022
Plastic bubble bag, Air compressor
Variable installation

4
Raining Down on our Genes, 2022
Vinyl Lettering
100×150cm

5
Equation = Time and /
of evolution in city, 2017
Vinyl Lettering
100×151cm

6
LAST SIGNAL, 2015
Single channel video
8min.

이창원 Changwon LEE

(1972, 한국)
한국 인천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및 활동

(1972, Korea)
Born in In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Korea

이창원의 <Parallel World>는 서로가 타자인 두 세계의 인과성을 보여 준다. 작품을 보러 암실에 들어간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벽에 비친 빛의 실루엣이다. 동화책에 나올 법한 빛의 형상들은, 먼 옛날의 동굴 벽화를 연상시키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실루엣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오려서 만든 것이다. 사진들은 재난, 전쟁, 정치적 분쟁 등 어두운 현실의 장면을 담는다. 작가는 그런 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자리에 거울을 붙이고 빛을 반사시켜 벽 위의 형상을 연출한다. 그럴 때, <Parallel World>의 두 축인 벽의 이미지와 사진 속 장면은 서로 평행이다. 둘은 물리적으로 빛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의미는 대립하며, 따라서 그 사이에는 서로를 가리키는 연결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

Parallel World by Changwon LEE shows the causality between two worlds that are “the other” to each other. The first encounter visitors experience when entering the dark room is a group of silhouettes on the wall. The shapes of light look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book, reminding viewers of mysterious ancient cave paintings. But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e silhouettes are made of cut-outs of photos from newspapers or the Internet. These photos unveil the dark side of reality, such as disaster, war, and political conflict. A mirror is placed on the cut-out part of the photos to reflect the light and project images on the wall. When that happens, the image on the wall and the photo — the two key axes of the work — form a parallel relationship. The two are connected by light, yet their meanings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is produces a link and a perennial gap in between.

<평행세계>, 2022
거울, 유포지프린트, LED조명, 좌대
가변설치

Parallel World, 2022
Mirrors, Yupo print, LED lightings, Pedestals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5

Seongsan Art Hall 2F Hall 5

190

191

사진: 이창원 Photography: Changwon LEE





미칼 가비쉬 Michal GAVISH

(1966, 미국)
이스라엘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1966, USA)
Born in Israel
Lives and works in New York, USA

〈From Synapses to Free Will〉은 인체의 신경 시냅스(신경세포 연결부)를 묘사한 회화 설치 작품이다. 막대에 걸린 대형 회화들은 한데 모여 연속적인 패브릭 월을 이룬다. 마치 나선형의 미로 같은 가상의 브레인맵을 오가며 그 안에서 신경세포 이미지를 관찰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3차원 브레인맵을 바탕으로 구현된 천 위의 이미지는 뇌를 둘러싼 과학적 인식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물리화학을 전공한 작가는 신경다양성의 계층적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인맵들을 작품에 녹여낸다.

My plan is to create *From Synapses to Free Will*, a painting installation depicting our neuronal synapses. The installation is made of a set of large paintings that hangs on light rods adjacent to each other, creating a continuous fabric wall. This “wall” configures a spiral path through an imaginary brain map, leading the viewer to walk into and observe the neuronal images from within.

The painting based on the current online available three-dimensional brain maps, concentrates on the vulnerability of our scientific perception of the brain. With my background as an artist and physical chemist, I distill the available brain maps into art, following personal family connections to the layered effects of neurodiversity.

〈From Synapses to Free Will〉, 2022
직물 또는 종이 위에 혼합매체
200×600×450cm

From Synapses to Free Will, 2022
Mixed media painting installation
on fabric and paper
200×600×45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Seongsan Art Hall 2F Hall 6

194

195



196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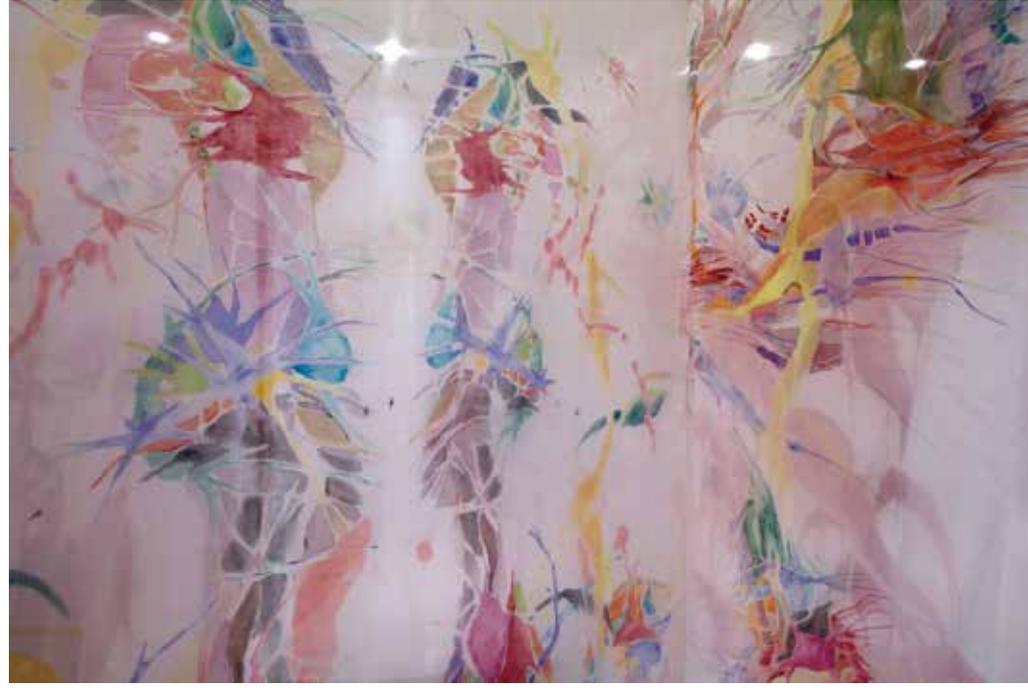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197

Seongsan Art Hall 2F Hall 6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범수 Beomsoo KIM

(1965,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김범수의 <무엇임 ti>은 초현실주의 작가 막스 에른스트의 콜라주 소설 『백 개의 얼굴을 가진 여인』에 실린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조각, 사진으로 제작한 연작이다. 작가는 의학적 도식과 삽화, 신체의 부분 사진을 참조하여 서로 다른 몸들이 결합된 작품을 제작한다. 형용할 수 없는 상태의 형상은 시각적인 강렬함을 주는 한편 불확정적인 상태가 일으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시하게 만든다.

The *ti* series is a collection of sculptures and photographs inspired by *La femme 100 têtes (The Hundred Headless Woman)*, a collage novel by surrealist master Max ERNST. KIM refers to medical diagram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s to create figures with randomly put together body parts. The indescribable forms lend striking visual appeal, while shedding light on the fear and anxiety caused by uncertainties.

1
<무엇임>, 2021-2022
디지털 프린트, 디아섹
50×60cm, 50×70cm, 50×70cm

1
ti, 2021-2022
Digital print, Diasec
50×60cm, 50×70cm, 50×70cm

2
<무엇임>, 2021
레진
125×122×50cm

2
ti, 2021
Resin
125×122×50cm

3
<무엇임>, 2021-2022
레진
17×15×15cm, 19×15×15cm, 20×15×15cm,
21×15×15cm, 25×15×15cm, 30×15×25cm,
19×15×15cm, 23×20×20cm, 9×24×24cm,
27×24×24cm, 28×24×24cm, 30×24×24cm,
33×31×31cm, 31×20×20cm, 30×20×20cm

3
ti, 2021-2022
Resin
17×15×15cm, 19×15×15cm, 20×15×15cm,
21×15×15cm, 25×15×15cm, 30×15×25cm,
19×15×15cm, 23×20×20cm, 9×24×24cm,
27×24×24cm, 28×24×24cm, 30×24×24cm,
33×31×31cm, 31×20×20cm, 30×20×2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3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Seongsan Art Hall 2F Hall 6

198

199



31



3

200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01

Seongsan Art Hall 2F Hall 6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3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



3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Seongsan Art Hall 2F Hall 6

202

203



3

크리스 마이어 Chris MYHR

(1973, 캐나다)
캐나다 캘거리 출생
현, 캐나다 거주 및 활동

(1973, Canada)
Born in Calgary, Canada
Lives and works in Canada

작가는 인간 활동과 비인간 활동의 복잡한 집합체를 가청화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수중 세계의 소리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낙동강의 통일된 ‘목소리’에 대한 추상적 해석으로 발전시킨다.

낙동강은 한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산업발전, 야생생태계, 인간활동의 버팀목이 되어 한국의 지형 및 역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이다. 작가는 작품 제작을 위해 낙동강 자전거길을 십분 활용했다.

The installation makes audible the complex assemblage of human and nonhuman activities and sweeps gradually from a non-stylized sonic representation of the river’s subsurface, to a more abstracted interpretation of the unified voice of Nakdonggang.

Nakdonggang is the longest river in South Korea: its waters support a diverse range of industry, wildlife, and human activity, and have been central in shaping Korean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The river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untry. Production of this project was done using Korea’s impressive bicycle path system running long the banks of Nakdonggang.

◀Sounding Waters:
Nakdong River, South Korea›, 2022
장소특정형 오디오
351×357×762cm

Sounding Waters:
Nakdong River, South Korea, 2022
Site-specific audio (12 channels)
351×357×762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Seongsan Art Hall 2F Hall 6

204

205





206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6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07

Seongsan Art Hall 2F Hall 6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정순호 Soonho JEONG

(1986, 한국)
한국 강릉 출생
현, 한국 속초 거주 및 활동

(1986, Korea)
Born in Gangneung, Korea
Lives and works in Sokcho, Korea

정순호는 기계적이거나 자동화된 힘이 아닌, 작가 자신의 물리적인 힘이 사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망치를 이용하여 철재 캐비닛이라는 단단하고 견고한 공산품을 변형시켜 와이어에 걸어 본래의 성질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제본된 책을 서로 엮갈려 쌓아 나감으로써 종이라는 물질이 가진 힘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관객은 작품을 통해 사물이 기존에 가진 물성과 변화된 물성 사이의 과정을 유추하며 거기에 개입된 작가의 신체와 힘을 상상해볼 수 있다.

JEONG is fascinated by the impact his physical force (not mechanical or automated) has on an object and the change it brings about. A sturdy metal cabinet is hammered into sheets of steel and hung on the wire to weaken its original properties. Binded books are stacked unevenly to reinforce the physical properties of paper. Viewers are able to navigate the changes in properties, while imagining the artist's force involved in the process.

1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제스처〉, 2022
철재 캐비닛, 밧줄
가변설치

2
〈Circle of Amphisbaena〉, 2022
밧줄, 쇠파이프
가변설치

1
Empty Gestures and Performatives, 2022
Metal cabinet, Rope
Variable installation

2
Circle of Amphisbaena, 2022
Rope, Carbon steel pipe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208

209



사진: 정순호. Photography: Soonho JEONG

3
〈무제_1091×788×3〉, 2022
종이, 실
25×117×134cm

4
〈무제_1091×788×4〉, 2022
종이, 실
20×115×115cm

5
〈무제_1091×788×5〉, 2022
종이, 실
15×140×150cm

3
Untitled_1091×788×3, 2022
Paper, Thread
25×117×134cm

4
Untitled_1091×788×4, 2022
Paper, Thread
20×115×115cm

5
Untitled_1091×788×5, 2022
Paper, Thread
15×140×150cm



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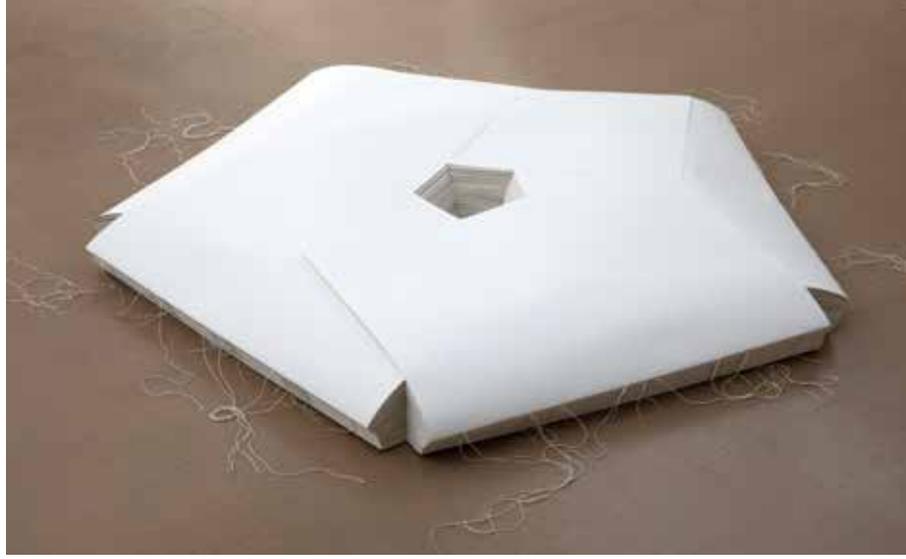
211



3



4



5

김진희 Jinhui KIM

(1975, 한국)
한국 당진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1975, Korea)
Born in Dangjin,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작가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오래된 라디오를 분해하고 이를 고인돌 형상을 연상시키는 입체 형태로 재조립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오래된 기억과 시간을 현재로 소환한다. 고인돌이라는 고대의 유산에 비해 현대기술의 하나인 라디오 파동은 순간적이다. 관객이 지나갈 때 일시적으로 소리를 내는 이 작품은 삶과 죽음, 기억과 덧없음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The artist disassembled an old, used radio and reassembled it into a three-dimensional dolmen structure. This process brings an individual's long-held memories to the present. Contrary to ancient megalithic monuments, the sound waves of radio, one of the modern day technologies, are momentary. The sculpture makes a sound every time someone passes by it, reminding them of the transience of life, death, and memories.

〈오솔길 - 내적 갈등〉, 2022
전자부품, 라디오
250×350×210cm

Path - Inner Conflict, 2022
Electronic components, FM radio
250×350×21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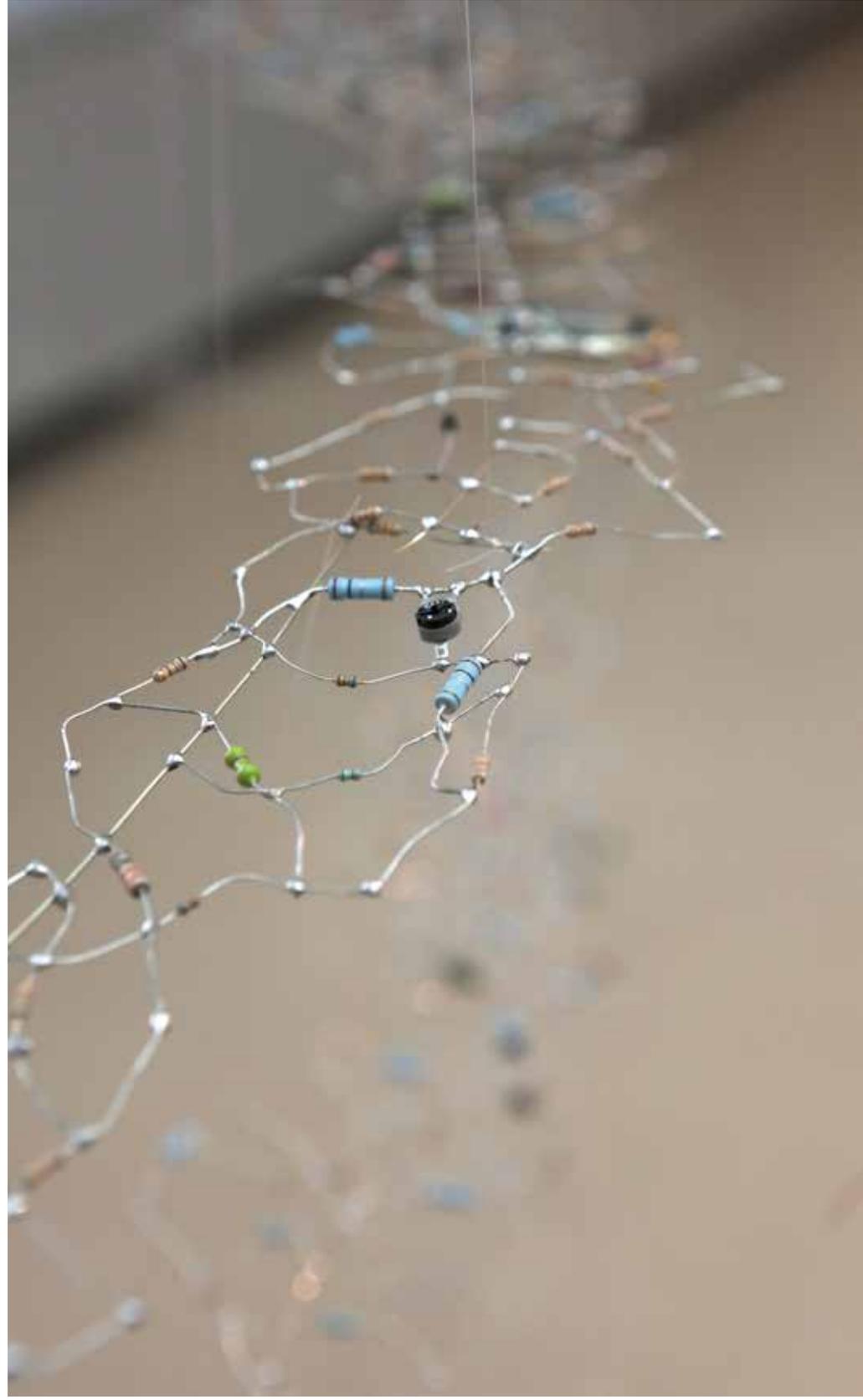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212

213





214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15

Seongsan Art Hall 2F Hall 7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강주연 Juyen GANG

(1967, 한국)
한국 밀양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7, Korea)
Born in Mirya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현대인은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를 겪으면서도 내면의 빈곤과 소외를 경험한다. 인간은 이러한 빈곤과 소외, 그로 인한 공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며 살아간다. 강주연은 우리 선조의 민간신앙에 기반을 둔 성황당의 오색천, 어선의 만선기, 장례 행렬의 만장기에서 영감을 얻어 사유의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시작은 작가가 하였지만 작품의 마무리는 관람객이 한다. 관람객은 소원을 적어서 작품에 매달고, 시간이 지나 작품 전시가 종료되면 비로소 또 다른 작품이 완성된다.

Despite the modern conveniences and material abundance that surround us, we still feel hollow and alienated inside. We try different ways to escape from the resulting emptiness. GANG has created a space of thought, inspired by elements of Korean folk religions, from five colored strips of cloth found in a village shrine, and a “good haul” flag fluttering on a fishing boat, to an elegy banner carried in a funeral procession. The space is meant to soothe and comfort the minds of visitors.

The artist started this work, but the audience finish it. When the audience write down their wishes and hang them on the work, it becomes another artwork. After the exhibition, the work is perfectly completed.

〈사유의 공간〉, 2022
혼합매체
가변설치

Space of Thought, 2022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Seongsan Art Hall 2F Hall 7

216

217



사진: 강주원 Photography: Juyeon GANG

성산아트홀 2F 전시실 7

218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Seongsan Art Hall 2F Hall 7

219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올리아 페도로바 Olia FEDOROVA

(199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출생
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거주 및 활동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작가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쫓기듯 고향을 떠나며 이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해당 지역을 빠져나감을 알리는 경계 표지판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표지판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등겨야 했던 수많은 고향을 상징한다.

〈You Are Now Leaving...〉, 2022
금속 도로 표지판
가변설치

(1994, Ukraine)

Born in Ukraine
Lives and works in Kharkiv, Ukraine

On 24th of February Russia started the full-scale war against my home country Ukraine. Millions of people including myself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Driving away by car the last thing that they see before they leave their home city, town or village — are the road signs *You Are Now leaving...* In my work these signs symbolise hundreds of cities, towns and villages that Ukrainians had to leave without any clue when they would be able to come back — and if they would be able to come back at all.

You Are Now Leaving..., 2022
Metal road signs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B1 로비

Seongsan Art Hall B1 Lobby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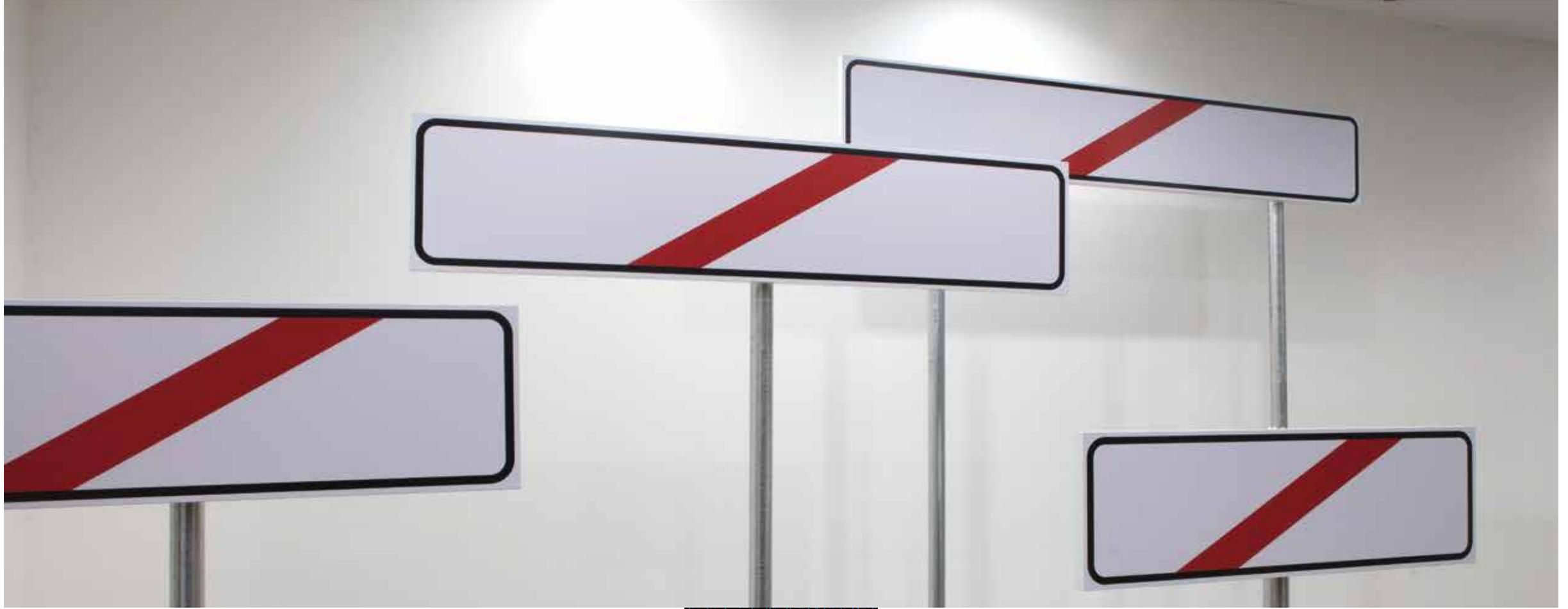
221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심준섭 Junseub SIM

(1965,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Busan, Korea

〈순환의 소음〉은 실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인 ‘이명’을 작가가 경험하면서 구상하게 된 작품이다. 심준섭은 소리의 왜곡이 공간의 왜곡으로 감각될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소음이라는 차원으로 증폭, 변조된 신체내부의 소리가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암전된 공간에서 파이프에 칠해진 야광 빛의 라인 드로잉과 파이프 연결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와 심장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현실과 환영을 오가는 듯한 미묘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

Noise of Circulation was conceived when the artist personally experienced tinnitus, or ringing in the ears, which is the perception of sound with no external source. Having learned firsthand that sound distortions can be perceived as spacial distortions, SIM intends to show that amplified and altered inner body sounds allow us to experience another dimension of space. Coupled with pipelines that glow in the dark, the intermittent sound of breath and heartbeat gives off an uncanny feeling, leaving viewers caught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순환의 소음〉, 2022
철파이프, 철판, 스피커, 사운드시스템,
조명시스템
가변설치

Noise of Circulation, 2022
Steel pipe, Steel plate, Speaker, Sound system,
Lighting system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Seongsan Art Hall B1 Hall 8

224

225



226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27

Seongsan Art Hall B1 Hall 8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유르겐 스타크 Juergen STAACK

(1978, 독일)
독일 핀스터발데 출생
현, 독일 거주 및 활동

(1978, Germany)
Born in Finsterwalde, Germany
Lives and works in Germany

〈DISPUT〉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대조한 설치작품이다. 단조로운 읊조림은 명상 효과를 내고 유사한 음성이 끝없이 울려 퍼진다. 실제로 연기자들은 ‘예’와 ‘아니오’라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내뱉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어의 유사한 발음 때문에 음성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한국어로 ‘예’는 ‘네’, 독일어로 ‘아니오’는 ‘Nein(나인)’이다.

작가는 요제프 보이스의 〈Ja Ja Ja Nee Nee Nee〉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같은 언어로 소통해도 들리는 것과 의미하는 것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갈등 상황들을 떠올리며 작품을 구상했다.

DISPUT is a work that exposes phonetic similarities across language boundaries as contrary content. The monotonous sound quickly has a meditative effect. The uniformity of the phonetics seems to point into the endless. After a closer examination of the work, one finds that the performers throw “yes” and “no” at each other. This contrast is created by the similar sound of the words, which conveys a unison. (for example: Korean Ja = Nee , German Nein = Ne) etc.

The work *Ja Ja Ja Nee Nee Nee* by Joseph BEUYS has had an initial impulse on *DISPUT*. Another impetus was various political situations that present the dual conflict between what is heard and what is meant, even within the same language underst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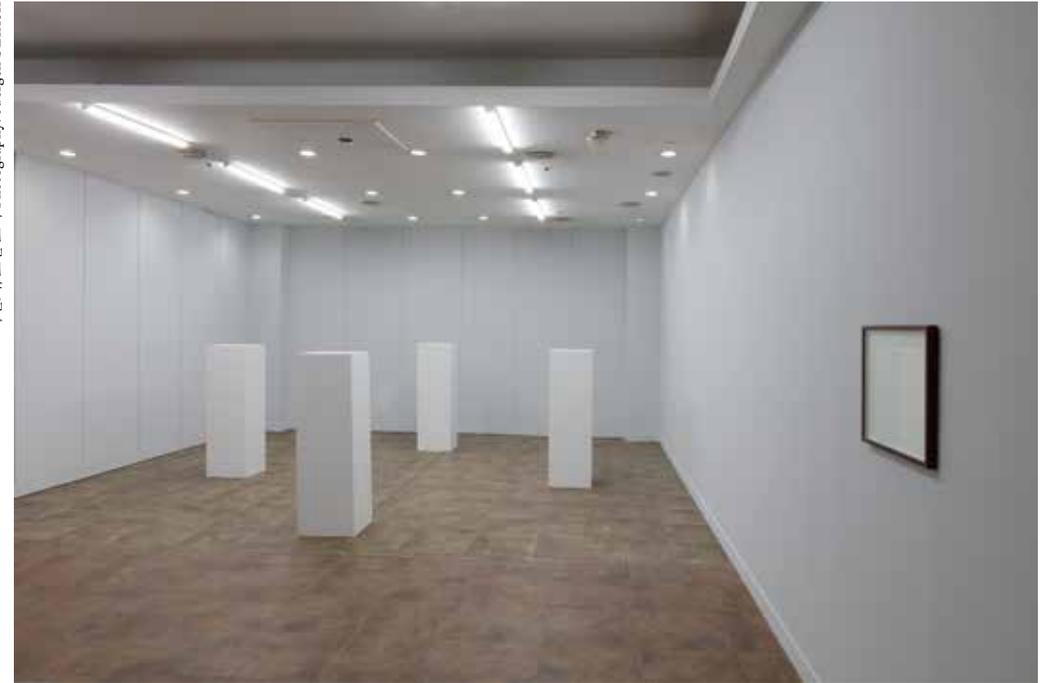
〈DISPUT〉, 2016(2022)
확성기, 앰프, 플레이어, 나무
가변설치

DISPUT, 2016(2022)
Loudspeaker, Amplifier, Player, Wood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사진: 유르겐 스타크 Photography: Juergen STAACK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Seongsan Art Hall B1 Hall 8

228

229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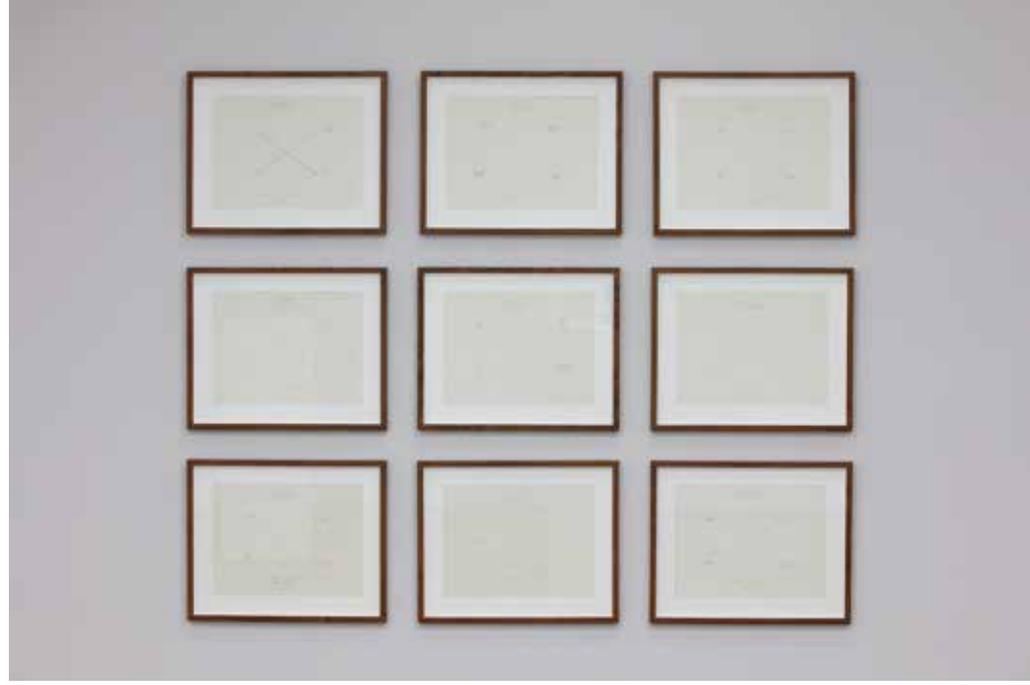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31

Seongsan Art Hall B1 Hall 8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정혜경×키토 사길데벗 Hyekyung JUNG×Kito SAGILDEBEOT

(1978, 한국 / 1988, 에콰도르)
한국 청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에콰도르 만타 출생
현, 에콰도르 만타 거주 및 활동

(1978, Korea / 1988, Ecuador)
Born in Ch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Born in Manta, Ecuador
Lives and works in Ecuador

한국에 거주하는 정혜경은 적도에 위치한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키토 사길데벗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양육 교류를 시도한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작가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자 예술가로서 언택트 사회에서의 생존 장소인 메타버스에서 미시적으로 공생해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 실제 개인서사(고민, 갈등, 경험 등)를 공유하여 캐릭터를 재현하는 한편, 실제 이야기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아바타의 시선에 투영해봄으로써 진정한 양육공동체의 삶과 양육연대에 질문을 던진다.

Artificiality above Reality_Symbiosis Nurture is a collaboration between two artists — one in Korea, the other in Ecuador — that documents their exchange on parenting on a metaverse platform. As artists and mothers, JUNG and SAGILDEBEOT visualize the process of microscopic symbiosis in the metaverse which is being sought as a place of survival in a so-called “contactless society.” Personal narratives including concerns, conflicts, and experiences are shared among avatars in an online space where anonymity is guaranteed. These real stories are interpreted from an anthropological standpoint and an avatar’s perspective to question what it takes to cultivate a parenting community and ensure solidarity in childrearing.

기술자문: 훈아트, 한국융합과학기술교육원
기술: 유정현

Technical advice: Hoon Art, 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Techician: Jeonghyeon YU



〈현실 위의 인위_공생양육〉, 2022
3D projection, 각파이프,
아크릴, 오로라필름
가변설치

Artificiality above Reality_ Symbiosis Nurture, 2022
3D projection, Square pipe, Acrylic, Holographic vinyl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Seongsan Art Hall B1 Hall 8

232

233



234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35

Seongsan Art Hall B1 Hall 8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마르코 바로티 Marco BAROTTI

(1979, 이탈리아)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79, Italy)
Born in Pietrasanta, Italy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CLAMS>는 수질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소리와 움직임으로 전환한 키네틱 사운드 조각작품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조개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그곳에서 나오는 미분음적 사운드스케이프는 껍데기를 여닫는 섬세하고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수질센서는 마산 서항지구에 설치 되었으며, 수질변화에 따른 센서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사운드가 생성된다.

작가는 조개 모형을 통해 미디어 아트, 데이터 청각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CLAMS is a collection of kinetic sound sculptures which convert data from water quality sensors into sounds and movement. Each 'clam' is constructed from recycled waste plastic and contains a loudspeaker. The microtonal soundscape gives each shell a subtle, life-like opening and closing action. Prerecorded readings from a water purity sensor placed in the Masan West Port District form the basis for the music, which is generated through a constantly shifting process based on water quality levels over time.

Clams invite the audience to draw connections between media art, data sonific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LAMS>, 2022
혼합재료
500×500cm

CLAMS, 2022
Mixed media
500×5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Seongsan Art Hall B1 Hall 8

236

237





238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39

Seongsan Art Hall B1 Hall 8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진우 Jinwoo KIM

(1969, 한국)
한국 의성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Uis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김진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과 기계 발명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재고하는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진화의 비밀 J-7>은 마산 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물체가 지구의 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에서는 우주보다도 더 무한한 세계를 찾기 위해 해수어의 형상을 띤 탐사선이 만들어진다는 설정으로 모형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현생 인류가 앞둔 미래를 상상하기를 제안한다.

KIM's installation works reflect on the impac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on mankind, based on a specific hypothetical scenario. *The Secret of Evolution J-7* assumes that an unidentified object found off the coast of Masan has contributed to the Earth's evolution, while *Searching the Unknown World* imagines a space probe in the shape of saltwater fish with a mission to discover the infinite world beyond our universe. The artist invites viewers to envision the future that lies ahead of us.

1

<진화의 비밀 J-7>, 2022
철, 스테인리스 스틸, LED, 태양광시스템
700×700×700cm

2

<숨 쉬는 자동차>, 2010
철, 스테인리스 스틸, 담수어, 수족관, LED
120×120×240cm

3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2022
철, 스테인리스 스틸, LED, 모터, 센서
250×200×150cm

1

The Secret of Evolution J-7, 2022
Steel, Stainless steel, PE, LED, Solar system
700×700×700cm

2

Living Car, 2010
Steel, Stainless steel, Fish, Aquarium, LED
120×120×240cm

3

Searching the Unknown World, 2022
Steel, Stainless steel, LED, Motor, Sensor
250×200×15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3.15 해양누리공원

성산아트홀 B1 로비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240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Nuri Marine Park

Seongsan Art Hall B1 Lobby

Seongsan Art Hall B1 Hall 8

241



1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242

성산아트홀 B1 전시실8

성산아트홀 B1 로비

3.15 해양누리공원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2

243

Seongsan Art Hall B1 Hall 8

Seongsan Art Hall B1 Lobby

3.15 Nuri Marine Park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

임형준 Hyoungjun LIM

(1959,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9,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임형준은 비가시적인 소리를 사물에 투영하여 가시화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가는 피아노의 건반, 축음기의 나팔, 바이올린 등의 형상을 통해 소리의 정서적 울림을 표현한다. 이 소리에는 개인 내면의 소리, 잊혀진 시간 혹은 소외된 삶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 <소리-Bruit>는 10여 미터에 달하는 바이올린의 형상에 네온을 설치하여 야외 공간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LIM visualizes invisible sound by projecting it onto an object. Shapes of piano keys, phonograph horns, and violins are used to deliver the emotional resonance of sounds, including one's internal dialogue and voices from forgotten time and marginalized groups. *Sounds-Bruit* features a gigantic 10-meter tall violin lined with neon lights for a striking outdoor presence.

<소리-Bruit>, 2022
혼합매체
1000×310×110cm

Sounds-Bruit, 2022
Mixed media
1000×310×11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244

245





246

3.15 해양누리공원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47

3.15 Nuri Marine Park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유화수×이지양 Hwasoo YOO×Jeeyang LEE

(1979,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9,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장애는 언제나 타자이며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예외 상태로 자리를 지킬 때 존중 받는다. 그 존중의 결과 ‘배리어프리’라는 이름으로 관용을 베푸는 듯하지만, 정상궤도로 불리는 이곳은 빈틈없이 빠르게 돌면서 선뜻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린 스테이지>는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 안으로 장애를 편입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 안에 있었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정상, 비정상 그 너머의 영역으로 향하고자 한다.

Disability is always otherized and only respected when remained as an exception without crossing the boundaries. Tolerance is offered in the name of “barrier-free,” but opportunities are rarely presented on this so-called “ordinary path.” This work is not intended to “include” disabilities into a non-disabled-centered social structure. It is to find the original place in the structure from the beginning.

<그린 스테이지>, 2022
경계석, 잔디, 전광판
가변설치

Green Stage, 2022
Boundary stone, Grass, Electric sign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248

249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성욱 Sungok LEE

(1961,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경기도 거주 및 활동

〈자연의 소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레이저커팅으로 섬세하게 잠자리 날개의 그물망 구조를 표현한 작품이다. 자연광에 반짝이는 은색 날개는 탄생을 암시하는 청아하고 맑은 구와 함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잠자리의 연약한 날개는 숨과 희망, 자연을 뜻하는 메타포로, 인간 문명과 대비되며 여림과 강함, 하찮음과 소중한, 파괴와 보존 등의 상반된 관계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삶을 표현한다.

〈자연의 소리〉, 2022
스테인리스 스틸, 스팅글
가변설치

(1961,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Gyeonggido, Korea

In *Sound of Nature*, LEE takes advantage of laser-cut stainless steel to render the delicate patterns of dragonfly wings. The visually-engaging silver wings shine in natural light, merged with an elegant metal ball that represents birth. The fragile wings are a metaphor for breath, hope and nature. Standing in stark contrast to human civilization, they facilitate an exchange of opposing ideas, such as weak vs. strong, trivial vs. significant, and destruction vs. conservation. The work expresses a commitment to reversing the loss of nature and building a world where nature and man live in harmony.

Sound of Nature, 2022
Stainless steel, Spangle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252

253

사진: 이성욱 Photography: Sungok LEE





이문호 Moonho LEE

(1971,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1,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문호는 'THE LAST' 라는 텍스트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형태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THE LAST'는
저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관람자에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가치, 사회, 관계 등 우리의 삶을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LEE installs a sign that reads "THE LAST"
in public spaces. The text's interpretation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It encourages
viewers to reflect on their own lives,
including what they pursue in life, their
values, society and relationships.

〈마지막〉, 2022
방부목, 태양광 투광등
288×350×195cm

THE LAST, 2022
Preserved wood, Solar lamp
288×350×195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256

257





258

3.15 해양누리공원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59

3.15 Nuri Marine Park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사진: 김동영 Photography: Dongyoung KIM



하석원 Sukwon HA

(1966,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부산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Busan, Korea

하석원은 머릿속에 맴도는 공간과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공간을 다룬다. <집을 그리다> 시리즈는 심리적 공간을 가시화한 작업으로, 집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침대, 의자 등을 철제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피가 없는 형상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오브제들이 모여 개별의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 공간이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로 결합된다. 오브제에 식재된 식물과 물 등은 작품에 시간성을 더하며 물리적, 심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HA's work captures his interest in a space that keep lingering in his head and everyday life that surrounds him. The *Drawing a House* series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a psychological space where everyday household objects, including a bed and a chair are recreated with iron bars. As these volumeless objects come together to form an individual piece, the entire space morphs into one big chunk. Plants and water found inside the objects instill a sense of temporality in the series, mirroring the ever-chang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landscape.

<집을 그리다>, 2018, 2022
각철, 에폭시, 잔디, 나무
가변설치

Drawing a House, 2018, 2022
Iron, Epoxy, Grass, Wood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15 해양누리공원

3.15 Nuri Marine Park

260

261

사진: 하명조(하나출판사) Photography: Byungjo HA (Hana Book)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옥현숙 Hyunsuk OK

(1962,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62,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보편적으로 그물은 속박, 포획, 분리 그리고 한계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씨실과 날실 그리고 교차된 실 사이에 위치하는 비즈와 목어(木魚)를 통해, 그물과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시스템 (a social system)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 시스템이란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떠한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이다. 작가는 시스템을 사회 유기체(social organism) 그리고 큰 바다로 이해했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독립체 혹은 분화된 개인의 기억을 비즈와 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된 개체들을, 통신에 이용되고 있는 구리 동선을 차용하여, 보이지 않는 독립체들의 의미망을 짜가고 있다. 작가의 선을 따라 그물망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년기 기억 속 바닷가의 이미지가 마치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여기, 생명의 그물에서 개인의 독립된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망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In general, the thought of a net conjures negative feeling for many, such as restriction, capture and limitation. However, Hyunsuk Ok approaches the theme of a net as a social system which is interweaved by each component, through the warp and the weft lines, beads, and Wooden fish. A system is an assembly of each component in accordance with a specific order for an important function. Ok understood a system as a social organism and the ocean, and an individual structure or an individual memory is illustrated by beads and Wooden fish. She expresses each isolated-individual by using copper wire, which is commonly used for electro-communications, to weave an invisible but meaningful net consisting of individuals. When the audience enters into Ok's net via intertwined lines, childhood memories of the seaside come to them. We can experience the process of how one meaningful net has been achieved by connecting each isolated memory.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264

265

1
〈은빛 물고기〉, 2022
광섬유, 목어
가변설치

1
Lux Fish, 2022
Fiber optics, Wooden fish
Variable installation

2
〈삶과 생명을 짜다〉, 2014
은사, 목어
가변설치

2
Weave - The Symbol of Life, 2014
Silver thread, Wooden fish
Variable installation



3
〈삶과 생명을 짜다〉, 2016
동선, 목어
100×200×10cm

3
Weave - The Symbol of Life, 2016
Cooper wire, Wooden fish
100×200×10cm

4
〈삶과 생명을 짜다〉, 2019
동선, 복합매체
220×100×100cm

4
Weave - The Symbol of Life, 2019
Cooper wire, Mixed media
220×100×100cm



1



2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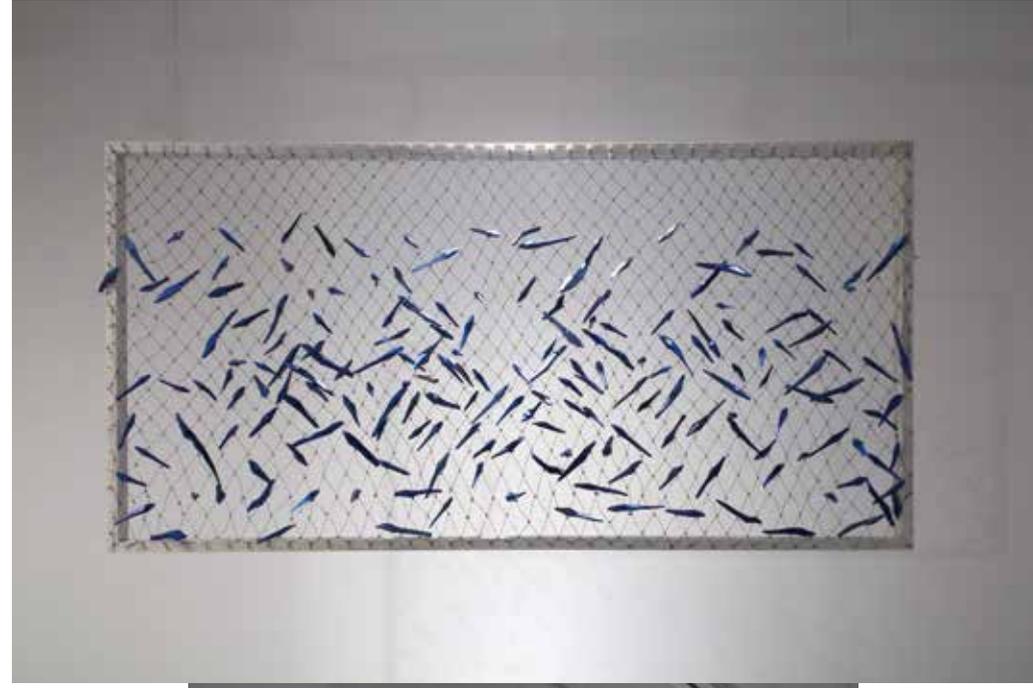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67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3



4

양숙현 Sookyun YANG

(1982, 한국)
한국 광주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82, Korea)
Born in Gwa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작가는 세계가 우리가 인식하는
인과적 개연성보다는 물질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의 사례 중 하나라고
상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객관적일지도 모르는 디지털 장치로
물리적 세계를 기록하고 포착된 가상의
물질(데이터)을 통해 일련의 세계를
구성한다. 3D 스캐너와 2D 이미지에서
생성된 숲의 공간과 작가 자신의 형상은
일반적 재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만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추출된 기이한
이미지이자 정보를 갖는 물질이다.
기술 장치와 알고리즘에 의해 구축된
불완전한 데이터-물질은 가상공간에
배치되고 사운드 주파수와 랜덤 함수,
노이즈 데이터가 만들어낸 운동성은
시뮬레이션을 일으킨다. 가상에 적용된
수數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이 사변적
물질들이 시각화 된 공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인식의 논리를
찾는다.

YANG imagines that the world is one of
the examples of simulations created by
matter rather than the causal probability
we perceive. Therefore, to exclude
perception, a series of worlds were
constructed through virtual materials
captured and recorded in a digital device
as an objective tool. The forest space and
the artist's own shape generated from
3D scanners and 2D images are materials
with bizarre images and information
extracted from physical space, although
they deviate from the standard of
general representation. Incomplete data-
materials built by technical devices and
algorithms are placed in virtual space
and the movement generated by sound
frequencies, random functions, and noise
data creates simulations. In a space where
these speculative materials, which vary
with the number of conditions applied
to the virtual, are visualized, we find the
logic of recognition that still does not
exist.

〈사변(思辨)의 숲에서〉, 2022
3D 컴퓨터 애니메이션
가변설치

In the Forest of Speculation, 2022
3D Computer Animation
Variable installatio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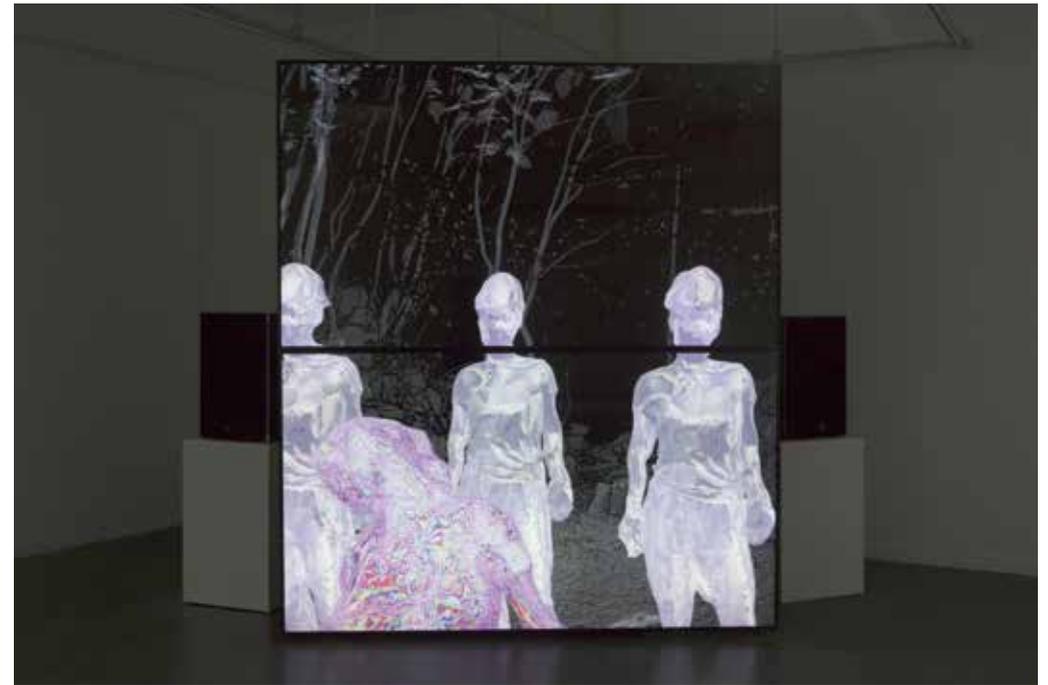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창동에 숲은 아트센터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268

269





270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71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근재 Guenjae KIM

(1969,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진해 중원로터리에 설치된 김근재의 <보여지는 바람>은 6미터 길이의 파이프를 원형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연석을 설치한 야외 설치 작품이다. 지나가는 바람은 작품 상단의 자연석에 닿아서 흔들린다. 속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의 비물질적인 움직임이 물질적인 매체를 매개로 하여 가시화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재고하게 만든다.

Wind to Show is an outdoor installation found at Jungwon Rotary in Jinhae. The work consists of six-meter steel pipes arranged in a circle with natural rocks attached at the top, which move as the wind passes. The immaterial movement of the wind with unpredictable speed and direction changes is visualized by a material medium, inviting us to revisit the environments and conditions surrounding us.

<보여지는 바람>, 2022
자연석, 철, 스테인리스 스틸
600×400×400cm

Wind to Show, 2022
Natural stone, Steel, Stainless steel
600×400×40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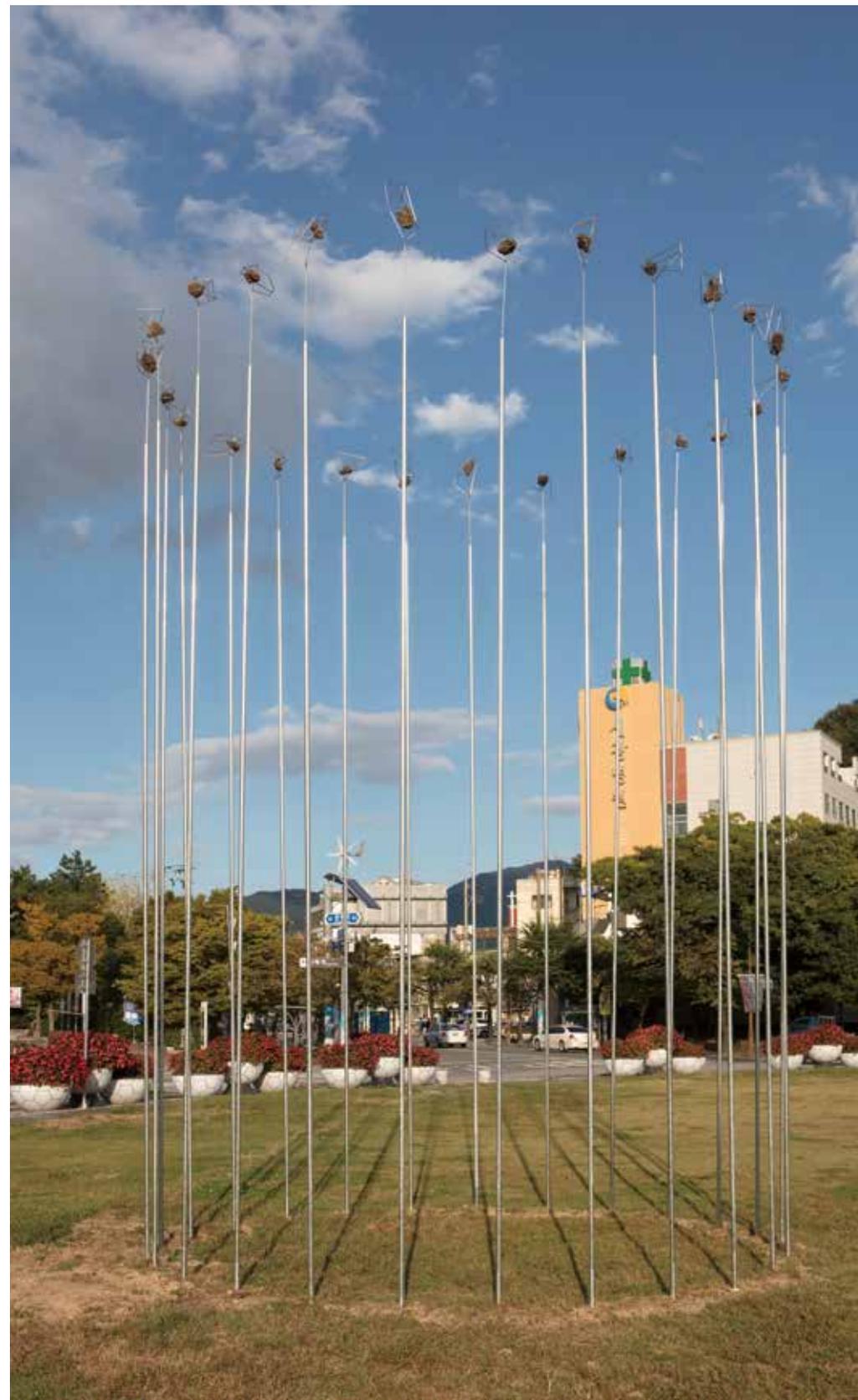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272

273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274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275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이원우 Wonwoo LEE

(1981,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가평 활동

(1981,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in Seoul, Korea, works in Gapyeong, Korea

〈바람둥이 X〉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바람을 조각적으로 경험하고자 시도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8개의 길을 연결하는 중원로터리에 X자 형태로 바람을 일으키는 작품을 통해 한시적인 경험의 장을 만든다. 제목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바람’을 일으키는 자 혹은 ‘바람’을 피는 자라는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 정형할 수 없는 공기의 흐름으로 바람의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어쩌면 실패를 전제한 것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을 환기시키고 일시적인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관객에게 새롭고 유쾌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The Windy X is an attempt to present invisible, immaterial wind as a sculptural experience. An X-shaped wind-generating structure is installed at Jungwon Rotary where eight roads intersect to enable this temporary experience. The title of the work in Korean (Baramdunggi X) is a play on words that could mean both “someone who creates the wind” and “someone who cheats on their partner.” Creating the shape of wind with an unstructured flow of air is perhaps an experiment based on the premise of failure. But it still offers a new take on the physical space and delivers an entertaining and refreshing experience to viewers.

〈바람둥이 X〉, 2022
스테인리스 스틸, 선풍기, 페인트
270×270×60cm

The Windy X, 2022
Stainless steel, Fan, Paint
270×270×60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276

277





278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79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주호 Jooho KIM

(1949, 한국)
한국 김천 출생
현, 한국 인천 거주 및 활동

(1949, Korea)
Born in Gim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Incheon, Korea

광복 후 1955년 문을 연 흑백다방은 진해 문화예술인의 활동 근거지로 기능하며 현재까지 지역예술인이 사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주호는 50여 년 전 진해 해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받았던 경험과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느꼈던 주관적인 감회를 바탕으로 테라코타, 오브제 및 평면 작품을 제작하였다. 웃음이 가득한 친근한 표정과 테라코타의 따스한 표면, LED 램프의 불빛이 파장이 되어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Black and White Coffee Shop opened its doors in 1955, yea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then, it has become a beloved cultural space frequented by local artists in Jinhae. A series of terracotta sculptures, objects and two-dimensional pieces are a personal reflection of KIM's experience with the Korean Marine Corps Training Center in Jinhae 50 years ago, as well as key moments in modern Korean history. A combination of a big, friendly smile, the warm texture of clay, and an LED lamp offers a peace of mind.

1
〈내일이 빛난다〉, 2021
질구이 재벌, 생수통, 은하수 100구
96×28×18cm

4
〈신바람〉, 2000
나무, 센서, LED 램프, 선풍기
126×26×30cm

7
〈위험한 질주〉, 2022
나무, 수레, 비닐봉지
213×147×54cm

2
〈문화가 꽃피는 나라〉, 2021
질구이 재벌, LED 램프, 오브제
112×31×23cm

5
〈등불이 되어〉, 2022
질구이 재벌, LED 램프
80×30×19cm

8
〈한아름〉, 2022
질구이 재벌, LED 램프
67×25×20cm

3
〈거침없이 외쳐라〉, 2021
질구이 재벌, LED 램프
80×28×18cm

6
〈50년의 기억〉, 1972~
두루마리 벽지, 아크릴
54×1200cm

9
〈넉넉한주머니〉, 2022
질구이 재벌, LED 램프
66×28×23cm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
Bright Tomorrow, 2021
Teracotta, Water bottle, 100-Ball
lighting
96×28×18cm

4
Excitement, 2000
Wood, Sensor, LED lamp, Fan
126×26×30cm

7
Dangerous Rush, 2022
Wood, Cart, Plastic bag
213×147×54cm

2
Advanced Country in Culture, 2021
Teracotta, LED lamp, Objet
112×31×23cm

5
Light Lamp, 2022
Teracotta, LED lamp
80×30×19cm

8
An Armful, 2022
Teracotta, LED lamp
67×25×20cm

3
Shout with no Hesitation, 2021
Teracotta, LED lamp
80×28×18cm

6
Memory for My 50 Years, 1972~
Roll of wallpaper, Arcylic
54×1200cm

9
Sufficient Pocket, 2022
Teracotta, LED lamp
66×28×23cm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280

281



56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



2



3

이미지 제공: 김주호 Courtesy: Jooho KIM

이미지 제공: 김주호 Courtesy: Jooho KIM

이미지 제공: 김주호 Courtesy: Jooho KIM

789



282 진해 중원로터리, 흑백다방

283 Jinhae Jungwon Rotary, Black & White

5



이미지 제공: 김주호 Courtesy: Jooho KIM

4



강원택
Wontaek KANG

2005 국립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창원, 한국
2003 국립 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육대학원 연구생
수료, 나가사키, 일본
1993 국립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창원,
한국

주요 개인전

2004 <강원택 개인전>,
코쿠라야갤러리,
나가사키, 일본
2003 <강원택 개인전>,
NTT포켓갤러리,
나가사키, 일본

주요 기획전

2018 <문신
청년작가상 수상전>,
3-15아트센터, 창원,
한국
2011 <PU-RE 인간>,
후쿠오카, 일본
2009 <젊은 시각-
현대미술의 단면>,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2007 <미야자키
국제현대조각 공항>,
미야자키, 일본
2005 <HYU-GA
현대조각>,
그린파크,
미야자키, 일본
2004 <Dejima Works
2004>,
테지마,
나가사키, 일본
1994 <Grass Meeting ART
FESTIVAL>,
나가노,
일본
수상
2011 문신 청년작가,
문신미술관, 한국

2005 MFA candidate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2003 M.Ed. candidate,
Graduate School
Nagasaki University,
Nagasaki, Japan
1993 BFA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4 *2nd Solo Exhibition*,
Kokuraya Gallery,
Nagasaki, Japan
2003 *1st Solo Exhibition*,
NTT Gallery, Nagasaki,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MoonShin YA
Award Exhibition*, 3-15
Art Center, Changwon,
Korea
2011 *PU-RE Human*,
Fukuoka, Japan
2009 *Young Perspective
- Modern Art*,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2007 *Miyazaki
International Modern
Sculpture Airport*,
Miyazaki, Japan
2005 *HYU-GA Modern
Sculpture*, Green Park,
Miyazaki, Japan
2004 *Dejima Works 2004*,
Dejima, Nagasaki,
Japan
1994 *Grass Meeting ART
FESTIVAL*, Nagano,
Japan

Awards

2011 Moon Shin
Young Artist Award,
MoonShin Art Museum,
Korea

강주연
Juyeon GANG

2003 국립 창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창원시, 한국
1991 국립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창원시, 한국

주요 개인전

2021 <제10회 강주연
조각전 -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맛산갤러리,
창원, 한국
2021 <제9회 강주연
개인전>,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창원특례시
출범창원문화재단
초대전>,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예술섬 장사도의 봄>,
장사도, 통영, 한국
2022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 창원특례시 작가
초대전>,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2022 <2022경남갤러리
특별기획:
경남미술인의 소통>,
경남갤러리, 서울, 한국

2003 MFA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1991 BFA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10th Solo Exhibition
- Unfinished Story*,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2021 *9th Solo Exhibition*,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Changwon Special
City Invitation
Exhibition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2022 *Spring of Jangsado
Island, the Art Island
of the 1st Tongyeong
International Triennale*,
Jangsa Island,
Tongyeong, Korea
2022 *Changwon Special
City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to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Moon
Shin*,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2022 *Gyeongnam Gallery
Special Exhibition:
Gyeongnam Artists'
Communication*,
Gyeongnam Gallery,
Seoul, Korea

본전시 I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I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근재
Guenjae KIM

1994 국립 창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창원시, 한국

주요 개인전

2021 <관계: 우연의
조각들>,
바인딩
갤러리, 창원, 한국
2017 <질량보존의 법칙 -
환원>,
휴갤러리, 김해,
한국
2004 <물을 보다>,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주요 기획전

2017 <공존의 법칙>,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수상

1995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한국미술협회,
한국

1994 BFA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Relations: Pieces of
Coincidence*, BINDING
Gallery, Changwon,
Korea
2017 *Law of Conservation
of Mass - Reduction*,
Hugh Gallery, Gimhae,
Korea
2004 *See the Water*,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Law of Coexistenc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Awards

1995 Korea Art
Exhibition Special
Selection, Korea Art
Association, Korea

김범수
Beomsoo KIM

201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박사, 서울, 한국
1999 파리1대학 팡테온
소르본 조형예술학과
박사 과정, 파리,
프랑스

주요 개인전

2021 <ti>,
Gallery KOSA,
서울, 한국
2018 <배치>,
la ville a
des arts Gallery, 파리,
프랑스
2012 <clonage/super-
objects>,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19 <이미지 역사와
인간 사이 다섯 가지
해석들>,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16 <PARADIGM
of MEDIA+ART>,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한국
2015 <오른펠드 서울/
교토>,
HOMA 미술관,
서울, 한국
2013 <상수 & 이와쿠라>,
Kyoto International
Community House,
교토, 일본
2013 <두개의 유토피아>,
GS칼텍스 예술마루,
여수, 한국

레지던시

2014 창동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12 양주시
장흥조각아뜰리에,
한국

2017 D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9 DEA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I,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i*, Gallery KOSA,
Seoul, Korea
2018 *Agencement*, la ville
a des arts Gallery, Paris,
France
2012 *clonage/super-
objects*,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Image_Between
History and Human,
Five Interpretations*,
Total Museum, Seoul,
Korea
2016 *PARADIGM of
MEDIA+ART*, Art
Center White Block,
Paju, Korea
2015 *OPEN FIELD Seoul/
Kyoto*, HOMA Museum,
Seoul, Korea
2013 *Iwakura to Sangsu*,
Kyoto International
Community House,
Kyoto, Japan
2013 *Two Utopias*, GS
Caltex YEULMARU,
Yeosu, Korea

Residencies

2014 MMCA Residency
Chang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2 YANGJU CITY
JANGHEUNG
SCULPTURE STUDIO,
Korea

김윤철
Yunchul KIM
yunchulkim.net

주요 개인전
2022 <라이어>, 제 59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주요 기획전
2020 <제 7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일본
2018 <Broken Symmetries>, FACT, 리버풀, 영국
2018 <DIA-LOGOS: Ramon Llull und die Kunst des Kombinierens>, ZKM, 카를스루에, 독일

수상
2022 영예상,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린츠, 오스트리아
2016 콜라이드 국제상, 유럽입자물리연구소, FACT, 제네바, 스위스
2013 서드 프라이즈, 인공생명을 위한 국제예술상VIDA 15.0, 비다 텔레포니카 재단, 마드리드, 스페인
2006 영예상,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린츠, 오스트리아
2005 미디어 작가상,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 독일
2004 영예상, 트랜스 미디어알레, 베를린, 독일

Selected Solo Exhibition
2022 *Gyre*, Korea pavilion, Biennale Arte 2022, Venice,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Yokohama Triennale*, Yokohama Art Museum, Yokohama, Japan
2018 *Broken Symmetries*, FACT (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Liverpool, UK
2018 *DIA-LOGOS: Ramon Llull und die Kunst des Kombinierens*, ZKM, Karlsruhe, Germany

Awards
2022 Honorary Mention,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2016 Collide International Award 2016,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CERN), Geneva, Switzerland
2013 Third Prize, VIDA 15.0, Vida Telefonica Foundation, Madrid, Spain
2006 Honorary mention,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2005 Award for Media Artist, NRW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2004 Honorary mention, Transmediale, Berlin, Germany

김주호
Jooho KIM
jooho7@hanmail.net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7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2 <등불이 되어>, 강화뉴스, 인천, 한국
2020 <태평천하>, 나무아트, 서울, 한국
2018 <북쪽 방향>, 김포조각공원 아트홀, 김포,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경계 없이 피는 꽃>, 강화 교동도, 인천, 한국
2021 <조각 지금 여기>, 케이스 24, 인천, 한국
2019 <가족의 정원>, 양평미술관, 양평, 한국
2019 <평화로 날다>, 부평공원, 부평, 한국
2018 <모든 평화>, 강화 교동도, 인천, 한국
2017 <햇불에서 촛불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레지던시
2013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Light Lamp*, Ganghwa News, Incheon, Korea
2020 *Peace Reigns over the Land*, Namu Art, Seoul, Korea
2018 *Northward*, Gimpo Sculpture Park Art Hall, Gimpo,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order Flower*, Ganghwa Gyodong Island, Incheon, Korea
2021 *Now and Here*, CAISSON24, Incheon, Korea
2019 *Family Garden*,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ung, Korea
2019 *Fling Peace*, Bupyeong Park, Bupyeong, Korea
2018 *Total Peace*, Ganghwa Goudong, Incheon, Korea
2017 *From Torch to Candlelight*,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Residency
2013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김진우
Jinwoo KIM

1999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석사, 서울, 한국
1996 경희대학교 미술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17 <진화의 비밀; #J-1>,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2016 <신인류, 숲을 거닐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Modes of Resistance>, ReflectSpace, Glendale/LA, 미국
2021 <강원국제 트리엔날레>, 탄약정비공장, 홍천, 한국
2020 <4·3미술제>,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한국
2019 <장난감의 반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수상
2022 Certificate of Congressional Recognition, 캘리포니아, 미국연방의회, 미국

레지던시
2022 ReflectSpace Art Residency, Reflect Space, 미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The Secret of Evolution: #J-1*,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2016 *New Human Beings, Wandering the Forest*,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Modes of Resistance*, Reflect Space, LA, USA
2021 *Gangwon Triennale 2021*,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Hongcheon, Korea
2020 *SaSam Art Exhibition*, Jeju 4-3 Peace Foundation, Jeju, Korea
2019 *Toys in Mutiny*,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Awards
2022 Certificate of Congressional Recognition, California, Member of Congress, USA

Residency
2022 ReflectSpace Art Residency, Reflect Space, USA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김진희
Jinhui KIM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2001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11 <두 개의 틈>, 한전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0 <엑세스 포인트>,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17 <덕수궁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한국
2016 <브릴리언트 메모리-동행>,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3 <기계, 생명을 꿈꾸다>,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한국

레지던시
2014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Double Slit*, KEPCO Art Center Gallery, Seoul, Korea
2010 *Access Point*, Songeun Art Spac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Deoksugung Projec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6 *Brilliant Memories: With*,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Machine, Dreaming of Lif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Residency
2014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김혜경	진케이	최재필	Hyegyung KIM
2015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박사수료, 서울, 한국	2001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졸업, 용인, 한국	<u>주요 기획전</u> 2022 «Smile Forest», 스페이스가을, 김해, 한국	2015 Ph. D Candidate in Visual & Multimedia Desig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1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석사, 서울, 한국	<u>경력</u> 2022 인천시청 공공조형물 작업 인천시청, 인천, 한국	2021 «우리기 오락실», 월곶예술공관장, 시흥, 한국	2011 MFA in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7 상명대학교 공예학과 졸업, 서울, 한국	2021 P4G 정상회의의 로고 조형물 작업, DDP, 서울, 한국	2020 «Play on AI»,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1997 BFA in Applied Ar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u>주요 개인전</u> 2021 «2022두바이엑스포 한국관 Heavenly Paradise»,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문화재청 미디어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20 VOGUE KOREA + 블랙핑크 제니 + 레고 콜라보레이션 화보 촬영 작업, 서울, 한국	2015 «ROBOT PARTY»,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21 EXPO 2020 DUBAI UAE, Media 'Delight': Heavenly Paradise, Artist Hyegyung Kim, Korean Pavilion 1st Floor 'Korean Cultural Heritage' Booth, Dubai, UAE
2019 «The Culture of Time and Space», 워싱턴 한국문화원, 워싱턴 DC, 미국	2019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사업 오찬 및 초청 전시», 청와대 영빈관, 서울, 한국	2015 «Butterfly 2015», 아트센터나비, 서울, 한국	2019 <i>The Culture of Time and Space</i> , Korea Cultural Center Washington, Washington DC, USA
2018 «Media 與民樂 (Enjoy with the People)», 한국문화재단 전시관 결, 서울, 한국	2019 넥슨재단 + 상해 한국문화원 «희망», 상해 한국문화원, 상해, 중국	2019 <i>The Culture of Time and Space</i> , Korea Cultural Center Washington, Washington DC, USA	2018 <i>Media 與民樂 (Enjoy with People)</i>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Exhibition Hall, Seoul, Korea
<u>주요 기획전</u> 2022 «대만 도자비엔날레 Tangible World: The New Social Dynamics in Ceramics», Yingge Ceramics Museum, 신베이, 대만	2017 «레고 본사 LEGO 하우스 오픈 전시», 레고하우스, 빌룬트, 덴마크	2019 <i>The Culture of Time and Space</i> , Korea Cultural Center Washington, Washington DC, USA	2018 <i>Media 與民樂 (Enjoy with People)</i> ,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Exhibition Hall, Seoul, Korea
2022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한국	2017 BTS 방탄소년단 아트월 작업, ShowDC몰, 방콕, 태국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2 <i>Taiwan Ceramic Biennale-Tangible World: The New Social Dynamics in Ceramics</i> ,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2 <i>Taiwan Ceramic Biennale-Tangible World: The New Social Dynamics in Ceramics</i> , Yingge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Taiwan
<u>수상</u> 2016 Red Dot Design Award 2016: Winner, Red Dot Design Award, 독일	2015 CJ E&M 센터 아트월 작업, 서울, 한국	2022 <i>Prayer for Life: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i>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22 <i>Prayer for Life: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i>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4 «스팀펄크 아트»,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u>Awards</u> 2016 Red Dot Design Award 2016, Winner, Red Dot Design Award, Germany	<u>Awards</u> 2016 Red Dot Design Award 2016, Winner, Red Dot Design Award, Germany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Jin Kei	Jaepil CHOI
2001 BA in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Yongin, Korea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2 <i>Smile Forest</i> , Space GAYUL, Gimhae, Korea
<u>Work Experience</u> 2022 <i>Incheon City Hall Public Sculpture Work</i> , Incheon City Hall, Incheon, Korea	2021 <i>Naughty game room</i> , Art Dock, Siheung, Korea
2021 <i>P4G Seoul Summit Logo Sculpture Work</i> , DDP, Seoul, Korea	2020 <i>Play on AI</i> , Art Center Nabi, Seoul, Korea
2020 <i>VOGUE Korea + BLACKPINK JENNIE + LEGO Collaboration</i> , Seoul, Korea	2015 <i>ROBOT PARTY</i> , Art Center Nabi, Seoul, Korea
2019 <i>CHEONG WA 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i> , Reception hall Exhibition, Seoul, Korea	2015 <i>Butterfly 2015</i> , Art Center Nabi, Seoul, Korea
2019 <i>Nexon Foundation + Exhibition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i> , Shanghai, China	
2017 <i>LEGO House Open Exhibition</i> , Billund, Denmark	
2017 <i>BTS Art Wall Work</i> , Bangkok, Thailand	
2016 <i>Mount Elizabeth Medical Center Sculpture Work</i> , Singapore	
2015 <i>CJ E&M Center Art Wall Work</i> , Seoul, Korea	
2014 <i>Steampunk Art Exhibition</i> ,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노진아	Jinah ROH
2018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예술공학 공학 박사, 서울, 한국	2018 Ph. D in Engineering Art Technology,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a, Seoul, Korea
2002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2002 MFA in Art & Technology,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199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1998 BFA in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u>주요 개인전</u> 2021 «그들의 무거운 살갓 Their Burdensome Skin», 호아드갤러리, 서울, 한국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21 <i>Their Burdensome Skin</i> , Hoard Gallery, Seoul, Korea
2020 «인공공감 Artificial Empathy», 미디어338, 광주, 한국	2020 <i>Artificial Empathy</i> , Media338, Gwangju, Korea
2019 «InterFacial ExTension - 표면의 확장», 탈영역우정국, 서울, 한국	2019 <i>InterFacial ExTension</i> ,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Korea
<u>주요 기획전</u> 2022 «Breaking the Borders», Ras Al Ain Gallery & Hangar, 암만, 요르단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2 <i>Breaking the Borders</i> , The Hangar, Ras Al Ain, Amman, Jordan
2022 «디지털공명»,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GMAP, 광주, 한국	2022 <i>Digital Resonance</i> , Gwangju Media Art Platform, Gwangju, Korea
2021 «인공지능과 예술(AI x ART)»,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한국	2021 <i>AI x ART</i> , National Science Museum, Daejeon, Korea
2021 «2021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한국	2021 <i>Gwangju Design Biennale 2021</i> ,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Korea
2021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21 <i>Fortune Telling</i> , Imin Art Museum, Seoul, Korea
<u>레지던시</u> 2009-2010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u>Residency</u> 2009-2010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Korea

목진요
Jin-Yo MOK

2010~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디지털아트전공 교수
2004 뉴욕대학교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석사, 뉴욕, 미국
1994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 서울, 한국
1991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1 «Media Strings», 부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한국
2016 «Wave»,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한국
2013 «BRILLIANT CUBE», 강남역사거리, 서울, 한국
2012 «HYPER-MATRIX», 여수 엑스포 현대관, 여수, 한국

주요 기획전
2019 «WEB-Retro»,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서울, 한국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프로젝트매핑, 평창, 한국
2015 «Circle of Light», Moscow International Festival, 모스크바, 러시아

수상
2005 Individual Artist Grant, NYSCA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뉴욕, 미국

2010~ Professor in Digital Art,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2004 MPS, New York University in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New York, USA
1994 MFA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1 BFA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Media Strings*, Hyundai Motor Studio, Busan, Korea
2016 *Wave*,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2013 *Brilliant Cube*, Gangnam Station Intersection, Seoul, Korea
2012 *Hyper-Matrix*, Hyundai pavilion, Yeosu Expo, Yeos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WEB-Retro*,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8 *Projection Mapping of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Pyeongchang, Korea
2015 *Circle of Light*, Moscow International Festival, Moscow, Russia

Awards
2005 Individual Artist Grant, NYSCA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New York, USA

박얼
Earl PARK
heartpowder.com

2015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인터랙션 디자인과 석사, 서울, 한국
2008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과 졸업, 세종, 한국

주요 개인전
2021 «신화의 기계학»,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2022광주미디어 아트페스티벌 - 도시에 색을 올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21 «Box Politics & its Poetry», 수나파란타 고아 아트센터, 고아, 인도
2020 «대전비엔날레 2020 -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2019 «순환의 메타포», 주영한국문화원, 런던, 영국

레지던시
2020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한국
2015 ACC_R 크리에이티브스인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
2011 금천예술공장, 서울문화재단, 한국

2015 MFA in Interac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8 BFA in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Sejo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Mechanics of Mytholog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Gwangju Media Art Festival 2022 - Color of City*,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1 *Box Politics & its Poetry*, Sunaparanta Goa Centre for the Arts, Goa, India
2020 *Daejeon Biennale 2020 - A.I.: Sunshine Misses Windows*,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2019 *Circulation Metaphor*, Korean Cultural Centre, London, UK

Residencies
2020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Korea
2015 ACC_R Creators in Lab, Asia Culture Center, Korea
2011 Art Space Geumcheo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배성미
Sungmi BAE

2009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경기도, 한국
1995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경기도, 한국

주요 개인전
2021 «흔들리는 거울», 오픈스페이스배, 부산, 한국
2018 «뚝뚝의 노동_무개를 팔다»,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2015 «움직이는 땅_경계에서»,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21 «세계유산축전_불의숨길 아트프로젝트», 용암동굴길, 제주, 한국
2020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_장위산 프로젝트», 장위동 빈집, 서울, 한국
2020 «꽃, 곳, 곧_일곱 개의 방», 산지천갤러리, 제주, 한국
2020 «일어나지도 않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
2018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예술가의 명상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20 예술꽃산양,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
2017 대구예술발전소,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국

2009 MFA in fine arts, Suw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1995 BFA in Sculpture, Suw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 Swaying Mirror*, Openspace Bae, Busan, Korea
2018 *Unexpected work_Sell weight*, Daegu Art Factory, Daegu, Korea
2015 *Land in movement_Boundaries*, Kunst Doc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World Heritage Festival_ Art project to hide the fire*, Lava tube road, Jeju, Korea
2020 *Was that mountain really there_Jangwi mountain project*, Jangwi-dong empty house, Seoul, Korea
2020 *Jungle, Site, Soon_seven rooms*, Sanjichun Gallery, Jeju, Korea
2020 *Even not occurred*, Openspace Bae, Busan, Korea
2018 *Enlightened Mind - The Artists' Way to Meditation*, Savina museum, Seoul, Korea

Residencies
2020 ART LAB. Sanyang,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Korea
2017 Daegu Art Factory, Daeg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Korea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백정기
Jungki BEAK
jungkibeak.blogspot.com

2008 글라스고 미술학교, 대학원 순수예술과 석사, 글라스고, 영국
2004 국민대학교 입체미술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19 «접촉주술», OCI미술관, 서울, 한국
2015 «Revelation»,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주요 기획전
2022 «포스트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한국
2021 «대지의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수상
2019 김세중 청년 조각상, 김세중 미술관, 한국
2012 송은미술대상, 송은아트스페이스, 한국

레지던시
2016 델피나 파운데이션 아티스트 레지던시, 델피나 파운데이션, 영국
2015 두산 뉴욕 레지던시, 두산 갤러리, 미국

2008 MA in Fine Art, Glasgow School of Art, Glasgow, UK
2004 BA in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CONTAGIOUS MAGIC*, OCI Museum, Seoul, Korea
2015 *Revelation*,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Post Nature: Dear Nature*, Ulsan Art Museum, Ulsan, Korea
2021 *Time of the Earth*,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Awards
2019 30th Kimsechoong Art Prize, Kimsechoong Art Museum, Seoul, Korea
2012 Song-eun Art Award, Song-eun Art Foundation, Seoul, Korea

Residencies
2016 Delfina Foundation Artist Residency, Delfina Foundation, UK
2015 Doosan New York Residency, Doosan Gallery, USA

신승연
Seungyun SHIN
www.syshin.com

-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서울, 한국
- 2009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아트애펙테크놀러지,
석사, 시카고, 미국
- 200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22 <Ghostly Gaze
유령같은 시선>,
갤러리 오뉴월, 서울,
한국
- 2021 <onFlow>,
탈영역우정국, 서울,
한국
- 2019 <Portrait of
Experiment>, West
Creek Gallery,
리치몬드, 미국
- 주요 기획전
2022 <Diversity &
Syncretism 다양성과
혼종>, Thomas P. Kelly
Jr. Art gallery, LA, 미국
- 2021 <PRESS PAUSE:
THE SOPs FOR
INTRSPECTION>,
Macy Art Gallery, 뉴욕,
미국
- 2021 <Reorientation:
Artists in the
Pandemic>, ATP
Gallery, 뉴욕, 미국
- 2020 <대구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광장,
대구, 한국
- 2019 <통일기원
현대조각전>,
오두산통일전망대,
파주, 한국
- 레지던시
2018 워싱턴한국문화원
지원 작가 선정
- 2019 Ph. D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Korea
- 2009 MFA in Art &
Technology Studies,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USA
- 2007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Ghostly Gaze*,
Gallery O'NW, Seoul,
Korea
- 2021 *onFlow*,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Korea
- 2019 *Portrait of
Experiment*, West Creek
Gallery, Richmond,
US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Diversity &
Syncretism*, Thomas P.
Kelly Jr. Art gallery,
LA, USA
- 2021 *PRESS PAUSE:
THE SOPs FOR
INTRSPECTION*, Macy
Art Gallery, New York,
USA
- 2021 *Reorientation:
Artists in the Pandemic*,
ATP Gallery, New York,
USA
- 2020 *Dalseong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The Arc,
Daegu, Korea
- 2019 *Wish for
Reunification*, Odusan
Unification Tower,
Paju, Korea
- Residency
2018 Washington DC
Korean Cultural
Center - 2018 Artists,
Korean Cultural Center
Washington DC, USA

심준섭
Junseub SIM

- 현 경성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2004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교 졸업,
슈투트가르트, 독일
- 1992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부산, 한국
- 주요 개인전
2015 <Body & Organ>,
갤러리 레마, 툴루즈,
프랑스
- 2011 <Body of Noise>,
포스코 미술관, 서울,
한국
- 2010 <Sound of
Reaction>, 브레인
팩토리, 서울, 한국
- 2006 <Zirculation>,
Layher 갤러리,
슈투트가르트, 독일
- 주요 기획전
2013 <Local Review
2013-부산發(발)>,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두 도시
이야기>, 부산비엔날레
전시장, 부산, 한국
- 레지던시
2011 관두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관두미술관, 대만
- Professor, Kyungsoong
University Dept. of
Fine Arts
- 2004 National Kunst
Academy Stuttgart,
Stuttgart, Germany
- 1992 BFA in Sculp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5 *Body & Organ*,
Gallery Rhema,
Toulouse, France
- 2011 *Body of Noise*,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 2010 *Sounds of Reaction*,
Brain Factory, Seoul,
Korea
- 2006 *Circulation*, Gallery
Layher, Stuttgart,
German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Local Review-Lives
and Works in Busan*,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 2006 *Busan Biennale
Contemporary Art
Exhibition*, Busan
Biennale, Busan, Korea
- Residency
2011 Kuandu Museum
of Fine Arts-Residency
Program, Kuandu
Museum, Taiwan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양숙현
Sookyun YANG
www.maumchine.net

- 2008 홍익대학교
영상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석사,
서울, 한국
- 200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18 <물질_감각_생성>,
새탕라움, 제주, 한국
- 주요 기획전
2022 <아트-인-
메타버스>,
언더스탠드에비뉴,
서울, 한국
- 2021 <컬렉션_오픈 해킹
채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현실이상>,
백남준아트센터, 용인,
한국
- 2019 <Understanding
AI>, 아르스일렉트로
니카센터, 린츠,
오스트리아
- 2018 <제로원데이 2018>,
현대자동차서비스
센터, 서울, 한국
- 레지던시
2017 창동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2015 크리에이티브스 인 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한국
- 2008 MFA in Interac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2005 BFA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
2018 *Material_Sensory
_Formation*,
SETANGRAUM, Jeju,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Art in Metaverse*,
Understand Avenue,
Seoul, Korea
- 2021 *Collection_ Opening
Hacking Mining*,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20 *Reality Error*, Nam
Jun Paik Art Center,
Yongin, Korea
- 2019 *Understand AI*, Ars
Electronica Center,
Linz, Austria
- 2018 *ZEOINEDAY 2018*,
Hyundai Motors
Service Center, Seoul,
Korea
- Residencies
2017 MMCA Residency
Chang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2015 <Creators in LAB>
Program, ACC Art &
Creative Technology
Center, Korea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양정욱
Junguk YANG
www.studiochicoo.com

- 2011 경원대학교 조소과
졸업, 경기도, 한국
- 주요 개인전
2022 <아무런 말도 않고>,
더소소, 서울, 한국
- 2021 <Maybe, it's like
that>, OCI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어제 찍은 사진을
우리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다>,
갤러리현대, 서울, 한국
- 주요 기획전
2022 <나의 기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21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한국
- 수상
2020 김세중미술상
청년조각상 수상,
김세중미술관, 한국
- 레지던시
2018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한국
- 2013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 2011 BFA in Sculpture,
Kyungw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Utter no words*,
Gallery SoSo, Seoul,
Korea
- 2022 *Maybe, It's like
that*, OCI Museum ,
Seoul, Korea
- 2019 *We placed the
photograph taken
yesterday in plain sight*,
Gallery Hyundai,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My Your Memor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21 *Loss, Evrething
That Happened To Me*,
Daejeon Museum of
Art, Daejeon, Korea
- Awards
2020 31th Kimsechoong
Art Prize, Kimsechoong
Museum, Korea
- Residencies
2018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Korea
- 2013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8 서울시립대 대학원
환경조각과 석사, 서울,
한국

1999 남서울대학교
환경조형학과 졸업,
충청도, 한국

주요 개인전
2022 <아시아 작가
초대전>, 백남준홀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22 <공간의
불가촉성(不可觸性)>,
부천아트벙커B39,
경기도,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부여세계유산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부소산성, 충청도, 한국

2021 <미술관은
진화한다>,
양평군립미술관,
경기도, 한국

수상
2013 노르트 아트
관중상, Kunstwerk
Carlshuette 미술관,
독일

2006 대한민국미술제
특별상
문화관광부장관상,
한국전업미술작가회,
한국

레지던시
2016 KUNSTNARHUSET
MESSEN, 올빅,
노르웨이

2010 Vermont Studio
Center, 버몬트, 미국

2008 MFA in
Environmental
Sculp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1999 BFA in
Environment Art,
Namseoul University,
Chungcheongdo,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Irreversibility of
time*, Nam June Paik
Hall Korean Cultural
Center, New Delhi,
India

2022 *Invisible
Untouchable Insensible*,
Bucheon Art Bunker
B39, Gyeonggido,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uyeo World
Heritage Media
Art Festival*,
Busosanseong Fortress,
Chungcheongdo, Korea

2021 *Envolving Museum:
The brilliant Moment'*
Record, Yangpyeong
Art Museum,
Gyeonggido, Korea

Awards
2013 NordArt2013
Public Choice Award,
Kunstwerk Carlshuette,
Germany

2006 Special award of
Culture Minister, KAPM
Korea Art Festival,
Korea

Residencies
2016 Kunstnarhuset
Messen, Alvik, Norway

2010 Vermont Studio
Center, Vermont, USA

2009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대학원 유리와 졸업,
로드아일랜드, 미국

200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96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17 <새벽녘의 시선>,
한전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3 <스며들다
- Assimilated
Coexistence>,
KAIST
리서치엔 아트, 서울,
한국

2012 <Breaking the
Norm>,
포스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0 <Encounter>,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2010 <Human
Interaction>,
일주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13 <REVERSCAPE>,
APMAP 아모레퍼시픽,
오산, 한국

2013 <빛의 마법>,
울산
현대미술관, 울산, 한국

2013 <Love Actually>,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1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10 고양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06 Pilchuck Glass
School, 미국

2009 MFA in Glas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 USA

2000 MFA in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996 BFA in Sculptur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7 *Staying with
Journey*, KEPCO Art
Center, Seoul, Korea

2013 *Assimilated
Coexistence*, KAIST
Research & Art, Seoul,
Korea

2012 *Breaking the Norm*,
Posco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0 *Encounter*,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2010 *Human Interaction*,
Ilju Art Center,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3 *REVERSCAPE*,
APMAP AMOREPACIFIC,
Osan, Korea

2013 *The Mgc of Light*,
Hyundai Arts Center,
Ulsan, Korea

2013 *Love Actually*, Seoul
Museum, Seoul, Korea

Residencies
2011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Korea

2010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6 Pilchuck Glass
School, US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986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서울,
한국

198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0 <삶과 생명을
짜다>, 요 갤러리, 서울,
한국

2020 <삶과 생명을
짜다>, 인사갤러리,
서울, 한국

2010 <그물과 목>,
인사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18 <타인을 위한
기도>, dtc갤러리,
대전, 한국

2015 <가방의 기억>,
백스테이지갤러리
0914, 서울, 한국

2015 <Hello Art>,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13 <불물나무쇠흙땀>,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한국

2011 <ART&PLAY
움직이는미술>,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2011 <20세기
경남미술-조각>,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수상
1987, 1988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특선,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1986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84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Weave-the Symbol
of Life*, Jo Gallery,
Seoul, Korea

2020 *Weave-the Symbol
of Life*, Insa Gallery,
Seoul, Korea

2010 *Space wander about
remember of a splinter*,
Insa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Prayer for Others*,
dtc Gallery, Daejeon,
Korea

2015 *Memory of Bag*,
Bagstage Gallery 0914,
Seoul, Korea

2015 *Hello Art*,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13 *The Six Elements*,
DMA Creative Center,
Daejeon, Korea

2011 *ART&PLAY-Kinetic
Art*, Hangaram Art
Museum, Seoul, Korea

2011 *Gyeongnam Art of
20th Century-Sculpture*,
Gyeongnam Art Center,
Changwon, Korea

Awards
1987, 1988 Superior Prize
and a Special Selection
from Korea's Fine Arts
Exhibi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0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94 중앙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12 <한국의 비틀즈>,
Kazimier, 리버풀, 영국

2007 <Billy's Coffee Shop
and Alexandria Hotel's
Piano>,
INMO Gallery,
LA, 미국

주요 기획전
2019 <GMoMA 공공미술
2015-2018: 함께 할래>,
경기도미술관, 안산,
한국

2016 <영웅본색>,
문화역서울284, 서울,
한국

2015 <조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3 <뉴미디어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수상
2019 화성시 문화상,
화성시, 한국

레지던시
2010-2011 런던 Space
레지던시, 런던, 영국

2000 MFA in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1994 BFA in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2 *Beatles in Korea*,
Kazimier, Liverpool,
UK

2007 *Billy's Coffee Shop
and Alexandria Hotel's
Piano*, INMO Gallery,
L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GMoMA Public
Art Project 2015-
2018: With, Together*,
Gyeonggido Museum
of Art, Ansan, Korea

2016 *Festival284: A Better
Tomorrow*,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2015 *Accidental
Encounter*,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The Future is now*,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Awards
2019 Hwaseongsi
Cultural Prize,
Hwaseongsi, Korea

Residency
2010-2011 London Space
Residency, London, UK

유화수	이지양	Hwasoo YOO	Jeeyang LEE
2012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조소전공 석사, 서울, 한국	2004 골드스미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 대학원 이미지	2012 MFA in Sculptur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2004 MA in Image and Communication,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2006 동국대학교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서울, 한국	커뮤니케이션과 석사, 런던, 영국	2006 BFA in Sculptur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2003 BA (Hons) in Fine Art,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u>주요 개인전</u>	2003 골드스미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 순수예술학과 졸업, 런던, 영국	<u>Selected Solo Exhibitions</u>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21 <잡초의 자리>, 문화비축기지 T1, 서울, 한국	<u>주요 개인전</u>	2021 <i>The Seat of Weeds</i> , Cultural Oil Tank T1, Seoul, Korea	2013 <i>Stationary Non- Stationary</i> , AG gallery, Seoul, Korea
2018 <그림자 노동>, Organ Haus, 충청, 중국	2013 <Stationary Non-Stationary>, 안국약품갤러리, 서울, 한국	2018 <i>Shadow Working</i> , Organ Haus, Chongqing, China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6 <Working Holiday>, Basis, 프랑크푸르트, 독일	<u>주요 기획전</u>	2016 <i>Working Holiday</i> , Basis, Frankfurt, Germany	2020 <i>Exception Status</i> , Art Space Boan 2, Seoul, Korea
2013 <그리하여, 곧고 준수하게>, 스페이스K, 서울, 한국	2020 <예외상태>, 아트스페이스 보안 2, 서울, 한국	2013 <i>So, Straight and Good-Looking</i> , Space K, Seoul, Korea	2020 <i>Mal Vu Mal Dit</i> , Haenghwatang ART Space: Cultural Complex, Seoul, Korea
<u>주요 기획전</u>	2020 <잘 못 보이고 잘 못 말해진>, 행화당, 서울, 한국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19 <i>Stationary Orbit</i> , Factory 2, Seoul, Korea
2022 <생생화화>, 영은미술관, 광주, 한국	2019 <정상제도>, 팩토리2, 서울, 한국	2022 <i>Saengsaeng- hwahwa</i> , Youngeun Museum, Kwangju, Korea	<u>Residencies</u>
2020 <예외상태>, 아트스페이스 보안 2, 서울, 한국	<u>레지던시</u>	2020 <i>Exceptional Status</i> , Art Space Boan 2, Seoul, Korea	2016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20 <영성한미술관>,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2016 고양미술창작 스튜디오, 국립현대 미술관, 한국	2020 <i>Sloppy Art Museum</i> , Nam-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5 BCS, Bamboo Curtain Studio, Taiwan
2020 <나의 둘레는 멀고도 가까워서>, 온수공간, 서울, 한국	2015 뱀부커튼스튜디오, 뱀부커튼스튜디오, 대만	2020 <i>Because my circumference is far and near</i> , Onsu space, Seoul, Korea	2015 GCC,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Korea
2019 <정상제도>, 팩토리2, 서울, 한국	2015 경기창작스튜디오, 경기도미술관, 한국	2019 <i>Stationary Orbit</i> , Factory 2, Seoul, Korea	2014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Korea
<u>레지던시</u>	2014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u>Residencies</u>	
2017-2018 Organ Haus, 충청, 중국		2017-2018 Organ Haus, Chongqing, China	
2016-2017 BASIS,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6-2017 BASIS, Frankfurt, Germany	
2016-2017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16-2017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2007 쿤스트 아카데미 윈스터 졸업, 윈스터, 독일	2007 Kunstakademie Muenster Akademiebrief für den Studiengang Freie Kunst, Germany
199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1998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u>주요 개인전</u>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20 <당신 곁에 있는>, 갤러리폼, 부산, 한국	2020 <i>On the Other Side of You</i> , GalleryFORM, Busan, Korea
2018 <The Ocular Proof>, 살롱아티테인, 서울, 한국	2018 <i>The Ocular Proof</i> , Salon Artertain, Seoul, Korea
<u>주요 기획전</u>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2 <POMA COLLECTION: 연결시제>,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2022 <i>POMA COLLECTION: Connect Time</i> , Pohang Museum of Steelart, Pohang, Korea
2021 <제주문화유산 축전 '불의 숨길' 아트프로젝트>, 제주, 한국	2021 <i>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2021</i> , Jeju, Korea
2020 <손 안에 작은 광석>, 2020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 한국	2020 <i>An Ore in my hand</i> , Teahwa River Eco Art Festival 2020, Ulsan, Korea
<u>레지던시</u>	<u>Residencies</u>
2011 고양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11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2008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08 SeMA Nanji Residency, Seoul Museum of Art, Korea
2006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프랑스	2006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France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198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85 MFA in Sculpture, Sung 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83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1985 BFA in Sculpture, Sung 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u>주요 개인전</u>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21 <Sound of Nature - Healing>, 인사아트센터, 서울, 한국	2021 <i>Sound Of Nature- Healing</i> , INSA Art Center, Seoul, Korea
2020 <Sound of Nature - Healing>, 바우지움미술관, 강원도 고성, 한국	2020 <i>Sound Of Nature- Healing</i> , BAUZIUM Museum, Goseong, Korea
2020 <Sound of Nature>, 현대판교, 경기도, 한국	2020 <i>Sound Of Nature</i> , Hyundai Dpt. Pangyo, Gyeonggido, Korea
2019 <Sound of Nature>, 본화랑, 서울, 한국	2019 <i>Sound Of Nature</i> , Bon Gallery, Seoul, Korea
2019 <Sound of Nature>, Harbour City-Gateway Arcade Atrium II, 홍콩	2019 <i>Harbour Art Fair- Special Solo exhibition</i> , HarbourCity Atrium II, Hongkong
<u>주요 기획전</u>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0 <엔택트 시대의 소통과 치유>, 강동구, 서울, 한국	2020 <i>Communication and Healing in the Untact Era</i> , Gangdonggu, Seoul, Korea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 한국	2019 <i>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i> , Cheongju, Korea
2019 <서울 인터네셔널 아트 엑스포 조각 200인전>, 코엑스, 서울, 한국	2019 <i>SIAE Seoul International Art Expo</i> , Coex, Seoul, Korea
2017 <International Sculpture Group Seoul & Tokyo>, 세이후갤러리, 도쿄, 일본	2017 <i>International Sculpture Group SEOUL & TOKYO</i> , SeiHou Gallery, Tokyo, Japan
2014 <서울 아트쇼>,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2014 <i>Seoul Art Show</i> ,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이연숙
Yeonsook LEE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서울, 한국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Fine Art(MFA), 런던,
영국

주요 개인전
2022 «샐러드 볼»,
문화비축기지 T2, 서울,
한국

2021 «프로토타입_
기억공간_몸 소리 문»,
대안공간루프, 서울,
한국

2021 «가 보면 없는 집»,
장위동 빈집,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21 «친애하는 빅
브라더_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21 «MAY to DAY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
광주비엔날레특별전,
광주, 한국

수상
2017 제1회
양구조각공모전 은상,
양구군, 한국

2008 Danfoss Art
Competition, Silver
Medal, Danfoss, 덴마크

레지던시
2019 ZK/U 레지던시,
독일

2018 ACC 아시아
네트워크 레지던시
기획자 참여,
아시아문화전당, 한국

2013 호주 데자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알리스스프링, 호주

2020 Ph. D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08 MFA in Fine Art,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Salad Bowl*,
Culturetank, Seoul,
Korea

2021 *Prototype_Memory
Space_Body Sound
Door*,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21 *Going but no House*,
Jangwidong Empty
Hous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dorable Big
Brother_On Never
Being Alone Again*,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21 *MAY to DAY_*
*Between the Seen and
the Spoken*,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Awards
2017 Yanggu Sculpture
competition, Silver,
Yanggu, Korea

2008 Danfoss Art
Competition, Silver
Medal, Denmark

Residencies
2019 ZK/U Residency,
Germany

2018 ACC Asia Network
Residency, Asia Culture
Center, Korea

2013 DESART Residency,
NOMADIC residency
program, Australia

이완
Wan LEE
www.leewanstudio.com

2004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전공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2 «Random Access
Memory, Chapter. 1
Displacement 0(Zero)»,
Gallerie X, 서울, 한국

2017 «Counter Balance»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2인전:
이완, 코디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주요 기획전
2021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21 «시간여행사
타임워커»,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2019 «Sugar industry»,
마도우 트리엔날레,
마도우, 대만

2017 «Continua Sphères
ENSEMBLE», Centquatre
Paris, 파리, 프랑스

수상
2015 제2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 김세중
기념사업회, 한국

2014 제1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리움미술관, 한국

레지던시
2018 Tsung-yeh arts and
culture center Madou,
Tsung-yeh arts and
culture center, 대만

2016 Cemeti art house
residency, 인도네시아

2004 BFA in Sculpture,
Dongguk University,
Seou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Random Access
Memory, Chapter.1
Displacement 0 (Zero)*,
Gallerie X, Seoul, Korea

2017 *Counter Balance*,
57th La Biennale
di Venezia Korean
Pavilion (Lee Wan-
Cody Choi Duet
Exhibition), Venice,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 Chronicle
of Lost Time*, SNU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1 *The Time
Travel Corporation
TIMEWALK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19 *Sugar Industry*,
Madou Triennale,
Madou, Taiwan

2017 *Continua Sphères
ENSEMBLE*, Centquatre
Paris, Paris, France

Awards
2015 26th Kimsechoong
Sculpture Award,
Kimsechoong Museum,
Korea

2014 1st ART SPECTRUM
Awar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Korea

Residencies
2018 Tsung-yeh Arts and
Culture Center Madou,
Tsung-yeh arts and
culture center, Taiwan

2016 Cemeti Art House
Residency, Indonesi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이용백
Yongbaek LEE

1995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석사,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3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0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0 «브레이크링 아트(제1회
자산미술상),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2018 «한국적 모자이크»,
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한국

2016 «낮선 산책»,
학교재, 서울, 한국

2014 «핸드헬드
슈팅», 슈퍼너라이
베르크샤우,
라이프치히, 독일

2011 «사랑은 갖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대표작가, 제
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주요 기획전
2022 «예술 평화: 0시의
현재», 울산시립미술관,
울산, 한국

2020 «유에스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2020 «코리아 아이20»,
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2019 «미디어 랩소디»,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한국

2019 «한국 비디오 아트
7090: 시간 이미지
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천, 한국

1995 MFA in Sculpture,
Staatliche Akd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1993 BFA in Painting,
Staatliche Akd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1990 BFA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Breaking Art*, Total
Museum, Seoul, Korea

2018 *Korean Mosaic*,
Maehyangri Studio,
Hwaseong, Korea

2016 *An Unfamiliar Path*,
Hakgojae, Seoul, Korea

2014 *Handheld Shooting*,
Spinnerei, Leipzig,
Germany

2011 *54th Venice
Biennale: The Love is
Gone, But the Scar Will
Heal*, Korean Pavilion,
La Biennale di Venezia,
Venice,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Art and Peace: Let
Us Begin Again from
Zero o'Clock*, Ulsan Art
Museum, Ulsan, Korea

2020 *USB: Universe
Society Being*, BMA,
Busan, Korea

2020 *KOREAN EYE 2020*,
The State Hermitage
Museum, Petersburg,
Russia

2019 *Media Rhapsody*,
Jeonbuk Museum of
Art, Wanju, Korea

2019 *Korean Video Art
7090: Time Image
Apparatu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이원우
Wonwoo Lee

2012 영국왕립예술대학교
Sculpture 석사, 런던,
영국

2007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2 «YBF Your Beautiful
Future 당신의
아름다운 미래», Post
Poetics, 서울, 한국

2017 «무도장의 분실물
센터»,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17 «내일 날씨 어때?»,
PKM 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나의 잠»,
문화역서울284, 서울,
한국

2022 «V8», 실린더 N/A,
서울, 한국

2020 «코리아 아이»,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2016 «APMAP 2016
MAKE LINK»,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용산 가족공원, 서울,
한국

수상
2012 Coutts Cowley
Manor 아트 어워드
대상, 코울리, 영국

레지던시
2022 HIAP, 헬싱키,
핀란드(예정)

2020 현대차그룹
제로원(zero1ne)
크리에이터, 한국

2012 MA in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2007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culpture,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YBF_Your Beautiful
Future*, Postpoetics,
Seoul, Korea

2017 *Lost and Found
in the Ball*,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17 *How's the weather
tomorrow?*, PKM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My Sleep*, Culture
Station 284, Seoul,
Korea

2022 *V8*, Cylinder, N/A,
Seoul, Korea

2022 *Korean Eye*, Saatchi
Gallery, London, UK

2016 *APMAP 2016
Yongsan MAKE LINK*,
Amorepacific Museum,
Yongsan family park,
Seoul, Korea

Awards
2012 Coutts Cowley
Manor Art Award,
Winner, Cowley, UK

Residencies
2022 HIAP, Finland
(forthcoming)

2020 Hyundai Group
Zer01ne Creator, Korea

이준
June LEE
www.junelee.kr

2012 크렌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섬유 석사, 블룸필드힐스, 미국
2008 시카고예술대학교 회화과 졸업, 시카고, 미국

주요 개인전

2021 <적정거리>, 서울 웨이브, 서울, 한국
2020 <June Lee from Studio>, AV Modern and Contemporary, 제네바, 스위스
2016 <Bystander>, Pier2 Art Center, 가오슝, 대만

수상

2021 Best in Show, Interpretation 2021, Vision Art Museum Biennial, 미국
2018 1위 Scythia 12th International Textile Art Biennial, 우크라이나

레지던시

2019 마사추세스 현대 미술관, 노스 애담스, 미국
2018 Ragdale Foundation Artist in Residency, Lakeforest, USA
2016-2017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Oisterwijk, 네덜란드
2015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한국

2012 MFA in Fiber, Cranbrook Academy of Arts, Bloomfield Hills, USA
2008 BFA in Painting,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dequate distance*, Seoul Wave, Seoul, Korea
2020 *June Lee from Studio*, AV Modern and Contemporary, Geneva, Swiss
2016 *Bystander*, Pier2 Art Center, Kaohsiung, Taiwan

Awards

2021 Best in Show, Interpretation 2021, Vision Art Museum Biennial, USA
2018 1st Place, Scythia 12th International Textile Art Biennial, Ukraine

Residencies

2019 MASS MoCA, North Adams, MA, USA
2018 Ragdale Foundation Artist in Residency, Lakeforest, USA
2016-2017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Oisterwijk, the Netherlands
2015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이창원
Changwon Lee
www.changwonlee.com

2006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프라이에 쿤스트(파인아트) 아카데미 브리프 석사, 뮌스터, 독일
199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Parallel Worlds*,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19 *Tracing Times*, Gallery Simon, Seoul, Korea
2012 *MAM Project 017: Lee Changwon*, Mori Art Museum, Tokyo, Japan
2009 *Disappear*, Aando Fine Art, Berlin, Germany
2003 *Changwon Lee - Recent Works*, Kusseneers Gallery, Antwerp, Belgi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고스트>,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2016 <제3회 난징국제미술제>, 백가호 미술관, 난징, 중국

수상

2004 오디언스어워드, 58회 베르기세쿤스트 아우슈텔룽, 쿤스트뮤지움 졸링겐, 독일

레지던시

2014 고양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06 Diploma, Academy of Fine Arts Münster, Münster, Germany
1997 BFA, College of Fine Art,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Parallel Worlds*,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19 *Tracing Times*, Gallery Simon, Seoul, Korea
2012 *MAM Project 017: Lee Changwon*, Mori Art Museum, Tokyo, Japan
2009 *Disappear*, Aando Fine Art, Berlin, Germany
2003 *Changwon Lee - Recent Works*, Kusseneers Gallery, Antwerp, Belgi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7 *Ghost*,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6 *Historicode: Scarcity and Supply-The 3rd Nanji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Baijia Lake Museum, Nanjing, China

Awards

2004 Audience Award, 58. Bergische Kunstausstellung, Kunstmuseum Solingen, Germany

Residency

2014 MMCA Residency Goya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임형준
Hyoungjun LIM

2015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학박사, 부산, 한국
1991 프랑스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과 조형예술학석사, 파리, 프랑스
1988 프랑스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과 조형예술학사 졸업, 파리, 프랑스

주요 개인전

2020 <LIM HYOUNGJUN>, 문신미술관, 창원, 한국
2014 <LIM HYOUNGJUN' SOUNDS>, 부산아트센터, 부산, 한국
1991 <소리와 만남>,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19 <일한현재조각의 비전전>, 문화예술회관, 오타와라, 일본
2004 <OPENASIA>, Hotel des Bains, 베니스, 이탈리아

수상

2020 문신미술상, 창원시립문신미술관, 한국
1987 중앙미술대상전 대상 수상, 중앙일보사, 한국

2015 Ph. D in Fine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1991 MFA in 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VIII, Paris, France
1988 BFA in 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 VIII, Paris,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LIM HYOUNGJUN*, MoonShin Art Museum, Changwon, Korea
2014 *LIM HYOUNGJUN' SOUNDS*, Pusan Art Center, Busan, Korea
1991 *Encounter with SOUNDS*, Hyundai Museum,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Vision of the Present Sculpture of Korea and Japan*, Culture and Arts Center Otawara, Japan
2004 *OPENASIA*, Hotel des Bains, Venice, Italy

Awards

2020 MOONSHIN Fine-Art Award, Changwon City Moonshin Art Museum, Korea
1987 Joongang Fine arts Prize Grand Prize in Sculpture, Joongang newspaper, Korea

정순호
Soonho JEONG

2019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 조형예술과 석사, 뒤셀도르프, 독일
2019 아카데미브리프, 마이스터술러 학위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주요 기획전

2020 <In oder of appearance>, K21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2019 <Full Metal Jacket - The Dilemma of Freedom and Tolerance>, 강원트리엔날레 (구)탄약정비공장, 홍천, 한국

주요 개인전

2017 <die Grosse - ko:operation>,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독일
2017 <Rund wie eckig>, von Rundstedt, 뒤셀도르프, 독일
2015 <경계의 문화, 지역에 길을 묻다>, 화촌면사무소 지하 1층, 홍천, 한국
2012 <정·순·호 봉다리 어딴니?>, 대안공간 문, 서울, 한국

2010 <청년사업가입니다>, 일현미술관 을지로스페이스,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5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분홍공장, 홍천, 한국

2019 MFA, Academy for Fine Arts, Kunstakademie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
2019 Akademierief at Prof. Franka Hörschemeyer
2011 BFA,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In oder of appearance*, K21, Kunstsammlung Nordrhein-Westfalen, Düsseldorf, Germany
2019 *Full Metal Jacket - The Dilemma of Freedom and Tolerance*, Gangwon triennale Former Ammunition Maintenance Plant, Hongcheon, Korea

2017 *die Grosse - ko:operation*, Museum Kunstpalast, Düsseldorf, Germany
2017 *Rund wie eckig*, von Rundstedt, Düsseldorf, Germany

2015 *Culture of boundaries, in search of regional pathway*, Hongcheongun Hwachonmyeon town hall, Hongcheon, Korea
2012 *Jeong · Soon · Ho, Where's the Plastic Bag?*, Arternative Space MOON, Seoul, Korea
2010 *Young Businessman*, Ilhyun Museum Euljiro Space, Seoul, Korea

Residency

2015 International Residency Project, Pink Factory, Korea

202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2017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Heavy Heart, Thin Ground*, Onsu gonggan, Seoul, Korea
2022 *Layer-by-Layer*, Boloc, Seoul, Korea
2019 *The Thin Sedimentary Layer - 2019 CICA NMAC*, CICA Museum, Gimpo,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Heaps of Dummies*, AlterSide, Seoul, Korea
2021 *Serials*, Rainbowcube Gallery, Seoul, Korea
2020 *Ziggurat Art Festival*, Shinjungang Ceramics Co. Brick Factory, Yeoncheon, Korea
2020 *Follow, Flow, Feed*, Arco Art Museum, Seoul, Korea
2020 *The Great Guide to Be an Artist*, Gallery Chosun, Seoul, Korea
2019 *Beginner-Terrarium*, Art space O, Seoul, Korea

Residency
2019 Meta Matching, Art Places Seongbuk&F64, Korea

주요 개인전
2022 «무거운 마음과 얇은 땅», 운수공간, 서울, 한국
2022 «Layer-by-Layer», 볼록, 서울, 한국
2019 «The Thin Sedimentary Layer - 2019 CICA NMAC», CICA미술관, 김포, 한국

주요 기획전
2022 «더미더미», 얼터사이드, 서울, 한국
2021 «Serials», 레인보우큐브갤러리, 서울, 한국
2020 «에콜로지, 지혜의 창고», 신중앙요업(주)벽돌공장, 연천, 한국
2020 «Follow, Flow, Feed 내가 사는 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20 «예술가를 위한 위대한 지침서», 갤러리조선, 서울, 한국
2019 «비기너-테라리움», 아트스페이스오, 서울, 한국

레지던시
2019 성북예술동 메타매칭, 성북예술창작터&F64, 한국

2000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9 «Superstar», Vavguard Gallery, 상하이, 중국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Flow Does Not Stop*, Yeosu Expo Convention Center, Yeosu, Korea
2019 *Lee Seung-taek, Lee Kun-yong, and Cha Joo-man: re-recognition of cognition of recognition*, Grove Gallery Open Exhibition, Seoul, Korea
2015 «몽트뢰 조각비엔날레», 레만호 야외전시장, 몽트뢰, 스위스
2011 «모스크바 비엔날레», 한국문화원, 모스크바, 러시아
2007 «9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상하이 국제예술센터, 상하이, 중국
2006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 Homage to the Earth», 누리마루공원, 부산, 한국
2002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해운대, 부산, 한국

주요 기획전
2021 «여수국제미술제 - 흐르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여수, 한국
2019 «이승택, 이건용, 차주만3인전 - 인식에 대한 재인식», Grove Gallery개관전, 서울, 한국
2015 «몽트뢰 조각비엔날레», 레만호 야외전시장, 몽트뢰, 스위스
2011 «모스크바 비엔날레», 한국문화원, 모스크바, 러시아
2007 «9회 상하이 국제예술제», 상하이 국제예술센터, 상하이, 중국
2006 «부산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 Homage to the Earth», 누리마루공원, 부산, 한국
2002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해운대, 부산, 한국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9 *Superstar*, Vavguard Gallery, Shanghai, Chin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Flow Does Not Stop*, Yeosu Expo Convention Center, Yeosu, Korea
2019 *Lee Seung-taek, Lee Kun-yong, and Cha Joo-man: re-recognition of cognition of recognition*, Grove Gallery Open Exhibition, Seoul, Korea
2015 *Montreux sculpture Biennale*, Lake Lehman, Montreux, Switzerland
2011 *Moscow Biennale*, Korean Cultural Center, Moscow, Russia
2007 *9th Shanghai International Arts Festival*, Shanghai International Arts Center, Shanghai, China
2006 *Busan Biennale Sculpture Project - Home to the Earth*, Nuri Maru Park, Busan, Korea
2002 *Busan Biennale Sea Art Festival*, Haeundae, Busan,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정혜경	키토 사길데벳	Hyekyung JUNG	Kito SAGILDEBEOT
2009 성신여자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2020~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로 활동 2017~ 설치미술가로 활동	2004 MFA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2009 BFA in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2020~ Metaverse creator in action 2017~ Installation Art in action
<u>주요 개인전</u> 2018 «도시환영-미래분양사무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7 «시간이 전사가 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북도갤러리, 서울, 한국		<u>Selected Solo Exhibitions</u> 2018 <i>Illusion City- Future Sale Office</i> ,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7 <i>When time is on display</i>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rt theory 'Corridor Gallery', Seoul, Korea	
<u>주요 기획전</u> 2021 «지렸어, 찢었어, 썰었어 - 김아이 팀 프로젝트», 햇곳, 청주, 한국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 손안에 작은 광석», 울산, 한국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무심기행, 도원의 멈춰진 시간», 청주, 한국 2019 «자서전: 기억수집 선화랑», 서울, 한국		<u>Selected Group Exhibitions</u> 2021 <i>Tired, ripped, cut-Kim Ai Team Project</i> , Hatgot Gallery, Cheongju, Korea 2020 <i>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AN ORE IN MY HANDS</i> , Taehwa River National Garden, Ulsan, Korea 2019 <i>Cheongju Craft Biennale Special Exhibition: Unconscious Journey, Down's Stopped Time</i> , Cheongju, Korea 2019 <i>Autobiography: Memory Collection</i> , Sun Gallery, Seoul, Korea	
<u>수상</u> 2010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중앙일보, 한국 2008 오이타 아시아 조각공모전, 일본		<u>Awards</u> 2010 Selected artists of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JoongAngIlbo, Korea 2008 Oita Asia Sculpture Competition, Japan	
<u>레지던시</u> 2017-2018 청주창작스튜디오 11기, 청주, 한국		<u>Residency</u> 2017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최수환
Suhwan CHOI

- 2014 베를린 미술대학 (UDK) 마이스터술러, 베를린, 독일
2006 국립 창원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창원, 한국
- 주요 개인전
2019 <회원동의 밤>,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
2018 <유령연습>, 공간 힘, 부산, 한국
2015 <두 개의 문 KWADRAT>, 베를린, 독일
- 주요 기획전
2022 <형평의 저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2022 <수집된 풍경>,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2020 <EMOTION IN MOTION>,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 2014 Meisterschüler,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2006 MFA in Sculptur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Night in Hoewondong*, Openspace Bae, Busan, Korea
2018 *Ghost Practice*, Space Heem, Busan, Korea
2015 *Two Doors*, KWADRAT, Berlin, German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Unbalanced Scal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2022 *Collected Landscapes*,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2020 *EMOTION IN MOTION*, MoCA Busan, Busan, Korea

하석원
Sukwon HA

- 2001 독일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교 조소과 마이스터과정 졸업, 스투트가르트, 독일
2000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교 조소과 졸업, 스투트가르트, 독일
1995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서울, 한국
1992 동아대학교 조소과 졸업, 부산, 한국
- 주요 개인전
2018 <집을 그리다>, 금련산갤러리, 부산, 한국
2017 <ICH & DU>, 대담미술관, 담양, 한국
- 주요 기획전
2022 <21인의 신작전>, 마산현대미술관, 마산, 한국
2022 <2022ART DMZ>, 팔마예술공간, 부산, 한국
2022 <제 11회 서울 국제 조각페스타 in Busan>, 벡스코, 부산, 한국
2022 <Verbal>, 신공간갤러리, 서울, 한국
2021 <DMZ 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미술관, 경기도, 한국
2021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구덕문화공원, 부산, 한국
- 2001 MFA in Sculpture, Stuttgart National University, Stuttgart, Germany
2000 BFA in Sculpture, Stuttgart National University, Stuttgart, Germany
1995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2 BFA in Sculptur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Drawing a House*, Geumnyeonsan Gallery, Busan, Korea
2017 *ICH & DU*, Daedam Museum, Damyang,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New Work Exhibition of Twenty One Artist*, Masan Contemporary Art Museum, Masan, Korea
2022 *2022ART DMZ*, Palma Art Space, Busan, Korea
2022 *11th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2022 in Busan*, Bexco, Busan, Korea
2022 *Vebral*, Shinspcegallery, Seoul, Korea
2021 *The Breath of the Eart after The DMZ*, Yangpyeong Art Museum, Gyeonggido, Korea
2021 *Public Art Project Our Neighborhood Art*, Gudeok Cultural Park, Busan, Kore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한진수
Jinsu HAN

- 2007 시카고 예술대학교 조소과 석사, 시카고, 미국
1999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199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주요 개인전
2018 <Karma Study>, Marc Straus 갤러리, 뉴욕, 미국
2018 <Liquid memory>, 현대모티스튜디오, 서울, 서울, 한국
2017 <Liquid memory>, HVCCA, Peekskill, 미국
2016 <Fantasy Factor-Looking for the Gold Elephant>, Force Gallery, 베이징, 중국
- 주요 기획전
2022 <Peace for child>, 서소문성지역사 박물관, 서울, 한국
2020 <기술에 관하여>,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2019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미술관, 서울, 한국
2018 <2018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 hotel, 싱가포르
- 레지던시
2017 HVCCA, Peekskill, 뉴욕, 미국
2016 Marc Straus gallery, 뉴욕, 미국
- 2007 MFA in Sculptur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1999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4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Karma Study*, Marc Straus Gallery, New York, USA
2018 *Liquid Memory*, Hyundai Motor Studio, Seoul, Korea
2017 *Liquid Memory*, HVCCA, Peekskill, New York, USA
2016 *Fantasy Factor-Looking for the Gold Elephant*, Force Gallery, Beijing, Chin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Peace for child*,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Seoul, Korea
2019 *The Cross Section of Korean Sculpture*,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Seoul, Korea
2018 *2018'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 hotel, Singapore
- Residencies
2017 HVCCA, Peekskill, New York, USA
2016 Marc Straus gallery, New York, USA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홍이현숙
Hyunsook HONG LEE

- 1985 홍익대 미술대학원 조각과 석사, 서울, 한국
198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21 <오소리A씨의 초대>, 부천아트벙커 MMH 홀, 경기도, 한국
2021 <뿔, 추.푸>, 아르코미술관, 서울, 한국
2019 <한낮의 승가사: 삼일천하전>, 공간 일리, 서울, 한국
2018 <수행의 간격>, 국제미디어 페스티벌, 스페이스 오, 서울, 한국
2012 <폐경의례>,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 한국
- 주요 기획전
2019 <왕복달리기>, 다시은 체험실, 서울, 한국
2018 <경기 천년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한국
2018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태화강 파크, 울산, 한국
2017 <티끌 하나의 우주>, 문화비축기지 탱크1, 서울, 한국
2017 <하부양생전>, 미인도, 성북문화재단, 서울, 한국
- 1985 M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80 BFA in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 Invitation from Badger A*, Bucheon Art bunker MMH hall, Bucheon, Korea
2021 *Swoosh, tsu-pu*, ARKO Art Center, Seoul, Korea
2019 *Sunggasa in the Midday*, Exhibition of Three Days of Heaven, Space Illi, Seoul, Korea
2018 *The Gap of Meditation - Practice*, International Media Festival, Space O, Seoul, Korea
2012 *A Ritual for Menopause*, Multipurpose Art Hall EMU, Seoul, Korea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Running Back and Forth*, Dasion Experiment Space, Seoul, Korea
2018 *Gyeonggi Archive Now*, GMOMA Special Exhibition, Gyeonggido, Korea
2018 *Taewha River International Art Festa*, Taewha River Park, Ulsan, Korea
2017 *One dust of Space*, Culture Storage Base, Seoul, Korea
2017 *Under Curing Exhibition*, Meeindo, Seongsbuk Culture Foundation, Seoul, Korea

마르코 바로티
Marco BAROTTI
www.marcoarrotti.com

2003 Academy of Jazz
“Siena Jazz”, Siena,
Ital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APES*, Alt Space Loop,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Swarm*, Science Gallery, Melbourne, Australia

2019 *Out Of The Box*,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Awards

2019 NTU Global Digital Art Prize, Clams, Singapore

2018 Tesla Award, Swans, Slovenia

2015 Delux Colour Award, Sound Of Light, UK

Residencies

2021 Re: Searching IT Security, CASA - Horst Görtz Institute for IT Security Ruhr-Universität Bochum, Germany

2022 ZER01NE, Seoul, Korea

벤하드 드라즈
Bernhard DRAZ
www.bdraz.de

1997 Studies of Philosophy at the Ludwigs-Maximilians-University of Munich,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08 – 2022 *Nereids and Okeanids*, glass art installation (permanent installation), GZ Langenau, Germany

2006 – 2022 *Die The Blue Hour*, neon and stainless steel sculpture, 12 light objects (permanent installations), SZ Blaustei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Multiverses*, Art Space Aarau, Switzerland

2021 *900*, Pavillon am Milchhof, Berlin, Germany

2020 *Segrete Tracce di Memoria - Alleanza di Artisti in memoria della Shoah XII edizione*, Carceri della Torre Grimaldina di Palazzo Ducale, Genoa, Italy

2018 *Beyond Bauhaus*, Gallery Bernau, Germany

2018 *Daegu Contemporary Art Festival in Gangjeong*, Daegu, Korea

2016 *Transitional Societies*, Asia contemporary art platform NON Berlin, Germany

Awards

2022 Scholarship for Visual Artists, Foundation Kunstfond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ermany

2021 Ilse Augustin Foundation Scholarship for Contemporary Artists, Berlin, Germany

올리아 페도로바
Olia FEDOROVA
www.oliafedorova.com

2016 BA in Environmental Design, Kharkiv State Academy for Design and Arts, Kharkiv, Ukrain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Tablets of Rage*, Dzyga art center, Lviv, Ukraine

2022 *Off-Road*, Kunsthalle Graz, Graz, Austria

2021 *Garage Sale*, Garage 127 gallery, Kharkiv, Ukrain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iennale Zielona Góra 2022*, Zielona Góra, Poland

2022 *Women at War*, Fridman Gallery, New York City, USA

2022 *Art li Biennial*, li, Finland

Awards

2017 Finalist of the contest for young Ukrainian artists MUKHI 2017, Ukraine

Residencies

2021 “Polytopia” Digital Residency by Co-iki Arts Living Space, Tokyo, Japan

2021 Old School Art House Residency, Hrisey, Iceland

미칼 가비쉬
Michal GAVISH
www.michalgavish.com

2008 MFA in Painting, San Francisco Art Institute, City, USA

1993 Ph. D in Physical Chemistry, CUNY,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Ballad of Spread*, The Delaware Contemporary, Wilmington, Delaware, USA

2018 *Crystalline City*,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Paper installations, Lamina Project*, Art on Paper 2022, New York, USA

2019 *Summation and Absence*, BioBat, Brooklyn, New York, USA

2014 *Chasm Arena*, Yerba Buena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San Francisco, USA

Awards

2021 Windows to Europe, Cultural European Union Grant, USA

Residencies

2011 LIA,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 Spinnerrei, Leipzig, Germany

2008 Cooper Union Artist Residency, New York, USA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시모나 호이먼스
Simone HOOYMANS
www.simonehooymans.com

2005 MFA, Postgraduate st.Joost, Breda, the Netherlands

2002 BFA, Art academy HKA Arnhem, the Netherland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Dropsfabrikken*, Meta.Morf Art and Technology Biennale, Trondheim, Norway

2021 *KH7 Artspace*, Århus, Denmar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9 *State Exhibition*, Høstutstillingen 2019, Oslo, Norway

2018 *Of Nature*,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Awards

2022 Winner Experimental Animation, Reykjavik Film Festival, Iceland
2019 Winner of best animation, Art Quake Kyoto, Art Biennale, Japan

Residencies

2019 Residency Art Colony Galichnik, Macedonia

호이팅
HOU I Ting

2003 BFA,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Sewing Fields -CHAT Living Room*, MILL6CHAT, Hong Keng

2019 *Weaving identities*, Centro de Historias De Zaragoza, Zaragoza, Spain

2019 *Cold Chain*, Taipei Fine Arts Museum, Taipei, Taiw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Empowerment*, Kustmuseum Wolfsburg, Germany

2022 *Ring Project-Jakarta Biennale*,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Jakarta, Indonesia
2020 *Taipei Biennial 2020: You and I Don't Live on the Same Planet—Moon Salt Public Programs*, Taipei Fine Arts Museum, Taiwan
2019 *Where We Now Stand - In Order to Map the Futur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Japan

2019 *Contemporary Art from Asia, Australia and the Pacific: Selected Works from QAGOMA*, Fundación Centro Cultural Palacio La Moneda (CCLM), Santiago, Chile

카토 츠바사
Tsubasa KATO
www.katoutsubasa.com

2017 Visiting Research Scholar, Department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SA

2010 MFA, Department of Painting,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Japa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urf and Perimeter*, Tokyo Opera City Art Gallery,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Scratching the Surface*, Hamburger Bahnhof - Museum für Gegenwart - Berlin, Berlin, Germany

2020 *They Do Not Understand Each Other*, Tai Kwun Contemporary, Hong Kong

2020 *BECOMING A COLLECTIVE BODY*, MAXXI - the National Museum of 21st Century Arts, Rome, Italy

2019 *Aichi Triennale 2019: Taming Y/Our Passion*, Aichi Arts Center, Aichi, Japan

2017 *Reenacting History: Collective Actions and Everyday Gestur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6 *Uprisings*, Jeu de Paume, Paris, France

Residency

2022 The Watermill Center, New York, USA

알리시아 크바데
Alicja KWADE
www.alicjakwade.com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licja Kwade, In Abwesenheit*, Berlinische Galerie, Berlin, Germany

2020 *Kausalkonsequenz*, Langen Foundation, Neuss, Germany
2020 *Petrichor*, KÖNIG TOKYO,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lbion Barn*, Oxford, UK

2021 *Hungary The Same Sea*, Helsinki Biennial, Vallisaari Island, Finland

2021 *DESERT X 2021*, Coachella Valley, California, USA

2020 *NGV Biennial*, Melbourne, Australia
2020 *Who am I?*, Tang Contemporary Art, Beijing, China

2019 *Salon Hansa: InterINTIMES*, _AutoPORTRAIT, Lachenmann Art, Frankfurt am Main, Germany

Awards

2015 Hector-Prize, Kunsthalle Mannheim, Germany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
Alistair McClymont
alistairmcclymont.com

2005 MA in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2000 BA in Fine Art, Hull
School of Art, Hull,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3 *Alistair McClymont:
Everything we are
capable of seeing*, CAM
Raleigh, Raleigh, USA
2012 *Alistair McClymont:
Untitled*, No Show
Space,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There Is No Planet B*,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2019 *KIKK Festival*,
Namur, Belgium
2017 *Scopitone*,
Stereolux, Nantes,
France

2016 *Artefact*, STUK
Arts Center, Leuven,
Belgium

Residencies

2014 Beam Time
residency,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UK
2013 Islington Mill, UK

크리스 마이어
Chris MYHR
www.chrismyhr.com

2010 MFA in Media Art,
NSCAD University,
Halifax, Canada
2008 BFA in
Interdisciplinary and
New Media, University
of Lethbridge,
Lethbridge, Canad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Salients*, McMaster
Museum of Art,
Hamilton, Canada
2021 *Prefix Prize
Solo Exhibition*,
Prefix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Toronto, Canada
2020 *Vessels and
Suspensions*,
Smokestack Gallery,
Hamilton, Canad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Fête Champêtre*,
Montreal Museum of
Fine Art, Montreal,
Canada
2022 *Darkness*, Decode
Gallery, Tuscon, USA

Awards

2021 *Prefix Prize
in Photography*,
Prefix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Canada
2020 Award of Merit,
Suspensions,
Sebastopol Center for
the Arts, USA

Residency

2016–2017 Artist in
Residence, Sherman
Centre for Digital
Scholarship, Canada

파레틴 오렌리
Fahrettin ÖRENLI

2001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Amsterdam, the
Netherlands
1998 The Gerrit Rietveld
Academie, Amsterdam,
the Netherland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The City Genes-The
Bubble in the Mind*,
LOOP, Seoul, Korea
2018 *3D Sunset*, Project
Fulfill Art Space Taipei,
Taiw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Trace of the Blue
Marble*, Yeosu YIAF
2022, Korea
2019 *The State of
Transparency*,
Looiersgracht 60,
Amsterdam, the
Netherlands

Awards

2004 ABN AMRO Art
Prize, Amsterdam, the
Netherlands
2000 The Royal Painting
First Prize, Amsterdam,
the Netherlands

Residency

2016 MMCA Residency
Chang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에디 프라반도노
Eddi PRABANDON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1 *After Duchamp:
Bicycle Wheel*, Ark
Gallery, Jakarta,
Indonesia
2010 *Wonderful Fool*, Red
mill Gallery, Johnson,
Vermont,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Taouyuan Land
Art Festival 2022*,
Taouyuan, Taiwan
2022 *Konvergensi
Pasca Tradisionalisme*,
Galeri R. J Katamsi,
ISI Yogyakarta,
Yogyakarta, Indonesia
2022 *Art Jakarta
Gardens*, Hutan Kota
By Plataran, Jakarta,
Indonesia

2021 *Fengxian
International Public
Art Project*, Fengxian
Sculpture Art Park,
Shanghai, China
2021 *Jing'an
International Sculpture
Project*, Jing'an District,
Shanghai, China

2018 *Art Bali 18: Beyond
The Myths*, Nusa Dua,
Bali, Indonesia
2018 *No Empty Chair*,
The Drawing Room
Contemporary Art,
Makati, Philippines

Residencies

2018 Artist On Vacation,
The Laguna Art Farm
Project, Laguna,
Philippines
2016 Land Art Delft,
Foundation Land
Art Delft, Delft, the
Netherlands

본전시 1 —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Main Exhibition 1 — I am Everywhere but Nowhere

유르겐 스타크
Jurgen STAACK
www.jurgenstaack.com

2008 Graduation letter
of Art Academy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
2006 Masterstudent,
Academy for Fine Arts
Düsseldorf,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Feldmann, Ruff,
Staack*, Konrad Fischer
Galerie, Düsseldorf,
Germany
2016 *Reduction of
Reality*, Kunstverein
Oldenburg, Oldenburg,
Germany
2006 *Left Behind, Missing
Pictures*, Space Other
Gallery, Boston,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1 *Sound and Silence*,
Kunstmuseum, Bonn,
Germany
2017 *Duet with Artists*,
21er Haus, Belvedere,
Vienna, Austria

Awards

2020 Project Fund
Unserdeutsch,
Kunstfonds, Germany
2011 *Ars Viva 11/12*
language, Kulturkreis,
Germany

Residencies

2012 MMCA Residency
Changdong,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안씨 타울루
Anssi TAULU
anssitaulu.com

2022 MFA, The University
of the Arts Helsinki,
Fin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Error*, Galerie
Toolbox, Berlin,
Germany
2009 *Europe*,
GalleryKONE,
Hämeenlinna, Finland
2007 *Absolute Spaces*,
Gallery Sculptor,
Helsinki, Fin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The Displaced*, Oulu
Art museum, Finland
2019 *When Artists
Enter the Factories-19*,
Brooklyn Army
Terminal, NYC, USA
2011 *The Wasp Factories
Project*, Edinburgh Art
Festival, Scotland

Awards

2022 The Mikko Kaloinen
Foundation, Finland
2021 Anita Snellman
Foundation, Finland

Residency

2017 Art Omi, Ghent,
New York, USA

마이클 위틀
Michael WHITTLE
Michael-Whittle.com

2014 Ph. D in Fine Art,
Kyoto City University
of Arts, Japan
2005 MA in Fine Art,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Perpetual Motion*,
Yi Tai Sculpture and
Installation Projects,
Art Central Hong Kong,
Hong Kong
2020 *Bird Call Full Moon*,
Ashiya Schule Gallery,
Ashiya, Japan
2018–2019 *Portraits of
Thought: Diagrams in
Art and Science*, Kyoto
University Museum,
Kyot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LIGHT UP*, Soho
House, Hong Kong
2021 *CITYA: City As
Medium*, Koo Ming
Kown Exhibition
Gallery, Hong Kong
2021 *Echo Oharano*,
Oharano Studio Gallery,
Kyoto, Japan

Awards

2018 Top rated LABS Ph.
D Abstract, Leonardo
(MIT Press Journals),
USA

Residency

2019 Artist Residency,
'Creator in Labs - Art &
Science Project', Asia
Culture Centre (ACC),
Gwangju, Korea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본전시 2는 특정한 고유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서 차용하여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로 개최되는 본전시 2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은 해외 작가들이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창원시의 다양한 장소에 영상, 사진, 드로잉, AR, 사운드, 인터랙티브아트 등의 다양한 작품을 가상으로 구현하여 국가와 국가, 현실과 가상, 과거와 현재 간의 상호교류를 제안한다.

전시장소:
웹사이트,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Main Exhibition 2 is inspired by a phenomenon where the vibration of an object, at its natural frequency, dramatically increases in amplitude and energy, in response to that of another object having the same frequency. Available in a virtual format, the exhibition features video, photography, drawing, AR, sound, interactive art, and other visual works from international artists. The works are hypothetically placed in differ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Together, they facilitate interaction between a country and a country, reality and virtuality, and the past and the present.

Exhibition Venue:
Websit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ACROSS SPACE



EPIPHANY

ENTANGLEMENT

HYBRID

TRAVERSE

WORLDING

ODYSSEY

DASEIN

FRAGMENT

PEEKING THROUGH

CONTINUITY

INTERACTION

AMENSALISM

UNCHARTED

Adaptive





레히나 호세 갈린도 Regina José GALINDO

(1974, 과테말라)
과테말라 출생

현,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거주 및 활동

(1974, Guatemala)
Born in Guatemala

Lives and works in Guatemala city, Guatemala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우선 불도저 기사인 가르시아씨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파인 앞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대신 총검으로 찔러 댔습니다. 총검으로 흉부를 찌르면서 구덩이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구덩이가 다 찻을 때 시체 위로 삽이 떨어졌습니다.”

과테말라는 36년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치렀고, 내전기간 동안 집단학살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군부는 반군세력을 도왔다는 이유로 마야 원주민들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다. 자기도취에 빠진 과두 지배세력은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명분 하에 ‘조국의 적’인 원주민 공동체를 초토화시켰다.

How did people kill? The prosecutor asked.
"First they ordered the machine operator, Officer Garcia, to dig a hole. Then the trucks full of people were parked in front of the Pine, and one by one, they were passing. They did not shoot them. Many times they were puyaban with bayonet. They ripped off their chests with bayonets, and carried them to the pit. When the pit was filled, the mechanical shovel was dropped on the bodies.

Guatemala lived for 36 years one of the bloodiest wars. A genocide, this left more than 200,000 dead. The army that fought against the insurgency defined as internal enemies to the natives claiming that they sympathized with the guerrilla and during bloody periods it was dedicated to persecute them. With the intention of staying with the lands (under the complacent gaze of the national oligarchy) and the justification that the

과테말라시티 → 마산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Guatemala city Masan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324

325



이는 당시 과테말라의 무력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군부와 민방위 단체들은 원주민 마을을 공격해 식량과 옷, 곡물, 가옥, 동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방화, 강간, 고문, 살인 등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원주민들의 시체가 버려진 집단 무덤은 대량학살의 증거 중 하나이다. 군부가 시체를 암매장한 방식을 설명한 위 증언은 지난 2013년 과테말라시티에서 열린 리오스 몬트 진 과테말라 대통령과 마우리시오 로드리게즈 산체스 전 정보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natives were enemies of the homeland, the State put the land in ruins. This was a common and characteristic practice of the Guatemalan armed conflict. Troops of army soldiers and civil defense patrols came to the indigenous communities and destroyed anything that might be useful for their survival: food, clothing, crops, houses, animals, etc. It burned everything. He raped, tortured. Murdered. Many bodies were buried in mass graves that are now part of the long list of evidences that confirm the fact.

The previous testimony narrate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Army constructed the graves before to assassinate and to throw the bodies inside and was listened during the trial by genocide against Ríos Montt and Mauricio Rodríguez Sánchez. Guatemala City 2013. Ríos Montt y Mauricio Rodríguez Sánchez. Ciudad de Guatemala 2013.

<Tierra>, 2013
단체널 비디오
33분 28초

Tierra, 2013
Single channel video
33min. 28sec.



326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27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파올로 라디 Paolo RADI

(1966,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 출생
현, 이탈리아 로마 거주 및 활동

(1966, Italy)
Born in Rome, Italy
Lives and works in Rome, Italy

〈Entanglement〉는 거울 표면에 놓인 서로 관통하는 두 개의 형태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오팔색 소재로 만들어진 두 개의 타원형 형체는 모든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파동-입자 이중성’을 상징한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양자 대상은 개별적인 존재라기 보다 상호교환성과 상호관계성에 근거하여 다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얽힘은 단지 두 가지의 양자 대상이 아닌 훨씬 복잡한 관계를 함축하게 된다.

두 형체의 아래에는 역시 타원형인 거울이 있는데, 서로 연결된 두 개의 표면(실체) 간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현실을 반영하는 본래 기능과 달리 거울은 절대적인 관점을 비틀으로써 현실을 깨뜨리고 현실에 대한 시선을 바꿔놓는다. 투명 소재는 전시장소인 성산아트홀 광장과 의 상호작용에 깊이를 더한다.

The sculptural installation consists of two interpenetrating elements placed on a mirrored surface. The two oval shapes that make up the sculpture are made of opalescent material and represent the duality of matter: wave / particle.

Quantum physics tells us that two related objects together have more characteristics than two separate objects. The entanglement is therefore not a relationship of two but it is a three, four, five etc....

At the base of the two elements there is a mirror, also oval, which highlights and testifies to the correlation that has been created between the two surfaces (entities) in connection. Furthermore, the mirror, reflecting reality, breaks it and changes its point of view by modifying the classic idea of the absolute point of view. The transparency of the material creates an additional interaction with the context. The work is located in the square of the Seongsan Art Hall in the city of Changwon.

로마 → 창원 성산아트홀
Rome → Changwon Seongsan Art Hall

본 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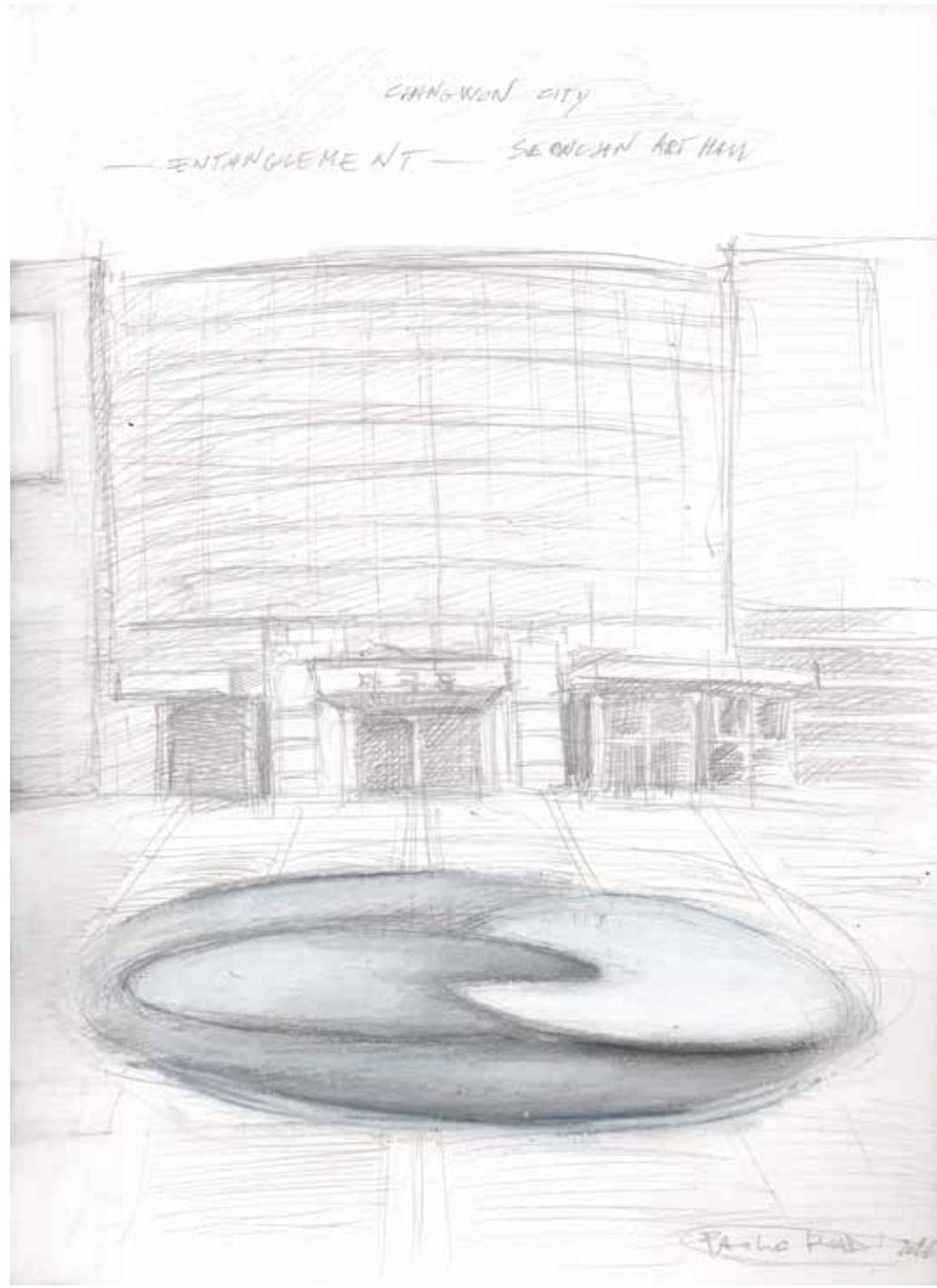
328

329



〈Entanglement〉, 2022
혼합매체, 거울판
100×500×200cm

Entanglement, 2022
Mixed media, Mirror plate
100×500×200cm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31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스테파니 로텐버그 & 수잔 소프 Stephanie ROTHENBERG & Suzanne THORPE

(1967, 미국)
미국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1967, USA)
Born in USA
Live and work in New York, USA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은 굴의 청각기관에 대한 사색적인 오페레타이다.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굴은 수질개선과 해수면 상승방지 효과도 탁월한 생태계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굴은 소리를 탐지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찾는다. 작가들은 인간과는 다른 정보 감지 방식을 반영하고 그에 반응하는 몰입형 시청각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선박 입출항 및 수중 사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활동과 굴의 웰빙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찰한다. 설치물의 중앙에 위치한 가상 굴 암초에는 각기 다른 생육단계에 있는 굴들이 붙어있다. 소리에 반응하는 로봇 굴 뒤로는 수중 생태계 영상, 해상 물동량, 기상상태 등 실시간 데이터 정보와 함께 몰입형 수중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다.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is a speculative operetta focused on the listening body of the heroic oyster. A water filter, sea level mitigator and food source, the oyster is a vital member of our ecosystem that finds suitable habitats for settlement by sensing sound. Designed as an immersive audio-visual installation, the artwork creates an environment for reflecting and responding to other-than-human modes of sensing information. Building on soundscape studies, the project leverages data of harbor port movement and local underwater sounds to query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ctivity and the wellbeing of oysters. A simulated reef in the center of the installation features sound responsive robotic oysters in different stages of their lifecycle. Projections of underwater environments juxtaposed with animated graphic visualizations of real time data

뉴욕 → 마산 돌섬
New York Masan Dotseom

본 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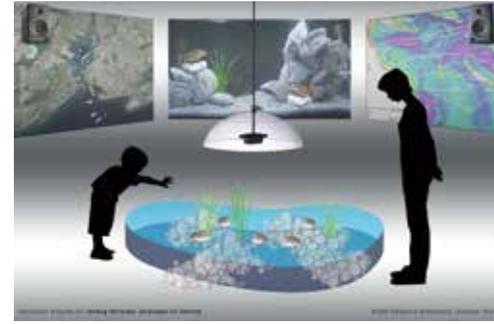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3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33



로봇 굴과 시청각 요소들은 공간을 가득 메운 수중 사운드에 끊임없이 반응한다.

작가는 소리에 따라 이동하는 굴의 감각을 모방한 관객 참여형 반응형 전시를 통해 청각을 이용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방법, 안전한 피난처의 청각적 특성, 인간 너머의 세계를 돌보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을 돌보려는 인간 너머 세계의 노력, 소리를 듣는 굴이 이러한 상호돌봄의 문화 정착에 던져주는 시사점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이 작품은 굴 개체수를 회복하려는 시민과학 사업인 ‘빌리언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뉴욕항의 붐비는 수로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들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헤너들이 굴을 따고 있는 마산만 돌섬 앞바다와 주변 생태계의 고요한 사운드 스케이프를 상상한다.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2022
단체널 비디오, 혼합매체
2분 15초, 2분 38초, 37초

from local maritime traffic and weather conditions along with an immersive audio system that mimics aquatic acoustics fill the room. Together, the robotic oysters, visuals and sound composition continually respond to the subaqueous sounds of the waterways that play throughout the space.

Through the simulated sense of this sonically navigating being, and participatory and responsive engagement mechanisms, the artwork animates questions such as: how do we listen for safe harbors, and what do they sound like; how do we tend to the more-than-human-world and how does it tend to us? And can the listening oyster guide us to a politics of mutual tending?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he artwork begins in the busy waterways of New York City’s harbor where oysters are being repopulated through the citizen science efforts of the Billion Oyster Project. Traveling through space and time, the artists imagine the soundscape of the serene ecosystem of Dotseom in the Masan Bay where Haenyeos (female divers) catch and harvest these magical organisms.

Tending Ostreidae: Serenades for Settling, 2022
Single channel video, Mixed media
2min. 15sec, 2min. 38sec., 37sec.



the mighty mollusk

listens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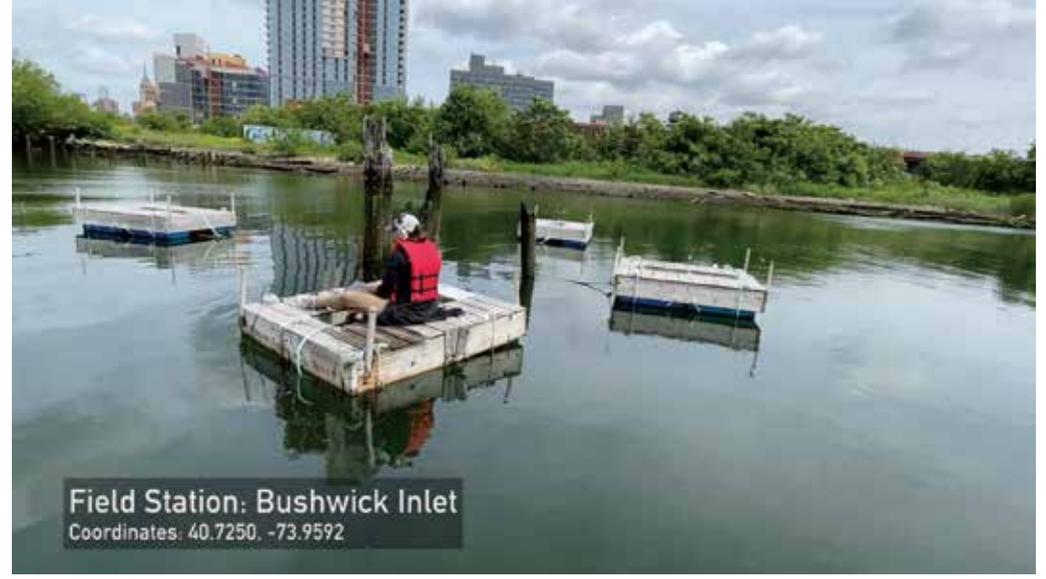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35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Field Station: Bushwick Inlet
Coordinates: 40.7250, -73.9592

크리스틴 루카스 Kristin LUCAS

(1968, 미국)
미국 대번포트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1968, USA)
Born in Davenport, USA
Lives and work in New York, USA

창원수목원에 들어서면 우주적 경험을 하게 된다.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수목원은 우주의 패턴, 리듬, 순환을 담은 살아있는 아카이브이다. 기하학적 구조와 조화로운 진동 사이 어딘가에는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가 있다.

〈Cosmic WildflowAR〉는 창원수목원은 물론 그 외의 공간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관객은 화면과 주변환경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하나가 된다.

코스모스는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연대감, 평화, 평온, 무한성을 상징하는 꽃으로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 변화를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화면을 탭하면 주변을 코스모스로 꾸밀 수 있다. 관객이 만든 정원은 관객이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공간이다. 디지털 침입자들이 정원을 구경하러 오거나 관객을 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작가는 잔잔하게 노래하는 꽃들이 가득한 꽃길을 걸어볼 것을 제안한다.

뉴욕 → 창원수목원
New York → Changwon Arboretum

A visit to the Changwon Arboretum is a cosmic homecoming. At once welcoming and restorative, the arboretum is a living archive that contains patterns, rhythms, and cycles of the universe. Amid the geometry and harmonious vibrations are human routines of attention and care.

Cosmic WildflowAR is designed to be engaged with at the Changwon Arboretum and beyond. It proposes a harmonious interplay between our screens and our surroundings that includes rather than separates us from nature.

Cosmos flowers are known to thrive in many climates. As symbols of kinship, peace, tranquility and infinity, they invite us to push past perceived limits and signal that change is possible. Tap your screen to place Cosmos flowers in your surroundings. The garden you create is temporal, existing only while you are willing to give it attention. Digital interlopers will visit and enjoy your garden (and may even take you for a flower). Tune in and attune yourself as you wander about a chance composition of humming flowers.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3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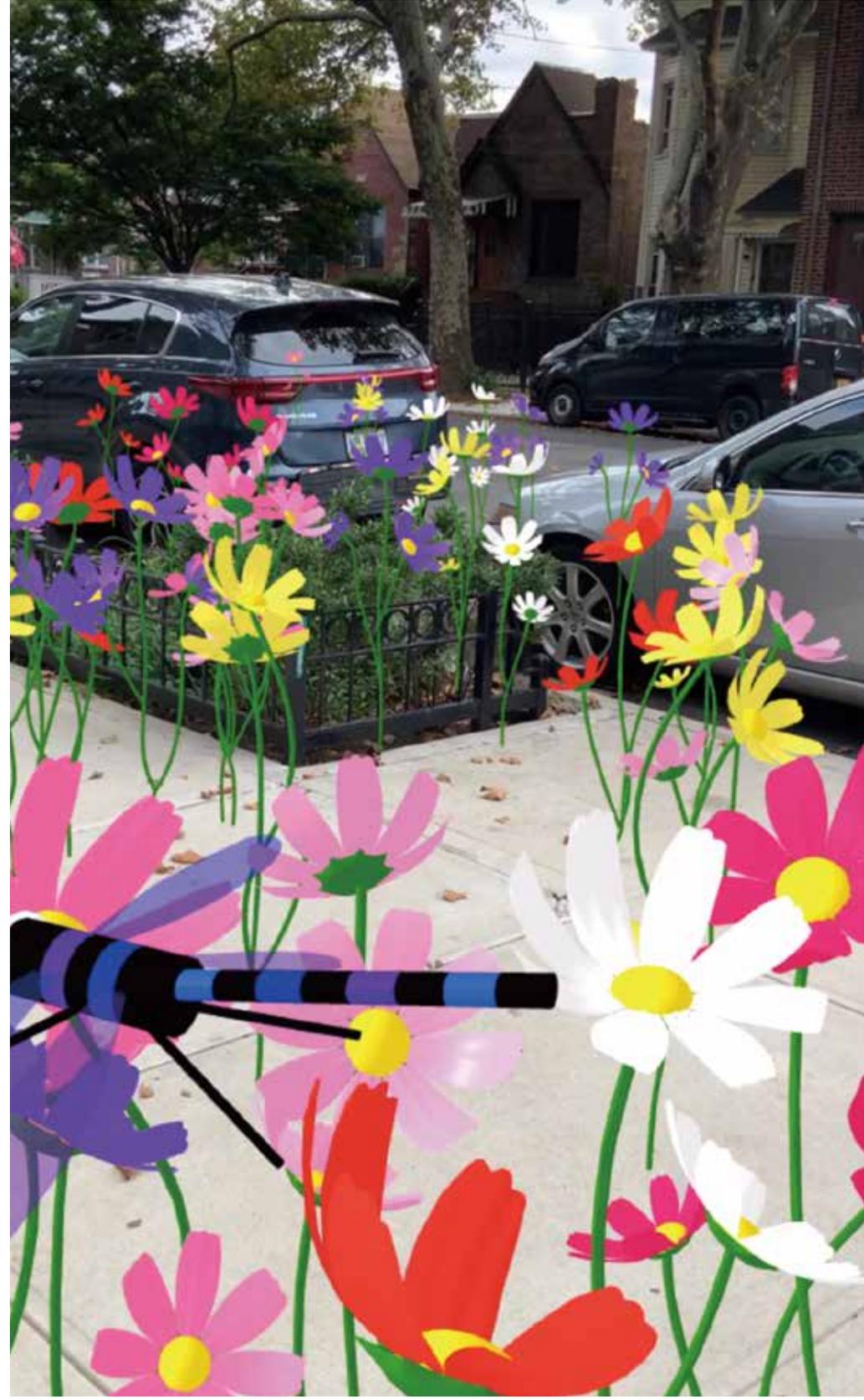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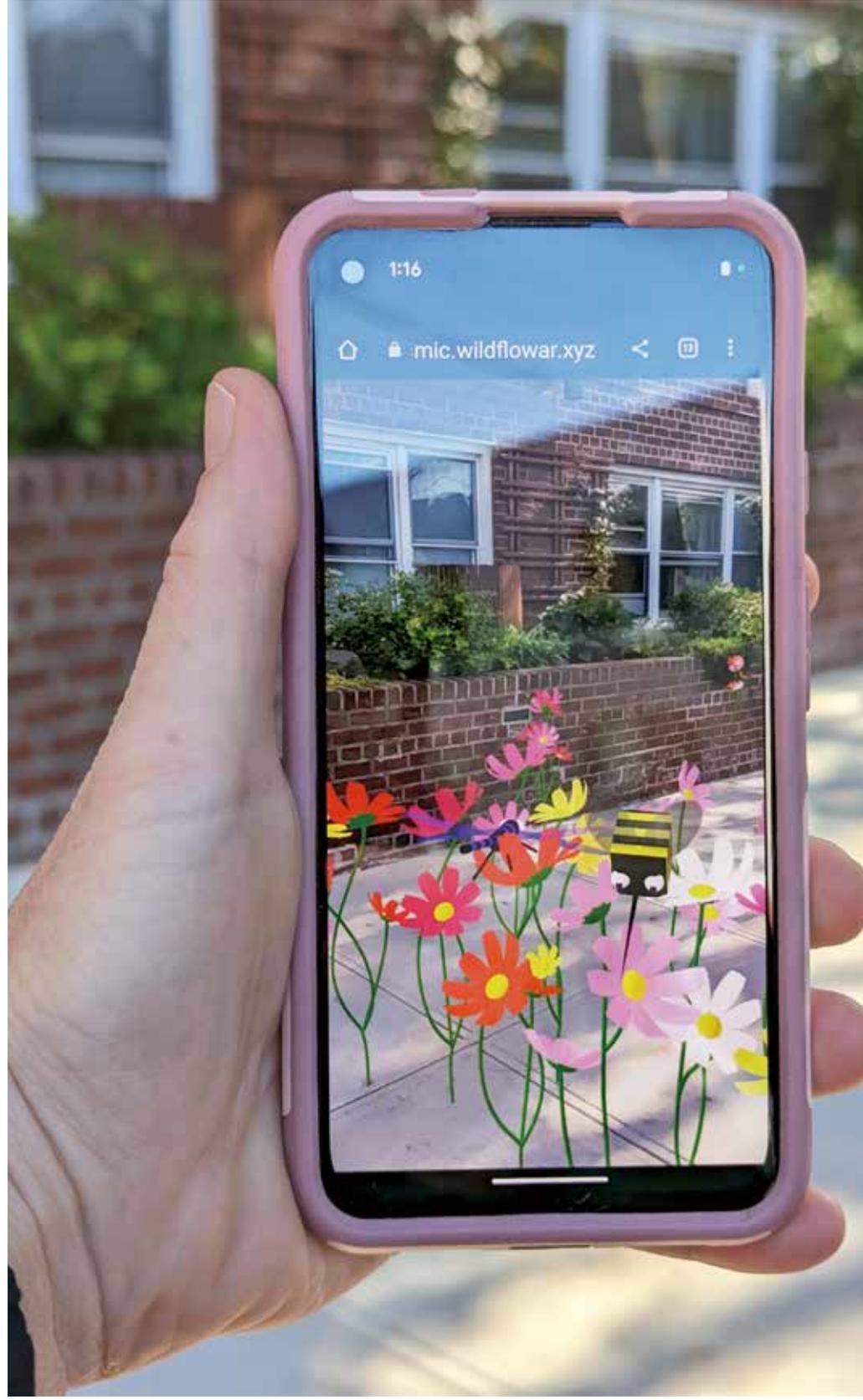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37



〈Cosmic WildflowAR〉, 2022
웹 AR

Cosmic WildflowAR, 2022
WebAR



마크 리 Marc LEE

(1969, 스위스)
스위스 크누트빌 출생
현, 스위스 에글리자우 거주 및 활동

(1969, Switzerland)
Born in Knutwil, Switzerland
Lives and works in Eglisau, Switzerland

엔비디아는 지난 2018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작가는 이 기술에서 영감을 얻어 인공지능이 만든 대량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몰입형 경험을 선사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얼굴들이 관객을 쳐다본다. 실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합성한 사진들이다.

입체적인 공간에 투영된 얼굴들은 관객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계속 회전하는데, 마치 SNS 프로필 사진을 연상시킨다. 오늘날 SNS 플랫폼들은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좋아요, 팔로잉, 팔로워 수 등 사용자의 관심사를 포착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 플랫폼은 전 세계인의 소통 및 정보접근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사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NVIDIA shook 2018 the world by showing how easily Artificial Intelligence can create ultra-realistic portraits of people who do not exist.

Friends leverag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offers an immersive experience experimenting with the massive amount of AI-generated content. By using a mobile phone, count-less faces are generated and stare at the user from any direction. All the ordinary looking portraits of people are fake: they are randomly generated by AI.

The portraits are projected into a navigable 3D environment and rotate so that they are constantly looking at the user, to reference social media profile images.

Today's social media users are constantly confronted by platforms that seek to profile their interests (likes, follower and follower counts...) in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40

341



한다. 작가는 SNS 플랫폼이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소화시킬 수 방법을 모색하며, 가짜 프로필을 무한정 생성해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속이고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order to generate endless profit. These platforms have become the world's de facto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ccess tools, the mediums through which we connect with each other and learn about the world. Platforms that are designed primarily to generate as much engagement and growth as possible. How can we better understand – and thus potentially withstand – how these systems influence who we are and what we do? What are the techniques of resistance? Should we spam our profiles with continuously changing fake content to manipulate their algorithms?

〈Friends〉, 2019~
인터넷 기반으로 설치된 인터페이스 모바일 앱

Friends, 2019~
Mobile App as interface for net-based installations

에글리자우 → 창원 성산아트홀
Eglisau Changwon Seongsan Art Hall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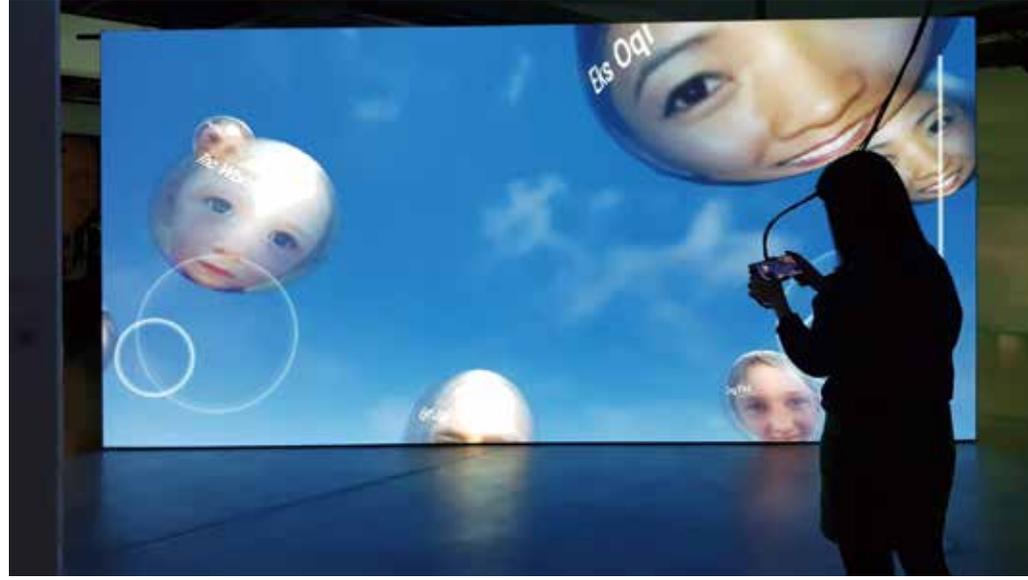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43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켄 리날도 & 에이미 영 Ken RINALDO & Amy YOUNGS

(1958, 미국 / 1968, 미국)

미국 뉴욕 출생
현, 미국 콜럼버스 거주 및 활동
미국 치코 출생
현, 미국 콜럼버스 거주 및 활동

(1958, USA / 1968, USA)

Born in New York, USA
Lives and works in Columbus, USA
Born in Chico, USA
Lives and works in Columbus, USA

〈Farm Fountain 4〉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실내 생태계에서 식용 및 관상용 어류와 식물을 키우는 설치 작품이다. 공중에 떠있는 분수 모양의 조형물은 펌프와 중력을 이용하는 아쿠아포닉스* 기반으로 한다. 물고기의 배설물은 분해과정을 거쳐 식물 뿌리에 영양분으로 공급되며, 식물과 박테리아가 정화시킨 깨끗한 물은 물고기에게 되돌아간다.

이 작품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수경재배 및 재활용을 아우르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2리터 플라스틱 음료병은 화분으로 사용되고, 물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되면서 식용 식물과 어류, 탈질균, 인간 간의 공생관계가 구축된다.

분수 시스템은 인간에게 산소, 빛, 식량을 공급하는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수경재배 중인 식물로는 양상추, 고수, 박하, 바질, 토마토, 쪽파,

Farm Fountain 4 is a system for growing edible and ornamental fish and plants in a constructed, indoor ecosystem. Based on aquaponics, this hanging garden fountain uses a pond pump and gravity to flow the nutrients from fish waste through the bacteria and plant roots. The plants and bacteria in the system serve to cleanse and purify the water for the fish.

This project is a natural solution to local, sustainabl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recycling. It utilizes 2-liter plastic soda bottles as planters and continuously recycles the water in the system to create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edible plants, fish, denitrifying bacteria, and humans.

The work creates a healthy indoor environment that provides oxygen and light to the humans and food. We are growing plants that include lettuces, cilantro, mint, basil, tomatoes, chives,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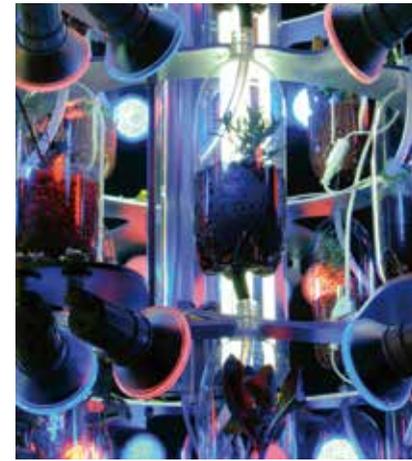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44

345

콜럼버스 → 마산 어시장
Columbus Masan Fish Market



파슬리, 겨자잎, 물냉이, 비타민 등이 있다. 어항 안에 있는 틸라피아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양식되어 온 어종으로 역시 식용이 가능하다. 작가들은 기능적인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설파한다.

전시장소는 마산 어시장으로 어류 남획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소망을 반영한다.

*
Aquaponics = Aquaculture + Hydroponics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방법, 친환경 농법이다.

parsley, mizuna, watercress, and tatsoi. Tilapia have been farmed for thousands of years in the Nile delta. While Farm Fountain is a functional artwork, it is also a philosophy that the artists wish to propagate.

We chose the Masan Fish Market given our concern for the overfishing of our oceans and a desire to construct workable solutions to feed our hungry planet.

〈The Farm Fountain 4〉, 2008
단채널 비디오, 혼합재료(아쿠아포닉스 정원, 물고기, 식용채소, 알루미늄, 수조, 마이크로컨트롤러, 펌프, LED 조명)
300×200×200cm, 4분 20초, 반복재생

The Farm Fountain 4, 2008
Single channel video, Mixed media (Aquaponics garden, Living fish, Bacteria, Edible vegetables, Aluminum, Acrylic fish tank, Microcontroller, Water pumps, Low power LED grow lights)
300×200×200cm, 4min. 20sec., Continuous



346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47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아델 린 Adelle LIN

(198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출생
현, 미국 브루클린 거주 및 활동

(1982, Malaysia)
Born in Singapore
Lives and works in Brooklyn, USA

코로나 팬데믹과 흑인인권운동 (BLM-Black Lives Matter)이 한창이던 2020년, 미국에 살고 있던 작가는 침묵하는 것이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동조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봉쇄조치로 집에 머무는 동안 그는 『동물의 숲』 게임 속에서 인종차별로 목숨을 잃은 흑인들을 기리는 추모관을 만들어 가상시위와 기금모금 행사를 주도했다. 오프라인 시위 참여가 어려운 격리자, 미성년자나 해외거주자 등 여러 유저들이 시위대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가상공간에 모였고, 총 1만1,000달러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작가는 전시장소로 한국전쟁 때 함경도에서 진해로 내려온 고 유택렬 화백이 운영했던 흑백다방을 선택했다. 흑백다방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던 시절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자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During the height of the pandemic and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2020, we (USA) were learning that to stay silent was to be complicit in the structures that are built to oppress.

Indoors and isolated, I turned to a familiar game, Animal Crossing, to build a memorial for black lives lost, which led to a protest and fundraiser. We raised \$11,000 USD, whilst giving those isolated in quarantine, too young to protest or overseas, a way to show up in solidarity.

Space for expression is critical, such as Black and White Coffee Shop during the Korean war, when artistic practice was repressed and banned. Then, the owner defected from North Korea, creating this safe haven for artists to exchange ideas and hold events, pioneering the Jinhae art movement.

To capture the moment, I begin the soundscape of the artwork with a remix of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48

349



해왔다.

작가는 현장감을 주기 위해 실제 BLM 시위 당시 음성과 현장음을 리믹스하여 배경음으로 사용했고,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음을 소거하여 ‘들리지 않는 외침’을 표현했다. 가상 시위대는 억압을 상징하는 비좁은 공간을 한 줄로 이동하며 추모관에 입장한다. 이들은 함께 모여앉아 한 시간 가량 마음이 정화될 때까지 구호를 외친다. 분노, 절망, 침묵이 이어지지만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spoken word and recordings from protest live streams. Then, transition to silence at the height of the protest, reflecting how it can often feel like shouting into a void. Protestors arrive, walking single-file through a narrow enclosed section, embodying feelings of oppression, before reaching the memorial. Together we sat, usually for an hour, shouting and emoting, until we felt catharsis. There was rage, despair, silence, yet closeness, as we held space for each other and the rest of the movement.

〈Animal Crossing BLM Protest〉, 2021
실시간 이벤트 기록, 비디오 리믹스
6분 4초

Animal Crossing BLM Protest, 2021
Video remix of live event documentation
6min. 4sec.

브루클린 → 진해 흑백다방
Brooklyn Jinhae Black and White



가이아 린드라 Gaia LEANDRA

(1990, 이탈리아)
이탈리아 스카파티 출생
현,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주 및 활동

(1990, Italy)
Born in Scafati, Italy
Lives and works in Barcelona, Spain

인간이 없는 지구를 상상해보자.
항해에 나선 선박의 소음조차 없는 그런
행성 말이다.
산에는 얼음이, 바다에는 생명이 넘치며,
일년 내내 벚꽃이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그
속내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왜 지구가 인간을 보살피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이 병든 자연을
치유한다고 지레짐작하는가? 인간은
오로지 균형을 통해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생성하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지구는 변이하고 재적응한다. 원시
지구엔 산소를 만들어 낸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인체생리학상의
질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 인간은 자신의 주변과 몸속에

Think of the planet empty of humans.
without the delay noise of ships on
voyage.
The mountains full of ice and the sea full
of life.
the cherry blossoms existing all year
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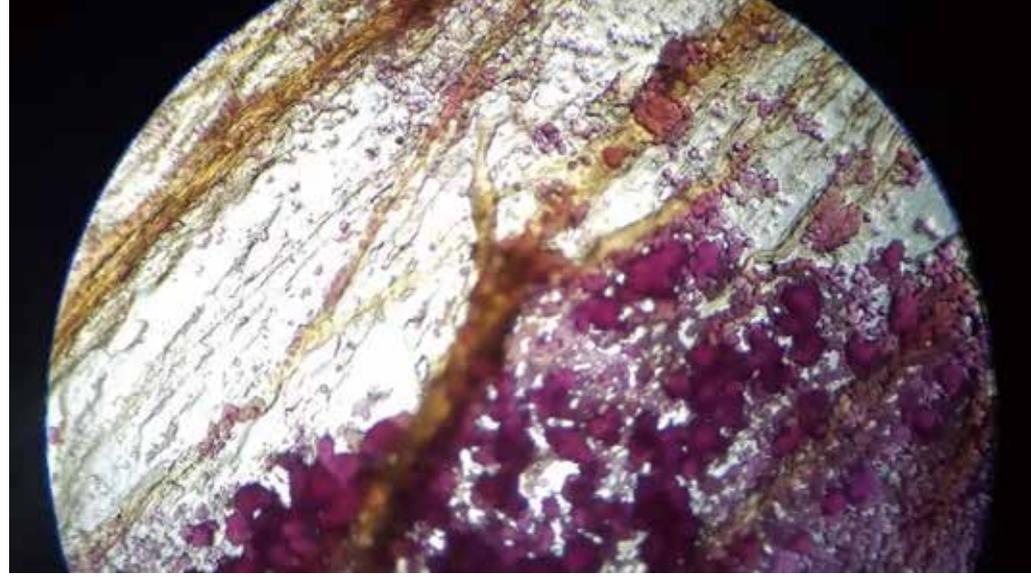
Sara nice when the imperialist invasion of
human beings will let express.

Why do humans presume to cure a
sick earth? Why do they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vision of a planet taking
care of us? Only equilibrium makes the
survival of humans possible. We humans
do not destroy the earth. It is our way
of life that generates large quantities of
waste changing our planet. The planet
mutates. It readapts. From all its cycles.
From our cyanobacterial ancestors that
generated an atmosphere with oxygen,
to a pulmonary asphyxy of the human



있는 미생물 등 미시세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인간의 생존 기반이
확보된다.

physiology. We undervalue the invisible
micro-world, organisms that surround us,
that we are and have in our bodies, and
whose balance creates the conditions for
our survival.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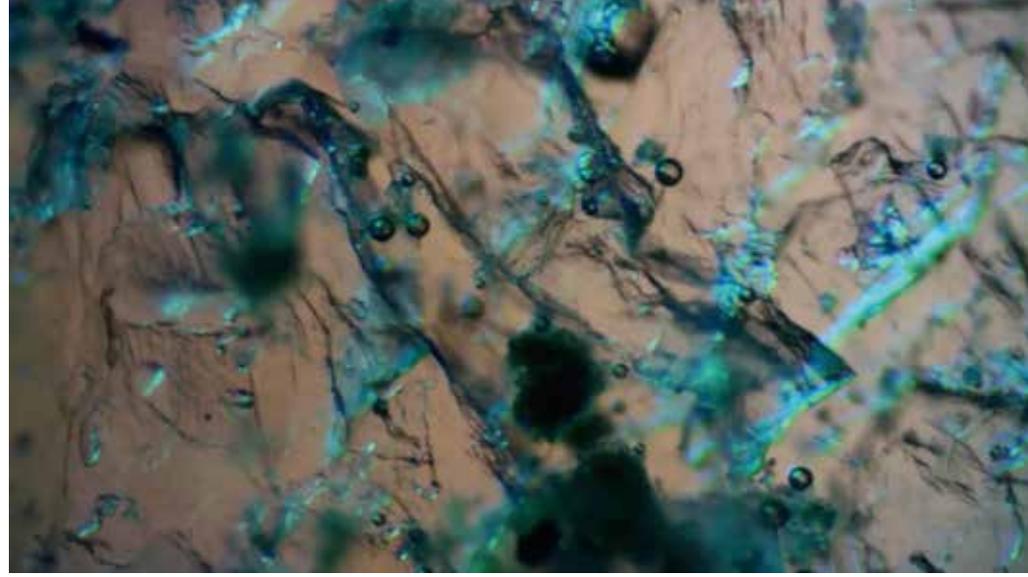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55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폴 맥레논 Pól McLERNON

(1975, 아일랜드)
아일랜드 벨리미나 출생
현, 아일랜드 케리 거주 및 활동

(1975, Ireland)
Born in Ballymena, Ireland
Lives and works in Kerry, Ireland

〈ANU〉는 깊은 차원의 프로세스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물권의 위, 아래, 낯설음, 매력, 진실과 아름다움의 메신저에 대한 작품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개체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 개체를 자신에게 통합시킨다.

전시장소인 주남저수지의 광활한 습지는 작가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일랜드의 풍경을 많이 닮았다. 아일랜드 시인인 세이머스 히니가 말한 것처럼 습지는 대이동이 벌어지는 장소이자 모든 역사의 보고일지도 모른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습지의 끝없이 깊은 중심부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식도 흐른다. 습지는 작가가 자신의 상상을 키우고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작가에게 있어 시적 상상과 ‘sympathetic vibration’의 개념이 결합되는 지점이자, 인생이라는 큰 태피스트리에 연대감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곳이다.

This work is concerned with processes at a deep level and the messengers of of up, down, strangeness, charm, truth and beauty, from the entangled realm of living things. Any one entity incorporates into itself in some sense all the other entities in the universe.

The choice of an extensive wetland mirrors in many respects, the Irish landscapes in which I have simultaneously known and lost time. These wetlands are scenes of great migrations and the repository for all history perhaps, as Seamus Heaney wrote. Deep in their wet bottomless centres knowledge is transmitted across time, to paraphrase his words. Here is where I would gravitate to in the region to nourish and forge and protect my imagination. It is the point at which poetic imagination and the idea of sympathetic vibration coalesce for me. This is where kinship would be most beautifully woven in a great tapestry of life.

케리 → 창원 주남저수지
Kerry Changwon Junam Reservoi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5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57



〈ANU〉, 2010
플라스틱 인형 머리,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
변압기 구리선
49×12cm

ANU, 2010
Plastic doll head, Stainless steel rod, Copper wire
recovered from a transformer
49×12cm

존 멜빈 John MELVIN

(1976, 미국)
미국 오클랜드 출생
현, 프랑스 폰타벤 거주 및 활동

(1976, USA)
Born in Oakland, USA
Lives and works in Pont Aven, France

〈The Water is Life〉는 인위적 정동(晶洞), 물보전, 소비재 업사이클링에 대한 은유적 담화에서 비롯된 〈Water Projects〉 연작 중 하나이다. 연작은 유리판과 수지층으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자동차 전면 유리의 업사이클링, 수자원 정치에 대한 토템, 생명인 물, 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사용, 막대한 양의 공공용수 공급이 필요한 채굴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조망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한데 모여 후대를 위한 인류세의 토템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비엔날레 기간 중 주남저수지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공개되며,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미래 세대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The Water is Life is part of a series of works, *Water Projects*, that are inspired by a metaphorical conversation on anthropogenic geodes, water conservation, and upcycling of consumer commodities. Specifically, the series is investigating; the use of upcycling automobile windshields, a difficult to recycle product as it's often a composite of glass and resin; making a totem to water politics, water is life, and in our modern world, it is increasingly being privatized and commodified, witness single use plastic water bottle consumption, extraction economies requiring vast amounts of public water, etc, etc; and finally, all these things combined to produce a totem to the Anthropocene for a future audience to discover.

In the context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the artist

폰타벤 → 창원 주남저수지
Pont Aven → Changwon Junam Reservoi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58

359



imagines the sculpture to be visited via augmented reality suspended above Joonam Reservoir/Wetland, employing 'AR' filters to disseminate its message. This strategy immediately brings the conversation forward and proposes questions of what we are doing as a species in the contemporary moment to adapt to climate change, and how are we making the world a safer and better place for future generations of all life.

〈Water is Life〉, 2022
3D 디지털 렌더 이미지, AR

Water is Life, 2022
3D digital render image, Augmented Reality



360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61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 Kerem Ozan BAYRAKTAR

(1984, 튀르키예)

튀르키예 이스탄불 출생
현, 튀르키예 이스탄불 거주 및 활동

(1984, Türkiye)

Born in Istanbul, Türkiye
Lives and works in Istanbul, Türkiye

〈Respiration〉은 모래, (모래로 만들어진) 유리, 물, 금속조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수조 안에는 살아있는 생물 대신 금속 블록들이 쌓여있다. 블록들이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미시 지형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작품은 생물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자연 그 자체로 볼 때 겉과 속의 차이를 두는 기존의 관점을 재고하게 한다. 산업생산의 잔재물인 금속 블록은 산업현장에서 가져왔다. 중공업 현장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블록들은 환경문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작품명인 ‘호흡(respiration)’은 기계의 핵심소재인 금속이 산화된 결과이다. 작가는 지난 2002년 수질악화로 폐쇄되었다가 하수처리 정비사업 이후 재개장한 광암해수욕장에서 영감을 얻었다.

해변과 모래알은 어떠한 자연적 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그 법칙은

Respiration consists of sand, glass (which is a different form of sand), water and metal. There are metal cubes in the aquarium, which are usually filled with living organisms. Rusting occurs as these cubes breathe. Rust changes the color of water and sand, and directly "makes" the atmosphere of this micro-geography. The work invites us to rethink our model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when we look at living things as the environment itself, not as parts of it. The metal cubes, which are remnants of industrial produc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dustrial site. In addition to heavy industry's memories, they carry environmental relations as well. "Respiration" is the result of oxidation of iron, which is the primary component of machines. Through this work, we draw inspiration from Changwon-si beach, which was polluted in 2002 and later

이스탄불 → 마산 광암해수욕장
Istanbul Masan Gwangam Beach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6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63



인간이 만든 기계와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subjected to a different feedback chain with sewage treatment.

What are the mechanics of the beach formation? By what natural machines are sand grains formed? How do they differ from human machines? What are they made of?

〈Respiration〉, 2019
모래, 물, 철조각
40×80×60cm

Respiration, 2019
Sand, Water, Iron
40×80×60cm



364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65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마샤 바이츠만 Marcia VAITSMAN

(1973, 브라질)

브라질 nilópolis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73, Brazil)

Born in Nilopolis, Brazil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작가는 뫼비우스의 띠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사유한다. 뫼비우스의 띠는 이중성, 연결성, 시공간 연속체, 복잡성, 안팎의 구분, 자기와 타자, 이동, 생활주기, 재활용, 유동성 등의 개념을 아우르는 도형이다. <Game of Six Senses> 최신작은 이들 주제를 살펴본다. 먼 옛날 지구가 탄생한 이야기부터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과학과 예술의 무한한 잠재력까지 떠올려보며 금세기 끝없이 발생하는 위기를 세계가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나아가 인간이 복잡성을 규명하고 미래를 그리며 현재에 기여하고 과거에 대처하며 타 존재들을 존중하고 현실을 만들어가며 꿈을 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The symbology surrounding the Moebius strip keeps coming back to my attention by chance. In a simple way, this form works quite well to represent duality, connection, space-time continuum, complexity, relationships between outside and inside, self and others, transfer, life cycles, recyclability, fluidity. In the new version of *Game of Six Senses*, we will visit these work themes together. From all the ancient tales about how the world comes to be to the vast potentials of science and art to keep us alive, how will the world bounce back from so many crises we are experiencing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베를린 → 진해 드림파크
Berlin Jinhae Dream 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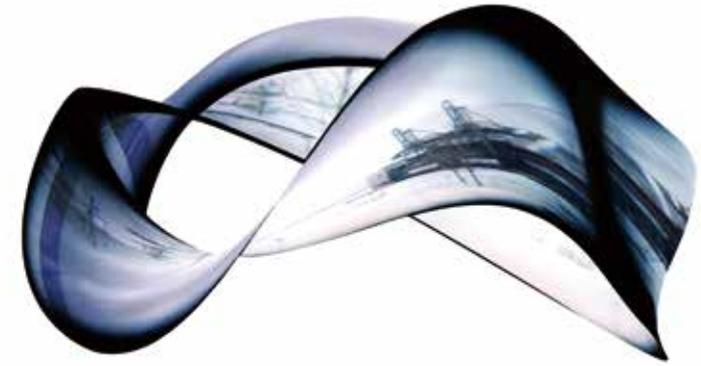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6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67



인간은 어떻게:

- 복잡한 것을 해결하는가?
- 미래를 생각하는가?
- 현재에 충실하는가?
- 과거를 대처하는가?
- 다른 존재를 여기는가?
- 현실을 구체화하는가?
- 꿈꾸는가?

How do we humans:

- Address complexity?
- Imagine the future?
- Contribute to the present?
- Cope with the past?
- Respect other existences?
- Shape reality?
- Dream?

<Game of Six Senses>, 2022
참여형 온라인 게임

Game of Six Senses, 2022
Participatory work, An online game



IN RESPONSE TO THE IMAGE OF DUALITY, THEME
PRESENT THROUGHOUT THE CHANGWON INTERNATIONAL
SCULPTURE BIENNALE 2022, MARCIA VAITSMAN
PROPOSES THE GAME OF SIX SENSES, INSPIRED BY THE
MOEBIUS STRIP, WHICH CARRIES MUTATION, COMPLEXITY
CONTINUITY AND BECOMING.



GAME OF SIX SENSES



빅토리아 베스나 Victoria VESNA

(1959, 미국)

미국 워싱턴 DC 출생
현, 미국 뉴욕, 로스엔젤레스 거주 및 활동

(1959, USA)

Born in Washington DC, USA
Lives and works in New York, Los Angeles, USA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는 7개의 운석이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강타한다는 내용의 몰입형 증강현실 작품이다.

우주진(宇宙塵)은 굵기가 인간 머리카락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일일 70~100톤에 달하는 양이 지구로 유입된다. 유성진의 발견과 관찰은 현미경이 발명된 이후 줄곧 과학계의 관심사였다.

우주진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현대사회의 문제로 여겨지는 미세먼지를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엌 바닥에서 우주의 먼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일상을 살아간다. 외계의 신호가 인간의 소음에 의해 단절되어 버린 것이다.

작품의 중요한 요소인 사운드는 우주의 신호에 인간이 내는 소음과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믹싱하였다. 여러 겹으로 쌓인 사운드는 공간을 에워싸며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is an immersive projection / AR artwork that focuses on seven meteorites falling on every continent on our Planet Earth.

Star dust is as small as 1/10th of a width of a human hair but 70-100 tons of this extra-terrestrial material falls on Earth every single day. Finding and observing these micrometeorites has been a fascination for scientists since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When we look for star dust, we mostly find a mix of pollution particles that could be seen as a portrait of our globalized society. Most go about their daily life without being aware or ever thinking about the extraterrestrial dusts that could be on their kitchen floor, right here on Earth. The alien signal is lost in the human noise.

Audio is a critical part of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 layers of signals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70

371

뉴욕, 로스엔젤레스
New York, Los Angeles

→

창원 성산아트홀
Changwon Seongsan Art Hall



관객의 경험을 극대화시킨다.

from space mixing with human-made noise and melodies of various cultures envelop the space further amplifying the experience of the dust complexity.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2020
단체널 비디오, AR 엽서
7분 22초

Alien Star Dust: Signal to Noise, 2020
Single channel video,
Augmented Reality (AR) postcards
7min. 22sec.



372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73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쿠스 부이스트 Koos BUIST

(1984, 네덜란드)

네덜란드 흐로닝언 출생
현, 네덜란드 흐로닝언 거주 및 활동

(1984, the Netherlands)

Born in Groningen, the Netherlands
Lives and works in Groninge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어로 ‘도랑’을 뜻하는 ‘sloot’은 국토의 대부분이 저지대인 네덜란드에서 유량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 구조물이다.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년 준설작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활동, 특히 <SLOOT>에는 ‘sympathetic vibration’의 개념이 짙게 배어있다. 영상이 촬영된 네덜란드 흐로닝언의 전원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내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은 인간의 과도한 토지이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작가는 전원지역의 배수로에서 생명과 생물다양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수중경관 속 미생물들의 원시적인 형태는 흐로닝언의 고대 문화경관과의 연결고리를 제시한다.

A Sloot is a man-made waterway a ditch essential for water regulation in the Netherlands. To guarantee the flow of water in the ditches, they are required to be dredged clean every year. With my work in general and the participating film *SLOOT* in particular, I endorse the idea of Sympathetic Vibration. The Netherlands, and the countryside of Groningen where this film was shot is almost completely cultivated. Every square meter seems to serve the people who live there. Alarm bells have been ringing for years that our intensive use of the land is destroying all biodiversity.

The Film *SLOOT* dives into the ditches of this Countryside, it is in this underwater landscapes where we find a whole other world, full of life and diversity. The 'micro' organisms that life in the ditch tell a story that connects the ancient cultural landscape of Groningen with primordial nature.

In connection to the water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seems like the best location for this work.

흐로닝언 →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
Groningen Jinhae NFRDI Environment Eco-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374

375



<SLOOT>, 2015
단체널 비디오
14분 22초

SLOOT, 2015
Single channel video
14min. 22sec.



376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77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아감 슈레사 Agam SHRESTHA

(1984, 네팔)
네팔 박타푸르 출생
현, 네팔 카트만두 거주 및 활동

(1984, Nepal)
Born in Bhaktapur, Nepal
Lives and works in Kathmandu, Nepal

내륙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바다
끝에서 있는 자신을 가끔 상상한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작가는 휴일이 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광암해수욕장 같은 해변을 찾곤
한다. 해변은 물질적이거나 순간적인
행복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간이 온전한
심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다.

네팔 작가의 작품이 한국에서 열리는
전시에서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출신국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물리학에서도 다뤄지는 개념이며,
정신과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고대에 하나의 지고한 영혼으로부터
비롯되었다.

〈Beyond the Horizon〉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Sometimes, I imagine myself in a margin
of a sea. I'm from a landlocked country;
however, I used to imagine, gazing over
the horizon, in a search of my “own.”

Like GwangamBeach, Sea beaches are
favourite place to hang-out with friends,
family, to spend holidays, to enjoy. But far
from these materialistic and momentary
happiness the beaches are blessed with
deep spiritual values too where we can
discover absolute joy for our soul.

I'm from Nepal, the exhibition is
going on in South Korea, visitors may be
from different countries, we all ar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is world; however,
we all are same, we are human beings.
Physical science also explains about the
connectedness of human beings whereas
Spiritual Science has revealed the reality
of us from then ancient times, that we all
are souls being departed from the same
supreme soul.

카트만두 → 마산 광암해수욕장
Kathmandu Masan Gwangam Beach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78

379



수평선 너머를 동경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찾으려는 이의 대조를 통해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 wished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knowledge of spirituality in my work
which can lead us towards the absolute
happiness.

In my work, a group of bounded
people are being busy enjoying this
materialistic world but at the other end a
person is searching for his “own” world
gazing beyond the horizon...

〈Beyond the Horizon〉, 2022
청동, 나무받침대
22×50×30cm

Beyond the Horizon, 2022
Bronze, Wooden pedestal
22×50×30cm



380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81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캐트 스콧 Cat SCOTT

(1993, 영국)
영국 브래드퍼드 출생
현, 영국 브래드퍼드 거주 및 활동

(1993, UK)
Born in Bradford, UK
Lives and works in Bradford, UK

〈Inner Horizons〉는 물방울 안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작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인간이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양수에 잠겨있는 자궁 속 태아부터 심연과 우주의 깊이까지 어찌 보면 우주는 하나의 큰 물방울이다.

작가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창동예술촌 골목에서 마치 물방울 안을 탐구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꼈다.

What would it sound and feel like to be inside of a bubble?

Step inside a deceptive, inner landscape of a scale that we, as humans, cannot usually physically experience ourselves.

From our first experiences submerged in the womb, to the depths of the abyss and outer space - is the universe one big bubble? Inner Horizons is connected to the Art Centre in Changdong Art Village, because like stepping inside of a bubble, it captures the immersive experience and atmosphere of the Changdong Art Village, during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브래드퍼드 → 마산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Bradford Masan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8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83



ACC.ACI, photo by Sarah Kim

〈Inner Horizons〉, 2019
단채널 비디오, 멀티채널 버블 시스템,
사운드스케이프, 사운드 시스템, LED, 전자기기,
마이크로컨트롤러, 유압장치, 밸브, 공기펌프,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트리, 튜브시스템, 3D프린터
제조 부품, 글리세린 오일
201.9×91.3×105.1cm, 1분 38초

Inner Horizons, 2019
Single channel video, Multichannel bubble system,
Soundscape, Sound system, LEDs, Electronics,
Microcontroller, Hydraulics, Valves, Air pumps, Plastic,
Stainless steel, Tubing, 3D printed components,
Glycerin oil
201.9×91.3×105.1cm, 1min. 38sec.



384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85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엘리사 스토렐리 Elisa STORELLI

(1986, 스위스)
스위스 브리싸고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86, Switzerland)
Born in Brissago, Switzerland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예술은 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는 수단이다. 완성된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흥미 유발이라는 목적 외에도 예술커뮤니티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의 생존에는 교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흑백다방 같이 예술교류에 최적화된 물리적 문화공간들이 빗장을 걸어 잠가야 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봉쇄조치 하에서 작가는 우편예술 기법을 빌려 디지털 세계에서 운문형식으로 지식을 나누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상업적 이익이나 시장경제 틀 밖에서 예술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었다.

<vorstellen.network>는 디지털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시적 서술을 담는

Creating art is not just the production of the artwork, it is also a way of collecting and sharing knowledge. The public event to show the finished work is not just entertainment for the public, but also a way to connect to the artistic community. Exchange is fundamental to the livability of the arts across fields. Generally locations such as Black & White Coffee Shop, serve this purpose well,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ough physical cultural hubs were not available.

During the first shut down in 2020, inspired by various technique used in mail art, we decided to create a situation in the digital realm where the sole purpose is sharing knowledge in poetic forms. We were interested in developing an online tool that could canalise artistic exchange outside of corporate interests and market driven economies.

vorstellen.network is a platform

본 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38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387



수행 툴로 제작되었다. 이 플랫폼이 살아 숨쉬는 네트워크가 되어 하나의 스크린에서 다른 스크린으로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

where artists can support new modes of interaction through digital writing. It is intended as a performative tool for poetic narrations. We long for it to create a living network that can flourish and illuminate from one screen to the other.

다미르 아브다직 Damir AVDAGIC

(1987, 노르웨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바냐루카 출생
현, 노르웨이 오슬로 거주 및 활동

(1987, Norway)
Born in Banja Luka, Bosnia & Herzegovina
Lives and works in Oslo, Norway

〈Prolazi Izmedju 1980-2021 (Passages between 1980-2021)〉에는 어린 시절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한 5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전쟁의 전후상황을 담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증언들을 시간 순으로 낭독한다. 낭독 중에는 서로 끼어들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공통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이 작품은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 숨쉬고 있는 공간인 마산의 국립 3·15 민주묘지에 전시된다.

In *Prolazi izmedju 1980-2021 (Passages between 1980-2021)* Avdagic works with five people who came to Norway as child refugees in the 1990s during the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They perform testimonies from the period 1980–95 that chronologically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in the former Yugoslavia and which stem from members of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generation. During the presentation, the participants interrupt their roles and alternate between languages. They explore the history they have in common by sharing experiences regarding to national, political and social affiliation. The work is presented in Masan March 15th National Cemetery, as it brings up themes of commemoration and how past events continue to echo in the present.

오슬로 → 마산 국립 3·15 민주묘지
Oslo → March 15th National Cemetery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90

391



〈Prolazi Izmedju 1980–2021〉, 2021
단체널 비디오
32분 41초

Prolazi Izmedju 1980–2021, 2021
Single channel video
32min. 41sec.



392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공명

393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알퍼 아이딘 Alper AYDIN

(1989, 튀르키예)
튀르키예 오르두 출생
현, 튀르키예 오르두 거주 및 활동

(1989, Türkiye)
Born in Ordu, Türkiye
Lives and works in Ordu, Türkiye

〈Breath Project〉는 산소를 흡수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숨으로 식용식물을 키우는 설치작품이다. 작가는 식물에 불어넣는 자신의 숨을 통해 자신의 존재, 즉 인간이라는 상태를 인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인간의 신체상으로도 볼 수 있다. 종모양의 유리병 속에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채소가 인간의 숨과 물로만 자라나고 있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입되며, 인공조명은 하루 12시간 동안 점등되고, 나머지 12시간은 소등된다. 유리병의 크기는 안에 담긴 식물의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다. 작가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자연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새로운 자연을 일구고자 한다.

With this project, Alper Aydın is trying to grow edible plants with the human breath using the process of absorbing the oxygen that gives life to the body and turning it into carbon dioxide. The breath that emerges from the body in the work is what makes the artist feel his own existence and hence the condition of being human. In this sense, the project takes place as a body image against the human being. In the project, basic vegetables necessary for human life are grown in the bell glasses using air from human breathing and water. Carbon dioxide is given as needed in intervals based on observation, and the room that they are in is 12 hours night and 12 hours day, illuminated with artificial light. The size of the bell glass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lants. While asking the question of whether he can create nature from his own body through human actions, Aydın tries to create a new nature where he can meet his own needs to replace the nature he has destroyed.

오르두 → 마산 돌섬
Ordu Masan Dotseom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394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95



〈Breath Project〉, 2018~
나무 테이블, 흙, 나트륨 등, 고무호스, 물, 식용 식물
178×150×100cm

Breath Project, 2018~
Wooden Table, Metal, Soil,
Sodium vapor fluorescent Lamp, Plastic hose, Water,
Variable varies of edible plants
178×150×100cm



396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397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바네사 알버리 Vanessa ALBURY

(1978, 미국)
미국 내슈빌 출생
현, 미국 뉴욕 거주 및 활동

(1978, USA)
Born in Nashville, USA
Lives and works in New York, USA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은 코랄프로젝트의 수중 에코현대미술 전시에 대한 배경정보와 마산만 돌섬 해안에서 전시회 개최를 제안하는 영상 콜라주 작품이다. 영상에는 돌섬 해안과 연계될 친환경적이고 해양친화적인 수중 작품 스케치안들이 담겨 있다. 제안된 조형작품들은 해수면 위에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날뿐만 아니라 여러 해양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굴과 홍합 개체군을 지원한다. 석기와 유리로 구현된 조형물들에는 현지 지표종이 유리로 구조되어 있으며 흡사 영사기의 빛에 타버린 낡은 필름조각들을 방불케 한다.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is a video collage of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Coral Projects' underwater eco-contemporary art exhibition and a proposal of a site for the show in the Masan Bay along the shore of Dot Island. The proposal will include sketches of my proposed eco-friendly and ocean-friendly underwater artworks for the site. The artworks will also be visible above the sea level. The eco-contemporary art sculptures are proposed sites for supporting new oyster and mussels populations, which are excellent water purifiers, as well as homes for other sea life. The sculptures are ceramic stoneware and glass, resembling enlarged and ossified film pieces burned in a projector's lightfall with cast glass elements of local indicator species embedded on them.

뉴욕 → 마산 돌섬
New York Masan Dotseom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398

399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2021
단체널 비디오, 주물 유리, 석기
243×548×365cm, 18분 10초

Coral Projects: Rewilding a Painted Ocean (Dot Island) Proposal, 2021
Single channel video, Cast glass, Stoneware
243×548×365cm, 18min. 10sec.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로라 어코스타 & 산티아고 타베라 Laura ACOSTA & Santiago TAVERA

(1988, 캐나다)
콜롬비아 보고타 출생
현, 캐나다 몬트리올 거주 및 활동

(1988, Canada)
Born in Bogota, Colombia
Live and work in Montreal, Canada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는 매혹적이고 관능적이지만 동시에 그로테스크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피부결과 무정형의 신체들로 이루어진 가상세계를 그린 설치 작품이다. 작가들은 피부를 그 동안 살아온 흔적과 축적된 기억의 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역으로 바라본다. 흔적과 기억은 피부라는 영역의 지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변화시킨다. 자연을 닮은 인간의 피부는 식민지배로 인한 이종교배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억압과 회복의 역사 또한 안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막인 피부는 지리적 장소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지형인 셈이다. 이 작품은 중원로터리에 설치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중원로터리 일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픈 역사가 건축물과 지형 곳곳에 서려있다.

Episode 1: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is a virtual world that presents a landscape made up of skin textures and amorphous bodies, both alluring and sensuous, yet grotesque and uncanny. This work explores skin as a territory, composed of layers of lived experiences and accumulated memories which continuously shape and transform its topography. Our skin, similar to the natural landscape, bears the marks of the crossbreeding processes of colonialism, as well as histories of both oppression and resilience. This living membrane is then a terrain in itself, which transforms and adapts over time like a geographical ground. This piece takes a special meaning being placed at the Jungwon Roundabout, as this is a place with layers of colonial history and dramas, all invisible now but encompassed in its architecture and topography. This space -like the virtual

몬트리올 → 진해 중원로터리
Montreal Jinhae Jungwon Rotary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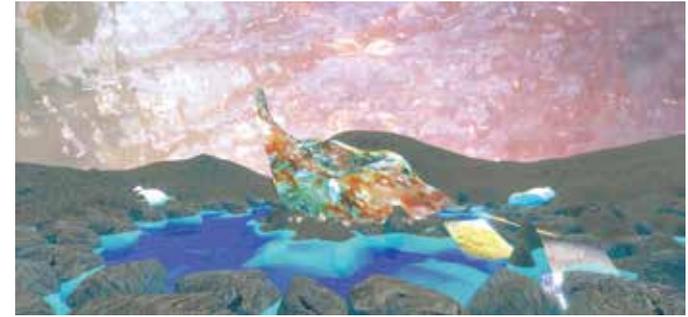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0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03



몽환적인 느낌의 이 가상 작품은 그 특이성과 정체성이 물리적 형태 속에 녹아있는 하나의 장소이자 몸이다.

작가들은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콜롬비아와 캐나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향해 준 군사적 진압에 나섰고, 시위 도중 실종된 이들이 시신이 훼손된 채로 강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옛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원주민 아동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무덤이 발견되어 원주민 탄압의 과거사가 재조명되었다. 시청각적 요소들은 실종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들을 풍경에서 잊혀지게 만든 잔혹한 만행을 거부한다.

piece- is at once a site and body that carries its idiosyncrasy and identity in its physical features.

Additionally, this work aims to bring awareness to human right violat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Colombia and Canada. Such as the paramilitary repression of citizens who have gone missing and then appeared dismembered in rivers and pits. As well as, the ongoing repression of Indigenous people in Canada, as demonstrated by the mass graves of indigenous children discovered in residential schools throughout the country. Through an audio-visual experience, this work rejects how these grotesque brutalities have turned these missing individuals into mere bodies that were to be forgotten within the landscape.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2021
단체널 비디오
6분 30초

When the River Sings, Stones It Brings, 2021
Single channel video
6min. 30sec.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돈 에들러 Don EDLER

(1988, 독일)
독일 브레멘 출생
현,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및 활동

(1988, Germany)
Born in Bremen, Germany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USA

〈Untitled (Mammoth Video)〉는 초기 인류와 매머드의 조우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4만 여 년전 유라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인류의 매머드 사냥이 지구 환경에 미친 잠재적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질문한다. 작가는 관객이 화석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자동차들에 둘러싸여 작품을 감상하거나,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소로 중원로터리를 선택했다. 매머드를 향한 작가의 호기심은 화석연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되짚어보다 시작되었다. 작가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사냥이 매머드가 살았던 마지막 빙하기의 종식을 가져왔다는 학설을 상기시키며,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이 현 인류세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작가는 인터넷에서 찾은 매머드에

This work questions human's relationship to the "natural environment" by exploring new theories around early human-mammoth encounters, and how humans hunting mammoths in Eurasia 40,000 years ago may have had significant global environmental consequences. I chose to place this work in the Jungwon Rotary because I liked the idea of being surrounded by fossil-fuel burning cars while watching the video, or that potentially cars themselves may watch the video. I first began studying mammoths while researching the beginning of modern human's obsession with fossil fuels. I was interested to learn that human overconsumption of mammoths may have triggered the end of the last ice age, the age of mammoths, just like our overconsumption of fossil fuels may wind up ending our current anthropocene, the age of humans.

로스앤젤레스 → 진해 중원로터리
Los Angeles Jinhae Jungwon Rotary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0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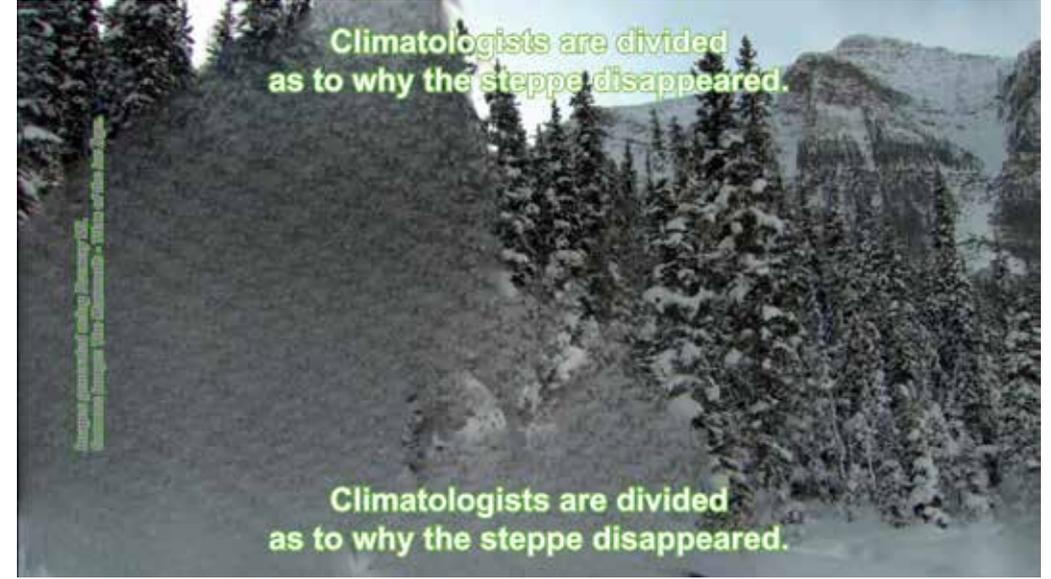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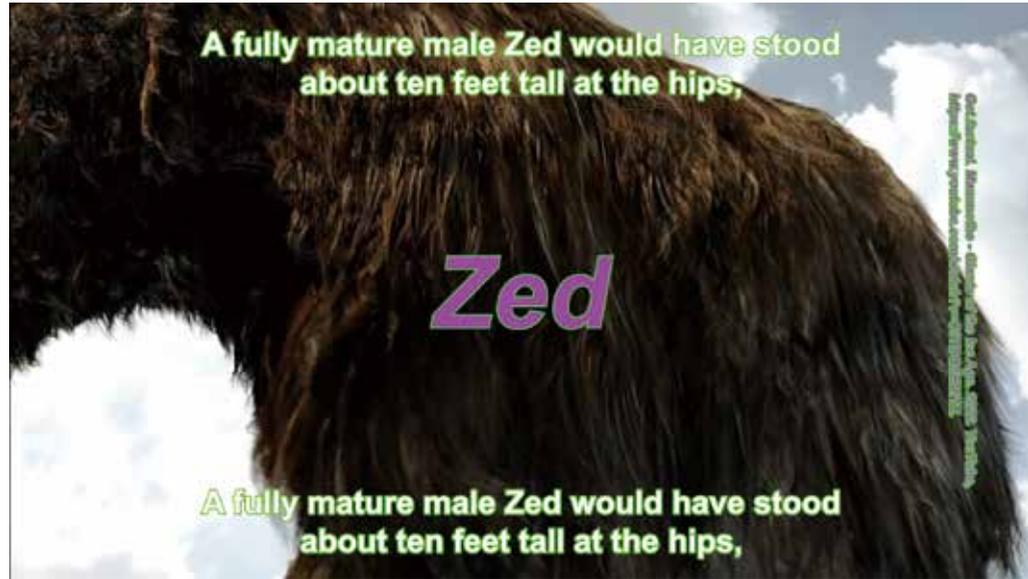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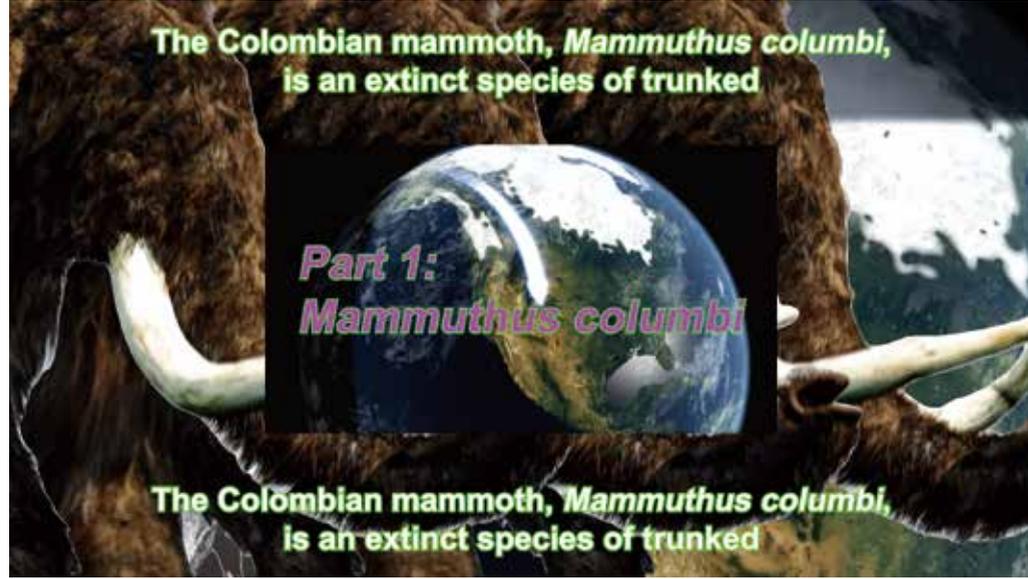
대한 오래된 영상과 다큐멘타리를 AI 머신비전 기반 영상편집 툴인 RunwayML을 사용하여 조작하였다. 파운드푸티지(found footage)에* 등장하는 매머드를 없애고 대신 영상 배경을 합성해 넣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만여 년 전 초기 인류가 도구와 기술을 이용해 사냥에 나서며 매머드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처럼 작가도 디지털 방식으로 이를 재현한다.

*
메이크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의 일종

To make this video first I found old videos/documentaries about mammoths on the internet, then using RunwayML, I digitally manipulated this found footage - RunwayML is a machine-learning based video and animation tool that use AI-enhanced machine vision to quickly mask and manipulate footage. I used this tool to digitally remove mammoths from the found footage, creating synthetic video landscapes (but without the mammoths that were previously there) For me this gesture mirrors early humans using tools and technology to hunt mammoths and remove them from the landscape 40,000 years ago, I did the same, only digitally.

〈Untitled (Mammoth Video)〉, 2022
단채널 비디오, 머신러닝 사운드
11분

Untitled (Mammoth Video), 2022
Single channel video, sound generated
with machine learning
11min.



캐트 오스틴 Kat AUSTEN

(1979, 영국)
영국 첼트넘 출생
현, 한국 서울 거주 및 활동

(1979, UK)
Born in Cheltenham, UK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The Matter of the Soul〉은 북극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적 공감을 다룬 사운드와 영상이 결합된 음악조형 작품이다.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음악은 4개 악장으로 이뤄진 북극을 위한 심포니로, 빙하침식을 비롯하여 산업화와 세계화가 지역적, 사회적, 개인적 정체성에 가져온 변화를 그린다. 심포니에는 캐나다 북극의 누나부트 지역에서 채집한 현장음과 관계자 인터뷰, 물의 화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과학장비를 해킹하여 만들어낸 악기의 사운드가 어우러진다. 작가는 직접 제작한 이 악기를 사용하여 북극의 물을 라이브로 연주한다.

작가는 전시장소로 철새, 곤충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보호구역인 주남저수지를 선택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부지방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면서 주남저수지 역시 변화를

The Matter of the Soul is a musical, video and sono-sculptural work by Kat Austen, exploring human empathy with the process of dispersal in the Arctic in a time of climate crisis. The music at the heart of the work is composed as a four-part symphony for the Arctic as ice floes and glaciers in the region melt; as industry and globalisation changes regional, societal and individual identity. The symphony includes field recordings from the Canadian High Arctic Nunavut region, interviews and sounds from instruments made from hacked scientific equipment that measure chemical properties of water. Austen plays Arctic water live using these instruments during performances.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The Matter of the Soul* Symphony video is shown in the context of the Joonam Reservoir, a protected and biodiverse haven for insects and migratory

서울 → 창원 주남저수지
Seoul Changwon Junam Reservoi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10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11



겪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은 2022년 긴급한 기후행동을 촉구한 과학계의 목소리와 함께 탈성장과 과잉개발 중단, 생태위기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birds. Yet the reservoir is in a region also undergoing change, as the climate at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crosses over into being designated sub-tropical due to warming temperatures. Positioned in this context, alongside dire warnings from scientists in 2022 of the urgent need for climate action, *The Matter of the Soul* renews its imperative for degrowth, an end to extraction and prioritisation of addressing ecological crises.

〈The Matter of the Soul〉, 2018
단채널 비디오
60분

The Matter of the Soul, 2018
Single channel video
60min.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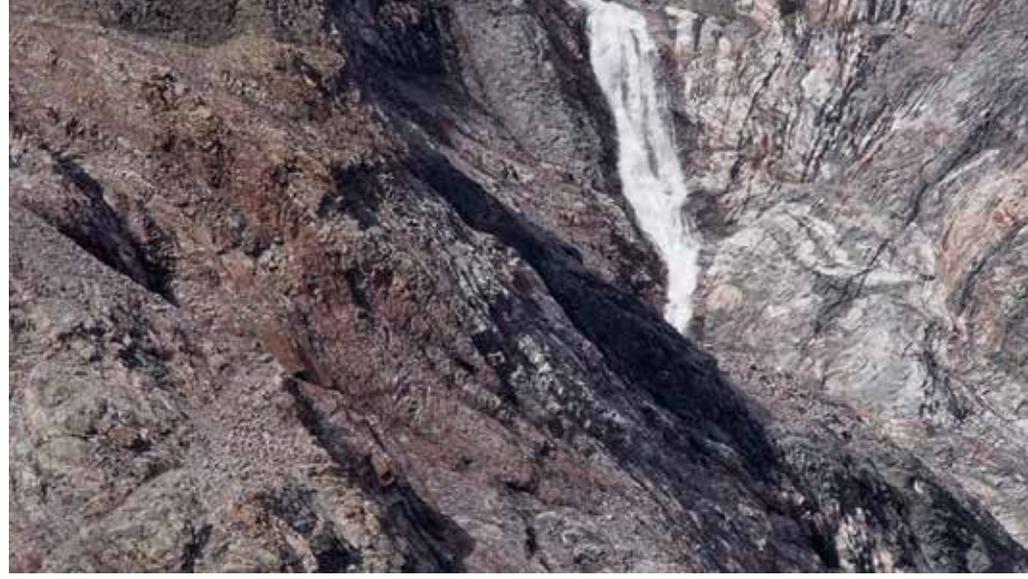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13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페드로 올리베이라 Pedro OLIVEIRA

(1985, 브라질)

브라질 상파울루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85, Brazil)

Born in São Paulo, Brazil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독일 정부는 2017년부터 국적증명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의 국적 판독을 위해 ‘방언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다.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는 이 기술의 작동원리를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에세이 작품이다. 청취 및 녹음 행위와 식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한 장기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작업은 소프트웨어 학습용 데이터셋을 기본 아카이브로 삼는다. 특히 소프트웨어가 ‘잡음’으로 인식하여 무시한 음성 특성에 주목하는데, 기침, 웃음, 더듬거림 등의 유사언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작가는 음성과 요식행위로 구성된 자신만의 반아카이브(counter-archive)를 구축하고자 한다. 음성에 대한 정서적인 교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이 작품은 관객이 접속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분류, 유형화, 측정의 개념에

This interactive sound essay interrogates the workings of the so-called "dialect recognition software" in use since 2017 for cases of undocumented asylum seekers in Germany. Part of a long-term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stening, recording practices, and colonialism, it treats the training datasets of this software as a rudimentary form of an archive. However, by focusing on speech traits that are annotated to be ignored by the software as "noise" – for examples paraverbal sounds such as coughing, laughing, hesitation, etc – it seeks to create its own counter-archive of voices and bureaucratic documents. With that, the essay radically shifts the affective connection to and with voice, working to constantly undo and redo them with each access and interaction, always against and beyond classification, taxonomization, or measurement. The exhibition of this

베를린 → 진해우체국
Berlin Jinhae Post Office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14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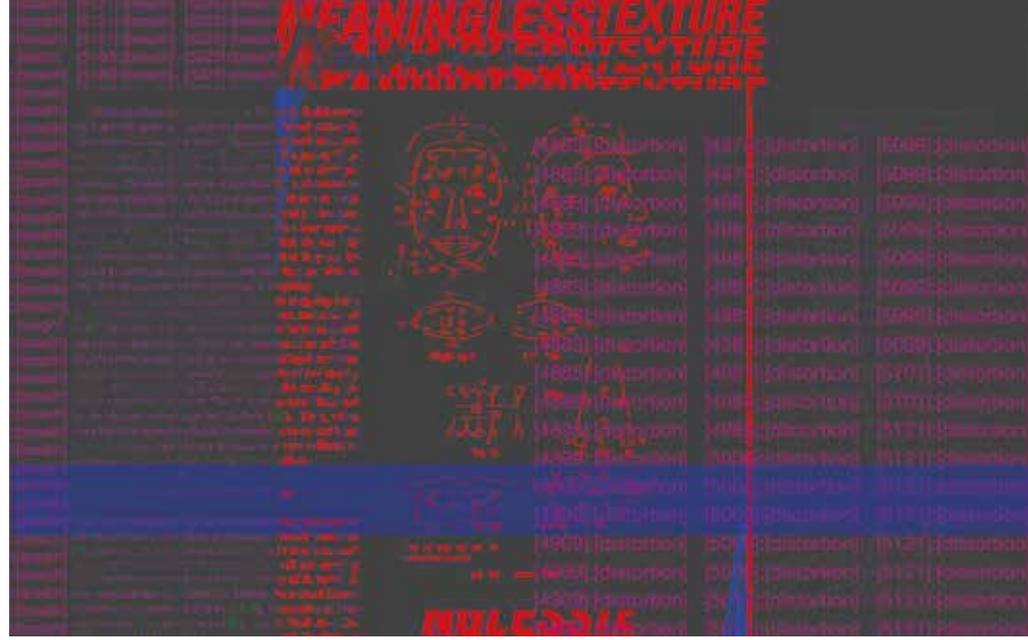


대항하고 초월한다. 전시장소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진해우체국이다. 에세이는 법률적,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이 (소리의) 건축 및 (식민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진해우체국의 식민 역사를 비춘다.

work at the Jinhae Post Office seeks to add a poetic layer to the already complex, imperial history of this building, exactly because it centers on how juridical and bureaucratic decisions are translated into (sonic) architecture and (colonial) violences.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 2019
바이노럴 사운드 에세이

On the Apparently Meaningless Texture of Noise, 2019
Binaural sound essay



나오 우사미 Nao USAMI

(1994, 일본)
일본 도쿄 출생
현, 일본 도쿄 거주 및 활동

(1994, Japan)
Born in Tokyo, Japan
Lives and works in Tokyo, Japan

작가는 인간과 동식물, 기계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한다. 루시*가 지금의 껍데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성별이나 인종 같은 꼬리표를 달아 분류할 수 없는 단순한 살 덩어리가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기존의 피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몸을 찾아 나선다. 장미정원의 꽃내음을 맡으며 식물과 하나되는 자신을 그린다.

This is a world where humans, animals, plants and machines melt and fuse into one another in a complementary manner. Lucy* had a reason for choosing the flesh that she has. She wanted to be a lump of flesh that won't be categorized by factors such as sex and race. She shed her skin and began walking in search of a new body. Smell the flowers in Rose Park and think about combining with the plants.

*
Lucy the name given to a 3.18 million-year-old fossil skeleton believed to be of an early female Australopithecus.

*
루시는 318만여년전 살았던 여성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추정되는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다.

도쿄 → 창원 장미공원
Tokyo → Changwon Rose 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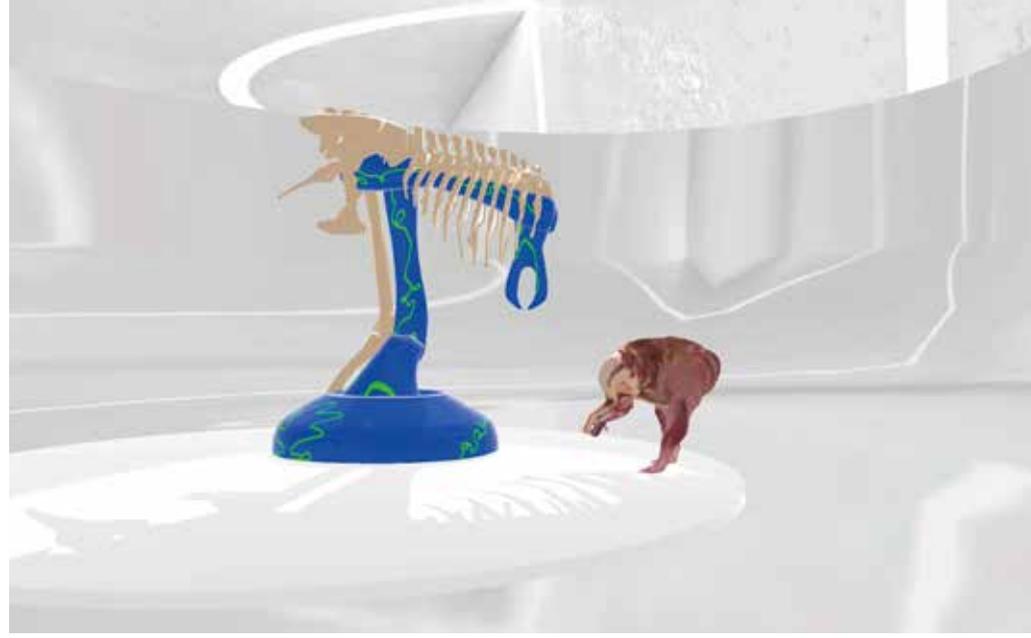
418

419



《Ambiguous Lucy》, 2021
비디오 게임, LCD 모니터, 컨트롤러, 전자기기
300×250×300cm

Ambiguous Lucy, 2021
Video game, LCD monitor, Controller,
Electrical appliances
300×250×300cm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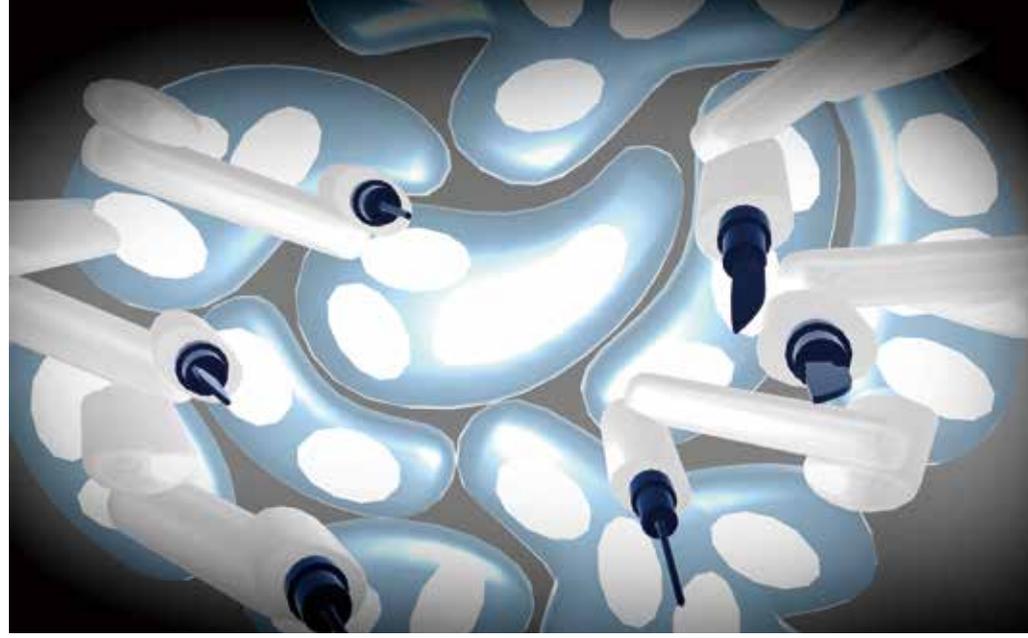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21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클레어 윌리엄스 Claire WILLIAMS

(1986, 프랑스)
두바이 아부다비 출생
현, 벨기에 브뤼셀 거주 및 활동

(1986, France)
Born in Abu Dhabi, UAE
Lives and works in Brussels, Belgium

납작한 원반의 중앙에 여섯 개의
형태들이 놓여있다. 그 중 하나는 모래에
벼락이 내리쳐 만들어진 듯한 형태가
없는 실리콘 덩어리 같고, 나머지는
미지의 바다 속을 오가는 해파리나 산호,
해조류를 닮았다. 각 형태는 독특한
색상과 구조의 물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여섯 개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물체, 동일한 것의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하인리히 가이슬러가
기체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사용한
진공관을 연상시킨다. 과학박물관
기프트숍에서 볼 수 있는 만지면 빛이
나는 지구본을 닮기도 했다. 북극의
오로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형태들은
이들 모두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들 중
아무것도 아니다.

형태들은 아르곤, 네온, 크립톤,
크세논, 질소 등 우주를 구성하는 불활성

Six shapes rest in the center of a big flat
disc. One recalls the amorphous pieces
of silicon produced by the impact of
lightning strike on sand, while the others
may resemble to jellyfishes, corals or
seaweeds living in the depths of unknown
seas. Each one is filled of a matter-energy
which shades and structure are unique.

These six shapes are all different but
they no doubt belong to the same class of
objects, the same category of things. To
physicists they recall the tubes used by
Heinrich GEISSLER to experiment on the
behavior of certain gases when electrical
current flows through them. To those
who visit shops in science museums they
remind the luminous globes that react
to touch. To explorers of the northern
latitudes, they recall the aurora borealis.
They are at once all of these and at the
same time neither of them.

They are filled with noble gases that

브뤼셀 → 창원과학체험관
Brussels Changwon Science Cente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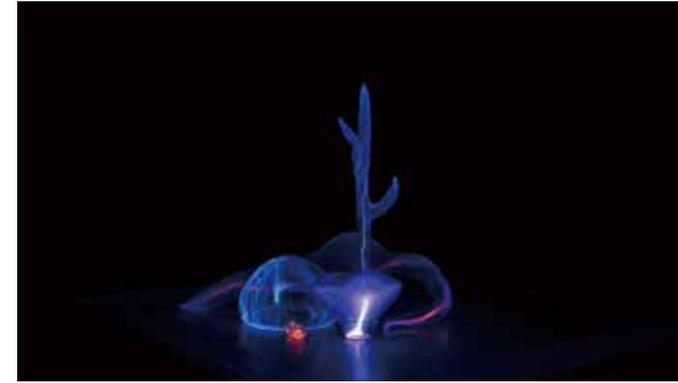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2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23



가스로 채워져 있다. 이들 가스는
태양처럼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제 4의 물질
상태’로 알려진 플라즈마는 눈으로
보이는 우주의 99%를 이루고 있다.
원반을 둘러싼 외부 링에 팔꿈치를 괴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와 전율이
느껴지는데, 전파 망원경으로 감지된
태양 전파 자료를 기반으로 구현한
것이다. 전체 작품은 태양 전파 강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compose the interstellar environment:
argon, neon, krypton, xenon, nitrogen.
They are made of the same matter of the
sun: plasma. Plasma is the fourth state of
matter, it composes 99 % of our visible
universe but none of the 100 % of the
one we evolve in. As we place our elbows
on the external ring, we feel the solar
activity as if it comes from inside our
body. These sounds and vibrations are the
translation of the electromagnetic activity
of the sun that is continuously sensed by
a network of radio telescopes. The entire
installation pulses to the rhythm of the
sun's electromagnetic activity.

〈ZORYAS〉, 2019
단체널 비디오, 유리, 비활성 기체,
전자기기, 라이브 데이터
3분 4초, 가변크기

ZORYAS, 2019
Single channel video, Glass, Noble gas,
Electronics, Live data
3min. 4sec., Variable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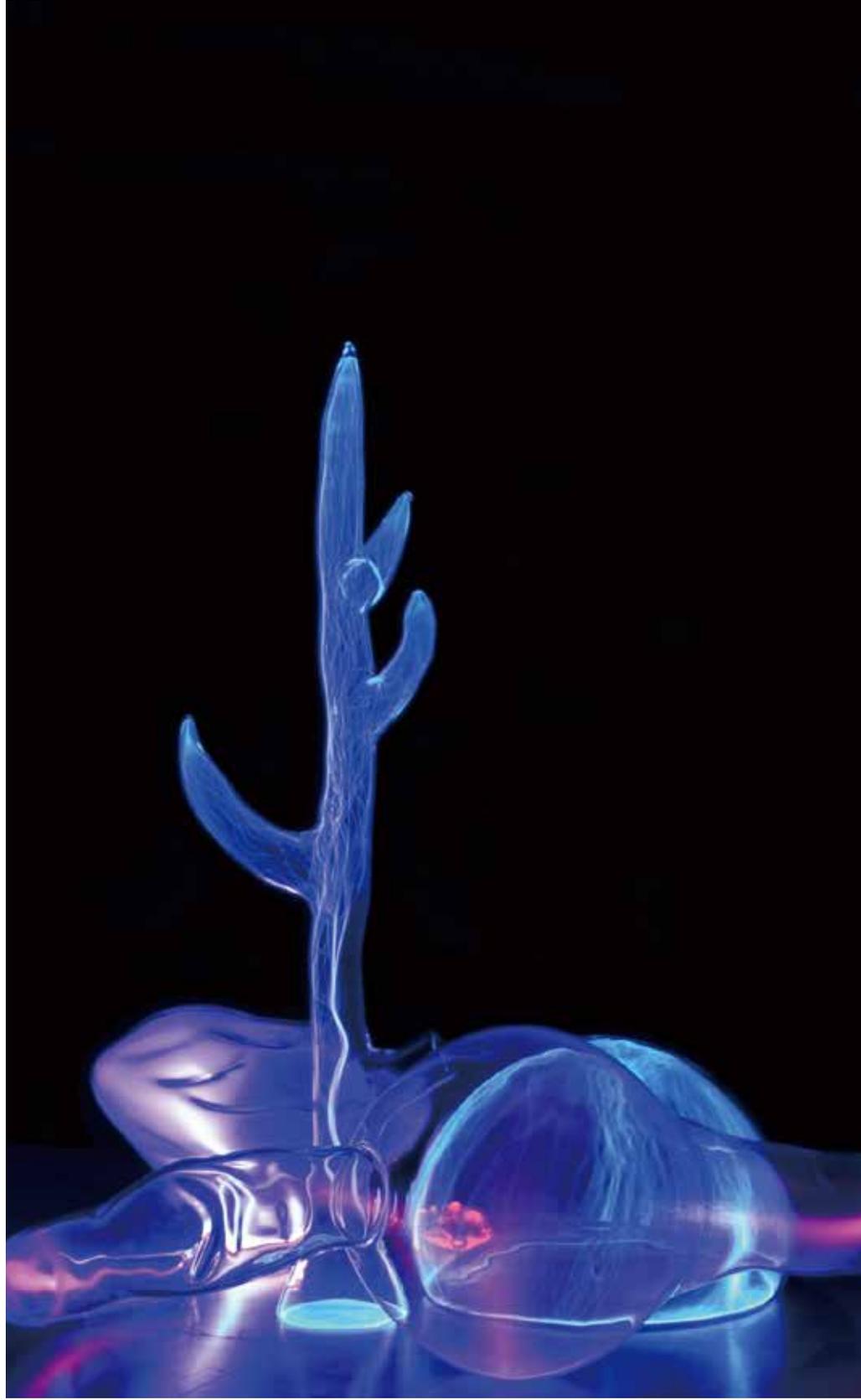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케이스 젠킨스 Casey JENKINS

(1979, 호주)
호주 멜버른 출생
현, 호주 멜버른 거주 및 활동

(1979, Australia)
Born in Melbourne, Australia
Lives and works in Melbourne, Australia

케이스 젠킨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주간 자신의 노동력과 육체를 대중에게 파는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보수는 다른 국가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시급 수준에 따라 매일 다르게 책정되었다. 작가는 고용주가 시키는 작업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자청하며, 대신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1. 작업은 갤러리의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2.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3. 작가의 신체를 다루는 경우, 보호장비가 사용되어야 한다.
4. 작업 종료 후에는 고용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작가의 신체를 반납해야 한다.
5. 고용주는 작업을 지시하고 떠나거나 작가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다. 단, 작업공간에는 고용주만 출입이 가능하다.

작업공간은 대중에게 항상 공개되었고 CCTV로 녹화되었으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은 금지되었다.

For a period of 3 weeks from 9-5 daily I will be offering my untrained labour, my body, my life for hire by the hour to the general public.

I will be available for hire at rates that will change daily and will be commensurate with the approximate hourly wages received by other specific labourers around the world.

I will perform any task set by the employers with 5 stipulations:

1. The labour must be performed within the set gallery work-space
2. I will not perform labour that causes direct harm to others
3. If my body is handled protective gear must be used
4. My body must be returned at the end of the employment period in the same general condition in which it was hired
5. The employer can leave set tasks or interact with my body directly but only the employer will be permitted within the work-space.

The workspace will be open at all times to the general public and will be recorded using CCTV but no other recording devices will be permitted.

멜버른 → 창원 성산아트홀
Melbourne → Changwon Seongsan Art Hall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2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27



《Body of Work》, 2015
단채널 비디오, 사진, 아카이빙 자료
2분 10초

Body of Work, 2015
Single channel video, Still image documentation of
3 week durational interactive performance artwork
2min. 10sec.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데스피나 차리토니디 Despina CHARITONIDI

(1991,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 출생
현, 그리스 아테네 거주 및 활동

(1991, Greece)
Born in Athens, Greece
Lives and works in Athens, Greece

큰 호수를 품고 있는 용지호수공원은 작가의 영상 작품을 전시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물의 도시화, 육지생물과 바다생물, 인공자연 간의 공존 같은 주제를 반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To Fall With Grace>는 인간이 주변 환경을 구축하느라 천연자원을 고갈시켜 메말라버린 미래를 조망한다.

The Yongji Lake Park is the perfect place to show the video work, as it is a park that hosts a huge lake, thus it makes the element of water present and it is the perfect location to discuss subjects such as the urbanisation of water, the coexistence of creatures of the land and water and of course the artificial nature. I find it a perfect place to show *To Fall With Grace* as the video focuses on a dehydrated future where humans have used all natural resources to buil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아테네
Athens

→ 창원 용지호수공원
Changwon Yongji Lake 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30

431



<To Fall with Grace>, 2022
단채널 비디오
10분 18초

To Fall with Grace, 2022
Single channel video
10min. 18sec.



첸한성 Han Sheng CHEN

(1988, 대만)
대만 가오슝 출생
현, 대만 가오슝 거주 및 활동

(1988, Taiwan)
Born in Kaohsiung, Taiwan
Lives and works in Kaohsiung, Taiwan

“伐木丁丁(벌목정정) 鳥鳴嚶嚶(조명앵앵)
出自幽谷(출자유곡) 遷于喬木(천우교목)”
- 나무 베는 소리가 정정하거늘 새
울음소리는 영영하나니, 깊숙한
골짜기로부터 나와서 높은 나무에
오르도다.

『시경(詩經)』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나무 베는 소리에 놀란 새들이 숲을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나무는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과 나무와의 관계는
때로는 가깝지만 때로는 적대적이다.
〈Thwack Thwack Thud〉에는 센서로
작동하는 벌목장치가 등장한다. 시끄러운
기계음과 그림자의 떨림, 위태로운
묘목의 모습은 무분별한 자연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On the trees go the blows *chǎng-chǎng*,
And the birds cry out *ying-ying*. One
issues from the dark valley, And removes
to the lofty tree.”

Here's a snippet from Book Of Poetry,
describe the sound of deforestation. The
birds in the woods therefore migrate.
“Trees” play many roles in the human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rees is sometimes close
and sometimes antagonistic. The work
Thwack Thwack Thud uses a sensor to
drive a mechanical device that chops
down trees. The sound produced and the
shaking shadow, and the real response
of the saplings, try to arouse people's
thinking about the natural environment.

가오슝 → 마산 광암해수욕장
Kaohsiung Masan Gwangam Beach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34

435



〈Thwack Thwack Thud〉, 2015
단체널 비디오, 나무, IR 센서, 모터, 기타 도구
2분 23초, 가변크기

Thwack Thwack Thud, 2015
Single channel video, Trees, Infrared sensors,
Off-the-shelf tools, Motor
2min.23sec., Variable installation



436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37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시온 칼헤스 Theun KARELSE

(1974, 네덜란드)
네덜란드 보세이른 출생
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 및 활동

(1974, the Netherlands)
Born in Borssele, the Netherlands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Seaweedsuit〉는 시온 칼헤스와 사회학자인 다르코 라구나스, 마르텐 클라인한스 지리학 교수가 북해보호단체인 북해대사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현장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업이다. 북해대사관은 북해의 목소리와 정치문화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10개년 연구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예부터 잦은 홍수에 시달렸던 네덜란드는 국가 곳곳에 댐과 제방을 쌓았다. 작가는 해류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해조류의 특성이 인간을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작가가 수트를 시험 착용했던 삼각주의 앞바다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작품이 전시되는 마산의 돌섬과도 이어져 있다.

A first test of the *Seaweedsuit*, as part of the fieldresearch Darko Lagunas (sociologist) Maarten Kleinhans (professor of geography) and myself Theun KARELSE (artist) are doing on invitation of the Embassy of the Northsea, which is looking for ways in which the sea could be better protected. The Embassy has set out a 10 year research trajectory to find new ways of political and cultural representation of the sea, and for the voice of the sea to be heard. Our history is full of disastrous floods and we have placed dams and dikes between us and the sea. The Seaweedsuit is inspired on the amazing grace with which seaweed adapts to any movement of the water. Maybe it can be a guide towards a more harmoniou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sea. The waters around the island where I tested it stretch all across the globe and to Dotseom, so it seemed a great location to show it.

암스테르담 → 마산 돌섬
Amsterdam Masan Dotseom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38

439



〈Future of the Delta〉, 2020
단체널 비디오, 드로잉, 사진
2분

Future of the Delta, 2020
Single channel video, Drawings, Photographs
2min.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프레데릭 크라우케 Frédéric KRAUKE

(1981, 독일)
독일 베를린 출생
현, 독일 베를린 거주 및 활동

(1981, Germany)
Born in Berlin, Germany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나무에 물을 주면 계속 자라서 생명을 이어간다. 시간이 흐르면 베를린 장벽 조각에 금이 가게 할 만큼 단단해질 것이다. 작가는 <Give Water to Life>를 두 번째 장기 설치할 장소로 도심 속에 자리한 창동예술촌을 선택했다. 오가는 시민들이 물을 주며 잘 가꾸면 작품의 상징성이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다. 작품에 사용된 김칫독은 한반도 분단 이전에 만들어졌다. 베를린 장벽 조각은 인공적인 장벽의 덧없음과 함께 시간의 흐름, 대중인식의 변화, 마음챙김에 따라 분단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는 나무와 화초가 준비한 창동예술촌 골목에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설치 공간을 찾았다.

By giving water to the tree, he will continue to grow and exist. With the time passes he will become strong enough to crack the piece of the Berlin Wall. The Changdong Art Village, with its alternative urban structures of a modern Korean city, seems to me a perfect place to place a second long-term installation. There it can be watered and maintained by its population, so that its symbolism is brought to life. The Kimchipot is older than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piece of the Berlin Wall points to the transience of man-made walls and divisions that can be peacefully overcome with time, awareness and mindfulness. The task now is to find a suitable place next to the many trees and plants in Changdong Art Village to realize this vision.

베를린 → 마산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Berlin Masan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42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43



<Give Water to Life>, 2019
단채널 비디오, 베를린 장벽 파편, 금속 구조물,
버드나무, 김장항아리, 흙, 콘크리트, 물
7분 50초

Give Water to Life, 2019
Single channel video, Interactive, longterm installation
piece of Berlin wall, Metal construction,
Willow tree, Kimchi pot, Earth, Concrete, Water
7min. 50sec.



444

성산아트홀 B1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45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키메라 로사 Quimera Rosa

(2008, 스페인)

2008년 스페인 결성
현,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거주 및 활동

(2008, Spain)

Created in Barcelona, Spain in 2008
Lives and works nomadic (ES, AR, FR)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는 2016년부터 시작된 생명시스템과 자가실험 기반의 초학문적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식물화' 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과정을 그린다. 이번에 출품된 영상은 연구의 핵심부분으로 지난 2017년 카펠리카 갤러리에서 엽록소 주사를 인체에 최초로 투여하는 행위예술을 담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생태의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본질 기반의 정체성에서 관계 기반의 정체성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엽록소 정맥투여를 포함한 인간의 식물화 과정과 그 과정이 야기하는 환상, 두려움, 비판은 정체성 시스템 논란의 물꼬를 튼다. 자가실험이긴 하지만 투여받는 참가자 옆에 있는 이들도 식물화에 참여하므로 개인적인 과정으로는 볼 수 없다. 순수한 엽록소 분자를 얻는 것은 제약업계,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is a transdisciplinary project, initiated by Quimera Rosa in 2016, based on living systems and self-experimentation. It is a process that engages a body in a "human > plant" transition and uses various formats for this. The video presented here condenses the research to realize the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in human body and the performance realized in Kapelica Gallery in 2017.

In order to be able to think a non-anthropocentric ecology, we need to move from essence-based identities to relationship-based identities. A process of human > plant transition that includes a chlorophyll intravenous protocol, and through the fantasies, fears and judgments that this generates opens the debate about the identity system that is at stake. A process of self-experimentation that has

바르셀로나 → 진해 드림파크
Barcelona Jinhae Dream 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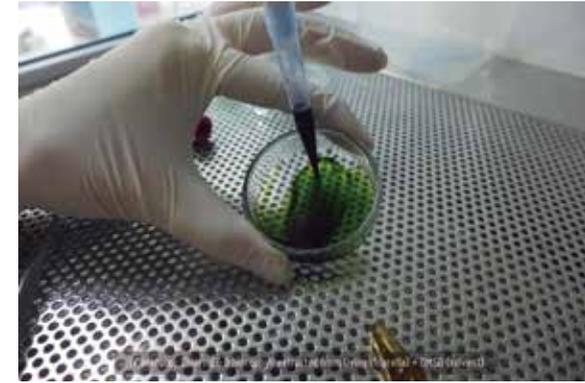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46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47



바이오헬스케어, 법조계나 의료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꿈을 현실로 만든 키메라 로사가 그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장소로 진해드림파크만한 곳이 있을까.

nothing individual, since the people who accompany her transit with her. Obtaining a pure chlorophyll molecule poses the same obstacles for the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industry and the legal and health system as obtaining testosterone. It is the very stuff of life that is patented.

We had a dream. And we made it real. So what's better place than Jinhae Dream Park to share it with you?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2017
단체널 비디오, 사진
16분 15초

*Trans*Plant: Open the Molecule - First Chlorophyll Intravenous*, 2017
Single channel video, Photograph
16min. 15sec.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448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바비네 엘리켄 피앗시 Va-Bene Elikem FIATSI [crazinisT artisT]

(1981, 가나)
가나 호 출생
현, 가나 쿠마시 거주 및 활동

(1981, Ghana)
Born in Ho, Ghana
Lives and works in Kumasi, Ghana

기독교 단체의 지지 속에 반(反)성소수자 법안이 발의된 이후, 가나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가 거리에서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성소수자 행세를 하는 자들이 청년 성소수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구타하거나 강간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2021년 부활절을 앞둔 성금요일, 가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을 때, 작가는 예수와 유사하게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한 가나인, 흑인, 성소수자를 기리며 십자가 책형을 재현했다. 작가는 가나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소수자와 비(非)성소수자 대상 폭력 사태에 대해 기독교계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반추와 공감,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호소한다. 성소수자나 도둑, 마녀로 내몰려 폭행당하거나 돌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영혼이 평화롭게 잠들길 빈다.

쿠마시 → 마산 3·15 아트센터
Kumasi Masan 3·15 Art Center

Ever since the proposal of the anti-LGBTQIA+ bill (supported by the Christian Council), the violence against LGBTQIA+ persons in Ghana has increased drastically on a daily basis. Almost everyday there is an alleged gay, lesbian or trans persons attacked either by mobs on the street or by blackmailers who pose as LGBTQIA+ fellows and lure young people into isolated areas, abuse, rape and beat them.

On Easter Friday 2021, (Good Friday), as Ghanaian Christians mourn and celebrate the death of "a Lord" that was brought us by the "slave masters", I reenacted a crucifixion in remembrance of those Ghanaians, blacks and queers who suffered similar violence and death. I wanted this performance to remind the Christian community of their contribu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ongoing violence suffered by both LGBTQIA+ and non LGBTQIA+ persons in Ghana. It is a call for reflection, empathy, compassion and unconditional love. May the souls of all queers, alleged thieves, alleged witches and many others who were lynched, beaten and stoned to death rest in perfect peace.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50

451



〈Holier-Than-Thou〉, 2022
단체널 비디오
5분 59초

Holier-Than-Thou, 2022
Single channel video
5min. 59sec.



452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53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레이첼 피మ్ Rachel PIMM

(1984, 영국)
짐바브웨 하라레 출생
현, 영국 런던, 노샘프턴셔 거주 및 활동

(1984, UK)
Born in Harare, Zimbabwe
Lives and works in London and
Northamptonshire, UK

리넨에 수놓인 문양은 작가가 특정 식물에 대한 이야기나 움직임 탐구할 때 배경이나 상징적 패턴으로 즐겨쓰는 모티프이다. 리넨 소재는 상징적인 문장(紋章)과 아마로 만든 붕대를 연상시킨다. 모티프는 다섯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삼은 마름모꼴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식물원이나 농장의 사각 배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브라운의 1658년작 『사이러스의 정원』에 등장하는 삽화를 빌렸다. 책에서는 예술이나 의학뿐 아니라 식물의 프랙탈 구조에서도 신성시되는 숫자인 '5'를 강조한다. 사이러스의 정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오늘날 식물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진기한 식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시대 자행된 채집의 잔인한 흔적 역시 담고 있다.

전시장소인 창원수목원은 관상 및 그 외 다양한 목적으로 식물 표본을

The motif featured on this linen embroidery is often used by the artist as a backdrop or symbolic pattern to explore the stories of specific plants and their movement. The materials reference both iconic heraldry and also bandages made from the flax plant. The image depicts the layout of a botanical garden or plantation in lozenge shape sections each with five points- the centre and four corners. It traces a drawing from *The Garden of Cyrus*, 1658, by English philosopher Thomas Browne. The book explores the sacred number five in art, medicine and fractal patterns of plants. The garden Cyrus built inspired many imitations. Botanical collections today hold both the wonder of plants from across the globe, but also the often brutal effects of each acquisition, often for the benefit of empire.

Locating this work at the greenhouse at Changwon Arboretum acknowledges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54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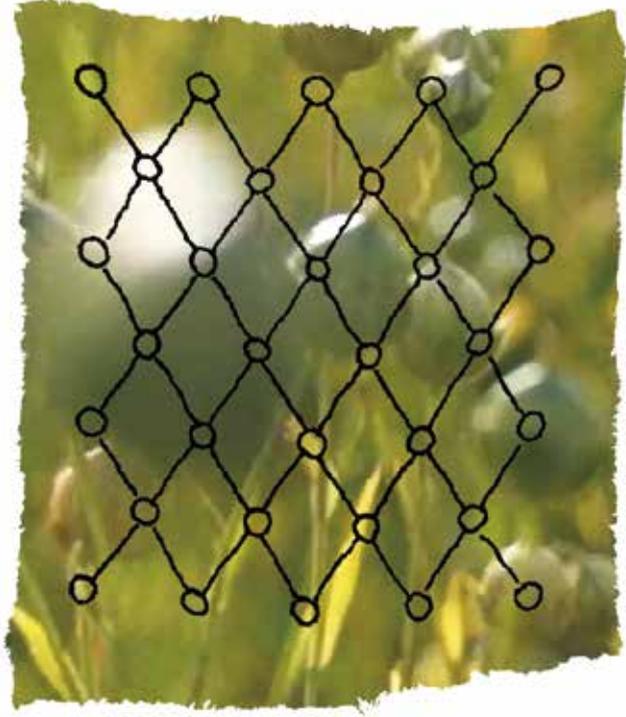


재배하고 거래해온 역사를 소환한다. 관객은 마름모꼴을 인식하는 순간 어디를 가나 그 형태를 보게 된다. 제국주의의 영향을 상징하는 마름모꼴은 동시에 생물의 치유능력과 상호연결성을 연상시킨다.

histories of plant specimens cultivated and traded throughout the world for ornamental and useful purposes. Once the viewer notices the lozenge shape, they will continue to see it everywhere around them, a reminder of both the reach of the power of empire but also the healing beauty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living th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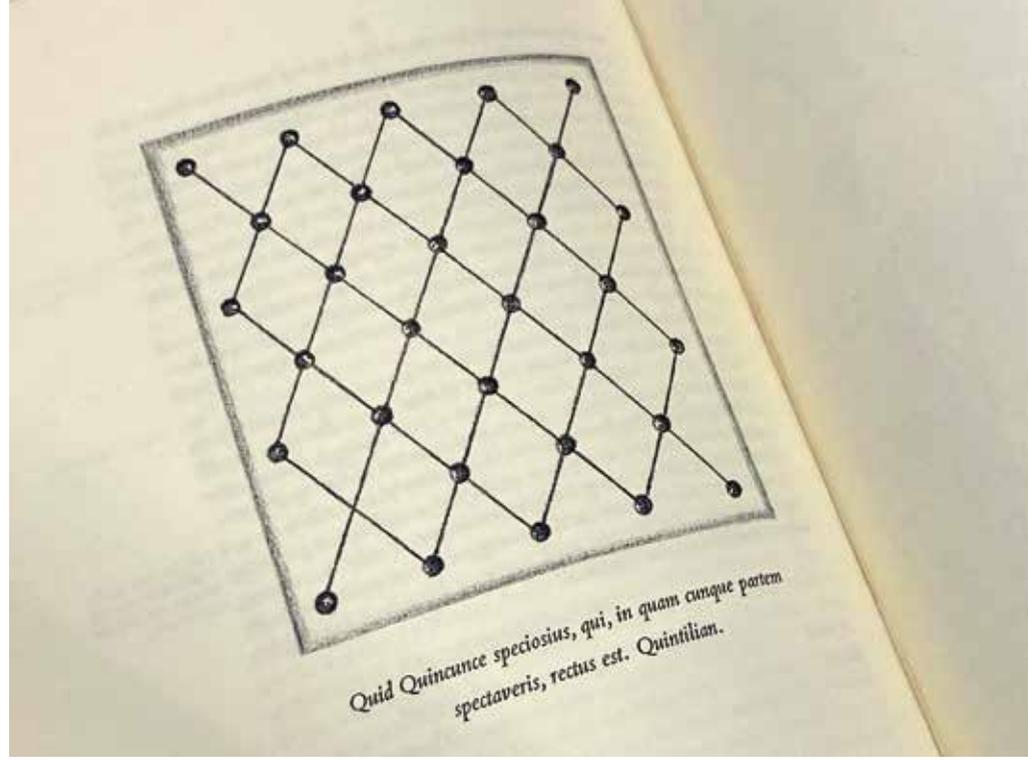
〈The Garden of The Net-work of 2020〉, 2020
단체널 비디오, 리넨 자수
43초, 30×30cm

The Garden of The Net-work of 2020, 2020
Single channel video, Linen on linen embroidery
43sec., 30×30cm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이반 헤이케스 Ivan HENRIQUES

(1978, 브라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출생
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주 및 활동

(1978, Brazil)

Born in Rio de Janeiro, Brazil
Lives and works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백만 종의 생물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이들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 존재조차도 가늠하기 어렵다. <Microscope Light Machine>에서 물방울은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확대경으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플랑크톤, 요각류, 규조류, 조류, 수생식물, 어류, 소형 갑각류 등 수생 미생물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살고 있으며, 서식지인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이다. 용지호수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관객에게 호수와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관찰해볼 것을 제안한다. 용지호수가 창원시와 창원시민들에게 갖는 의미는 인간과 인간 외의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호수 안팎의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하다.

Millions of living entities surround us all the time and are vital to our well being and also for life in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they exist in such a mode of being that not only many of their behaviour escape human perception, but their presence all together. With the work *Microscope Light Machine*, a droplet of water becomes a lens magnifying this amazing biodiversity of microorganisms presented inside of a small droplet.

This work is a step further in a research about the huge biodiversity of microorganisms which lives in water as phytoplankton, copepods, diatoms, algae, water plants, fish and small crustaceous. All of these life forms lives in symbiotic relationship, and their medium, the water, is a vital element for all the lives on earth. In Yongji Lake it wouldn't be different. I invite you to look at the lake, and observe biodiversity that is existent. The meaning that Yongji Lake has for the city and its inhabitants is crucial for all the life forms that lives in the lake and in its surroundings, where humans and non-humans live in harmony.

암스테르담 → 창원 용지호수공원
Amsterdam Changwon Yongji Lake Park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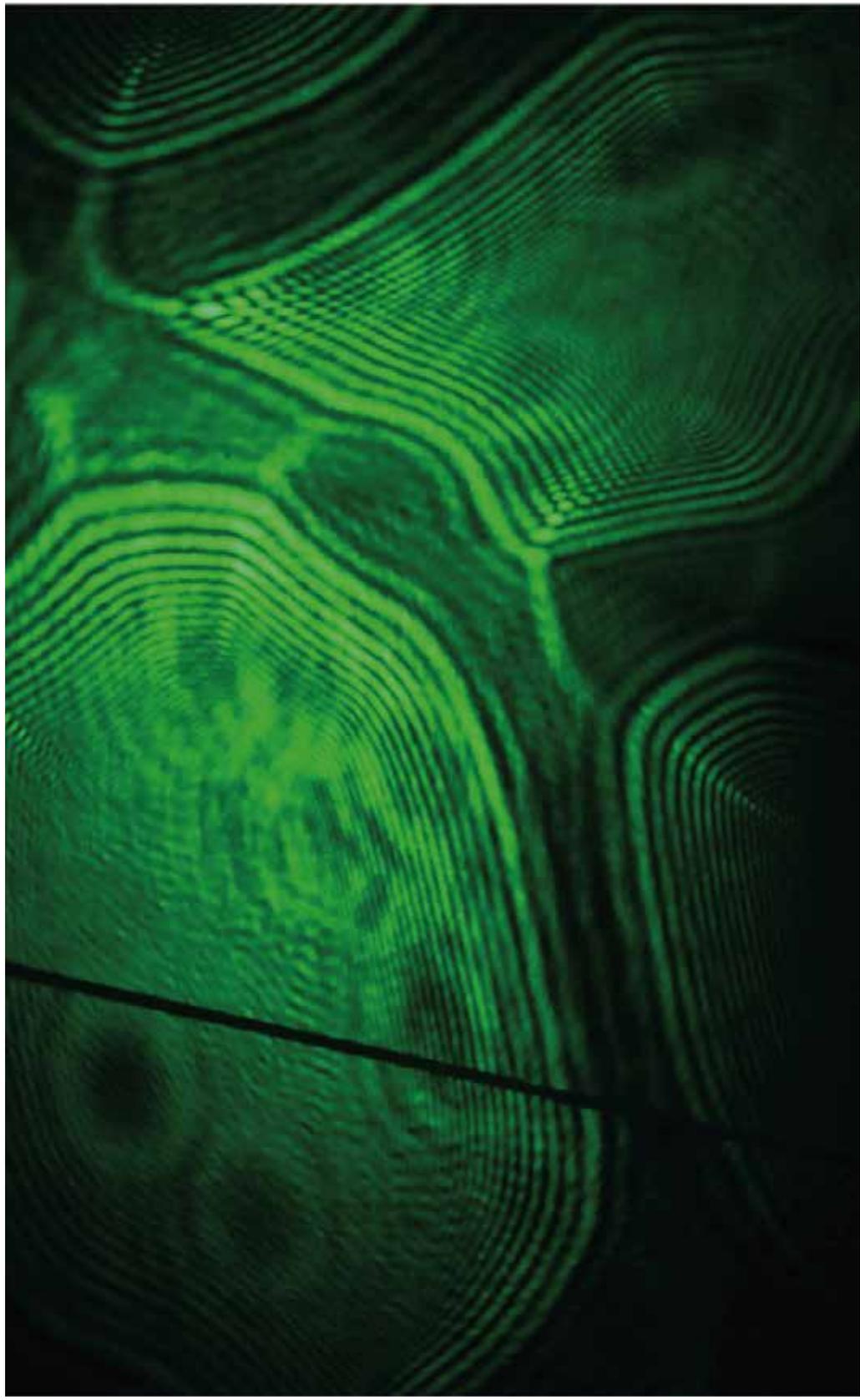
458

459



<Microscope Light Machine>, 2013~
멀티미디어 설치

Microscope Light Machine, 2013~
Multimedia installation



460

성산아트홀 B1라운지 / 웹사이트

본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461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레히나 호세 갈린도
Regina José GALINDO
www.reginajosegalindo.com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2 *Grito*, La Nueva Fabrica, Antigua, Guatemala
2022 *No te creo*, ADN, Barcelona, Spain
2021 *El canto se hizo grito*, Prometeo Gallery, Milan, Italy
2020 *Monumento a las desaparecidas*, Galerie im Körnerpark, Berlin, Germany
2020 *Monumento a las asesinadas*, Facyl Festival, Salamanca, Spain
2019 *Lavarse las Manos*, Real Academia de España en Roma, Rome, Italy
2019 *La historia la escriben quienes sobreviven*, Casa Américas, Madrid, Spa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De-Heimatize It!*, Berliner Herbstsalon, Germany
2019 *UP in Arms*, nGbK, Germany
2019 *We Refugees*, Centro Galego de Arte Contemporánea (CGAC), Spain

파올로 라디
Paolo RADÌ
www.paoloradi.it

- 1988 Diploma, Accademia Di Belle Arti di Roma, Rome, Italy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8 *Instabili dimore dello sguardo*, Kromya Art Gallery Lugano, Lugano, Switzerland
2018 *Visibile Provvisorio*, Rocca di Umbertide, Umbertide, Italy
2018 *Identità improbabili*, Ferrarin Arte, Legnago,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1 *Visioni contemporanee*, Castel Sant'Angelo, Rome, Italy
2021 *Le Altre Opere*, Galleria d'Arte Moderna, Rome, Italy
2021 *A Moment of Reflection*, Galleria Paola Verrengia, Salerno, Italy

Residencies

- 2002 Residency Program, Sculpture Space, USA
1999 Translacje, The Collection of the end century, Poland
1998 International Plastic Art Colony, Denizli University, Türkiye

스테파니 로텐버그 & 수잔 소프
Stephanie ROTHENBERG & Suzanne THORPE
www.stephanierothenberg.com www.suzannethorpe.com

스테파니 로텐버그
Stephanie ROTHENBERG

- 2003 MFA in Film, Video & New Medi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1990 BFA in Sculptural Studies,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aryland,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0 *Aphrodisiac in the Machine (V1)*, New Media Artspace, Baruch College, New York, USA
2018 *Trading Systems: Bio-Economic Fairy Tales*, El Museo Gallery, New York, USA
2016 *Samek Art Museum*, Bucknell University, Pennsylvani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2 *Meta.Morf 2022 Ecophilia*, Trøndelag Centre for Contemporary Art, Trondheim, Norway
2021 *4th Renewable Futures in Conjunction*, online, Oslo, Norway
2020 *Why Sentience?*, International Symposium of Electronic Arts/ISEA 2020, Montreal, Canada

Residencies

- 2021 New Works Residency, Harvestworks, USA
2019 Residency program, Z/KU Zentrum für Kunst und Urbanistik, Germany

수잔 소프
Suzanne THORPE

- 2020 Ph.D. in Music/ Integrative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USA
2008 MFA in Electronic Music and Media, Mills College, California, USA

- 1989 BA in SUNY: English & Feminist Theory, University at Buffalo,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1 *Arrivals*, Katonah Museum of Art, New York, USA
2017 *Resonance & Resemblance*, the Russel Wright Foundation, New York, USA
2017 *Constituting States*, San Diego Art Institute, San Diego,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Night of 100 Solos*, CAP UCLA's Royce Hall, California, USA
2020 *Alliance of Women in Media Arts &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California, USA
2017 *Listening To The Ground: World Listening Day Festival*, Issue Project Room Brooklyn, New York, USA

Residencies

- 2021 & 2012 New Works Residency, Harvestworks, USA
2019 Ferral Artist-in-Residence, Beloit College, USA

부천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크리스틴 루카스
Kristin LUCAS
www.kristinlucas.studio

- 2005 MFA in Art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USA
1994 BFA, The Cooper Union School of Art, New York,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Speculative Habitat for Sponsored Seabirds*, Whitney Museum, New York, USA
2017 *#30:Kristin Lucas, And*, Or Gallery, California, USA
2017 *Engadget Alternate Realities Experience*, Ace Hotel, California,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2 *Cosmic Rays Digital Festival*, Peel Gallery, North Carolina, USA
2021 *EcoSpirits*, Postmasters, New York, USA
2021 *In Kepler's Gardens*,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Residencies

- 2020 The Bridge Collaborative Residency, SciArt Initiative, USA
2017 – 2018 Technology Residency, Pioneer Works, USA

마크 리
Marc LEE
www.marcllee.io

- 2003 New Media,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ZHdK Zürich, Switzerland
1999 Installation,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GK Basel, Switzerland
1995 Arts and Design, Eastern Institute of Technology, EIT Napier, New Zea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2 *Swiss Media Art - Pax Art Awards*, HEK (House of Electronic Arts), Basel, Switzerland
2022 *Infrastrukturen*, Galerie für Gegenwartskunst E-Werk, Freiburg, Germany
2022 *Marrakesh Unfiltered*, Arab Media Lab, Marrakesh, Morocco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2 *Ecological Integration*, CAFA Art Museum, Beijing, China
2022 *AMT Inaugural Exhibition Digital Resonance*, Inaugural Exhibition AMT Center, Gwangju, Korea

Residencies

- 2020 Research Residency Delhi, Pro Helvetia, India
2019 Pro Helvetia Residency, Nalanda Labs, India

켄 리날도 & 에이미 영
Ken RINALDO & Amy YOUNGS
www.kenrinaldo.com www.hypnatural.com

켄 리날도
Ken RINALDO

- 1996 MFA in Conceptual Design,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California, USA
1984 BA in Communic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fornia, USA
1982 AS in Computer Science, Canada College, Redwood City,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2 *Synthetic Evolution*, Antonio Prates Gallery, Lisbon, Portugal
2020 *Borderless Bacteria/Colonialist Cash*, Art Laboratory Berlin, Berlin, Germany
2020 *Scatter Surge Holobioem Installation and Seed Series*, McDonough Museum of Art Youngstown, Ohio, USA
2018 *Re-Base: When Experiments Become Attitude commission of the Continuous War Train*, Taiwan Contemporary Culture Lab, Taipei, Taiwan
2011 *Fusiform Polyphony and Paparazzi Bots*, Nuit Blanche, Toronto, Canada

Residency

- 2017 Nnovation Media Research & Commercialization, IMRC, USA

에이미 영
Amy YOUNGS

- 1999 MA in Fine Art,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llinois, USA
1991 BA in Arts,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California,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0 *Becoming Biodiversity*, Art in the Parks, NYC Dept. of Parks & Rec, New York, USA
2015 *Vermiculture Makers Club*, 849 Gallery, Kentucky School of Art, Kentucky, USA
2015 *Please Don't Tap on the Glass*, Mote Gallery, Ohio,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2 *Insect as Idea*, McIntosh Gallery, Western University, Ontario, Canada
2022 *Confluence*, Cameron Art Museum, North California, USA
2021 *Alter (Action)*, Centro de Arte Moderna Fundação Eugénio de Almeida, Evora, Portugal

Residencies

- 2021 Artist in Residence, Folly Tree Arboretum, USA
2019 Researcher in Residence, New York Urban Field Station, USA

아델린
Adelle LIN
www.adelleninja.com

2017 MA in Science,
NYU Tandon School of
Education, Brooklyn,
USA

2013 BA in Design, RMIT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Xtensions*, NEW INC
+ ONX Studio, New
York, USA

2022 *ISLND x WIDE
AWAKES: Together We
Are Awake*, DoinGud
Gallery, NFT Artist
Online Exhibition

2021 *Virtual Burning
Man*, BRCVR,
AltSpaceVR

2020 *Permission to Play*,
Wellcome Collection,
London, UK

2020 *Protest, Activism,
Whimsy and Self Care
in Animal Crossing*,
University of Manitoba
School of Art Gallery,
Winnipeg, Canada

Residency & Grant

2022 "Next Web" \$10,000
Arts Research Grant,
Meta Open Arts, USA

2021-2022 New
Museum's incubator
for arts, design and
technology NEW INC
Incubator, USA

가이아 린드라
Gaia LEANDRA

2018 BA in Biological
Science, Universita
Federico II, Napoli,
Italy

Selected Solo
Exhibition

2021 *on-the-fly*, Creative
Europe, Online,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Flussi media arts
festival*, Carlo Gesualdo
Theatre, Avellino, Italy

2014 *Astrolabor*,
PALAZZO REAL
MONTE MANSO DI
SCALA, Napoli, Italy

Residency

2020-2022 Wetlab,
hangar.org, Spain

폴 맥레논
Pól McLERNON
www.mclernonae.com

2010 MA in Research
Architecture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2002 Diploma in
Architecture, Technical
University Berlin,
Berlin, Germany

2001 Diploma in
Architecture,
Edinburgh College
of Art, Edinburgh,
Scotland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Archivio Viafarini*,
Viafarini Archive,
Milano, Italy

2018 *Singer 99*, Hackney
Wick,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Can we ever really
know the meaning of
these objects*, Gallery
46, London, UK

2020 *Liminality; the
unknown*, Gallery 46,
London, UK

2017 *ØY Festival of Art*,
The Kelp Store, Orkney
Islands, Scotland

Residencies

2022 Artist in Residence,
Viafarini, Italy

2021 Artist in Residence,
L'Appartamento, Italy

존 멜빈
John MELVIN
www.johnkmelvin.com

2009 MFA in Fine Art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California,
USA

2005 PB in Studio Arts,
Pont Aven School of
Contemporary Art,
Pont Aven, France

2004 BFA in Painting,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Massachusetts,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Atelier Expo*, John
K. Melvin Gallery, Pont
Aven, France

2019 *VOCI DAL VENTO*,
University of Siena,
Siena, Italy

2019 *EvoGyre Unveiling*,
The Conrad Maldives,
Ranglai Island,
Maldive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Artistes au Jardin*,
CACTUS, Quimper,
France

2019 *I-Park Site
Responsive Art
Biennale*, I-Park
Foundation,
Connecticut, USA

Residencies

2019 Project Fellowship,
Siena Art Institute,
Italy

2019 Biennale Artist
Residency, I-Park
Foundation, USA

부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64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65

케람 오잔 바이라크타
Kerem Ozan BAYRAKTAR
www.keremozanbayraktar.com

2017 Ph. D in Fine Arts,
Marmara University,
Istanbul, Türkiye

2011 MA in Fine Arts,
Marmara University,
Istanbul, Türkiye

2010 MFA as Exchange
Program, Newcastle
University, Newcastle
upon Tyne, UK

2007 BFA, Marmara
Üniversitesi, Istanbul,
Türkiy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Rocks and Winds*,
Germs and Words,
Sanatorium, Istanbul,
Türkiye

2019 *Phases of Nix*,
Bilsart, Istanbul,
Türkiy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What Water Nows*,
Pilot, Istanbul, Türkiye

2021 *Sentient Matter*,
D21, Leipzig, Germany

Residencies

2021 – 2022 Fellowship
for Situated Practice:
Spectral Infrastructure,
IKSV ÇAP, Türkiye

2020 Artist Residency
Program, Gate 27,
Türkiye

마샤 바이츠만
Marcia VAITSMAN
www.vaitsman.wordpress.com

2017 Ph. D in
Contemporary Art,
Universidade de
Coimbra, Coimbra,
Portugal

2011 MFA in
Photography, SCAD,
Atlanta, USA

1998 BA in Medien
Studies, Universidade
de São Paulo, São
Paulo, Brazil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Spielraum*, SomoS,
Berlin, Germany

2016 *Small Acts of
Kindness*, Whitespace,
Atlanta, USA

2012 *MediaScan: Giant
Waves*, Centro Cultural
São Paulo, São Paulo,
Brazi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Unlikely Transits*,
Te Tuhi Contemporary
Art Trust, Auckland,
New Zealand,

2018 *Exquisite Exhibit*,
Atlanta Contemporary
Art Center, Georgia,
USA

Residencies

2019 SomoS Berlin Artist
Residency, SomoS,
Germany

2018 GlogauAIR artist
residency, GlogauAIR,
Germany

빅토리아 베스나
Victoria VESNA
www.victoriavesna.com

2000 Ph. D in Interactive
Arts, University of
Wales, Cardiff, UK

1984 MFA in Fine Arts,
University of Belgrade,
Belgrade, Serb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ALIEN] Star
Dust*, Natural History
Museum, Vienna,
Austria

2020 *NOISE AQUARIUM*,
Contemporary Centre
Laznia, Gdansk, Poland

2019 *We are all Animals*,
Klang Moor Schopfe,
Gais, Switzerland

2019 *NOISE AQUARIUM*,
Museum of Maritime
History, Pula, Croat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From Forces to
Forms*, Manhattan Pratt
Gallery, New York, USA

2022 *Our Time on Earth*,
Barbican Art centre,
London, UK

2021 *Cosmos & Chaos*,
CYFEST Annenkirche,
St Petersburg, Russia

Residencies

2019 – 2020 Meteorite
Collection, Natural
History Museum, UK

쿠스 부이스트
Koos BUIST
www.koosbuist.nl

2010 Diploma,
Academie Minerva
ABK, Groningen, the
Netherland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MIR project*,
Suikerterrein,
Groningen, the
Netherlands

2018 *Waddenzeevolk*,
Museum Martena,
Franeker, the
Netherlands

2018 *FestiValderAa*,
Microsafari III,
Schipborg, the
Netherland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Langs de oevers van
de Oude Riet*, Museum
Wierdenland, Ezinge,
the Netherlands

2019 *Pleuriversum*, Arti et
Amicitiae, Amsterdam,
the Netherlands

2019 *Ifzingwekkend 5*,
Kunsthal 45, Den
Helder, the Netherlands

2019 *All Inclusive*,
Nacht van kunst
en Wetenschap,
Groningen, the
Netherlands

2018 *Hongerige Wolf
festival*, Hongerige
Wolf, Groningen, the
Netherlands

아감 슈레사
Agam SHRESTHA

캣 스콧
Cat SCOTT
www.catscott.co.uk

엘리사 스토렐리
Elisa STORELLI
www.elisastorelli.ch

다미르 아브다직
Damir AVDAGIC
www.damiravdagic.com

2014 MFA, Tribhuvan University, Kathmandu, Nepal
2011 BFA, Banaras Hindu University, Varanasi, India
2007 IFA, Tribhuvan University, Kathmandu, Nepal

2015 BA in Hons Textiles in Practice,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UK
2012 BFA in Art and Design, Leeds Arts University, Leeds, UK
2011 BTEC National Diploma in Textiles and Clothing, Craven College, Skipton, UK

2021(in progress) Ph. D Art, Kunsthochschule Bremen, Bremen, Germany
2021 Meisterschüler, Kunsthochschule Bremen, Bremen, Germany
2014 Meisterschüler,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Berlin, Germany
2013 BFA,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Berlin, Germany

2016 MFA, University of California (UCLA), Los Angeles, USA
2014 MFA,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Copenhagen, Denmar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2021, 2020, 2014, 2013, 2012 *National Art Exhibition*, Nepal Academy of Fine Art, Kathmandu, Nepal
2021 *looking forward*, Marymount University, California, USA
2019 *Amalgam*, Siddhartha Art Gallery, Kathmandu, Nepal
2011 *Yeuta Kala Utsav*, Nepal Art Council, Kathmandu, Nepal
2011 *Dharaa Soonya*, Quertica Art Gallery, Varanasi, Indi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9 *The Abyssal Glow Solo Exhibition*, Wigan STEAM, Wigan WN1 1NA, UK
2018 *Collide Solo Exhibition*, Tambourine Coffee, Saltaire, UK
2018 *Collide Solo Exhibition*, The Brick Box Rooms, Bradford,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chronomorphology*, sis123, La chaux de fond, Switzerland
2022 *Atomistic*, Kunstraum Neun Kelch, Berlin,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Reprise/Response*, 18th Street Art Center, Santa Monica, USA
2020 *Two projects in dialogue*, Oppland Art Centre, Lillehammer, Norway
2018 *Reprise/Response*, Gallery RAM, Oslo, Norwa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Be Fantastic Triennial*, Online Digital Exhibition, Jaaga, India
2019 *Creators in Lab: Art and Science*,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Sculpture Garden*, Geneva Biennale, Geneva, Switzerland
2021 *EXP: je voudrais commencer par sauter*, Museo scienza, Milano, Ital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In search of Other space of Belonging*, KRAK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e, Bihac, Bosnia & Hercegovina
2021 *Norwegian Sculpture Triennale*, Norwegian Sculptors Association, Oslo, Norway
2020 *From what will we reassemble ourselves?*, Framer/Framed, Amsterdam, the Netherlands

Residencies
2020 Electric Storm, Spirit Studios, UK
2019 Creators in Lab: Art and Science, Asia Culture Center, Korea

Residencies
2022 Musées 24/24, Musée des beaux-arts, Switzerland
2018 Inhabiting Time, Cittadellarte - Fondazione Pistoletto, Italy

Residencies
2022 Residency at WIELS, WIEL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lgium
2019 – 2020 Visiting Artist Residency, 18th Street Art Center, USA

부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I 라운지 / 웹사이트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I Lounge / Website

알페르 아이딘
Alper AYDIN
www.alperaydin.art

바네사 알버리
Vanessa ALBURY
www.vanessaalbury.com

로라 어코스타 & 산티아고 타베라
Laura ACOSTA & Santiago TAVERA
www.elsguer.com

2019 Ph. D in Sculpture, Hacettepe University, Ankara, Türkiye
2014 MFA in Painting, Gazi University, Ankara, Türkiy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The Way*, Bebek Sarmıcı, İstanbul, Türkiye
2015 *Phreatic*, Artnivo Project Space, İstanbul, Türkiye

2008 MFA in Studio Art,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City, USA
2001 BA in Studio Art, Minor in Art History, College of Charleston, South Carolina, USA

로라 어코스타
Laura ACOSTA

산티아고 타베라
Santiago TAVER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Printing Future*, Kunsthaus Götiingen, Göttingen, Germany
2022 *4 The Promise of Grass*, Mardin Biennial, Mardin, Türkiye
2017 *A Good Neighbour*, 15.İstanbul Biennial, İstanbul, Türkiy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8 *All Things That Are, Are Light and Soot Quappi Projects*, Quappi Projects, Louisville, USA
2017 *Shadowgraphs*, Benrubi Gallery, New York, USA
2016 *Collect Light*, Murray State University, Murray,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The Novels of Elsewhere (Episode 5): If I saw you, I don't remember*, Montréal Arts Interculturels, Montréal, Canada
2018 *The Novels of Elsewhere (Episode 3) Live Despecho*, 17th International Images Festival, Manizales, Colombia
2015 *Introspective Landscapes Exhibition*, Nuit Blanche, Montréal, Canada

2016 MFA in Intermedia,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Canada
2011 BA Honors Specialization in Visual Arts, Major in Psychology, Western University, Ontario, Canada

Residencies
2022 Visual Arts Fellows, Civitella Ranieri, Italy
2021 Berlin Artist Residency, DAAD, Germany
2020 SAHA Studio First Term, SAHA Studio, Türkiy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aroque Blue 2022*, Santa Caterina, Lecce, Italy
2022 *Reconnecting: City as Nature*, Apple Bank, New York, USA
2021 *Eco-Urgency: Now or Never*, Lehman College Art Gallery, New York,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Resonances du Réel*, Maison de la Culture Claude-Léveillée, Montréal, Canada
2021 *The Novels of Elsewhere (Episode 4): Camouflaged Screams*, OPTICA – Un centre d'art contemporain, Montréal, Canada
2020 *ARTchipeL 2020*, Centre d'exposition Lethbridge, Montréal, Canad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The Novels of Elsgüer (Episode 5)*, MAI - Montréal arts interculturels, Montréal, Canada
2018 *Reverberations of a Topological Daydream*, Forest City Gallery, London, Canada
2016 *Montréal's International Digital Art Biennial(BIAN)*, Maison de la culture Marie-Uguy, Montréal, Canada

Residencies
2022 Klausrid Residency, Institute of Gunnar Gunnarsson, Iceland
2021 Core Residency, Millay Arts, USA

Residencies
2022 VIR Viafarini-in-residence, Viafarini, Italy
2019 CASA NA ILHA Art Residence, Casa Na Ilha, Brazil
2015 Visitations Residency, FOFA Gallery, Canad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MTL Connect*, Expo – Palais 11, Brussels, Belgium
2021 *Resonances du Réel*, Maison de la Culture Claude-Léveillée, Montréal, Canada
2021 *Latin@america: Embedding Bodies and Localities*, Sur Gallery, Toronto, Canada

Residencies
2022 VIR Viafarini-in-residence, Viafarini, Italy
2016 Visual Artist Residency- Johnson, Vermont Studio Center, USA

돈 에들러
Don EDLER
www.donedler.com

2022 MFA in Design
Media Arts, UCLA, Los
Angeles, USA
2014 MFA in Studio Art,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USA
2010 BFA in Sculpture,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US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Cara Chan and
Don Edler: Deep Time*,
Hunter Shaw Fine Art,
Los Angeles, USA
2017 – 2021 *Tablets, B
Space*, Los Angeles,
USA
2021 *Devil You Know*,
Hunter Shaw Fine Art,
Los Angeles, USA
2019 *Two Minutes To
Midnight*, Hunter Shaw
Fine Art, Los Angeles,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0 *XX:XX*, Hunter
Shaw Fine Art, Los
Angeles, USA
2020 *Reality is Canceled*,
Hunter Shaw Fine Art,
Los Angeles, USA
2018 *To Have or To Be*,
Ochi Projects, Los
Angeles, USA

캐트 오스틴
Kat AUSTEN
www.katausten.com

2010 Metalwork for
Sculpture, Central Saint
Martins, London, UK
2006 Ph. D in Chemistry,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UK
2001 MSci Chemistry,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Palaeoplasticene in
Colliding Epistemes*,
BOZAR Centre for Fine
Art, Brussels, Belgium
2022 *Fossil Experience*,
Prater Gallery, Berlin,
Germany
2022 *Weather Engines*,
Athens Observatory,
Athens, Greece
2022 *Colliding Epistemes*,
Łaznia, Gdańsk, Poland
2021 *What after /
What for*, Muzeum
Współczesne,
Wrocław, Poland

페드로 올리베이라
Pedro OLIVEIRA
www.oliveira.work

2021 PostDoc, Helsinki
Collegium for
Advanced Studies,
Helsinki, Finland
2017 Ph. D,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Berlin, Germany
2012 MA, Hochschule
für Künste Bremen,
Bremen,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Fragile Solidarities*,
Wagenhall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2021 *Wake Words*,
Kunstraum
Niederösterreich,
Wien, Austria
2020 *INHABIT*, Basis
Frankfurt, Frankfurt,
Germany
2019 *Walking Festival
of Sound Stockholm*,
Detroit Stockholm,
Stockholm, Sweden

Residencies

2022 AI Anarchies, Junge
Akademie der Künste,
Germany
2022 Inhabit, Max-Planck
Institute for Empirical
Aesthetics, Germany
2019 IASPIS, The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Sweden

나오 우사미
Nao USAMI
www.naousami.com

2020 MA in Film and
New Media,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Yokohama, Japan
2018 BA in Design,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Open Studios @
GlogauAIR*, Online,
Berlin, Germany
2021 *Ram Practice*,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Yokohama, Japan
2020 *Media Practice*,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Yokohama, Japan
2019 *Open Studio*,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Yokohama, Japan

Residency

2021 On-line Resident
Weekend Summer
2021, GlogauAIR,
Germany

클레어 윌리엄스
Claire WILLIAMS
www.xxx-clairewilliams-
xxx.com

2012 MA in Visual Arts,
La Cambre, Bruxelles,
Belgium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Constant V*, Parcours
d'Artistes, Bruxelles,
Belgium
2018 *Data Textile*, La
Manufacture, Roubaix,
France
2017 *Chants Magnétiques*,
Gallérie V2, Charleroi,
Belgium
2017 *Gallérie Rature*,
Festival Voix de
Femmes, Liège,
Belgiu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iennale Chroniques*,
LE GRENIER À SEL,
Avignon, France
2022 *Festival Ososphère*,
QUARTIER DE LA
LAITERIE, Strasbourg,
France
2022 *La pop Paris*,
Péniche La Pop, Paris,
France

Residencies

2018 – 2020 POST
DIPLOME, Le Fresnoy
studio National, France
2014 Résidence de
Recherche, TAMAT,
Belgium

케이지 켄킨스
Casey JENKINS
www.casey-jenkins.com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8 *Queer Threads*,
Assembly Point,
Melbourne, Australia
2017 *Blood: Life Uncut*,
London Science
Gallery, London, UK
2016 *Meridian Midsumma
Visual Art Exhibit*,
45 Downstairs,
Melbourne, Australia
2015 *in f generations:
feminism, art,
progressions*, George
Paton Gallery,
Melbourne, Australia

Live Art/Solo Work/
Primary Artist

2018 *Feminist Artists
Anonymous*, KINGS
ARI, Melbourne,
Australia
2017 *The Beholder*,
SomoS Gallery, Berlin,
German
2017 *Midsumma Festival*,
Horizons at 1-23 city
road, Melbourne,
Australia
2016 *sMother*, Venice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Week,
Venice, Italy
2016 *Festival of Live Art*,
Arts House, Melbourne,
Australia
2015 *Body of Work*, Dark
Horse Experiment
Gallery and online,
Melbourne, Australia

데스피나 차리토니디
Despina CHARITONIDI
www.despinacharitonidi.
com

2014 Accademia di Belle
Arti di Roma, Rome,
Italy
2011 University of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Arts
and Ancients, Athens,
Gree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Dolphins are back
in Venice*, Westewerk,
Hamburg, Germany
2018 *Turtle Soup*, Ex
Dogana Galleria, Rome,
Italy
2018 *Fragile Nets*, Stoa
42, Athens, Greece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Balkan Projects -
Serbian Pavilion Venice
Biennale 2022*, Museum
of Contemporary Art
Vojvodina, Novi Saad,
Serbia
2022 *Cinema Floating
- Acque Sconosciute*,
Cinema Galleggiante,
Venice, Italy
2022 *A Midsummer
Night's Dream*,
Alkinoos, Athens,
Greece
2021 *New Monuments*,
Gallirrhoë, Athens,
Greece

Residencies

2022 Art and Research
Residency, Hydrousa,
Greece
2021 ZK/U, Zentrum für
Kunst und Urbanistik,
Germany

첸한성
Han Sheng CHEN
www.hanshengchen.
weebly.com

2015 The Institute of
New Media Art,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Taipei,
Taiwan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From view to
landscape all at once*,
Taipei Dangdai, Taipei,
Taiwan
2019 *After the Explosion
1988*, TAISHIN, Taipei,
Taiwan
2019 *After the Explosion*,
Powen Gallery, Taipei,
Taiwan
2019 *Once lake— Field
now*,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Taichung, Taiwan
2018 *The Last Farm Boy*,
YIRI ARTS, Kaohsiung,
Taiw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WOMEN: From
Her to Here*, WMA,
Hongkong
2021 *WOMEN: From
Her to Here*, Chinese
Culture Center of
San Francisco, San
Francisco, USA
2020 *POP UP
MINIARTEXTIL*, Le
Beffroi Cultural Space,
Monrouge, France
2019 *COSMOPOLIS #2 -
REPENSER L'HUMAIN*,
Centre Pompidou,
Paris, France

시온 칼레스
Theun KARELSE
www.theunkarelse.net

2000 Fine arts, Sandberg
Institute, Amsterdam,
the Netherlands

1994 Fine arts, StJoost
academy of the arts,
Breda, the Netherlands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Deep Steward
at Dutch Pavilion,*
Triennale Milan,
Milano, Italy

2022 *Machine Wilderness
art-science fair,* ARTIS-
Groote Museum,
Amsterdam, the
Netherlands

2022 *Gardening,*
Landhuis Oud
Amelisweerd, Utrecht,
the Netherlands

2022 *ECOnauts
exhibition,* ASTE,
Liepaja, Latvia

2022 *Perception festival,*
Wageningen University,
Wageningen, the
Netherlands

프레데릭 크라우케
Frédéric KRAUKE
www.frederic-krauke.com

2010 MFA,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1 *Im Wahnsinn der
Welt,* IGB, Berlin,
Germany

2021 *Sonnentaenzer,*
Media Art Center
Route-17, Daejeon,
Korea

2020 *Liberation
Narrative,* Gyeonggi
Cheonyeongil Gallery,
Gyeonggido,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Forward,* Odusan
Unification Tower,
Gyeonggido, Korea

2020 *50/50 The Matter
of Duality,* Paul-
Fleischmann-Haus,
Berlin, Germany

2019 *UNWALL,*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2018 *GLOBAL CONTROL
AND CENSORSHIP,*
MODEM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Centre, Bebreccen,
Hungary

2018 *GLOBAL CONTROL
AND CENSORSHIP,* the
National Library, Riga,
Latvia

Residency

2021 *Sonnentaenzer,*
Media Art Center
Route-17, Korea

키메라 로사
Quimera Rosa
www.quimerarosa.net

Performance
2019 *FEMINISMOS!*,
CCCB Centro
de Cultura
Contemporánea de
Barcelona, Barcelona,
Spain

2019 *Extravagant Love
Festival,* Kontejner,
Zagreb, Croatia

2019 *Casa Brandon,*
Buenos Aires,
Argentina

2019 *STWST48x5
STAY UNFINISHED,*
Stadtwerkstatt, Linz,
Austria

2018 *Festival Cyborgrrrrl,*
Medialabmx, Ciudad
de México, Mexico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Deus Ex Machina,*
Arsenal Saint-Jean,
Soissons, France

2021 *Science Friction,*
CCCB, Barcelona, Spain

2021 *MOVE
SEMANTICS: RULES
OF UNFOLDING,* EFA
Project Space, New
York, USA

Residencies

2020 Artista Residente
del Wetlab, Hangar.org,
Spain

2019 ArtScience
Residency, Ars
Electronica Center,
Austria

바비네 엘리캤 피앗시
Va-Bene Elikem FIATSI
[crazinisT artisT]
www.crazinistartist.com

2017 MFA(abD),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umasi,
Ghana

2014 BFA in Painting,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umasi, Ghan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Kall for Healing,*
Midlands Arts Centre,
Birmingham, UK

2022 *INTI-mate HealinG,*
Casinoplatz, Bern,
Switzerland

2021 *Un(EARth)ing
w-E-story,* Inventory
Platform, Online,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Subversive Bodies:
Art, Gender, & Media,*
The 5th Floor, Tokyo,
Japan

2022 *Shape/Build/Form,*
Galleri CC, Malmö,
Sweden

2021 *Bye Bye Binary,*
Weltspiele & Monkey's,
Hannover, Germany

Residencies

2022 TURN2, ZKU
BERLIN, Germany

2022 Pro Helvetia,
Swiss Arts Council,
Switzerland

분진시 2 — 공간을 가로질러 - 공명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470

Main Exhibition 2 — Across Space — Sympathetic Vibration (Resonanc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471

레이첼 피뎀
Rachel PIMM
www.rachelpimmwork.tumblr.com

2013 MFA,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2006 BFA Hons, Central
Saint Martins,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Emergent Ecologies,*
Common Ground
Machon Bank,
Sheffield, UK

2020 *AGGREGATION,*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2020 *Plates,*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1 *Afterness,* Orford
Ness, Suffolk, UK

2021 *A Vida Secreta das
Plantas,* Casa da Cerca,
Almada, Portugal

2019 *The Trouble is
Staying,* Meet Factory,
Prague, the Czech
Republic

Residencies

2022 Artist in Residence,
Edward James
Foundation, UK

2019 Writer in Residence,
Whitechapel Gallery,
UK

이반 헤이케스
Ivan HENRIQUES
www.ivanhenriques.com

2011 MA in Interfaculty
ArtScience, Royal
Academy of Art, The
Hague, the Netherlands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0 *Natural Glitch,*
Ars Electronica, Linz,
Austria

2019 *Atmospheric
Trilogy,* Bozar,
Bruxelles, Belgium

2017 *Exhibition Dark
Habitat Dark Ecology,*
Spektrum Berlin,
Berlin, Germany

2017 *Microscope Light
Machine,* Brazilian
Embassy, Tokyo,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2 *Machine Wilderness,*
Artis Zoo, Amsterdam,
the Netherlands

2022 *Floriade Pavillion,*
Urban District, Almere,
the Netherlands

2021-2022 *O Rio e
uma Serpente,* SESC
Sorocaba, Sorocaba,
Brazil

Residencies

2022 Machine Wilderness
ARTIS Residency
Programme, Machine
Wilderness, the
Netherlands

2017 Overseas Creators
Program, Agency for
Cultural Affairs, Japan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현대미술에서 창작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작업의 주된 요소가 된다. 창원특례시 일원에서 작업하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시민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작가의 미술 창작 문화를 보다 가깝게 체험하며, 이를 통해 창원의 삶과 문화를, 그리고 창원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창원 시민과 미술인들의 저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전시장소:
창원특례시 일원

Contemporary art values process as much as the end result. Special Exhibition 1 opens the studios of artists in Changwon to the public. This presents the opportunity to gain insight into the artists' process of creation and the vibrant and creative local art scene of the host city.

Exhibition Venue:
Changwon City District

감라영 Rayoung KAM

(197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5,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감라영은 회화 작가로 선과 면, 색채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자신에게 일으키는 감응을 포착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담아낸다. 작가는 언어화되지 않는 불분명한 감정과 지나간 일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현재의 순간에 소환하여 과거를 곱씹어본다.

As a painter, KAM captures the reaction that an image comprised of lines, shapes, and colors evokes in herself, projecting her inner feelings onto canvas. She brings to the present the past and associated feelings that cannot be expressed in language, reminiscing every moment.

#painting #changwon #IntenseColors
#PowerfulWingFlap

#회화 #창원 #강렬한색채 #힘찬날개짓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1

476

F2

477

강나현 Nahyun KANG

(1994,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94,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21년 기준 1448만가구라고 하며 매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어느새 펫코노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반려동물들에 비해 저조한 사회규정과 느린 인식 전환으로 사회 곳곳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작가는 한 명의 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의 학대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을 때의 불편했던 감정을 계기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가는 소중한 생명들이 시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도예로 빚어낸다.

The number of Korean households with companion animals is on the rise, reaching 14 million in 2021. The term “Petconomy” was coined to reflect the significant impact pets have on the owner’s lifestyle. However, there have been growing social issues involving pets, driven by the lack of rules, regulations, and awareness on responsible pet ownership. As a pet owner herself, KANG remembers the uncomfortable feeling she had when she came across reports of domestic animal abuse. Her carefully crafted pottery pieces reflect the hope that precious furry friends are appreciated and treated with respect.

#ceramics #changwon #CompanionAnimal #care

#도예 #창원 #반려동물 #돌봄



강천석 Cheonseok KANG

(196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7,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강천석은 이성적, 감성적 자아에 대비되는 비인칭성, 익명적인 자아에 관심을 가진다. 익명성의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회화를 통해 새로운 해석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

#회화 #창원 #익명 #자아

KANG is interested in exploring impersonal and anonymous ego which draws contrast to rational and emotional ego. His paintings reveal the process where the anonymous ego is built to create new room for interpretation.

#painting #changwon #anonymous #ego



F2

478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479

강화자 Hwaja KANG

(1955,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5,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강화자는 글씨 교정을 위해 서예를 배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서화가 어우러진 문인화와 인연을 맺은 지 30여년이 지났다. 작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묵향에 담아낸다.

#문인화 #창원 #희로애락 #묵향

The artist initially took up Korean calligraphy to improve her handwriting. Some 30 years have passed since her first experiment with literati painting, an ancient form of art that blends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She portrays the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f our lives through delicate brushwork and subtle washes of ink.

#LiteratiPainting #changwon
#JoyAngerSorrowPleasure #DelicateBrushwork
#InkWashes



권순화 Soonhwa KWON

(1976,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6,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권순화는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포착한다. 삶에서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행복을 추구하며 평범한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 덕분인지도 모른다.

KWON celebrates fleeting moments of happiness in everyday life. Life isn't always rainbows and butterflies, but she believes in the power of finding and capturing happiness hidden in everything. This may have to do with her childhood memories of growing up in a not well-to-do but happy, close-knit family.

#painting #changwon #happiness #documentation

#회화 #창원 #행복 #기록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E2

480

F3

481

김기주 Giju KIM

(1960, 한국)
한국 경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0, Korea)
Born in Gyeong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기주는 현대 서각 작가로, 다양한 서체와 색채를 활용하여 글의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 현대인에게 즐거움과 심신의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KIM is a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er who experiments with a diverse range of script types and colors to express the meaning of a word or convey his intentions. He hopes the exquisitely carved forms will bring people joy and inner peace, contributing to social integration and growth.

#서각 #창원 #전통과현대의조화 #즐거움

#CalligraphyCarving #changwon
#TraditionMeetsModern #joy



김덕천 Dukchun KIM

(1967,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7,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작가는 친숙하지만, 회화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인 나무로 회화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나무를 자르고 쪼개기를 반복하고 이를 다듬어서 그 위에 아크릴로 색을 입히는 것을 반복하여 캔버스에 붙여 나간다. 각기 다른 출처와 사연을 가진 나무는 작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는다.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뒤에 물러서서 보면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듯이 개별의 나무조각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회화 #창원 #나무조각 #공동체

KIM primarily works with the familiar, yet unlikely medium of wood to create a painting. He cuts down a log into small strips, coats them with acrylic paint, and places them on canvas one by one. Trees from different sources and stories are given a second life through the hands of the artist. A closer look at the work reveals the distinct shapes of each wooden piece. But from a few steps back, it looks almost unrecognizable, like abstract art. Small pieces of wood are combined to produce an artwork, just as individuals come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and a world.

#painting #changwon #WoodenPieces #community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482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483

김미경 Mikyeong KIM

(196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작가는 작가가 동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 - 꽃과 나무, 한적한 시골풍경과 바닷가에 배가 있는 풍경 - 를 주요한 소재로 삼아 수채화, 아크릴, 유화 등 다양한 평면 작업으로 담아낸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상과 변화된 관계 속에서 작가는 회화 화면에서의 색과 구성의 조화를 통해 잃어버린 유대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

#회화 #창원 #풍경 #어울림

The artist's subject matters range from flowers and trees, and serene rural landscapes, to fishing boats on the coast. What they share in common is that they are the subject of her admiration. She translates these impressive imagery into two-dimensional works, such as watercolor, acrylic, and oil paint. In the midst of changes in life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KIM hopes the harmony of colors and composition found in her paintings will help restore the lost ties.

#painting #changwon #landscape #harmony



김민성 Minsung KIM

(1972, 한국)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2, Korea)
Born in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민성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 식물 등을 단순화하여 표현하고 이를 대상이 놓인 시간과 공간에 함께 엮어낸다. 작가는 대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상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포착한다. 작가는 이를 사유조형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자연의 본질과 순수성에 다가가려는 조형적 탐구의 결과물이자 존재의 본질, 생성과 소멸에 대한 작가의 고민을 담아낸다.

KIM presents simplified versions of everyday objects or plants by integrating them into the time and place where they belong. The artist reflects for an extensive period of time on where the object came from and how it disappears, capturing the intuitive feelings from such observation. He calls the result “contemplative formative art.” It is the outcome of a formative exploration into the essence and purity of nature and a manifestation of his take on the essenc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a being.

#조각 #창원 #사유조형 #자연의본질

#sculpture #changwon #ContemplativeFormativeArt
#EssenceOfNature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1

484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G3

485

김성희 Sunghee KIM

(1960,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0,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성희는 서각 작가로, 서각의 정교함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서각은 재료 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형문자와 다양한 서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여 문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KIM is committed to raising awareness on the exquisiteness and ingenuity of calligraphy carving.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ing pursues diversity in materials and seeks a fine balance between common characters and various script types to achieve aesthetics.

#서각 #창원 #전통의맥 #독창성

#CalligraphyCarving #changwon
#CarryingOnTheLegacy #ingenuity



김은주 Eunju KIM

(1962, 한국)
한국 합천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2, Korea)
Born in Hap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작가는 인류발전을 위해 희생되어 온 자연을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자연 생태계의 회복과 보존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회화의 주된 색상으로 삼아 캔버스를 채워 나가면서 후세대에 회복된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바람을 새긴다.

#회화 #창원 #초록 #환경

For centuries, development has come at the expense of nature. The artist approaches nature from a female perspective and is interested in the restoration and conversation of ecosystems. She usually works with the color green, the symbol of nature, in hopes of passing on restored nature to future generations.

#painting #changwon #green #environment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3

486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487

김재호 Jaeho KIM

(1969, 한국)
한국 하동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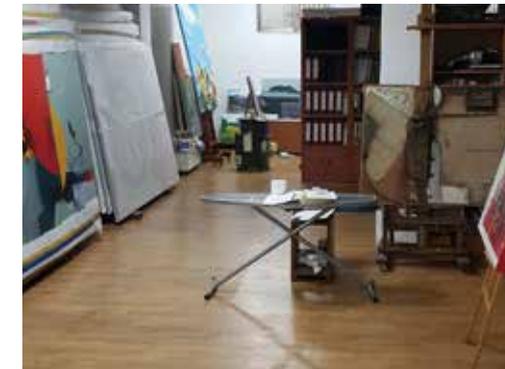
(1969, Korea)
Born in Had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재호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울림을 포착하기 위해 추상적인 시각 언어를 창조하고 자유로운 드로잉과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다. 경쾌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붓질이 화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근원과 본질을 추구한다.

#회화 #창원 #변화무쌍한자연 #울림

KIM develops an abstract visual language to describe the ever-changing aspects of nature and echoes of life, combining it with free drawing and dripping techniques. A harmony of a vibrant color palette and rhythmical brushwork helps further his quest into the very origin and essence of nature.

#painting #changwon #EverChangingNature #dynamic



김화문 Whamoon KIM

(1960,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0,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화문은 오랫동안 고전 서예를 공부하며 문인화, 전각, 서각, 캘리그래피까지 관심 분야를 확장하였다. 작가는 고유한 생각을 바탕으로 글꼴이 가진 잠재력을 가시화하고 재료와 구성에 대한 실험을 통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에 걸쳐 있는 글씨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M studied classic Korean calligraphy at length and expanded her interest to literati painting, calligraphy carving, seal carving, and modern calligraphy. She experiments with a range of materials and compositions to visualize the potential of lettering styles and render visually engaging designs. With a great interest in unique hand lettering cultures across the world, she is committed to upgrading the status of Korean calligraphy.

#서예 #캘리그래피 #창원 #글씨문화

#KoreanCalligraphy #calligraphy #changwon
#handlettering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E3

488

F2

489

김희곤 Heegon KIM

(1967,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7,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희곤은 길을 거닐면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스치게 되는 풍경을 포착한다. 자신에게 낯설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적인 장소일 수 있는 곳을 그려냄으로써 풍경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고자 한다.

KIM's paintings document random scenes he comes across on the street. By depicting an unfamiliar place that may be familiar to someone, he hopes to leave his trace upon it.

#painting #changwon #StreetScene #WhereEyesRest

#회화 #창원 #길위의풍경 #시선이머무는곳



박유종 Youjong PARK

(1973, 한국)
한국 양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3, Korea)
Born in Yang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박유종은 드리핑 기법을 활용한 회화 작업을 주로 한다. 동심(童心)을 가진 순수했던 유년 시절과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청년 시절, 현재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의지를 작업에 담아낸다.

PARK primarily paints using a dripping technique. He likes to portray the innocence and purity of childhood, the energy and passion of youth, and a commitment to the present and dreams of the future.

#회화 #창원 #드리핑 #순수와열정

#painting #changwon #dripping #PurityAndPassion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490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3

491

송광옥 Kwangok SONG

(1966,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송광옥의 분청은 자연과 삶의 흔적이 담긴 토속성과 현대적 조형성이 만나 빛어내는 결정체이다. 작가는 현대 회화 기법인 스크래치를 도자에 접목하여 회화적 표현양식을 수용하면서도 동양의 절제미학을 드러낸다.

SONG's grayish blue buncheong celadon pieces represent the interplay of indigenouness of nature and life and contemporary formative elements. He incorporates the scratch painting technique into and embraces a painterly expression, while practicing the Eastern art of moderation.

#도에 #창원 #분청 #절제미학

#ceramics #changwon #BuncheongCeladon
#ArtOfModeration



송명주 Myeongjoo SONG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송명주는 수채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뿌리고, 흘리고, 찍고, 번지기 등 다양한 비구상적이면서도 즉흥적인 기법을 한 화면에 담는다. 이를 통해 암울하고 단절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을 표현하고자 한다.

SONG's watercolor paintings offer a realistic portrayal of a subject, based on a range of non-figurative and spontaneous techniques, including spritzing, dripping, dabbing, and wet-on-wet. They are an appreciation of the small joys in a socially and physically isolated everyday life.

#회화 #창원 #즉흥성 #일상의기쁨

#painting #changwon #improvisation
#JoyInEverydayLife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492

F3

493

신은순 Eunsoon SHIN

(197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7,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신은순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을 색과 실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름답고 정교하면서도 다양한 색을 조화시킨 특유의 매듭은 자연과 풍경을 섬세하면서도 다채롭게 보여준다.

SHIN uses a combination of colors and strings to express emotions aris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Delicately-woven knots with vibrant colors are inspired by nature and landscapes.

#공예 #창원 #색감 #정교함

#craft #changwon #colors #delicate



안령희 Yeounghee AN

(1957,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7, Korea)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안령희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란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 왔다. 전통적인 소재인 모란을 회화의 주제로 삼아 전통이 동시대의 예술과 호흡하기를 바란다. 또한 최근에는 ‘모란과 달항아리’, ‘新(신)모란도’ 등으로 주제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Peonies have become an iconic subject in AN's oeuvre since 2009. The artist chose the traditional subject matter in hopes of integrating past traditions into contemporary art. She is now experimenting with a broader subject, such as "peonies and a moon jar" and "new peony painting."

#회화 #창원 #모란 #전통과현대의조화

#painting #changwon #peony #TraditionMeetsModern



F3

494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3

495

이소정 Sojung LEE

(1961, 한국)
한국 대구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소정은 각각의 오브제가 모여 하나의 화폭을 이루는 작업을 하고 있다. 채색, 표현, 느낌은 다르지만 각자 가진 온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했음을 보여준다.

LEE juxtaposes on canvas different objects with varying colors, textures, and feels. These seemingly random elements come together to form the whole, demonstrating their mutual indispensability.

#painting #changwon #connection #journey

#회화 #창원 #연결 #여정



이정희 Jeonghee LEE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정희는 기억의 모습을 상상하며 캔버스에 직선을 반복하여 쌓아 나간다. 마르면서 생겨나는 패턴은 강력한 형태로 시각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이에 반해 통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점은 순환되는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하고, 다양한 색채는 생명성과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LEE visualizes the shapes of memories as a pile of straight lines. As the paints dry, intricate patterns appear, creating visual tensions. On the contrary, uncontrolled, free-floating points reveal the flow of energy, while the rich color palette represents vitality and dynamics.

#painting #changwon #layers #energy

#회화 #창원 #겹 #에너지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496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1

497

이현동 Hyundong LEE

(1962,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2,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현동의 서각은 나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에 칼과 끌을 사용하여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한글 작품과 그림 같은 상형 한자로 만들어낸 입체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무궁무진한 서각의 세계를 알리고자 한다.

LEE's calligraphy carving involves carving raised Korean letters or Chinese hieroglyphics in wood or other materials using a knife and a chisel to give a three-dimensional effect. With easy-to-relate messages, the artist hopes to bring viewers closer to the world of calligraphy carving that has endless possibilities.

#서각 #창원 #무궁무진 #생각의분출구

#CalligraphyCarving #changwon #EndlessPossibilities
#VentingOutIdeas



임덕현 Deokhyun LIM

(1969,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임덕현은 아교와 명반, 먹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기법으로 자연의 색감을 구현한다. 신비로운 자연을 단순히 보고 그대로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인 풍토에 맞는 인상주의 미학을 수립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화 #창원 #자연의생동감 #독창성

(1969, Korea)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LIM mirrors the rich colors from nature's palette by relying on his own technique using animal glue, alum, and an ink stick. Instead of simply documenting the mystery of nature, he has developed his own impressionist style with Korean elements, which lends originality to his works.

#KoreanPainting #changwon #VitalityOfNature #originality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498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499

임채섭 Chaeseop IM

(1969,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임채섭의 연꽃을 주요한 소재로 삼는다. 연꽃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과 가능성에 매료되어 이를 수십 년째 연구하면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회화 #창원 #연꽃 #정화

(1969,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The lotus flower is a recurring subject in IM's art. Fascinated by its formative elements and purifying function, he has studied and painted the plant for decades.

#painting #changwon #LotusFlower #purifying



장선자 Seunja JANG

(1961, 한국)
한국 사천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Sache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장선자는 오랫동안 꽃의 유려한 곡선과 대쪽같은 직선에서 힘과 가능성을 보며 추상과 비구상 작업을 해왔다. 현재는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등 다양한 관계와 연결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있다.

#회화 #창원 #꽃 #연결

Flowers had long been a principal subject matter for JANG's abstract and non-figurative paintings. She saw both power and possibilities in their straight lines and elegant curves. Her more recent works explore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between objects or people.

#painting #changwon #flower #connection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500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3

501

장인석 Inseok JANG

(1969, 한국)
한국 충북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ungbuk,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장인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는 서각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목공을 접목하여 자신만의 색깔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서각 #창원 #목공과의결합 #실험

JANG's works break away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calligraphy carving, marrying design and woodwork to add a new dimension to the traditional art.

#CalligraphyCarving #changwon
#DesignMeetsWoodwork #experiment



정혜연 Hyelyun JUNG

(1961,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정혜연은 타인과 소통하는 일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과 기억되고 남는 것들 사이의 교차점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남긴다. 기록된 일상은 화면의 반짝이는 색감으로 남아 오랫동안 각인된다.

JUNG's paintings shed light on the interface between everyday memories that disappear and those that remain. Once documented, fleeting moments turn into sparkling colors, leaving a lasting legacy.

#painting #changwon #documentation #interface

#회화 #창원 #기록 #교차점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2

502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503

최미정 Mijung CHOI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도예가인 최미정은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흙작업을 통해 느긋함과 휴식을 선사하고자 한다. 취미이자 놀이로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예의 매력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한다.

Ceramic artist CHOI believes clay work helps people find inner peace and tranquility in this fast-changing world. She is committed to making the art of ceramics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s a hobby.

#ceramics #changwon #claywork #hobby

#도예 #창원 #흙작업 #취미



최선희 Seonhui CHOI

(1965, 한국)
한국 함양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Hamya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최선희는 삭막한 사회에서 서로의 웃는 모습을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꽃 중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의 화려한 자태를 화폭에 담아 우리의 부귀와 번영, 그리고 행복을 기원한다.

CHOI's works feature sumptuous depictions of the peony, "the king of flowers" to wish for wealth, prosperity, and happiness in an increasingly isolated society.

#FolkPainting #changwon #peony #TimesOfPeace

#민화 #창원 #모란 #태평성대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2

504

D3

505

김명련 Myeongryeon KIM

(1968, 한국)
한국 남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8, Korea)
Born in Nam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명련은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주변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화를 그린다. 누군가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노력에도 커다란 응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KIM paints folk art to wish for the well-being of those around us whom we often take for granted. She hopes we will be able to root for seemingly small, yet meaningful efforts by someone.

#FolkPainting #masan #wellbeing #RootingForYou

#민화 #마산 #안녕 #응원



김영관 Younggwan KIM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영관은 현대 서각 작가이다. 다양한 서체를 활용하는 현대 서각은 서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와 색채를 활용한다. 작가는 글자가 가진 뜻을 입체적인 구조와 색채에 실어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창작을 통한 즐거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Contemporary calligraphy carving experiments with a broad array of script types, materials, and colors to communicate a message. KIM relies on a combination of relief carved letters and different colors to reflect the meaning of the text and promotes joy and spiritual growth through creative expression.

#CalligraphyCarving #hamangun #SpiritualGrowth
#AestheticStructure

#서각 #함안군 #정신적풍요로움 #미적구조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B2

506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07

김옥숙 Oksuk KIM

(195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7,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작가는 자연이 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한국화로 담아낸다. 작품은 정지된 화면을 담아내지만 구름과 강은 흐르고, 꽃은 매순간 모습이 바뀌며 새와 나비는 잠시도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작가는 잠시도 멈춤이 없는 생명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한다.

The artist interprets the various sides of nature through the language of Korean painting. The subjects in her paintings are caught in a paused moment. But the cloud fleets, the river flows, the flower blooms, and the birds and butterflies continue to flap their wings. She intends to highlight the constant flow of life.

#한국화 #마산 #생명의흐름 #지금

#KoreanPainting #masan #FlowOfLife #now



김옥자 Okja KIM

(1955, 한국)
한국 부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5, Korea)
Born in Bu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옥자는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를 주제로 하여 회화 작업을 한다. 때로 꽃처럼 화려한 시절이나 정다운 사람들과의 추억은 인생사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잊혀진다. 작가는 우주적인 시간에 비해 찰나와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KIM's paintings explore the theme of "hwa yang yeon hwa," meaning the most beautiful and happiest moment in life. More than often, glory days and fond memories with people we love are forgotten during rough patches of life. Life is a moment in space. The artist vividly captures fleeting, yet significant memories in our momentary life.

#painting #masan #HwaYangYeonHwa #花樣年華
#momentary #encounter

#회화 #마산 #화양연화 #찰나 #만남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08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09

김은진 Eunjin KIM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작가는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작가 자신만의 주제인 '보리'를 설정하여 달항아리, 막사밭, 생활도자기, 평면 등 공예와 회화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다. 보리는 자연으로의 회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 등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The artist is best-known for her iconic "barley" series which features the grain repeatedly across different mediums from ceramics to painting. The image of barley appearing on a moon jar, porcelain bowl, everyday earthenware, and a two-dimensional surface represents a return to nature, deepening love over time, and inner beauty.

#craft #masan #barley #ReturnToNature
#DeepeningLove

#공예 #마산 #보리 #자연으로의회귀 #깊어지는사랑



김준희 Junhee KIM

(1990,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90,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준희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최근에는 실험적인 영상과 사진에 집중하고 있다. 고향인 마산의 풍경이나 소도시가 가진 특수성을 카메라에 담아낸 바 있으며 현재는 보다 보편적인 주제 - 사랑과 죽음 - 에 관심을 가진다.

Former film and documentary producer KIM focuses on experimental video and photography projects. His previous works depict landscapes of his homeland, Masan, and the distinctiveness of the small city. He now addresses the more universal theme of love and death.

#video #masan #LocalCulture #universality

#영상 #마산 #지역문화 #보편성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10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11

김현숙 Hyeonsook KIM

(196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1,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유년 시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에 둘러싸여 자란 작가는 자연을 통해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연에서 따온 형상을, 사유를 의미하는 보라빛 색채로 화면에 채워나간다. 이를 통해 현실을 초월한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Growing up in a rural town surrounded by mountains and the sea, KIM had plenty of time as a child to meditate in nature. Her work consists of shapes borrowed from nature painted in purple, the color symbolizing contemplation, to unveil an ideal world beyond the present one.

#painting #masan #purple #InviteToAForest

#회화 #마산 #보라빛 #숲으로의초대장



남동화 Donghwa NAM

(1954,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4,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남동화는 작은 톱날이 달린 목공장비인 스크롤쏘를 활용하여 자동차, 명화, 자화상을 모티프로 하여 순수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만의 도안을 적용한 휴대폰 거치대, 도마, 장난감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NAM uses a scroll saw, a woodworking tool with a small blade to cut intricate designs, to craft original artworks inspired by automobiles, celebrated paintings, and self-portraits. He also organizes woodworking classes for locals on a regular basis. Participants are invited to work with wood to build everyday objects, such as a mobile phone stand, a cutting board, and a toy, based on their own designs.

#목공예 #마산 #쏘잉마을 #스크롤쏘

#woodcraft #masan #SawingVillage #ScrollSaw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12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13

라상호 Sangho RA

(1974,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4,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라상호는 인상사진과 상업사진 등 다양한 사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창동예술촌 일대에서 갤러리/스튜디오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작가가 수집한 클래식 카메라를 구경할 수 있다.

RA has operated a gallery and a photography studio in Chang-dong Art Village for a decade, with an interest in different areas of photography including portrait and commercial. He teaches photography classes for amateurs. The gallery features several exhibitions, including the artist's own collection of vintage cameras.

#사진 #마산 #사진술 #수집

#photograph #masan #photography #collections



류정림 Jeongrim RYU

(1977,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7,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류정림은 달궈진 펜으로 나무, 한지, 가죽, 천 등을 태워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전통화 기법 중 하나인 인두화를 활용한 회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화면의 바탕이 되는 나무를 점의 연속으로 태워 나가면서 생명의 선이자 수행의 선을 화면에 담는다. 이를 통해 작가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정제하고 ‘인간은 자연을 닮고, 자연은 사람을 담는다’는 작가의 주요한 지향점을 추구하고자 한다.

RYU practices the art of pyrography where designs are burned into the surface of wood, Korean traditional mulberry paper, leather, or fabric with a heated pen. A succession of burn points creates a burn line, which symbolizes meditation and life. This process helps the artist unwind and untangle her mind and stay close to her motto, “People resemble nature, and nature embraces people.”

#painting #masan #line #nature

#회화 #마산 #선 #자연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14

C4

515

박순흔 Soonheun PARK

(1941,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41,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박순흔은 50여 년간 회화를 그려왔다. 가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작가는 지금까지 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했으며 작품이 어디에 있든 자신과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믿는다.

PARK has dedicated himself to painting for the past 50 years. It takes an effort to lead a balanced life between being a professional painter and a housewife. She has produced over 500 pieces of work and thinks she is deeply connected with her paintings wherever they are.

#회화 #마산 #50년 #연결

#painting #masan #50years #connection



박재철 Jeachul PARK

(1981,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81,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박재철은 도자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2대째 도자를 전공하고 있다.
전통도예와 현대도예를 접목하여 다복과
다산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물고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도예 #마산 #물고기 #전통과현대의조화

PARK is a second-generation ceramic
artist,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is
mother. His works are marked by a fine
blend of traditional and modern elements
with a focus on diverse representations
of fish, which symbolizes fertility and
happiness.

#ceramics #masan #fish #TraditionMeetsModern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B4

516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17

서지희 Jihoe SEO

(1974,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4,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서지희는 사회적인 사건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낸다.
작가는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을 내면의
언어를 발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한
가지 주제를 두고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듯, 관람자가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

#회화 #마산 #일상 #관점

SEO's paintings explore both social and
everyday issues in a process she describes
as an expression of inner language. She
prefers to leave the subject matter open to
interpretation, inviting viewers to explore
i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ainting #masan #EverydayLife #perspective



송창수 Changsoo SONG

(1943, 한국)
한국 흥남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43, Korea)
Born in Heungnam,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송창수는 신의 창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가 지니고 있는 심상을 표현하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SONG focuses on depicting the beautiful images of human beings, whom he believes are the most wonderful of God's creations.

#painting #masan #portrait #image

#회화 #마산 #초상화 #심상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18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19

안옥희 Okhee AN

(1965,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5,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안옥희는 심정의 변화로 인하여 주변에 끼치는 영향을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물과 종이배의 관계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AN compares the impact of emotional changes on the surroundings to a paper boat on water being swayed by the wind.

#painting #masan #PaperBoat #wind

#회화 #마산 #종이배 #바람



윤복희 Bockhee YOUN

(1948, 한국)
한국 안면도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48, Korea)
Born in Anmyeondo,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윤복희는 정원에 피어난 꽃부터 길에 피어난 들꽃, 잡초에 이르기까지 꽃의 다양한 색채와 형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과거에는 전통기법의 수묵산수화를 기반으로 작업했으나, 최근에는 변화하는 자연의 다채로움을 포착하기 위해 빠르게 마르는 아크릴로 야외 사생을 즐기기도 한다.

YOUN is interested in depicting flowers in various colors and shapes, from garden blooms to wild flowers and weeds on the roadside. Her recent works are a departure from her earlier ink and wash landscape series, as she often works with quickly drying acrylic paints to capture the vibrant changes of nature in the open air.

#회화 #마산 #실경 #꽃

#painting #masan #RealWorldLandscapes #flower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20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21

이혜경 Hyekyung LEE

(1963,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3,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혜경은 자연을 재연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연에서 받은 감동과 울림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하게 색채 실험을 하고, 화면에서 전체의 균형을 잡아 자연의 깊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EE goes beyond simply recreating scenes from nature. She experiments with creative color combinations to describe the emotions and impressions evoked by nature and reconstructs its depth with a balanced composition.

#회화 #마산 #자연 #울림

#painting #masan #nature #impressions



전귀련 Gwilyeon JUN

(1958,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8,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전귀련은 현대사회의 개발과 난립 속에서도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자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제로 작업한다. 희망과 치유의 힘을 가진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냄으로써 또 다른 희망을 암시하고자 한다.

JUN focuses on the power of nature to support life against the odds, as well as the endless creations and destructions by nature. Her spirited portrayals of nature on canvas instill a sense of hope.

#painting #masan #nature #hope

#회화 #마산 #자연 #희망



D3

522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23

전창환 Changhwan JEON

(1963,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3,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전창환은 기쁨, 사랑, 열정, 부귀, 영화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 모란을 주요한 주제로 삼아 회화를 그린다. 그는 대상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응을 담아내는 독자적인 표현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ON's paintings feature the peony as the main subject matter, a flower that is tied to multiple meanings, such as joy, love, passion, wealth, and prosperity. They embody the artist's response to the subject and their rich meanings.

#painting #masan #peony #symbol

#회화 #마산 #모란 #상징



정순옥 Soonok JEONG

(1959,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9,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정순옥은 고향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지내면서 일상에서 겪었던 일, 만났던
사람과 풍경을 자신만의 색채로 그림에
담는다.

JEONG was born and lives and works in
Masan. She highlights events, people and
scenes of everyday life through her own
lens.

#painting #masan #EverydayLife #scene

#회화 #마산 #일상 #풍경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D3

524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25

정재훈 Jaehoon JEONG

(1968,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8,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정재훈은 친환경 공예 작가이다.
주재료는 친환경 종이밴드인
‘에코크래프트’이다. 얇은 종이실 끈
12개를 붙여서 만든 밴드로 이를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어서 바구니, 가방
소품 등을 만든다.

JEONG is an eco-friendly craft artist
specializing in “Eco Craft” which is
recycled pulp tape made of 12 paper
strings lined next to each other. The tape
is cut, pasted, and weaved together to
make baskets, bags, and other accessories.

#craft #masan #EcoCraft #HomeAccessories

#공예 #마산 #에코크래프트 #생활소품



정현숙 Hyunsook JUNG

(1966, 한국)
한국 함평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Hamp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정현숙은 드리핑 기법을 활용하여 캔버스에 물감을 쏟아내면서 정서의 진폭을 크게 올리는 향수를 주제로 한 회화를 그린다. 쌓인 물감이 만드는 음영과 굴곡은 농경문화의 질방석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회화 #마산 #향수 #드리핑

JUNG employs a drip technique of splashing paint onto canvas to communicate the theme of nostalgia in an emotionally resonating way. The distinctive patterns and textures of layered paint remind of straw cushions used in traditional rural homes.

#painting #masan #nostalgia #dripping



D3

526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27

조영희 Yeonghui CHO

(195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조영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는다. 여행지, 동네골목, 찻집 등의 장소를 편안한 감성으로 담고, 거기에 작가 자신의 색채를 담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화 #마산 #장소 #나다움

CHO turns snapshots of everyday life into paintings. Her works are typified by soothing and peaceful depictions of familiar places such as tourist spots, neighborhood alleys, and cafes and the use of a distinct color palette.

#painting #masan #places #BeingMyself



조은교 Eungyo JO

(1970,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0,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조은교는 책을 회화의 소재로 삼아 평면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현대인이 가진 저마다의 마음을 책에 빚댄다. 각자의 고독한 마음과 삶이 담긴 책을 열고 타인과 교감하기를 바란다. 수많은 칼질로 잘라낸 책의 단면과 풍경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한다.

JO creates two-dimensional works on the theme of "book." The artist compares different minds to different books. She hopes people will open up the book that contains their loneliness and lif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 mix of a cross-section of a book and a landscape is intended to give viewers a peace of mind.

#painting #masan #book #ModernMan

#회화 #마산 #책 #현대인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28

D3

529

조지은 Jieun CHO

(1980, 한국)
한국 서울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80, Korea)
Born in Seoul,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조지은은 새를 주된 소재로 삼아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발전된 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Best-known for her paintings of birds, CHO questions how man and nature can live in harmony in a world where the convenience of mankind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She invites viewer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what really matters in this fast-changing age.

#회화 #마산 #새 #현대사회

#painting #masan #bird #ModernWorld



주상완 Sangwan JOO

(1966, 한국)
한국 마산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Masa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주상완은 가장 멀고 대립되어 보이는 색채를 가진 검은 먹과 하얀 종이가 만나서 조화의 상생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한다. 숙련되고 세련된 필치, 꾸밈과 기교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고 생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JOO works with a visually-opposing pair of black ink and white paper to achieve a delicate balance. He considers the art of calligraphy the ultimate state of harmony that goes beyond sophisticated brushwork and skilled techniques.

#서에 #마산 #조화의상생 #생동

#KoreanCalligraphy #masan #HarmonyAndCoexistence #liveliness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D3

530

C2

531

허은주 Eunju HEO

(1974, 한국)
한국 강원도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4, Korea)
Born in Gangwondo,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허은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자연의 색을 포착하고 금색과 은색을 수회에 겹쳐 덮어 자연의 품속과 같은 편안하고 깊은 생명에너지의 느낌을 표현하고, 자연의 힘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HEO paints multiple overlays of gold and silver colors against a background of natural colors extracted from the four seasons to capture the deep and comforting feeling of life energy and celebrate the power and dynamics of nature.

#회화 #마산 #자연 #생명에너지

#painting #masan #nature #LifeEnergy



곽순희 Soonhee KWAK

(1967,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7,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곽순희는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풍경과 모티프를 캔버스에 담아낸다. 캔버스에 색을 입히고 칠할 뿐만 아니라 실로 감고 바느질하기도 한다. 한 줄의 실은 약하지만 한데 모으면 강한 힘을 발휘하듯이, 캔버스에 빚어내는 붓질과 바느질이 모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회화 #진해 #바느질 #여행

KWAK sees life as a journey and renders onto canvas the landscapes and motifs she sees around her every day. Besides painting, she also experiments with threading and sewing. A single strand of thread is weak on its own, but is powerful when woven with other strands. Brushstrokes and stitches together deliver a powerful message.

#painting #jinhae #sewing #travel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E3

532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E3

533

김미성 Miseong KIM

(1966, 한국)
한국 산청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Sanch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미성은 뜨거운 여름 녹음이 우거진 숲, 익숙한 물내음을 가진 강가의 잠자리와 참나리, 빛나는 쪽빛 바다 위의 작은 배 등 자연에서 목격한 아름다운 장면이나 몸으로 기억된 경험을 회화로 담아낸다. 작품은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한 아름다움부터 어떤 의지를 느껴지게 하는 장면,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등을 보여준다.

#회화 #진해 #풍경 #조화

KIM draws her inspiration from stunningly beautiful moments she witnesses in nature, such as a forest with lush summer foliage, dragonflies and tiger lilies by the river with a familiar water smell, and a tiny boat on glassy indigo water. She is also inspired by physical experiences engraved in her memories. Her paintings capture, among others, the random beauty of nature, a commitment to a cause, and a harmony between nature and man.

#painting #jinhae #landscape #harmony



김시윤 Siyun KIM

(1969,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9,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시윤은 오랫동안 의류, 침구류, 벽지 등의 패턴을 디자인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컴퓨터 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현재는 회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천이나 종이 등에 꽃이나 나무 등의 자연물을 소재로 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KIM was a long-time textile designer who developed patterns for apparel, bedding, and wallpapers before she grew skeptical of an increasingly digitalized approach to design and turned to painting. Her work features natural elements, such as flowers and trees, on paper or fabric.

#painting #jinhae #HandPaintFeel #WetOnWet

#회화 #진해 #손맛 #번짐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E3

534

김임숙 Imsuk KIM

(1953, 한국)
한국 고성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3, Korea)
Born in Gos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논어에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 不如 好之者 好之者 不樂之者)’라는 가르침이 있다. 작가는 이를 문인화에 대입한다. 시를 창작하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림에도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작품을 대하고자 한다.

Confucius said, “Knowing it is not as good as loving it; loving it is not as good as delighting in it.” KIM incorporates the Chinese philosopher’s teaching into her literati painting. Composing a poem, writing letters, and painting figures are a creative process that requires patience and perseverance, but she strives to love and delight in them.

#LiteratiPainting #jinhae
#KnowingItIsNotAsGoodAsLovingIt #LovingItIsNotAsGoodAsDelightingInIt

#문인화 #진해 #지자불여호자호지자불여락지자



E3

535

김정희 Jungheui KIM

(1962,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2,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정희는 의상학을 전공하고 현재 정취공예연구소 대표로서 작품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전통천연염색 기법과 유화, 포크 아트 등 현대기법을 융합하는 한편, 전통적인 민화 도상을 활용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만의 섬유채색화 장르를 구축하고자 한다.

KIM majored in fashion design and now produces original artworks and offers teaching programs in her capacity of President of the Jeonghui Craft Institute. Her work is typified by a blend of traditional dyeing techniques and modern folk art elements and designs, in pursuit of her own fabric painting genre.

#craft #jinhae #NaturalDyeing #FabricPainting

#공예 #진해 #천연염색 #섬유채색화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F3

536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3

537

김형집 Hyeongjip KIM

(1966,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6,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김형집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화를 그린다. 누군가가 자신의 작업을 보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만의 기억을 간직하기를 바란다.

KIM believes in the power of art as a tool to share his emotions with others. He hopes an encounter with his Korean paintings will help viewers understand his emotions and leave them with lasting memories.

#한국화 #진해 #감정 #현신

#KoreanPainting #jinhae #emotions #hierophany



문현주 Hyunju MUN

(1960, 한국)
한국 진주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0, Korea)
Born in Jinju,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문현주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의 손이 만들어내는 먹선에 매력을 느끼면서 서예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작가는 여전히 화선지에 채워지는 먹빛에 매료되어 있으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붓에 먹을 찍고 있다.

MUN first took up Korean calligraphy, after being fascinated by the bold, lively ink lines in his grandfather's work. The subtle variations of gray filling the paper still captivate him, as he picks up a brush every day.

#KoreanCalligraphy #jinhae #InkLines
#VariationsofGray

#서예 #진해 #먹선 #먹빛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E3

538

박남순 Namsoun PARK

(1962,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62, Korea)
Born in Changnyeong,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친구의 권유로 서예를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박남순은 어느새 20여 년 동안 꾸준히 수묵화를 해오고 있다. 작가는 아직도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PARK started Korean calligraphy as a hobby at the recommendation of her friend. Almos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but she still approaches ink and wash painting with humility and commitment.

#수묵화 #진해 #정진 #희망

#InkAndWashPainting #jinhae #commitment #hope



E3

539

박배덕 Baedeog PARK

(1948,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48,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박배덕은 디지털 이미지의 얇은 표면과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할 수 없는 평면 작업에 대해 고민하면서 입체회화라는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평면에서 위로 솟아올라 다섯 면을 가지는 회화는 사진 이미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섬세한 질감과 형태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PARK questions the meaning of the thin surface of digital images and looks for two-dimensional works that cannot be facilitated with digital images. He specializes in the experimental art of three-dimensional painting that consists of five planes. His work captivates viewers with delicate texture and shapes that are hardly captured in photographic imagery.

#회화 #진해 #입체회화 #다섯면의회화

#painting #jinhae #3Dpainting
#PaintingWithFivePlanes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G4

540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F3

541

박선동 Sundong PARK

(1955, 한국)
한국 창원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5, Korea)
Born in Changwon,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박선동은 사군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와의 조화를 추구한다. 청아하고 맑은 심신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면서 감동이 있는 예술을 관객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PARK keeps alive the legacy of the Four Gracious Plants (plum tree,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that represents the virtues expected of ancient Korean scholars, while integrating them into the modern world. She starts each painting with a pure, clear mind and body, as if in meditation, in hopes of leaving a deep impression to viewers.

#사군자 #진해 #현대와의조화 #맑은심신

#TheFourGraciousPlants #jinhae
#BalanceOfTraditionandModern #ClearMindAndBody



이지영 Jiyoung LEE

(1970,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0,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지영은 도시는 숲으로 꽃나무는 창으로 비유하여 현대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같은 공간에 현대의 어두움과 꽃나무의 따뜻함을 대비시키며 도시인의 삶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LEE compares a city to a forest, and a flowering tree to a window to highlight the duplicity of the modern world. A juxtaposition of the darkness of the urban landscape and the warmth of flowering trees represents the life of a city-dweller.

#한국화 #진해 #숲 #꽃나무

#KoreanPainting #jinhae #forest #FloweringTree



542

F3

특별전 1 — 예술과 문화의 시작: 오픈스튜디오

543

F3

Special Exhibition 1 — The Beginning of Art and Culture: Open Studio

이태호 Taeho LEE

(1971,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71,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이태호는 비오는 날에 대한 각기 다른 추억을 주제로, 우산 속 모습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유추하여 한지에 수묵으로 담아낸다.

Inspired by memories of a rainy day, LEE's ink and wash paintings open the viewer's imagination to the stories behind his protagonists under umbrellas.

#수묵화 #진해 #비 #추억

#InkAndWashPainting #jinhae #rain #memories



최대식 Daesig CHOI

(1957, 한국)
한국 진해 출생
현, 한국 창원 거주 및 활동

(1957, Korea)
Born in Jinhae, Korea
Lives and works in Changwon, Korea

최대식은 늘 변함없이 해마다 그대로 주는 자연을 사랑한다. 자연과도 같은 색감들을 사용하여 늘 변함없는 자연을 한 폭의 그림에 녹여낸다.

CHOI's works are a celebration of his fascination with nature which always gives. His extensive use of natural colors brings out the permanence and invariability of nature.

#회화 #진해 #변함없는자연 #사랑

#painting #jinhae #NatureRemainsTheSame #love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Art Salon
without Borders*

특별전 2는 해외 레지던시들이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웹, 가상, 온라인 레지던시들을 통해 스튜디오와 레지던시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새롭게 부각된 온라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개인 작가 스튜디오를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본다. 특별전2의 전시 자료는 해외 온/오프라인 레지던시의 대표와 큐레이터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문화의 시대에 레지던시 운영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지니고 있는 국내 미술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레지던시 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작가의 스튜디오를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인포사이트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 * 오프라인 레지던시(offline residency)에서 온라인 레지던시(online residency)로
- * 일상의 작업실을 창작과 교류(국내외)의 플랫폼으로
- * 교류와 협력, 그리고 체험

전시장소: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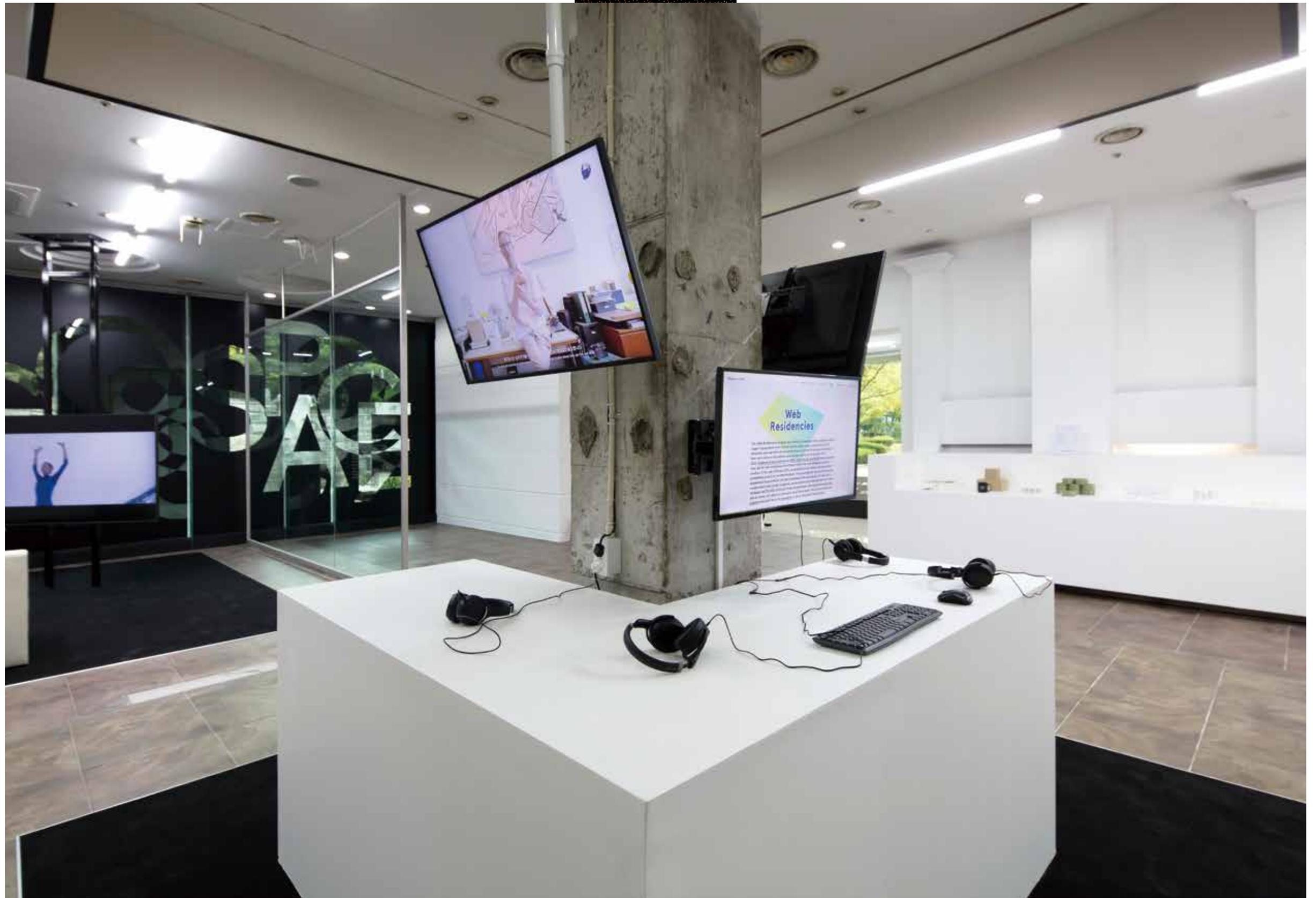
Special Exhibition 2 questions the concept of a studio and a residency through experimental web-based, virtual, and online residency program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it studies the emerging trend of virtual residency programs in the wake of the pandemic and examines whether an individual artist's studio can serve as a platform of both creation and exchanges.

The exhibits include interview clips with directors and curators of offline and online residencies overseas and Korean art professionals with a fresh perspective on residency operations in the 21st century digital era. A dedicated Information Website features insight and analysis on whether a private artist's studio can be used as a platform of creation and exchanges for an online residency.

- * From an offline to online residency
- * From an everyday studio to a platform of creation and exchanges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 * Exchanges, cooperation, and experience

Venue:

Seongsan Art Hall B1 Lounge, Website



특별전2 전시 자료

1. 인포사이트
2. 해외레지던시 대표 및 실무 책임자 인터뷰 영상
3. 국내 미술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

Featured Exhibits

1. Information Website
2.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taff of overseas residencies
3. Interviews with Korean art professionals



메타버스 제작: 정혜경

Metaverse Production: Hyekyung JUNG

특별전 2 — 국경 없는 예술 사랑방

성산아트홀 B1 라운지 / 웹사이트

552

Special Exhibition 2 — Art Salon without Borders

Seongsan Art Hall B1 Lounge / Website

553

1. 인포사이트 Information Website

인포사이트는 개인 작가 스튜디오를 ‘창작’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1) 국내외의 오프라인 레지던시의 흐름과 방향에 관한 연구 자료들, 2) 온라인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전개될 국제 교류 플랫폼의 전망들을 기술하고 있다. 인포사이트의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 인포사이트 메뉴의 구성

- 소개
- 프로젝트
- 온라인 레지던시
- 전망
- 연구자료들

2) 인포사이트 메뉴의 내용

The Information Websit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private artist studio being used as a platform of creation and exchanges by presenting research findings on emerging trends in physical residencies at home and abroad and future outlook on online residenc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in the post-pandemic world. The website consists of the following elements.

1) Menu Items

- Overview
- Project
- Online Residency
- Future Outlook
- Research Archive

2) Menu Descriptions

소개

특별전 2의 인포사이트를 구축하게 된 배경과 인포 사이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특별전 2의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전 세계의 유명한 오프라인 레지던시들의 목록, 그리고 오프라인 레지던시 연구 자료들을 구축하여 소개하고 있다. 해외 오프라인 레지던시들의 조사자료와 국내외의 오프라인 레지던시의 연구 자료들과 동향은 새로운 국제 교류 플랫폼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특히 레지던시 자료 목록은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본전시 2의 작가들을 초대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참조 자료들이 되었다.

온라인 레지던시

온라인 레지던시들의 유형과 운영방식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레지던시의 유형들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Web, Virtual, NFT, Zoom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운영방식과 사례들은 전 세계의 온라인 레지던스에서 유형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레지던시의 부문은 오프라인 레지던시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코로나 이후에 Zoom 레지던시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전 세계의 오프라인 레지던시들의 사례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Overview

The Overview page offers background on the launch of the Information Website for Special Exhibition 2 and a general description about it.

Project

The Project page details how the Special Exhibition 2 project for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unfolded over time. It also contains a list of well-known offline residencies around the globe and features research papers on offline residencies. These materials will help identify future trends in platforms of international exchanges spun off from online residency programs that have received renewed attention since the pandemic began. In particular, the residency list was used as a helpful reference when inviting artists for Special Exhibition 2.

Online Residency

The Online Residency page introduces different types of online residencies found around the world, with information on how they are run and other useful resources. As for the type, web, virtual, NFT, and Zoom-based programs are discussed, which began to appear in 2016.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Zoom-based residencies are increasingly replacing offline programs after the pandemic.

Future Outlook

The Future Outlook page provides examples of various types of residencies, such as online, offline, digital, and analog, and predicts the possible emergence of new types of online and offline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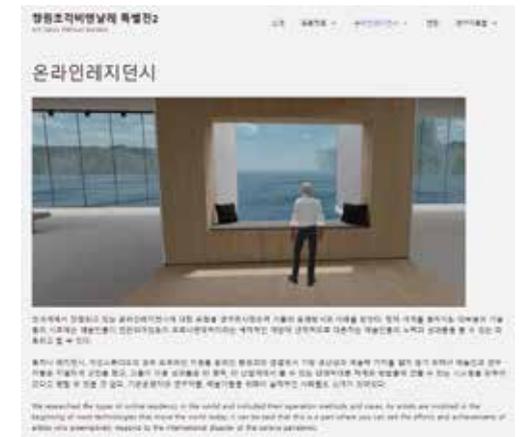
온라인과 오프라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레지던시의 다양한 유형들과 사례들을 통해 개인 작가 오픈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새로운 유형의 온/오프라인 레지던시들의 출현을 전망해 본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외의 미술 관계자들과 작가들에게 국제 교류에 대한 기회의 폭을 확장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연구 자료들

연구 자료들은 온라인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하여 오프라인 레지던시들과 코로나 이후에 국제 교류 플랫폼의 변화들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 자료들은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의 “21세기 디지털시대의 국제 교류 플랫폼과 미래형 아트 프로젝트”와 조관용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의 “온라인 레지던시와 창작과 교류 플랫폼의 인식 전환”, 그리고 주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큐레이터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넘어서: 학습 환경으로서의 레지던시” 등을 비롯하여 온라인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교류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다.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의 연구 자료는 동양의 사유 방식과 닮아 있는 21세기 디지털 문화 환경의 패러다임에 대해 기술하며, 국내외의 미술 전문가들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들을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 교류 플랫폼과 미래형 아트 프로젝트들에 대해 조망하고 있다.

주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큐레이터의



인포사이트 온라인 레지던시 부문
Online Residency page of the Information Website



인포사이트 레지던시 선별 자료
A list of selected international residencies on the Information Website

residency programs at the global level, including those centering on private artist studios. This trend could open up new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xchanges among art professionals and artists at home and abroad.

Research Archive

The Research Archive page is a collection of research materials on changing trends in offline residency program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Featured studies include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and Future-Oriented Art

연구 자료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예술가의 이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제안하며,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과 공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이 도입되는 레지던시 기관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그의 연구 자료는 디지털과 웹 레지던시가 사업 종료 후 경험을 문서화함으로써 월드와이드웹의 기반과 관련된 아카이브라는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또한 그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은 전시 기획과는 상당히 다른 경험으로 복잡성을 협상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Projects in the 21st Century Digital Era” by Jinsuk SUH, Director of the Ulsan Art Museum and “Online Residencies and the Changing Perception of Art Production and Exchange Platforms” by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nd “Beyond the Digital Divide: Residencies as Learning Environments” by Giulio VERAGO, a curator at the Viafarini residency.

In his paper, SUH discusses the reigning paradigm of 21st century digital culture that reflects an Eastern sensibility and addresses essential qualities of art professionals in today’s digital ecosystem. He also explores potential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and futuristic art projects to be built on such digital environment.

VERAGO questions the fundamental role of artist residencies in the post-pandemic world with an ongoing research project on the issue of artist mobility, while shedding light on hybrid formats in residency programs combining offline and online experiences. One of the key aspects of digital and web residencies VERAGO notes is the documentation of experiences upon completion of a project, which challenges the concept of archiving inherent to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ide web. He also acknowledges that curating an artist residency is an entirely different experience from curating an exhibition of artworks, and it involves a different way to negotiate complexity.

2. 해외레지던시 대표 및 실무 책임자 인터뷰 영상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taff of overseas residencies*

해외 레지던시 인터뷰 영상물은 국제 교류 플랫폼의 프로젝트 과정의 일부이다. 프로젝트는 특별전 2의 인포사이트에서 2022년 1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특별전 2는 오픈 스튜디오와 연계된 국제 교류 플랫폼의 프로젝트이다.

특별전 2는 창원의 오픈스튜디오를 창원비엔날레를 매개로 하여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2022년 1월부터 일상의 삶과 문화를 기반으로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국내외 레지던시들을 참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레지던시의 흐름과 대안들에 주목하여 해외 레지던시들의 운영 방향을 조사하였다.

해외 레지던시들은 resartis.org를 중심으로 인포사이트 2-2의 항목에서 보듯이 해외 주요 레지던시들을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지답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 해외 레지던시의 운영방식과 특별전 2의 국제 교류 플랫폼에 참조할 레지던시를 선별하였다.

해외에 현장 답사할 국가들과

Interview clips of directors and staff of overseas residencies are part of a project o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which is linked to the Open Studio program for Special Exhibition 1. The Information Website for Special Exhibition 2 documents in detail how the project evolved from January to September 2022.

Special Exhibition 2 explores the possibility of using open studios in Changwon as a platform of international exchanges during the Biennale period. In January 2022, the Biennale’s Curatorial Team began to study residencies in and outside Korea that functioned as a place of everyday life and culture and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In particular, the team looked at how overseas residency programs are operated,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global trends in offline residencies and viable alternatives to physical programs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As shown in one of the subpages of the Project page, major art residencies around the world were selected from Res Artis (resartis.org) for categorization and analysis. The team made site visits to learn about their modes of operation during the



1

해외 현지답사 사진

(하프하우스 감독 알베르토와 조관용 감독)

Halfhouse Director Alberto PERAL and Biennale
General Director Kwanyong CHO (left to right)

2

해외 현지답사 사진

(남효진, 조관용, 조수경, 줄리오 베라고)

Hyojin NAM, Kwanyong CHO, and Sookyeong JO with
Viafarini residency curator Giulio VERAGO (left to right)

도시들은 국제적인 미술의 흐름이 가장 활발한 독일의 베를린을 중심으로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 이탈리아의 밀라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택하였다.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는 동유럽 국가들을 대표하여 선별하였으며, 이탈리아의 밀라노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오프라인 운영 사례들을,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운영을 하기 시작한 온라인 레지던시인 Endless Residency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선별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라틴아메리카와 연계된 레지던시의 운영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선별하였다.

해외 레지던시 인터뷰 영상물은 아래의 레지던시 운영자들의 인터뷰 영상물과 레지던시들의 방문 사진이미지들, 그리고 레지던시 대표의 사진이미지들이 기록되어 있다.

해외 인터뷰 영상 주요 인물들 및 레지던시

줄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레지던시 큐레이터, Endless Residency 공동설립자)
크리스토프 탄너트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예술감독)
파울루스 푸저스 (소모스 아트 예술감독)
파트리샤 쿠버 (슬라브스 앤 타트르스 공동 디렉터)
아니타 린드 (ZK/U 레지던시 코디네이터)
알베르토 페랄 (하프하우스 아티스트 레지던시 감독)

Hangar 레지던시
Escosa 레지던시
ARAC 레지던시
Bucharest air 레지던시

pandemic and finalized a list of residencies to consider as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for Special Exhibition 2.

Destinations for site visits included Berlin in Germany which is home to the world-renowned art scene, as well as Bucharest in Romania, Milan in Italy, and Barcelona in Spain. Bucharest was selected to represent Eastern Europe, while Milan was chosen to identify offline residency programs available in the city of art and culture and delve into the Endless Residency, an online residency launched after the pandemic. Barcelona was selected to study the operation of a local residency linked to Latin America.

These trips were documented in the form of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taff members of the residencies and photographs of the residencies and their directors.

Foreign interviewees and overseas residencies

Giulio VERAGO (Curator, Viafarini Residency; Co-Founder, Endless Residency)
Christoph TANNERT (Artistic Director, Künstlerhaus Bethanien)
Paulus FUGERS (Director, SomoS Arts)
Patricia COUVET (Co-Director, Slavs and Tatars)
Anita RIND (Residency Coordinator, ZK/U)
Alberto PERAL (Director, Half House Artist Residency)

Hangar Art Residency
Escosa Residency
ARAC Residency
Bucharest AiR Residency

3. 국내 미술 관계자 인터뷰 영상 *Interviews with Korean art professionals*



국내 미술관계자 인터뷰 영상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레지던시를 기반으로 한 개인 작가 작업실에 대한 활용 방안과 국제 교류 플랫폼의 전망을 인터뷰로 취재한 영상물이다. 인터뷰의 자료들은 인포사이트5의 항목에 업로드되어 자세히 실려 있다.

국내 인터뷰 대상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10년간 담당 큐레이터로서 실무를 담당하며, 국제 교류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킨 박순영 (2022 여수 국제미술제 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22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의 국제학술포럼에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국제 교류 플랫폼과 미래형 아트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관장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국내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해외 오프라인 레지던시의 운영을 대체한 Zoom레지던시의 운영 방안과 사례들, 그리고 디지털 문화와 함께 온라인 레지던시로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웹, 메타버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의 유형에 대한 운영 방안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터뷰이

조관용 (2022 창원국제조각비엔날레 총감독)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박순영 (2022 여수국제미술제 감독)

Korean art professionals were interviewed to offer their insights on the potential use of private art studios for an online residency program and give their outlook o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in today's digital world. Transcripts of the interviews are available on the Research Archive page.

One of the interviewees is Soonyoung PARK, Artistic Director at the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who served as a curator for the Nanji Residency program at the Seoul Museum of Art for 10 years and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museum's international network. Another interviewee is Jinsuk SUH, Director of the Ulsan Art Museum who gave a presentation titled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and Future-Oriented Art Projects in the 21st Century Digital Era” at the Biennale's International Scholarly Symposium this year.

PARK and SUH analyzed examples of overseas Zoom-based residency programs which have replaced physical ones since the pandemic, as well as experimental digital residencies focusing on web, metaverse, and NFT technology based on blockchain.

Interviewees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Jinsuk SUH (Director, Ulsan Art Museum)
Soonyoung PARK (Artistic Director,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2)

프로그램 Program

특별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주남 프로젝트: 나비아 청산가자

Junam Project: Towards the Utopia

- * 기간: 2022. 11. 1. -
- * 장소: 주남저수지
- * 참여작가: 강나현, 정유나

- * Date: 1. Nov. 2022. -
- * Venue: Junam Reservoir
- * Artist: Nahyun KANG, Yuna JUNG

‘나비아 청산가자’는 나비가 꽃을 둘러싼 형태를 구현한 설치 작품이다. 오랜 시간 형성된 창원시와 주민, 주남저수지의 상호작용을 나비와 꽃의 상호관계를 통해 표현하며 자연과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공생관계를 조명한다. 자연생태형이자 영구재료인 세라믹을 사용한 나비형상부조가 벽면에 부착된다. 각각의 나비에는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참여작가의 이름이 무늬로 새겨진다. ‘나비아 청산가자’에서 청산은 ‘이상’, 나비는 ‘이상향’을 바라보는 현실, 또는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곧게 뻗어 나간다는 점에서 민화에서 대대로 꽃 중의 군자로 알려져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상징한다. 작품에서 연꽃은 나비(인간)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다.

Towards the Utopia is an installation depicting butterflies flocking to flowers. The interplay between the butterflies and flowers sheds light on not only the decades-old relationship shared between the city of Changwon, its residents, and Junam Reservoir, but also the symbiosis between man and nature. The relief butterflies are made of ceramic, an eco-friendly and permanent medium. The names of artists featured at this year's Biennale are engraved on each butterfly. The “utopia” in the title symbolizes the ideal, while the butterfly represents us as we push the reality toward the ideal. In traditional Korean folk paintings, the lotus stands for a man of virtue, as it emerges pure and clean from the muddy waters. The plant is also the symbol of happiness and prosperity. In this piece, it represents the utopia that the butterfly (man) wishes to reach.



〈나비아 청산가자〉, 2022
도자기
354×266cm, 가변설치



Towards the Utopia, 2022
Ceramic
354×266cm, Variable installation

국내 학술 심포지엄
양자역학과 현대미술 담론의 변화

* 기간: 2022. 8. 19.
* 장소: 창원대학교 81호관 1층 국제회의장

시간	연사	프로그램명
오프닝		
13:00 ~	사회: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개회사 및 내빈소개
Section 1. 파동 너머, 현대 조각의 쟁점들		
13:10 ~	조관용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기조강연
13:30 ~	이강영 (입자물리학자, 경상대 교수)	스케일과 양자역학
13:50 ~	이진명 (미술평론가, 2022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감독)	양자역학과 현대조각의 관계
Section 2. 시간, 주파수, 에너지		
14:25 ~	이완 (참여작가, 2017베니스 비엔날레한국관 대표작가)	Proper Time
14:45 ~	백정기 (참여작가, 울산미술관 개관 초대작가)	능동적인 조각
15:05 ~	박일 (참여작가, 전파상 멤버)	기계, 인간, 신
Section 3. 경계 없는 예술과 생명의 지평들		
15:25 ~	박춘호 (기획자,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	이 시대 조각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이면서 입자인가?
15:45 ~	심상용 (서울대미술관 관장, 서울대 교수)	생명
Section 4. 종합토론		
16:25 ~	윤진섭 좌장 (좌장, 미술평론가, 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Scholarly Symposium
Quantum Physics and Changing Discourse
in Contemporary Art

* Date: 19. Aug. 2022
* Venu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ime	Panel	Program
Opening		
13:00 ~	Moderator: Juewon KIM (Chief Curator, Daejeon Museum of Art)	Opening remarks and acknowledgements
Session 1. Beyond the wave: Key issues in contemporary sculpture		
13:10 ~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Keynote speech
13:30 ~	Kangyoung LEE (Particle physicist and Professor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cale and quantum mechanics
13:50 ~	Jinmyeong LEE (Art critic and Director of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2022)	Relationship between quantum mechanics and modern sculpture
Session 2. Time, frequency, and energy		
14:25 ~	Wan LEE (Featured artist at Changwon Biennale 2022 and lead artist at Venice Biennale's Korean Pavilion)	Proper Time
14:45 ~	Jungki BEAK (Featured artist at Changwon Biennale 2022 and inaugural exhibition at Ulsan Art Museum)	Active sculpture
15:05 ~	Earl PARK (Featured artist at Changwon Biennale 2022 and member of media artist group Jonpasang)	Machine, man, and God
Session 3. Expanding the horizon of art and life		
15:25 ~	Choonho PARK (Chief Curator, Kim Chong Yung Museum)	Today's sculpture: Wave or particle... or both?
15:45 ~	Sangyong SHIM (Direc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and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fe
Session 4. Panel discussion		
16:25 ~	Jinsup YOON (Chair, art critic and former President of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프로그램



566

Program

567

해외 학술 심포지엄
팬데믹 이후 국제 교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레지던시 흐름을 중심으로

- * 기간: 2022. 10. 8.
- * 장소: 성산아트홀 소극장

시간	연사	프로그램명
오프닝		
13:00 ~	사회: 박순영 (2022여수국제미술제 예술감독)	내빈소개
13:05 ~	김영호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개회사
Section 1. 국제 교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13:10 ~	조관용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기조강연
13:30 ~	김홍희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장)	팬데믹 이후, 대안공간의 '리셋'을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
13:50 ~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국제 교류 플랫폼과 미래형 아트 프로젝트
14:10 ~	휴식	
Section 2. 코로나 이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변화		
14:25 ~	파트리샤 쿠버 (슬라브스 앤 타타르스 공동 디렉터)	베를린의 슬라브스 앤 타타르스 멘토십 레지던시
14:45 ~	주리오 베라고 (비아파리니 레지던시 큐레이터)	디지털 격차를 넘어서: 학습 환경으로서의 레지던시
15:05 ~	파울루스 푸저스 (소모스 아트 예술감독)	코로나 이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변화
Section 3. 국제 교류 플랫폼으로서의 부울경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역할		
15:25 ~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비엔날레 10년의 성과와 지역사회 속 역할
15:45 ~	노형석 (한겨레신문 예술전문기자)	부울경 미술벨트의 잠재력을 생각한다.
16:05 ~	휴식	
Section 4. 종합토론		
16:25 ~	김진엽 좌장 (서울대학교 교수)	

*International Scholarly Symposium
How to make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after the Pandemic
- Focus on the Direction of Residency Program*

* Date: 8. Oct. 2022
* Venue: Seongsan Art Hall

Time	Panel	Program
Opening		
13:00 ~	Moderator: Soonyoung PARK (Art Director,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troduction
13:05 ~	Youngho KIM (Chairperson of Steering Committee)	Welcome speech
Section 1. How to make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13:10 ~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2022 CWSB.)	Keynote speech
13:30 ~	Hong-hee KIM (Chairperson, Nam June Paik Cultural Foundation)	A New Breed of Alternative Spaces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in a Post-Pandemic World
13:50 ~	Jinsuk SUH (Director, Ulsan Art Museum)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s and Future-Oriented Art Projects in the 21st Century Digital Era
14:10 ~	Break	
Section 2.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art exchange program after the COVID19		
14:25 ~	Patricia COUVET (Co-Director, Slavs and Tatars)	Slavs and Tatars Mentorship-residency program in Berlin
14:45 ~	Giulio VERAGO (Curator, Viafarini)	Beyond the digital divide: residencies as learning environments
15:05 ~	Paulus FUGERS (Director, SomoS Arts)	The change of the overseas art exchange program after the COVID19
Section 3. The role of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as an International art exchange platform in Buwoolgyung(mega-city belt in southern coast of South Korea)		
15:25 ~	Heykyung KI (Director, Busan Museum of Art)	A Look Back on 10 Years of Changwon Biennale and Its Role in the Community
15:45 ~	Hyungsuk ROH (Professional Journalist in Art and Cultural Herrytage, Hankyoreh Newspaper)	Exploring the Potential of the Bu-Ul-Gyeong Art Belt
16:05 ~	Break	
Session 4. Panel discussion		
16:25 ~	Jinyup K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프롤로그 전

Prologue Exhibition

- * 기간: 2021. 11. 5. - 11. 21.
- * 장소: 성산아트홀
- * 참여작가: 강원택, 김범수, 김정은, 똬, 이기일, 이승연, 이완, 이용백, 임형준, 정혜경, 한진수

- * Date: 5. Nov. 2021 - 21. Nov. 2021
- * Venue: Seongsan Art Hall
- * Artist: Wontaek KANG, Beomsoo KIM, Jungeun KIM, Mioon, Kiil LEE, Seungyoun LEE, Wan LEE, Yongbaek LEE, Hyoungjun LIM, Hyekyung JUNG, Jinsu HAN



아티스트워크숍

Artist Workshop

- * 기간: 2022. 5. 13. - 5. 14.
- * 장소: 창원특례시 일원
- * 참여자: 총감독,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학예팀,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참여작가

- * Date: 13. May. 2022 - 14. May. 2022
- * Venue: Changwon City District
- * Participant: General Director, Curatorial Team,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epartment, Participating Artists



시민강좌: 생명의 얽힘

- * 기간: 2022. 8. 3. – 10. 12.
- * 장소: 성산아트홀 아트티비 및 유튜브채널 창원아트TV

일시	강연자	주제
8. 3.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동시대 생태주의의 조건, 테크놀로지의 항해술
8. 17.	최명애 (KAIST 인류세연구센터 교수)	인류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31.	최유미 (수유너머104 연구원)	슈뢰딩거의 고양이
9. 14.	강호정 (연세대학교 교수)	생태계의 다양성을 엮다
9. 28.	최태만 (국민대학교 교수)	재난과 미술
10. 12.	조관용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파동 너머, 생명의 저편: 2022창원조각비엔날레의 주제 및 전시 구성



Public Lecture: Entanglement of Life

- * Date: 3. Aug. 2022 – 12. Oct. 2022
- * Venue: Seongsan Art Hall, Changwon Art TV YouTube channel

Date	Speaker	Lecture title
3. Aug.	Kwangsuk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at is contemporary ecologism?: Navigating today's technology landscape
17. Aug.	Myungae CHOI (KAIST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Welcome to the Anthropocene
31. Aug.	Yumi CHOI (Researcher, Suyunomo 104)	Schrödinger's cat
14. Sep.	Hojeong KA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Enhancing diversity of ecosystems
28. Sep.	Taeman CHOI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Disasters and arts
12. Oct.	Kwanyong CHO (General Director,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Beyond the wave: Theme and composition of th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작품제작워크숍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 * 기간: 2022. 9. 19. - 10. 2
- * 장소: 성산아트홀
- * 참여작가: 미칼 가비쉬, 벤하드 드라즈, 크리스 마이어, 알리스테어 맥클라이먼트, 마르코 바로티, 유르겐 스타크, 파레틴 오렌리, 마이클 위틀, 카토 츠바사, 알리시아 크바데, 안씨 타울루, 에디 프라반도노, 시모나 호이먼스, 호이팅

- * Date: 19. Sep. 2022 - 2. Oct. 2022
- * Venue: Seongsan Art Hall
- * Artist: Michal GAVISH, Bernhard DRAZ, Chris MYHR, Alistair McClymont, Marco BAROTTI, Juergen STAACK, Fahrettin ÖRENLI, Michael WHITTLE, Tsubasa KATO, Alicja KWADÉ, Anssi TAULU, Eddi PRABANDONO, Simone HOOYMANS, HOU I Ting



마샤 바이츠만 《Game of Six Senses》

Marcia Vaitsman Game of Six Senses

- * 기간: 2022. 10. 16. / 2022. 11. 12.
- * 장소: 줌 (온라인)

- * Date: 16. Oct. 2022 / 12. Nov. 2022
- * Venue: Zoom Meeting (Online)

마샤 바이츠만은 온라인 미팅 플랫폼에서 세계 각국의 참여자가 작가와 함께 오감(五感)과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기록하여 작업으로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과 작가의 물리적인 거리와 이에 수반되는 다른 생각들을 만나보고 우리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끊임없는 상호관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Marcia VAITSMAN invites participants from across the globe to share their thoughts on the five senses through a virtual meeting platform and documents their interactions. This program offer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artist and the participants, explore different perspectives, and realize that we all exist as interdependent rather than independent beings.



시민체험프로그램

- * 기간: 2022. 10. 11. - 11. 20.
- * 장소: 창원특례시 일원 작가 스튜디오

일시	강사	프로그램명
매주 금요일 10:00-12:00	강나현	오물조물 동물 빚어내기
매주 금요일 14:00-17:00	송광옥	머그잔에 그림그리기
매주 토요일 14:00-16:00	안옥희	빛의 세상 만들기
매주 화요일 15:00-17:00	김정희	자연의 색을 만나다



Learning Program

- * Date: 11. Oct. 2022 – 20. Nov. 2022
- * Venue: Each artists' studio in Changwon City

Date	Instructor	Program
Every Friday 10:00-12:00	Nahyun KANG	Making Plate into Animals
Every Friday 14:00-17:00	Kwangok SONG	Drawing on Mug
Every Saturday 14:00-16:00	Okhee AN	Light Up the World
Every Tuesday 15:00-17:00	Jungheu KIM	Meeting with Color of Nature



전시 투어 프로그램

기간	강사	프로그램명	장소
2022. 10. 7. - 11. 20. 11:00 / 14:00 / 16:00	정유미 / 진다인 김상미 / 김정삼	도슨트프로그램	각 전시장소
2022. 10. 7. - 11. 20.	도미영 / 안소연 이미화 / 이선주 이에림 / 조인경 홍미옥	단체 도슨트프로그램	성산아트홀
2022. 10. 29. / 2022. 11. 5. 14:00 - 15:00	조관용	총감독 특별투어	3-15 해양누리공원
2022. 10. 14. 14:00	이태훈	큐레이터 오픈스튜디오 투어	창원
2022. 10. 21. 14:00	유은순		마산
2022. 11. 12. 14:00	김동영		창원
2022. 11. 19. 14:00	남효진		진해



Exhibition Tour Program

Date	Instructor	Program	Venue
7. Oct. 2022 - 20. Nov. 2022 11:00 / 14:00 / 16:00	Yoomi JEONG / Dain JIN /	Docent Program	Each Exhibition Venue
7. Oct. 2022 - 20. Nov. 2022	Sangmi KIM / Jeongsam KIM / Miyoung DO / Soyeon AHN / Mihow LEE / Sunjoo LEE / Yerim LEE / Inkyung JO / Miok HONG	Group Docent Program	Seongsan Art Hall
29. Oct. 2022 / 5. Nov. 2022 14:00 - 15:00	Kwanyong CHO	Director with Special Tour	3-15 Nuri Marine Park
14. Oct. 2022 14:00	Taehoon LEE	Open Studio Tour with Curator	Changwon
21. Oct. 2022 14:00	Eunsoon YOO		Masan
12. Nov. 2022 14:00	Dongyoung KIM		Changwon
19. Nov. 2022 14:00	Hyojin NAM		Jinhae



디자인 Design

1. 디자인

전시의 핵심 개념인 양자물리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 양자물리학의 발전에 주요한 축을 이루었던 ‘빛’을 디자인의 주요한 요소로 채택하였습니다. ‘입자’라는 독립적인 개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파동’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빛’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 Design

The graphic identity of the Biennale is designed to help viewers understand intuitively the core concept behind the event, quantum physics. It uses “light” which was pivotal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quantum physics as a key design element. The visual image captures the moment a “particle” as an individual entity turns into an interacting “wave” in a rainbow of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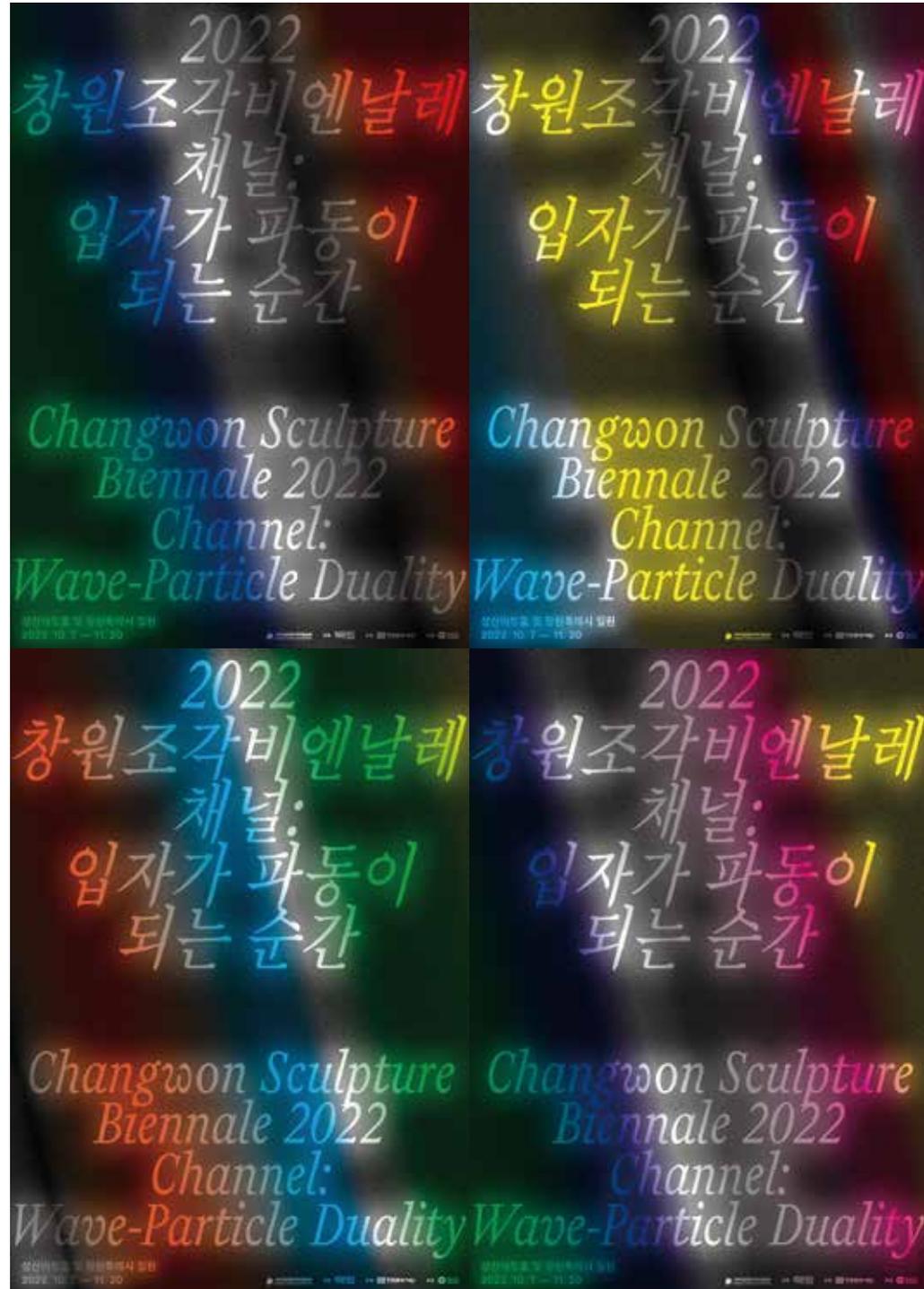


2. 메인아이덴티티

빛의 여러가지 특성 중, 눈부심/스펙트럼/ 움직임이라는 세가지 시각적 특성을 도출한 후 해당 키워드를 외부광선/그라디언트/색상변화 라는 그래픽 언어로 풀이하였습니다.

2. Main Identity

Three visual properties of light, namely its glare, spectrum, and mobility, were selected and translated into a graphic language – outer glow, gradient, and changing colors, respectively.



디자인

Design

3. 타이포그래피

글자에 외부광선 효과를 주거나 각도를 기울임으로서, 빛에 의해 그림자나 형태의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암시해보고자 하였습니다.

3. Typography

The font is italicized and an outer glow is applied to the text to illustrate the phenomenon where light creates shadow or distorts sha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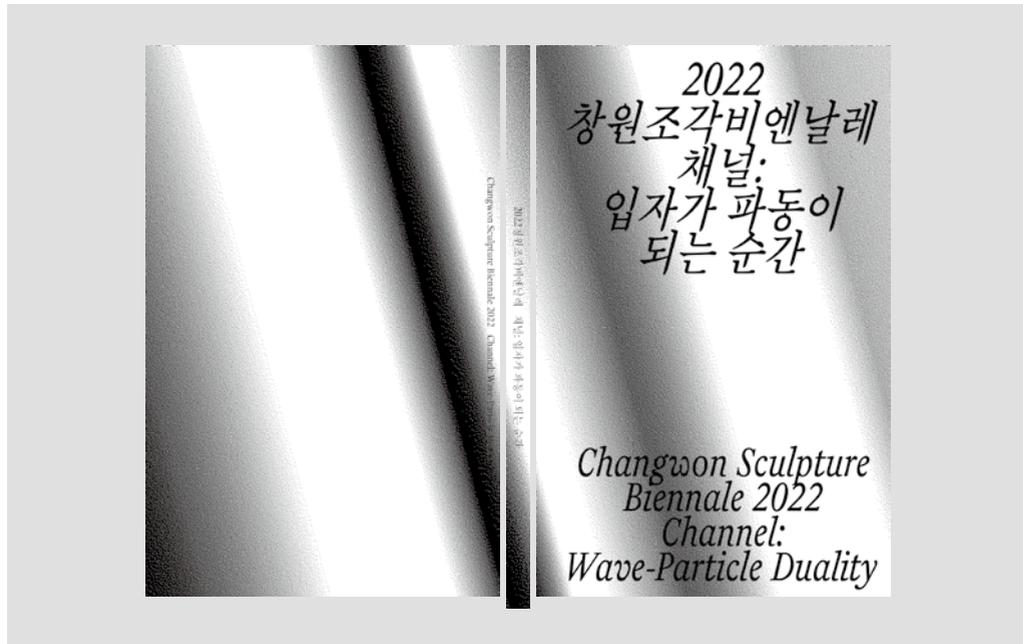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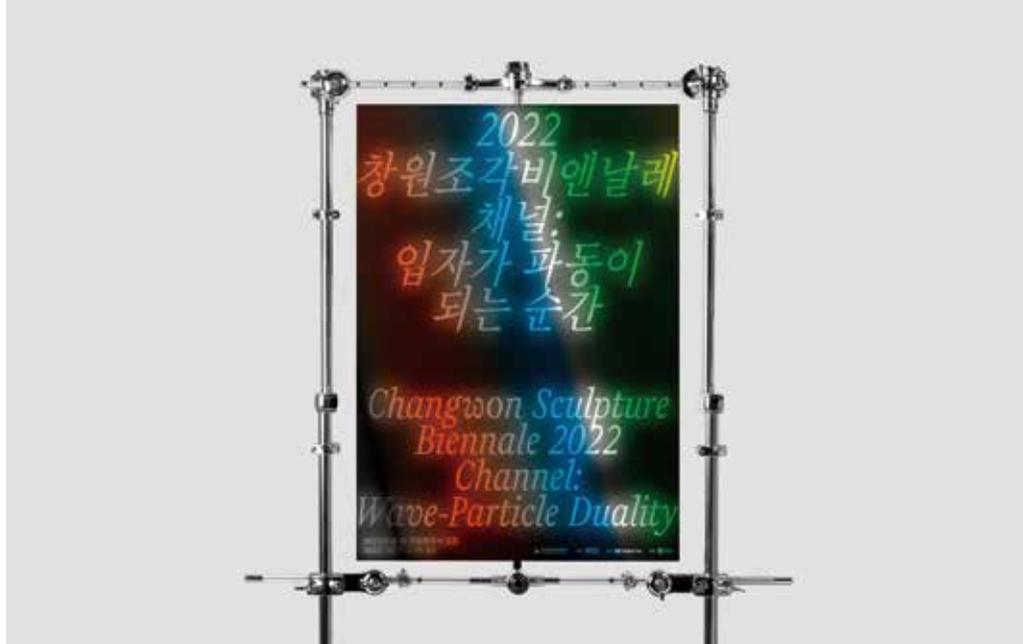


4. 베리에이션

빛의 다양한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컬러톤을 유지하기보다는 투명, 실버, 흑백, 크리스탈 등의 재료를 사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4. Variation

Transparent, silver, black and white, and crystal materials are used to represent the entire visible light spectrum, instead of keeping the color palette to a minimum.



디자인

Design



후원 및 협찬
크레딧
Sponsors
Credit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2022. 10. 7.(금) - 11. 20.(일)
성산아트홀 및 창원특례시 일원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Channel: Wave-Particle Duality
7. Oct. 2022. (Fri.) - 20. Nov. 2022. (Sun.)
Seongsan Art Hall, Changwon City District

주최
창원특례시

Hosted by
Changwon City

주관
창원문화재단

Organiz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메세나협회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yeongsangnamdo,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Korea Mecenat Association

메인 협찬사
BNK 경남은행

Main Supported by
Kyongnam Bank

협찬사
라쉬반, 네오룩, 범한산업(주), 에이티미디어랩

Supported by
Lashevan, Neolook, Bumhan Industry, ATMEDIA
LAB

창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응균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구진호
추진위원: 성보빈, 황무현, 이상현, 전진수, 이강석,
김형집, 최태만, 김이순, 김성호, 김정희, 김정혜,
윤형근

총감독
조관용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총괄: 이차균 부장
기획운영: 조수경 대리
예산 및 회계: 최선정 창원특례시 지방행정주사보
홍보마케팅: 김지수 대리, 이진아 사원
전시장 운영 지원: 박한라 대리, 양혜주 사원

비엔날레 학예팀
수석큐레이터: 이태훈
큐레이터: 남효진, 유은순
객원큐레이터: 차상민
코디네이터: 김동영, 이다솔
테크니션: 김민성, 조동국

시설관리
성산아트홀:
건축: 강연호 차장
전기: 조시운 과장
아트티비: 원주아 사원

3-15 해양누리공원, 중원로터리:
건축: 김태형 과장

시설협조
창동아트센터:
이지훈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디렉터,
한정현 창동예술촌 아트센터 큐레이터

후백다방:
유승아 대표

Mayor of Changwon City
Nampyo HONG (Chairperson of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CEO,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Ungkyun YIM

Steering Committee Members
Chairperson: Youngho KIM
Vice-Chair Person: Jinho KOO
Member: Bobin SUNG, Muhyeon HWANG,
Sangheon LEE, Jinsoo JEON, Kangseok LEE,
Hyeongjip KIM, Taeman CHOI, Yisoon KIM,
Sungho KIM, Junghee KIM, Junghye KIM,
Hyunggun YOUN

General Director
Kwanyong CHO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epartment
Executive Director: Chagyun LEE
Management and Operation: Sookyeong JO
Administration: Seonjeong CHOI
Public Relation: Jisu KIM, Jina LEE
Exhibition Hall Support: Hanra PARK, Hyeju YANG

Biennale Curatorial Team
Chief Curator: Taehoon LEE
Curator: Hyojin NAM, Eunsoon YOO
Guest Curator: Sangmin CHA
Coordinator: Dongyoung KIM, Dasol LEE
Technician: Minsung KIM, Dongguk JO

Facility Management
Seongsan Art Hall:
Building Maintenance: Yeonho KANG
Electronic Facility: Siwoon JO
Art TV: Jua WON

3-15 Nuri Marine Park, Jinhae Jungwon Rotary:
Building Maintenance: Taehyeong KIM

Facility Support
Chang-dong Art Village Art Center:
Jihun LEE,
Jeonghyeon HAN

Jinhae Black & White:
Seunga YOO

후원 및 협찬, 크레딧, 전시장 정보

Sponsors, Credit

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본전시 1: 조관용, 이태훈, 남효진, 유은순, 김동영,
이다솔, 김민성, 조동국
본전시 2: 조관용, 유은순, 차상민, 이다솔
특별전 1: 조관용, 이태훈, 유은순, 김동영
특별전 2: 조관용, 남효진
프롤로그: 조관용, 이태훈, 김동영, 양혜주

국내 학술 심포지엄: 조관용, 이태훈
국제 학술 심포지엄: 조관용, 이태훈
아티스트 워크숍: 조관용, 이태훈, 김동영
주남 프로젝트: 조관용,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작품 제작 워크숍: 조관용, 남효진, 이다솔, 조동국
시민강좌: 조관용, 유은순, 이진아
시민체험프로그램: 조관용, 유은순, 김동영, 이진아
전시 투어 프로그램: 조관용, 이태훈, 남효진,
유은순, 김동영

오디오 가이드 텍스트: 조관용, 유은순, 정유미,
진다인
개막식: 조관용, 이태훈, 창원조각비엔날레부,
MBC경남

도슨트 및 스태프
정유미, 진다인, 김경선, 김상미, 김정삼, 김지양,
도미영, 박현정, 백초희, 손의동, 신지안, 안소연,
이미화, 이선주, 이에림, 이윤경, 장성주, 조인경,
최국현, 홍미옥

Curated and Program Managed by
Main Exhibition 1: Kwanyong CHO, Taehoon LEE,
Hyojin NAM, Eunsoon YOO, Dongyoung KIM,
Dasol LEE, Minsung KIM, Dongguk JO
Main Exhibition 2: Kwanyong CHO, Eunsoon YOO,
Sangmin CHA, Dasol LEE
Special Exhibition 1: Kwanyong CHO, Taehoon
LEE, Eunsoon YOO, Dongyoung KIM
Special Exhibition 2: Kwanyong CHO, Hyojin NAM
Prologue Exhibition: Kwanyong CHO, Taehoon
LEE, Dongyoung KIM, Hyeju YANG

Scholarly Symposium: Kwanyong CHO,
Taehoon LEE
International Scholarly Symposium: Kwanyong
CHO, Taehoon LEE
Artist Workshop: Kwanyong CHO, Taehoon LEE,
Dongyoung KIM
Junam Project: Kwanyong CHO,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epartment
International Artist Workshop: Kwanyong CHO,
Hyojin NAM, Dasol LEE, Dongguk JO
Public Lecture: Kwanyong CHO, Eunsoon YOO,
Jina LEE
Learning Program: Kwanyong CHO, Eunsoon YOO,
Dongyoung KIM, Jina LEE
Tour Program: Kwanyong CHO, Taehoon LEE,
Hyojin NAM, Eunsoon YOO, Dongyoung KIM

Audio Guide Text: Kwanyong CHO, Eunsoon YOO,
Yoomi JEONG, Dain JIN
Opening Ceremony: Kwanyong CHO, Taehoon LEE,
Changwon Sculpture Biennale Department,
MBC Gyeongnam CORP.

Docent and Staff
Yoomi JEONG, Dain JIN, Kyungsun KIM, Sangmi
KIM, Jeongsam KIM, Jiyang KIM, Miyoung DO,
Hyunjeong PARK, Chohee BAEK, Euidong SON,
Jian SIN, Soyeon AHN, Mihow LEE, Sunjoo LEE,
Yerim LEE, Yunkyung LEE, Sungju JANG, Inkyung
JO, Guk hyeon CHOI, Miok HONG

그래픽디자인
오혜진 (오와이이), 임하영

공간디자인
프랍서울

공간공사
(주)대륙건설

구조물제작
(주)유존건설

본전시2 홈페이지 디자인
김규호

특별전2 홈페이지 디자인
에이티미디어랩

특별전2 인터뷰 영상 제작
스튜디오 정비소, 조수경

특별전2 메타버스 제작
정해경

작품운송
선진아트(주), (주)큐비스아트

작품대여
피닉 갤러리

미디어 장비 대여 및 설치
베이컨트썬, 올미디어

해양 작품설치
(주)청우ENG

번역
워드토피아

전시전경 촬영
박홍순

오디오가이드 녹음
록시사운드

옥외 및 인쇄 홍보물
남성인쇄, 애드플러스, 고은인쇄사, 마산광고사,
인디컴광고기획, 보성프린트, 씨엠에컴,
성원정판인쇄, 가인디지털, 남이디자인

Graphic Design
Hezin O (OYE), Hayoung IM

Exhibition Space Design
PROP SEOUL

Exhibition Hall Construction
Daeruk Construction Co.

Pedestal Production
Youzone Construction Co.

Main Exhibition 2 Homepage Design
Kyuhoo KIM

Special Exhibition 2 Homepage Design
ATMEDIA LAB

Special Exhibition 2 Interview Video Production
STUDIO JEONGBISO, Sookyeong JO

Special Exhibition 2 Metaverse Production
Hyekyung JUNG

Transportation
Sunjin Art Services Co., Qbis Art Co.

Loaned by
KÖNIG GALERIE

Media Equipment
VACANCE SCENE, All-media

Offshore Installation
Chungwoo ENG

Translation
Wordtopia

Photography
Hongsoo PARK

Audio Guide Recording
Roxy Sound

Promotion Materials and Printing
NAMSUNG&PRINTING CO. LTD., ADplus, Goeun
Print, Masan Advertising Company, Indicom
Advertising, Bosung Printing, CM Adcom, Sungwon
Printing, Gain Digital., Nami Design

후원 및 협찬, 크레딧, 전시장 정보

590

2022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경남지역 재투자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늘 든든한 지역의 동반자로
지역과 고객을 위해
경남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재투자 평가란? -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
- 평가항목은 지역 내 자금, 공금,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점포수 등 인프라,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등 지역금융 지원 전략

BNK 경남은행



분리가 정답이다!



제조원 라쉬반

판매: 주식회사 라쉬반코리아 / (주)에스제이트랜드

네오록 neolook.com Since 1999 来艺录库

네오록은
남한의 시각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비물질 아카이브 시스템입니다.

neolook is a nonmaterial archive system
for database construction
to store visual images produced in South Korea.

来艺录库是,
为了构造南韩视觉形象资料库而建立的
非物质存档系统。

ネオロクは、
南韓の視覚イメージデータベースを構築するための
非物質アーカイブシステムです。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범한은 압축기와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이넷 주주사의 일원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오픈한 서울 마곡의 범한 기술원을 중심으로 세계최고의 수소연료전지 제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제조
- 기체압축기 제조
- 선박용 전력 및 통신케이블 제조
- 수소 충전 스테이션



범한기술원(서울 마곡)

에이티 미디어 랩

WWW.ARTTIMESNEWS.COM

비즈니스문의 :
ARTTIMESNEWS@GMAIL.COM

시각예술전문미디어
아트타임즈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특화된 미디어개
발, 광고, 웹개발, 전시기획,
출판, 연구, 갤러리, 온라인
마케팅, 번역등 업무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홍남표 (창원시장)

편집

조관용, 이태훈, 남효진, 유은순, 김동영, 이다솔

글쓰기

조관용, 유은순, 김동영, 참여작가

발행처

(재)창원문화재단

발행일

2022. 11. 24.

디자인

오혜진 (오와이이), 임하영

번역

워드토피아

인쇄

(주)남성기획인쇄

© 창원문화재단 2022

이 책에 수록된 글과 도판은 (재)창원문화재단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Publisher

Nampyo HONG (Mayor of Changwon City)

Editor

Kwanyong CHO, Taehoon LEE, Hyojin NAM, Eunsoon YOO, Dongyoung KIM, Dasol LEE

Writer

Kwanyong CHO, Eunsoon YOO, Dongyoung KIM, Participating Artist

Published by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Date

24. Nov. 2022

Design

Hezin O (OYE), Hayoung IM

Translation

Wordtopia

Printing

NAMSUNG&PRINTING CO. LTD.

© 2022,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from Changwon Cultural Foundation.